

간행물 관리 번호
농어촌교육 위탁연구-202502

농어촌 '새로운 학교' 모델 개발 연구

농어촌 '새로운 학교' 모델 개발 연구



국립공주대학교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



간행물 관리 번호
농어촌교육 위탁연구-202502

농어촌 ‘새로운 학교’ 모델 개발 연구

연구책임자: 허 준 (영남대학교)

공동연구자: 양희준 (한국교육개발원)

조현주 (영남대학교)

연구보조원: 곽관경 (영남대학교)

2026. 1.



국립공주대학교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

제출문

본 보고서를 ‘농어촌 ‘새로운 학교’ 모델 개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1월 30일

※ 이 연구는 2025년도 국립공주대학교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나,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분석 내용이나 정책 제언 등은 연구진들의 견해로서 국립공주대학교 중앙농어촌교육지원 센터의 공식적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 요약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원, 급감하는 인구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지역 소멸과 같은 담론이 등장할 정도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자연, 생태 등 풍부한 교육 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관계 등의 가용 자원을 활용하여 농어촌 환경에 적합한 학교 모델을 개발하고 운용할 잠재력을 지닌다. 본 연구는 농어촌 교육이 갖는 강점에 주목하여 ‘새로운 농어촌 학교’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2장에서는 농어촌 교육의 현황과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다. 농어촌 교육의 인구학적 현황, 교육 규모,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인구의 감소 경향, 과소화된 교육 규모 현상은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었다. 시도교육청 등 정책당국은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여 통합 운영학교 확대, 공동 통학구역 등 학교의 설립 및 운영 관련 정책, 교원 초빙이나 지역 구분 임용제 등 교직원 관련 정책, 공동 교육과정이나 지역 연계 교육과정 등 교육과정 정책, 통학 편의 제공과 학생 유치, 포괄적인 재정 지원사업 등 행·재정적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었다.

3장에서는 ‘새로운 농어촌 학교’ 모델 개발을 위하여 국내외 미래교육 담론을 분석하였다. 해외 미래교육 동향으로는 국제기구(OECD, UNESCO) 담론을 분석하였고, 국내 담론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중심의 미래교육 담론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미래교육에 대한 논의는 ‘급격한 사회 및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요구’에서 출발하며, 기존의 지식습득, 학업성취 중심 교육체제의 한계와 ‘에듀테크를 활용한 개별화 맞춤형 학습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학교 기능의 확장, 새로운 교육 가치의 설정, 맞춤형·격차 해소·연결의 도구의 설계, 교사의 역할 재정립과 농어촌 맞춤형 교원 지원 체계 구축, 지방분권형 교육 거버넌스와 농어촌 학교 모델의 결합 등의 농어촌 교육 개선의 도전적 과제가 제시되고 있었다.

4장에서는 최근 "농어촌 참 좋은 학교" 사례집 텍스트를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빈도/TF-IDF), 의미 연결망(키워드 네트워크), 에고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첫째, ‘학교’와 대등한 수준의 ‘마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둘째, 정량적 ‘학력’보다 정성적 ‘성장’ 가치의 빈번하게 출현하고 있었고, 셋째, 매개 중심성이 높은 실행 도구로서의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있었다. 또한, ‘협력’과 ‘지원’으로 연결된 학부모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은 ‘농어촌 참 좋은 학교’의 우수 사례들이 ‘마을(토대)-프로그램(매개)-진로·행복(가치)-공동체(협력)’라는 4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음을 정량적으로 확인시켜주었다.

5장에서는 농어촌 학교 관계자 43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 또는 초점 집단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농어촌 학교의 어려움, 농어촌 학교의 가능성과 희망, 농어촌을 위한

새로운 학교 모델 상상,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요구 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이를 종합하여 다음의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농어촌 학교를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계하여 지역 교육 생태계의 허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둘째, 농어촌 학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교원 확보와 인사제도 혁신이 시급하다. 셋째, 교육과정의 지역화와 유연화가 필요하다. 넷째, 농어촌 학교의 작은 규모와 공동체적 환경은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다섯째, 농어촌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과 제도의 유연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6장에서는 2장~5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농어촌 학교 모델을 구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 학교의 새로운 모델을 '마을-권역 네트워크형 공공 학습 플랫폼'으로 정의하고 그 구성 요소와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마을-권역 네트워크형 공공 학습 플랫폼'은 마을(생활권)을 중심으로 학교, 지역사회, 디지털 플랫폼, 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권역 단위(행정권)에서 유아-초등-중등-평생교육과 학교-가정-지역을 상시적으로 연결하고 결합하여 마을과 권역의 교육, 돌봄, 문화 기능을 수행하며, 인적 시설, 예산 자원을 공유, 분산, 연대하는 공공 학습 운영 플랫폼으로 (1) 학교 기능 재배치('작은 학교'에서 '마을 배움 플랫폼'으로 전환, 배움 공간을 학교-마을 전역으로 확장, 전 생애 학습 체계 연계), (2) 학교 행정 재배치(단위 학교 중심 행정에서 순회형, 네트워크형 행정으로 전환, 권역 단위 공동 지원), (3) 교육과정 재배치(표준형 교과 운영을 넘어 권역 공동 교육과정, 지역 연계 교육과정, 온라인-오프라인 혼합형을 결합), (4) 학생 재배치(학령기 중심에서 지역 미래세대, 다문화/이주 배경, 성인까지 확장, 도농 순환형 학습 경험 설계), (5) 교사 재배치(교사 개인 역량 의존을 줄이고 교육자 공동체 및 네트워크 촉진자로 역할 확장)를 구성 요소로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다음의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미래형 농어촌 학교 전환은 권역 단위 공공 학습 인프라 재설계로 추진해야 하며, 둘째 '농어촌 교육혁신 지원'(가칭)을 통한 교육과정, 학사, 인사와 인력, 재정과 회계, 시설과 공간, 협력과 위탁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모델의 실증과 검증, 그리고 확산을 위해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시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 시범 사업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모델의 표준화와 확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농어촌 학교 모델 실현을 위해 주요 주체별(정부, 시도교육청, 개별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 과제를 제시하였다. 정부 차원에서는 정책 및 제도 차원에서 농어촌 교육에 관한 국가적 정의의 재정립의 노력이 필요하며,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유연한 행정 체계와 혁신적인 인사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개별 학교 차원에서는 학교의 개방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형 공공 학습 플랫폼의 실질적 실행자로서 역할 수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역 평생교육의 실행자이자 교육 거버넌스의 중요한 주체의 하나로서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차 례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5
3. 연구 방법	6
4. 연구 절차	7
II. 농어촌 교육의 현황과 정책	9
1. 농어촌 교육 현황	11
2. 농어촌 교육 활성화 정책	16
3. 시사점	25
III. 미래교육과 농어촌 학교	27
1. 미래사회와 미래교육	29
2. OECD와 UNESCO의 미래교육	31
3. 국내의 미래교육 동향	38
4. 시사점	48
IV. ‘농어촌 참 좋은 학교’의 의미 연결망	51
1. ‘농어촌 참 좋은 학교’ 선정 현황	53
2. 미래교육 키워드 : 의미연결망 분석	54
3. 시사점	73
V. 농어촌 학교의 미래 : 면담 조사 분석	77
1. 조사 개요	79
2. 조사 결과	81
3. 시사점	140

VI. 미래형 농어촌 학교 모델 구상	145
1. 개요	147
2. 주요 구성 요소	151
3. 정책 과제들	168
VII. 요약 및 제언	173
1. 요약	175
2. 제언	177
참고문헌	181

표 차 례

〈표 1-1〉 연구 절차	7
〈표 2-1〉 인구감소지역 (89개) (행정안전부, 2021)	13
〈표 2-2〉 농어촌 지역 인구 및 교육 주요 지표	16
〈표 2-3〉 주요 농어촌 교육 정책	25
〈표 3-1〉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미래교육 개념 비교	31
〈표 3-2〉 2030 학교 교육을 위한 4가지 OECD 시나리오	33
〈표 3-3〉 UNESCO의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혁신의 방향과 주요 내용	35
〈표 3-4〉 OECD와 UNESCO의 미래교육 역량에 대한 주요 차이점	37
〈표 3-5〉 국가교육위원회의 미래교육을 위한 주요 의제	39
〈표 3-6〉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비전 및 주요 추진 과제	40
〈표 3-7〉 미래교육 관련 연구보고서에서 나타난 미래교육의 방향성	42
〈표 3-8〉 2030 서울혁신미래교육 개념의 핵심 내용 요소(목표)	44
〈표 3-9〉 경기 미래교육의 3대 기조	45
〈표 3-10〉 충청남도교육청 미래교육의 비전과 추진 전략	46
〈표 3-11〉 전남교육 대전환의 핵심 가치와 추진 전략	48
〈표 4-1〉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 연도별 선정현황	53
〈표 4-2〉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 심사 기준(교육부, 2025)	54
〈표 4-3〉 농어촌 참 좋은 학교 사례모음집 텍스트 분석 상위 100개 단어빈도 및 TF-IDF 분석 결과	55
〈표 4-4〉 농어촌 참 좋은 학교 사례모음집 텍스트 분석 상위 30개 키워드 네트 워크 분석 결과	59
〈표 4-5〉 키워드 ‘학교’ 중심 에고네트워크 구조지표	61
〈표 4-6〉 키워드 ‘학교’ 중심 에고네트워크 분석 결과	62
〈표 4-7〉 키워드 ‘마을’ 중심 에고네트워크 구조지표	64
〈표 4-8〉 키워드 ‘마을’ 중심 에고네트워크 분석 결과	64
〈표 4-9〉 키워드 ‘학생’ 중심 에고네트워크 구조지표	66
〈표 4-10〉 키워드 ‘학생’ 중심 에고네트워크 분석 결과	67
〈표 4-11〉 키워드 ‘학부모’ 중심 에고네트워크 구조지표	69

〈표 4-12〉 키워드 ‘학부모’ 중심 예고네트워크 분석 결과	69
〈표 4-13〉 키워드 ‘프로그램’ 중심 예고네트워크 구조지표	71
〈표 4-14〉 키워드 ‘프로그램’ 중심 예고네트워크 분석 결과	71
〈표 5-1〉 면담 조사 참여자 명단	80
〈표 5-2〉 농어촌 학교의 어려움	82
〈표 5-3〉 농어촌 학교의 강점과 가능성	93
〈표 5-4〉 연구 참여자들이 제안한 농어촌 새로운 학교 모델	114
〈표 5-5〉 농어촌 새로운 학교 모델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요구 ..	127

그 림 차 례

[그림 4-1] 키워드 워드 클라우드(상위 50개)	57
[그림 4-2]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60
[그림 4-3] 키워드 ‘학교’ 중심 에고네트워크 분석 시각화	63
[그림 4-4] 키워드 ‘마을’ 중심 에고네트워크 분석 시각화	66
[그림 4-5] 키워드 ‘학생’ 중심 에고네트워크 분석 시각화	68
[그림 4-6] 키워드 ‘학부모’ 중심 에고네트워크 분석 시각화	70
[그림 4-7] 키워드 ‘프로그램’ 중심 에고네트워크 분석 시각화	73
[그림 6-1] 학교 재배치의 방향성	148
[그림 6-2] 마을-권역 네트워크형 공공 학습 플랫폼 개념도	149
[그림 6-3] 미래형 농어촌 학교 기본 원리	150
[그림 6-4] 학교 기능의 재배치	154
[그림 6-5] 학교 행정의 재배치	157
[그림 6-6] 교육과정의 재배치	161
[그림 6-7] 학생의 재배치	164
[그림 6-8] 교육과정의 재배치	167
[그림 6-9] 추진 로드맵	17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 절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농어촌 교육의 현실과 과제

- 현재 세계는 기후 위기, 생태계 파괴,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민주주의의 후퇴, 디지털 전환 등 복합적인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음. 이에 성장 중심, 국가 중심, 계층 재생산적 기능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의 재구성이 요청됨(UNESCO, 2021)
- UNESCO는 『함께 그려보는 우리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보고서에서 기후 위기, 사회 불평등, 민주주의 후퇴, 디지털 전환 등의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을 새로운 사회계약의 중심축으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이 보고서에서는 학교를 연대와 공존, 생태 감수성과 시민성을 기르는 공동체적 공간으로 재정의하고 있으며, 미래 학교가 교사와 학습자의 협력, 디지털 기술의 공공적 활용, 전 생애학습 생태계의 구축을 통해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실현하는 핵심 기반이 되어야 함을 강조함(UNESCO, 2021)
- 농어촌 학교는 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수 감소와 함께 교육의 질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에도 직면해 있음. 김도기 등(2020)의 연구에 따르면, 농촌교육은 여전히 구조적 한계 속에서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복식수업 증가, 교과 선택권 부족 등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우수 교원의 유입 기피, 불안정한 재정 지원, 미흡한 ICT 기반 등으로 인프라적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2) 미래 사회의 도전과 새로운 학교

- OECD(2020)는 *Back to the Future of Education: Four OECD Scenarios for Schooling*에서 2040년을 전후한 학교교육의 미래를 네 가지 시나리오, 즉 기존 학교 체계의 점진적 진화, 민간 주도의 교육 외주화, 지역사회 기반 학습 허브로의 전환, 그리고 완전한 개인화·비공식 학습의 확산을 제시함. 특히, OECD가 제시한 3번 시나리오 “Schools as Learning Hubs(학교를 학습 허브로 전환)”는 학교를 폐쇄적 교육기관이 아니라 열린 학습 생태계의 중심지로 지역사회, 디지털 플랫폼,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간으로 전환을 의미함(OECD, 2020)

3) 농어촌 교육의 현실과 과제

- 2024년 KEDI의 교육통계에 따르면, 행정구역상 읍과 면 지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총 6,306개로 전체 유치원과 초·중·등 학교의 31.3%를 차지함. 구체적으로 보면 유치원은 29.3%, 초등학교는 35.1%, 중학교는 33.1%, 고등학교는 26.1%임. 학생 수는 이보다 낮은 비율이었는데, 전체 학생 수 중 행정구역상 읍과 면 지역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875,669명으로 전체 학생 중 15.6%였음. 학교급별로 보면 유치원생은 14.8%, 초등학생 16.0%, 중학생 15.5%, 고등학생 15.1%였음(한국교육개발원, 2024)
- 농어촌 학교는 현재 지역 소멸과 인구 소멸에 따른 학생 수 급감의 문제에 직면해 있음. 양희준 등(2022)의 연구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가 다른 지역보다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비중이 높은 전남, 전북, 경북 지역 등의 학생 수 감소 속도가 빠른 편임. 학생 수 감소가 매우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영월군, 영동군, 괴산군 등 100% 농어촌 지역임
- 농어촌 지역의 교육 격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0년대 중반 이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농어촌 학교 통폐합 정책' 중심의 구조 개편에서 탈피하여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 순회 교사 운영, 기숙형 공교육, 지역 장학재단 설립, 학습 도우미 지원, 노후 시설 개선 등 자생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예: 전북교육청, 2025) 근본적인 농어촌 교육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한 영역의 개선이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하는 등 악순환 구조 속에서 정책 효과성이 제한적으로 나타남(김도기 등, 2020)

4) 농어촌 교육에 대한 새로운 모델 제시 필요 : '미래교육형 농어촌 학교'

- 농어촌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원, 급감하는 인구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지역 소멸과 같은 담론이 등장할 정도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음
- 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학교를 중심으로 풍부한 교육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적은 학생 수,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관계 등의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농어촌 환경에 적합한 학교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할 잠재력을 지님
- 농어촌 지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새로운 학교'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농어촌 교육에 대한 결핍 모델 극복이 기대됨

2. 연구 내용

1) 농어촌 교육의 실태 및 현황

- ☐ 농어촌 교육 주요 통계(인구, 학교 수, 학생 수, 교사, 교육 여건, 변화 추이 등)
- ☐ 도-농 간의 차이(실질적 여건 중심 - 예: 진학 정보, 교과 선택권, 사교육 접근성, ICT 인프라 격차 등)
- ☐ 농어촌 교육 관련 주요 제도 및 정책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수준

2) 미래교육 국내외 담론 분석

- ☐ 국내외 미래교육의 주요 동향
 - OECD Education 2030, UNESCO 교육의 미래 관련 보고서 등 분석
 - 국내의 미래교육 정책 담론 (시도교육청의 미래교육 정책 담론)
- ☐ 참 좋은 학교 미래교육 담론 분석
 - 참 좋은 학교 선정 학교의 자료집 분석
 - 참 좋은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 관련 키워드 분석
 - 의미 연결망 분석을 바탕으로 참좋은 학교 기반 미래교육 담론 지형 탐색

3) 농어촌 교육 미래교육을 위한 관계자 인식 조사

- ☐ 주요 우수 사례별 관계자 인식 조사 : 농어촌 유학, 공동 교육과정 운영,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성인 학습자 참여 등 우수 학교 사례별 관계자 인식 조사
- ☐ 주요 관계자 : 교장과 중간관리자, 교사, 학부모, 학생, 마을교육 활동가 등 (43명)
- ☐ 인식 조사 내용 : 실행 요인, 어려움, 극복 전략, 정책적 제언 중심 등
- ☐ '새로운 학교 모델'의 주요 원칙과 방향 도출

4) '새로운 학교 모델'의 운영 및 교육과정 체제 제시

- ☐ 미래교육 실천을 위해 필요한 농어촌 교육의 기초 원칙 제시
- ☐ 미래교육 실천을 위한 '새로운 학교 모델' 제시
- ☐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체제 제시
- ☐ '새로운 학교 모델' 구현 정책 실행 과제 : 국가 및 시도교육청 수준의 실행 과제
- ☐ 중장기적 정책 방안과 우선 실행 과제 등 제시

3. 연구 방법

1) 문헌 자료 분석

- ☐ 농어촌 교육 및 미래교육 관련한 국내외 문헌 자료 분석
- ☐ 농어촌 교육 및 미래교육 관련 학술 자료, 정책 자료, 관련 정책 보고서 등을 분석
합
- ☐ 기타, 우수 사례 학교의 학교 운영, 교육과정 등과 관련한 문서 자료를 분석
- ☐ 문헌 자료 분석 결과의 활용
 - 학교 관계자 인식 조사 질문지 개발 : 심층 면담을 위한 기초 질문지 개발에 활용
 - 새로운 학교 모델링 기초 자료 : 학교 모델링 방향과 유형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새로운 학교 모델링에 따른 정책 방안 도출 : 새로운 학교 모델 구현 과정의 정책 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2) 의미 연결망 분석

- ☐ 본 연구는 참 좋은 학교 선정 학교의 사례집(2020년~2024년)을 텍스트 마이닝 기
반 의미 연결망 분석을 통해 분석함
- ☐ 사례집에 나타난 주요 키워드 간 관계 구조와 담론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처
리(정제, 불용어 처리 등)와 형태소 분석을 거쳐 핵심어를 추출하고, 키워드의 동시
출현 관계를 기반으로 연결망을 구축하였음
- ☐ 구축한 의미 연결망에 대해 중심성 등 네트워크 지표를 활용하여 핵심어의 상대적
중요도와 매개 역할을 분석하였고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을 보완적으로 확인하기 위
해 주요 핵심어를 중심으로 에고 네트워크(Ego Network) 분석을 수행함
- ☐ 분석 결과는 시각화한 연결망으로 제시하여, 핵심 키워드 군집과 관계 양상을 종합
적으로 해석함

3) 농어촌 학교 모델링을 위한 관계자 인식 조사

- ☐ 우수 사례 학교 관리자, 교사, 학부모, 학생, 기타(지역 활동가 등) 등 43명
- ☐ 문헌 분석 후, 농어촌 학교 유형별, 학교급별 학교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 ☐ 방법 : 개별 면담 또는 초점 집단 면담(FGI: Focus Group Interview) 실시
- ☐ 내용 : 농어촌 교육 실행 요인, 어려움, 극복 전략, 정책적 제언 중심 등
- ☐ 형식 : 연구 참여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면 면담과 비대면 면담을 병행

4) 연구진 협의회

- 농어촌 교육 발전을 위한 새로운 학교 모델 개발을 위하여 연구의 기획과 실행, 분석과 방안 검토의 과정을 연구진의 상호 토론과 협력적인 작업을 바탕으로 진행
- SNS, 공동 협업 툴,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활용한 일상적인 협업과 협의를 진행

4. 연구 절차

〈표 1-1〉 연구 절차

농어촌 '새로운 학교' 모델 개발 연구			
수행 단계	절차	세부 내용	세부 내용
1단계	문헌 분석	문헌 분석 1: 농촌 교육 현황	- 농어촌 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제도 - 농어촌 교육 관련 현황 및 실태 - 기타 농어촌 교육 정책
		문헌 분석 2: 미래교육 담론	- 미래교육 관련 국내외 문헌 - 주요 정책 담론으로서 미래교육
		문헌 분석 3: 의미 연결망 분석 (참 좋은 학교 사례집)	농촌교육의 주요 '희망' 키워드 분석
2단계	인식 조사	인식조사 질문지 개발	- 선행 연구 검토 - 문헌 분석 결과 검토
		관계자 인식 조사	- 대면과 비대면 조사 - 개인 면담과 FGI
		조사 결과 분석	- 농촌교육 현황 - 농촌교육의 희망 - 정책 과제 등
3단계	모델 개발	농어촌 새로운 학교 모델 개발	- 핵심 과제 도출 - 학교 운영 체제 및 교육과정 개발 체제 개발 - 새로운 학교 모델 구현을 위한 정책 방안
4단계	최종 성과물 완성		

II. 농어촌 교육의 현황과 정책

1. 농어촌 교육 현황
2. 농어촌 교육 활성화 정책
3. 시사점

II. 농어촌 교육의 현황과 정책

1. 농어촌 교육 현황

1) '농어촌' 지역의 개념과 범위

□ '농촌'에 대한 정부 부처의 상이한 정의

- 김정태 외(2008)에 따르면, '농촌'은 정부 부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각 다르게 정의됨
 - 농림부 : 동을 제외한 읍과 면 지역임. 이 정의에 따르면 읍 지역 234개와 면 지역 1,177개가 농촌 지역에 포함됨(행안부, 2024.6.)
 -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 읍을 제외한 면 지역만 '농촌'에 포함되며 면 지역 1,177개가 농촌 지역에 포함됨(행안부, 2024.6.)¹⁾
 - 통계청 : 도시 지역 이외의 지역. 통계청의 '도시' 개념은 인구밀도가 3,000명/㎢ 이상인 기초단위구, 지목 기준 도시 토지이용 면적 비율이 50% 이상인 기초단위구 중 최소 1개를 충족하면서 총인구가 3,000명 이상인 지역임. 따라서 이 외의 지역을 농촌이라고 볼 수 있음²⁾

□ '농촌'과 '농어촌'의 법적 개념

- 농촌 : 읍·면의 지역과 그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농업식품기본법)
- 농어촌 : 농업식품기본법 상의 '농촌'과 수산업 기본법상의 '어촌'을 포함하는 지역(농어업인삶의질법)

□ 인접 개념 : '소멸위험지역'과 '인구감소지역'

- 소멸위험지역 : 이상호 외(2021)는 젊은 여성 인구(20~39세) 대비 고령 인구(65세 이상)의 비율로 측정하는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함(0.2 미만이면 소멸고위험지역). 2024년 기준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130곳(57%)임
- 인구감소지역 :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

1) 읍, 면, 동의 개수(2023. 12. 31. 기준) : 읍 234개, 면 1,177개, 동 2,122개 등 총 : 3,533개
(출처 : 행안부(2024.6.)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2) 통계청의 '도시 지역' 개념

① 인구밀도가 3,000명/㎢ 이상인 기초단위구

② 지목 기준 도시 토지이용 면적 비율이 50% 이상인 기초단위구

③ 위 두 조건 중 어느 1개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총인구가 3,000명 이상인 지역

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 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함(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 제12호) → 2021년 행안부는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고시함(2026년 재고시 예정)³⁾

□ 인구감소지역과 농어촌 교육 실태

- 양희준 외(2018)의 '농촌' 지역 범위 : 읍과 면 지역을 농어촌으로 보되, '동' 지역에도 실질적인 농촌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 당시 기준으로 82개 군 지역과 인구 15만 미만의 도농복합시 포함(인구 15만 미만이라 하더라도 '도농복합시' 아닌 '일반시'는 제외)하여 총 99개 지역(기초지자체)의 목록을 도출
-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 교육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중심의 접근
 - 2021년 행안부가 고시한 89개 '인구감소지역'에는 행정구역상 '시'(동 지역)가 일부 포함되어 있음. 이는 부산의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의 남구, 서구, 강원도 삼척시, 태백시, 충북의 제천시, 충남의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전북의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경북의 문경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경남의 밀양시 등 19개 기초지자체임
 - 이 중 부산과 대구와 같은 광역시에 소재한 지역 5곳과 강원도 태백시를 제외한 13개 지역은 모두 '도농복합시'로 '농어촌'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음
 - 부산과 대구의 5곳과 태백시는 주된 산업이 농업이나 어업은 아니지만, 인구증감율, 청년 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주된 지표들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된 만큼 본 연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어촌'과 인구 관련 지표에서는 유사한 점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역적 범위로 한정하여 이 지역들의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 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표 2-1〉 인구감소지역 (89개) (행정안전부, 2021)

시도	기초지자체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출처 : 행정안전부(2021).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 제2021-66호(2021.10.19.)

2) 주요 통계로 본 농어촌 교육 현황

□ 인구학적 현황

○ 인구

-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총인구는 2025년 9월 현재 468만 명으로, 전체 인구수 5,115만 명의 9.1%에 해당함(하혜영, 류영아, 2025, p11)
- 단순히 기초지자체 89개가 226개 기초지자체 중 차지하는 비율인 39.4%나, 인구감소지역의 국토 면적이 전체 국토 면적의 59.4%에 달한다는 통계(국토교통부, 2022.〈지적통계〉. 국회도서관(2023:1)에서 재인용) 와 비교하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는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2021년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9.4%였음)
- 2024년 연앙인구 통계를 활용한 양희준 외(2024)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의 평균 인구수는 221,144명임. 그중 89개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인구수는 53,235명이며 표준편차는 31,398명임. 이는 비인구감소지역 평균 358,908명의 14.8% 수준에 불과함

○ 고령화(65세 이상)비율

-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말하는 ‘고령화 비율’은 인구감소지역이 35.91%로 나

타남. 경북 의성군의 경우 46.65%로 인구감소지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양희준 외, 2024: 22)

-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중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혹은 '후기고령사회'로 분류(박정호, 2015)하는데, 이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의 고령화 정도는 '초고령사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유소년(14세 이하) 비율

- '유소년 비율'은 전체 인구 중 14세 이하 인구의 비율을 말함. 인구감소지역 평균은 7.14%임. 비인구감소지역의 경우, 11.13%를 나타냄. 최솟값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4.00%였음(양희준 외, 2024)

○ 지방소멸위험지수 평균

- 국회도서관(2023)에 따르면, 89개 인구감소지역은 모두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됨. 즉, 89개 지역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모두 0.5 미만임
- 2024년 3월 기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위험지수 평균은 0.190으로 나타남. 20세~39세 여성 인구 평균은 3,744명, 65세 이상 인구 평균은 18,168명임(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위험지수 원자료, 2024.3.)
- 지방소멸위험지수는 0.2~0.5 미만을 '소멸위험지역' 중 '소멸위험진입단계'로 분류하고, 0.2 미만인 경우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함.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소멸위험진입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은 32개 지역, '소멸고위험지역'은 57개 지역으로 전체의 64% 정도가 '소멸고위험지역'이며, 89개 전체가 '소멸위험지역'에 해당됨

○ 전체 인구수 대비 학생 수와 비율

-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학생 수는 390,402명임. 이는 인구감소지역 전체 인구수인 4,774,103명의 8.2%에 불과함(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
- 인구감소지역 학생 수의 최댓값은 18,034명이었고, 최솟값은 472명임. 인구감소지역 지역별로 전체 인구수 대비 학생 수의 비율은 3.9%~11.8%의 분포를 보임. 평균은 7.7%임. 이는 비인구감소지역 학생 수 비율의 평균인 11.1%와 비교하였을 때 매우 낮은 수치임(인구감소지역 인구수 통계는 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위험지수 원자료(2024.3.)를 사용. 학생 수 통계는 교육통계 서비스(<https://kess.kedi.re.kr>) 제공 '시도별 행정구별 교육통계 현황의 2024년 자료를 사용)

○ 학생 수 증감율

- 2021년 대비 2024년의 초중고 학생 수의 증감율을 살펴보면, 인구감소지역은 -9.72%

감소함. 인구감소지역 중 가장 큰 감소율은 -17.82%였음. 한편, 비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감소율은 -3.01%로 인구감소지역의 3분의 1에 불과하였음(양희준 외, 2024 : 24-25)

□ 교육 규모

○ 학교 수, 학급 수, 소규모 학교 비율

- 89개 인구감소지역의 학교 수는 총 4,134개교로 집계됨. 학급 수는 26,976개로 1학교당 학급수는 6.53개임. 이 비율은 비인구감소지역과 비교했을 때 크게 작은 수치임. 비인구감소지역은 1학교당 학급 수가 15.11개임(교육통계 서비스 <https://kess.kedi.re.kr>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 학교의 규모를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는 1학교당 학생 수라고 할 수 있음. 인구감소지역 전체 학생 수를 4,134개 학교 수로 나누면 학교당 학생 수는 94.44명이 됨. 반면에 비인구감소지역은 372.33명임(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 학급 수로 보았을 때 한 학년에 1개 학급이 존재하지 않아 ‘복식학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5학급 이하 초등학교의 비율을 살펴보면, 인구감소지역은 전체 학교 수의 25.7%임. 반면에 비인구감소지역은 2.19%에 불과함(양희준 외, 2024: 26)

□ 교육의 질 관련 통계

○ 기간제 교사 비율

- 인구감소지역의 기간제 교사 비율은 비인구감소지역에 비해 높지 않음. 인구감소지역은 14.43%지만 비인구감소지역은 16.18%로 비인구감소지역이 더 낮음(양희준 외, 2024: 27). 양희준 외(2024)에 따르면 비인구감소지역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부산 등 광역시 지역에서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임

○ 학업 중단자 비율

- 인구감소지역의 학업 중단자 비율은 비인구감소지역에 비해 더 낮음. 인구감소지역은 0.86%지만 비인구감소지역은 1.06%를 보임(양희준 외, 2024: 25)

○ 1천 명당 학원 수

- 인구 1천 명당 학원 수는 지역의 정주 여건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0.84개지만 비인구감소지역은 1.74개로 인구감소지역에 비해 학원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음. 최솟값은 0.1개인데 섬 지역인 경북 울릉군이며, 비인구감소지역인 서울 강남구가 4.8개로 학원이 가장 많은 곳이었음(양희준 외, 2024: 31)

〈표 2-2〉 농어촌 지역 인구 및 교육 주요 지표

구분	세부 사항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역)	비고
인구 현황	국토 면적 비율	59.4%	
	총인구(비율)	468만 명(9.14%)	5,115만 명(100%)
	평균 인구	53,235명	226개 기초지자체 평균 221,144명
	지방소멸위험지수	평균 0.19	0.2 미만은 '소멸고위험지역'
	고령화비율	35.91%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됨
	유소년(14세 이하) 비율	평균 7.14%	비인구감소지역 평균: 11.13%
교육 규모	학생 수 비율	평균 7.7%	비인구감소지역 평균: 11.1%
	학생 수 증감율('21~'24)	-9.72%	비인구감소지역: -3.01%
	1교당 학급 수	6.53개	비인구감소지역: 15.11개
	1교당 학생 수	94.44명	비인구감소지역: 372.33명
	5학급 이하 초등학교 비율	25.7%	비인구감소지역: 2.19%
	인구 1천 명당 학원 수	0.84개	비인구감소지역: 1.74개

2. 농어촌 교육 활성화 정책

1) 국가 수준

- 국가 수준에서 '농어촌 교육'을 주제로 생산한 정책 문서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음.
과거 농어촌 지역에 관한 대표적인 교육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도 이를 제목으로 한 중앙 부처 차원의 정책 문서는 찾아보기 어려움.
- '학교 통폐합'을 포함한 학교 설립과 폐교에 관한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은 국가 수준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시·도 교육청' 수준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

-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 통폐합이 추진된 것은 1980년대 초반부터임.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는 '이촌향도' 현상이 심화하여 읍·면이나 도서벽지의 학령인구가 줄어들게 됨. 류방란 외(2018)에 따르면 1982년부터 2015년까지 약 5,400개교가 통폐합됨. 정부는 본교나 분교를 폐지하고 다른 학교와 통합하는 경우, 본교를 분교로 재편하는 경우 등에 적게는 수천만 원부터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유도해 왔음
- 2000년대 들어서서 정부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라는 명칭의 정책을 전면내세웠는데, 이는 그 정책의 명칭이 달랐을 뿐 실제의 내용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

- 근래에는 서로 다른 학교급을 합쳐서 운영하는, 이른바 ‘통합운영학교’도 늘어가고 있음. 엄밀하게 보자면 ‘통합운영학교’는 학교 통폐합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서로 다른 학교급의 두 개 학교 이상을 하나의 학교로 합쳐서 운영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명칭으로 불리지만 관련 법령에 ‘통합운영학교’가 하나의 학교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님

□ 한편, 교원 수급 조정(신규 교원 임용 감축), 지방 교육재정 조정 정책 - 예를 들어 직전 정부의 고등평생특별회계 신설 정책이나 현(現) 정부의 교육세 누진 구조 도입 정책 등은 정책의 도입 과정에 학생 수 감소 등 지방교육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했음은 분명해 보이지만 이를 직접적인 ‘농어촌 교육 활성화’ 정책으로 보기는 어려움. 왜냐하면 일차적인 정책 목적이 ‘농어촌 교육 활성화’에 있지 않기 때문임. 이러한 정책들은 ‘고등·평생교육의 진흥’이나 ‘교육재정의 확보’를 일차적인 정책 목표로 삼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으로 검토하지 않음

○ 교육부 교원 수급 정책의 변화

- 감사원이 교원 수급 계획 수립에 있어 ‘저출산 현상’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2005년 이후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였음(류방란 외, 2018). 2007년 발표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안)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신규 채용 규모는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부터는 신규 채용 인원을 퇴직 인원보다 적게 계획함(상계서: 81)
- 교육부는 2014년에 다시 ‘2015-2025년 교원 중장기 수급 계획’을 발표함. 그러나 2017년에 감사원은 이 계획에 대해서 ‘과대 추정’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 2023년 교육부는 2024년~2027년까지의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함. 이 계획에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적극적으로 반영됨. 초등의 신규 채용 교원 수는 2024년 2,900~3,200명 내외에서 2027년 2,600~2,900명 내외로, 중등의 경우 2024년 4,000명~4,500명 수준에서 2027년 3,500명~4,000명 내외로 감축하는 계획이 포함됨. 교육부는 신규 교원 채용 규모의 감축과 함께 ‘교원양성기관의 정원 조정’도 유도해 나갈 것을 천명한 바 있음

□ 이하에서는 시도교육청의 정책을 중심으로 농어촌 교육에 관련되는 정책들을 분류하여 살펴보겠음

2) 시도교육청 수준

□ 양희준 외(2024)의 인구감소지역 관련 시도교육청 주요 정책 분류를 따르자면, ‘농어촌 교육’과 관련된 정책은 크게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정도의 유목으로 분류할

수 있음. (1) 학교 설립 및 운영 관련 정책 (2) 교직원 배치 관련 (3) 교육과정 관련 (4) 행·재정적 지원 (5) 기타 등 5개로 분류할 수 있음

- 이러한 유형 분류는 교육 정책 분류에 관한 특정 이론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각 시·도 교육청의 정책 문서에 포함되어 있던 농어촌 관련 세부 정책들을 귀납적으로 분류한 것임. (1)~(4)의 각 분류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정책은 (5) 기타로 분류하였음

□ 학교 설립 및 운영 관련 정책

○ 통합운영학교 확대 정책

- 통합운영학교란, ‘학교급이 다른 초·중, 중·고, 초·중·고 간 시설, 설비와 교원 등을 합하여 운영하는 유형의 학교’를 가리킴(성열관 외, 2019: 27. 정미경 외 2020: 17에서 재인용)
- 통합운영학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89개교에 총 45억 원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 이래 2019년까지 거의 지원이 없었고, 2019년 6월 기준 102개교로 관련 정책이 ‘답보’ 상태에 있었음
- 그러나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만에 “35%” 증가하여, 2025년 4월 기준 통합학교는 전국에 138개가 지정되어 있음(머니투데이. 2025.5.21.)
- 농촌뿐만 아니라 구도심에서도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학교급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운영학교가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인 대안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통합운영학교’는 법령상 독립된 하나의 학교 종류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초등학교사와 중등학교사 간의 ‘교차 수업’이 허용되지 않으며, 그렇다고 하여 통합운영학교만을 위한 별도의 교원 양성 과정과 자격 부여가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유기적 통합’이 아닌 ‘물리적 통합’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김지혜, 2018: 1. 정미경 외, 2020: 19에서 재인용) 하기도 함

○ 학교 복합 시설

- 학교 복합 시설이란,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돌봄, 문화, 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의미함(학교 복합 시설 홈페이지, n.d.)
- 2023년 3월, 정부는 학교 복합 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이 정책의 가장 큰 문제의식은 ‘지방의 정주 여건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보임. 정부는 학교 복합 시설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과 지역 주민이 질 높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사회의 활기 복원’을 기대함(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3.3.17.)

- ‘학교 복합 시설’은 ‘단일 구성형’, ‘마을 맞춤형’, ‘지역 연계형’ 등으로 나누어짐. ‘단일 구성형’은 “단위 학교의 신설·개축 및 리모델링 시 학교 복합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기존의 학교 복합 시설 조성 방식”을 말함. 이때 설치되는 학교 복합 시설은 지역 주민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나 ‘수영장’, ‘체육관’ 등이 될 수 있음(교육부, 2023.3. 보도자료)
- ‘마을 맞춤형’은 “구도심 또는 도심 외곽 지역의 기 설립학교 및 소규모 학교와 지역 주민 맞춤형 커뮤니티 시설을 연계하는 방식”을 말함. 이 유형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발생한 학교 내 여유 공간을 학생 특별활동 공간과 지역 주민이 원하는 문화·체육 공간으로 조성”함. 폐교 공간을 활용하여 캠핑장, 전시관, 식당, 체험활동 공간으로 조성한 사례도 있음(교육부, 2023.3. 보도 자료)
- 마지막으로 ‘지역 연계형’은 “신도시 개발 및 재개발·재건축 지구 계획 단계에서 학교·지역기반시설·문화·체육시설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조성”하는 방식이나 “지역 대학의 인적·물적 역량을 활용하여 청년 취·창업 지원 시설과 주민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조성하여 지역 거점화”하는 방안을 포함함(교육부, 2023.3. 보도 자료)
- 2023년 3월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기초지자체에서 학교 복합 시설이 하나 이상 설치·운영되도록” 200개교를 선정할 계획이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 있음(교육부, 2023.3. 보도 자료 : 15)

○ 공동 통학구역 정책(학구 광역화)

- ‘공동 통학구역’ 정책은 ‘특정 지역 내 학생이 하나의 초등학교가 아닌 복수의 초등학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도록 설정한 통학구역’을 가리킴(학구도안내서비스 홈페이지, n.d.)
- 학생이 거주하는 통학구역보다 더 넓은 범위의 통학구역에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구 광역화’라고 불리기도 함
- 실제 농촌 지역에서 실시되는 ‘공동 통학구역’ 정책은 ‘제한적’ 공동 통학구역 제도라고 할 수 있음. 즉, “시나 읍 지역 학교와 면 지역 학교 간 공동 학구를 설정하되, 시나 읍 지역 거주 학생은 주소 이전 없이 면 지역 학교로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지만, 면 지역 거주 학생은 주소 이전 없이 시나 읍 지역으로의 입학이나 전학이 불가능한 제도”임. 이는 상대적으로 도시화된 지역인 시나 읍 지역에서 농촌 지역인 면 지역으로의 입학, 전학만 허용함으로써 읍 지역 학교의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면 지역에 소재한 소규모 학교의 학생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호남교육신문, 2024)

○ 분교장 개편 기준 하향 조정

- 시도 교육청별로 학생 수 감소 정도에 따라 학교를 분교로 개편하는 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충북교육청의 경우, “3년간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경우, 분교장 개편 대상으로 분류하였으나 2023년 ‘작은 학교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분교장 개편 기준을 “12명 이하”로 조정하였음
- 분교장 개편 기준을 하향 조정할 경우 지역에서는 소규모 학교라 하더라도 더 많은 학교가 ‘분교’가 되지 않고 ‘본교’의 지위로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됨. 지역사회에 학교가 유지됨에 따라 지역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시도교육청 별로 ‘소규모 학교’의 기준을 변경하여 학교 통폐합의 속도를 조절하기도 함. 일례로 전남교육청은 2023년 소규모 학교의 기준을 종래의 ‘30명 이하’에서 ‘10명 이하’로 조정함과 동시에 학교 통폐합의 대상에서 분교장을 포함한 ‘1면 1교’, ‘1도서 1교’, 병설 및 통합운영학교를 제외함으로써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폐지의 속도를 조절함(담양뉴스, 2023.5.1.)
- 전남교육청은 이를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 여건을 감안한 “적정 통폐합”으로 홍보하기도 함(전남교육통, 2024.3.26.)

□ 교직원 배치 관련 정책

○ 교원 초빙, 전보 유예, 가산점 등 교사 배치 특례

- 농어촌 지역 교원초빙제는 비록 교원 순환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 학교에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가 줄어들면서 농어촌 지역에 우수 교원을 배치하기 어려워진 현실 속에서 고안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농어촌 지역 교원초빙제의 목적은 “우수 교사를 초빙하여 농촌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학교 교육력을 제고”(남신초등학교, 2017)하기 위한 것임
-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초빙교원의 임기는 통상 4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초빙 기간이 만료된 교사는 동일 학교 재초빙이 불가하고, 1회에 한하여 다른 학교로의 초빙은 가능함.(전라남도교육청, 2025) 초빙교사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음
- 교사의 ‘전보 유예’는 시도교육청 별로 다양한 사유로 실시되지만, 농어촌 지역 교사의 경우 교사의 잦은 이동을 제어하기 위해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제도로써, 다자녀, 배우자, 다문화교육 전담 등 특정한 사유를 충족하는 교사가 1년 단위로 3~4년 정도의 일정한 기간 범위 내에서 농어촌 지역에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임
- 만일 농어촌 지역 학교에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교사가 있으면 해당 교사는 ‘전보 유예’ 제도를 활용하여 통상 교사가 한 학교에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음

- 농촌 교원 ‘가산점’ 제도는 섬 지역이나 벽지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 일정한 근무 평정 점수를 더하는 제도임. 근래 교원 승진에 있어서 가산점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가산점을 획득할 수 있는 기간은 늘어난 경우가 많아 가산점의 영향력이 여전히 존재함(김용, 2021: 7)

○ 지역구분임용제(‘지역 트랙제’)

- ‘지역구분임용제’는 농어촌 등 특정 지역에 장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신규 교사를 선발하는 제도임
- 이는 교사들이 도시 지역 등 특정 지역 근무를 선호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 교육이 취약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실시하였음
- 진숙경 외(2024)에 따르면, 이 제도의 도입은 2011년 교육공무원법 제11조에 “근무 예정지역이나 근무 예정 학교를 미리 정하여 공개 전형으로 채용하고, 채용된 교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해 ‘8년’ 동안의 전보 금지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가능해졌음
-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여 연천군과 포천시 등 2개 지역에 한정하여 초등 및 중등교사를 선발하였음. 이 제도를 통해 선발된 교사는 ‘8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 하였으나 의무 복무 기간을 다 채운 교사들은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진숙경 외, 2024: 5)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재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지역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교육감 추천 전형 및 임용제도

- 광주교육대학은 전라남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육감 추천 전형을 하고 있음
- 순천북성고등학교(2024)에 따르면, 2025년 광주교대 전남교육감 추천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 학생 소속 학교장의 추천이 필요함. 학교장을 통해 교육감 추천을 얻어 광주교대에 지원하여 합격한 학생은 “졸업 후 전남교육감이 시행하는 초등교사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임용고사)에 응시해야 하며, 합격 후 전라남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5년 이상 근무”해야 함
- 한편, 전라남도교육청(2025)은 ‘지역에 정주하는 전남 미래인재 육성’이라는 목적하에 ‘사범대학 교육감 추천 전형 및 임용제도’의 도입을 추진함. 이는 기존에 교육대학에 한정하여 실시되던 ‘교육감 추천 전형’을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학’으로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임

□ 교육과정 관련

- 농어촌에서는 학교의 교육과정 질을 높이거나 특성화하려는 정책들이 다수 시행되고 있

음. 이는 공동학구제나 농촌 유학 정책 등 학생 유치와 관련된 정책들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교육 당국이 시행해 오던 정책으로서 교육 프로그램의 질이 높아지면 학생들이 찾아오거나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 정책들이라고 할 수 있음

- 오케스트라, 승마나 골프, 서핑 등으로 방과후 교실이나 돌봄 교실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경우도 있고 '영화', '연극', '해양' 등을 주제로 학교 자체를 특성화하려는 시도도 있음.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 틀은 '지역 연계 교육과정 운영'이나 '공동 교육과정 운영'과 같은 교육과정 정책의 범위 내에서 시도되고 있음

○ 지역 연계 교육과정 운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교육과정'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 생태계 안에서 학생들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 주민이나 지역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맥락적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삶과 삶을 통합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교육과정”(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n.d.)임
- 이는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더 나은 교육 지구 사업'이라 명명한 교육청-지자체 간의 교육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교육과정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주된 추진 배경의 하나가 '학생 수 양극화', '지방 소멸', '사회적 자본 부재' 등 농촌 지역이 안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여 민·관·학이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임. 따라서 이 정책은 농어촌 교육 관련 정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음
- 지역 연계 교육과정의 운영에는 “지자체, 지역 기관, 문화예술단체, 기업, 마을교육공동체 등” 지역사회의 여러 행위 주체들이 교육과정에 참여함(전남교육통, 2025.11.14.)
-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지역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군)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20% 범위에서 시수를 증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교육과정 재구성 시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교육플러스, 2022.12.4.)

○ 공동 교육과정 운영

- 공동 교육과정 운영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에서 제한적인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됨
- 대표적인 방식은 서로 가까이 위치한 소규모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것임. 일례로 충주의 산척초등학교는 '학년 단위 공동 수업'을 약 7km 떨어진 다른 초등학교의 학생들과 공동으로 진행하며, 연중 6일은 전교생이 인근의 다른 학교 전교생과 함께 체육대회, 수련원 이용 수련 활동, 공연 관람 등의 활동을 함(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 2025).
- 공동 교육과정은 원격으로 이루어지기도 함. 일례로 경북교육청은 “전남 학급과의 원격 화상 수업”을 실시함. 이는 경북과 전남의 “교실을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같은 주제로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여 함께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영호남 지역 문화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로 시행됨(교육언론창, 2024.4.22.)

□ 행·재정적 지원

○ 통학 편의 제공

-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재학생을 위한 통학 차량이 운영되고 있음
-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우, 교육청(혹은 교육지원청) 등이 직접 통학 버스를 확보하여 운행하고 있음
- 전남의 경우에는 학생의 통학 택시비를 지원하는 ‘에듀택시’ 사업도 시행 중임

○ 농촌 유학

- 농촌 유학 정책은 2021년부터 서울시교육청과 일부 지역 교육청 혹은 기초지자체가 함께 시행해 온 정책으로서, 서울의 초·중학생(초1~중2)이 6개월 또는 1년 동안 농촌의 소규모 학교에 다니도록 하는 정책임
- 농촌 유학 기간 학생은 유학 지역으로 주소 이전 및 전학하게 됨. 2024년 12월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전라남도, 강원도, 전라북도의 교육청과 협력하여 서울 학생의 농촌 유학을 지원함. 학생들은 유학 기간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생활하거나,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활동가’가 있는 해당 지역의 ‘유학 센터’(일종의 기숙사)에 기거함. 해당 지역의 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농가에서 거주하며 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있음.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농촌 유학’은 2021년 전남을 시작으로 전북, 강원도로 확대되었으며, 농촌 유학생은 2021년 1학기 81명으로 시작하였으나 2024년 2학기에는 352명으로 늘어남
- 이 정책은 전남, 전북, 강원 등 지역의 입장에서는 “관계 인구”를 확보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서울 학생들에게는 “자연환경 속에서 자연 친화적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됨(서울시교육청, 2024)

○ 종합적 재정 지원 사업(‘미래교육지구’, ‘교육발전특구’ 등)

- 기타 농어촌 교육 관련 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종합적인 성격을 갖는 중앙정부(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재정 지원 사업이 있음. 이 사업들은 농어촌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정된 지역 중 농어촌 지역은 이 사업비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농어촌 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이 사업들은 대개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 지자체 혹은 시도교육청의 대응 자금을 조건으로 함
- 예를 들어, 2022년 교육부는 전국 33개 지역을 ‘미래교육지구’로 선정하고, 각 지역에 1억원 씩을 지원하였는데, 지원금의 100% 이상을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대응 투자하도록 하였음
-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교육부, 2022: 3)라는 문제의식 하에 “미래형 교육자치 지역 교육 협력 모델 개발”을 목표로 이루어졌음. 미래교육지구에 선정된 지역은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하에 ‘마을 교육과정 운영’, ‘일반고 역량 강화’, ‘고교학점제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함(교육부, 2022: 4-5)

-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 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지역 교육을 혁신하고 인재를 육성하며 정주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교육부, n.d.)인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재정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사업임
- 지역별로 편차는 있으나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으로 지정된 세종시의 경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국비 122억 원을 지원받게 됨.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은 이 재원에 122억 원의 지방비를 대응 투자하여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추진해야 함.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은 “늘봄 체제 구축”,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생태계 조성” 등 ‘3대 분야’의 추진 전략을 마련함(세종의소리, 2024.7.30.)

□ 기타 정책

○ 고등학교 해외 유학생 유치

- 전라남도교육청(2025)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은 (가칭)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음. 이 학교는 “다문화, 중도 입국 학생 및 해외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전문 직업교육을 운영하여 지역 산업체 취업 및 지역 정주를 지원하는 학교”(전라남도교육청, 2025)임
- 지역의 초·중등 학령인구, 학생 수 감소를 해외 유학생 유치를 통해 극복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음
- 해외 유학생 유치에 관심을 두고 있는 지역 교육청은 전남 외에도 부산, 강원, 경북, 경남 교육청 등이 있음. 이들 5개 교육청은 2024년 “해외 유학생 유치, 해외 유학생 교육과정 운영, 전담 조직 구축 및 상호 협력, 시도 재정 분담에 관한 사항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맺기도 함(문화일보, 2024.7.18.)

○ 지자체의 ‘인재 육성’ 사업(교육경비 보조금, 자체 기금 사용)

- 여러 기초지자체들이 ‘교육경비 보조금’ 등 자체 예산을 사용하여 지역의 학교 교육을 지원하거나 지역의 ‘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일례로, 전라남도 구례군의 경우, 2025년에 도비 0.3억, 군비 4.8억, 기금 15.6억 등 총 20억가량을 투입하여 장학금 및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함. 여기에는 전라남도교육청과 함께 추진하는 ‘구례 교육자치 협력 지구’ 사업의 대응 투자금인 3.0억도 포함되어 있고, 일선 학교의 방과후교육, 외국어교육, 특성화고 등에 대한 지원금 약 10억 원가량과 고등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한 ‘에듀택시’ 요금 지원 등의 사업도 포함되어 있음

- 이러한 사업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등 교육 당국이 직접 추진하는 정책 사업은 아니지만 농어촌 지역의 교육에 관련된 지자체의 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음

〈표 2-3〉 주요 농어촌 교육 정책

정책 구분	농어촌 교육 정책
학교 설립 및 운영 관련 정책	• 통합운영학교 확대 • 학교 복합 시설 • 공동 통학구역 • 분교장 개편 기준 하향 조정
교직원 배치 관련 정책	• 교원 초빙, 전보 유예, 가산점 등 교사 배치 특례 • 지역구분임용제 • 지역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교육 추천 전형
교육과정 관련 정책	• 지역 연계 교육과정 운영 • 공동 교육과정
행·재정적 지원 정책	• 통학 편의 제공 • 농촌 유학 • 종합적 재정 지원 사업
기타 정책	• 고등학교 해외 유학생 유치 • 지자체의 '인재 육성' 사업

3. 시사점

- 농어촌 교육의 인구학적 현황, 교육 규모를,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인구의 감소 경향, 과소화된 교육 규모 현상은 뚜렷하게 관찰됨
- 시도교육청 등 정책당국은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여 통합운영학교 확대, 공동 통학구역 등 학교의 설립 및 운영 관련 정책, 교원 초빙이나 지역구분임용제 등 교직원 관련 정책, 공동 교육과정이나 지역 연계 교육과정 등 교육과정 정책, 통학 편의 제공과 학생 유치, 포괄적인 재정 지원사업 등 행·재정적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해 왔음
- 박근영 외(2024: 121-128)에 따르면, 지방 교육 당국의 정책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특징을 보임. 첫째, 학교 교육 개선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이는 달리 말하면 농어촌 교육의 현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정책적 목표들, 예를 들면, '대입 압력 완화'나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농촌 학교 재학 동기 고양' 등은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임. 둘째, 초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대부분임. 이러한 정책은 농어촌 내 학령인구의 이동을 막기보다는 '지연'시키는 데 그 효과가 제한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셋째, 학교 간 제로섬 게임을 방조하고 있음. 즉, 농어

촌 교육의 문제를 '개별 학교의 문제'로 취급할 뿐 지역 단위의 정책을 펼치지 않음. 넷째, 정책의 성과 도출에 있어 교사의 헌신에 과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 조영태(2021: 131)에 따르면, 인구 변동에 대한 대응 전략 중 현재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시행하는 여러 정책들은 '완화(mitigation)' 전략임. 이 전략은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임(조영태, 2021: 131). '적응(adaptation)' 전략을 택할 수도 있는데, 이는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고 그에 맞추어 현재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방법임(상계서: 133). 한편, 인구 현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를 '기획(planning)'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상계서: 133)
- 교육 정책 당국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정책들이 '완화'와 '적응'의 범주에 포함됨을 알 수 있음. 대부분의 정책이 학생 수 감소를 막거나 늦추려는 정책으로서 이는 '완화' 정책에 해당함. 통합운영학교 확대 정책이나 공동 교육과정 운영 정책 등은 감소한 학생 수에 맞추어 교육의 질을 유지하려는 일종의 '적응'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정작 인구감소지역 등 농어촌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은 미래를 변화시키기 위한 '기획'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근래 시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 중 '농촌 유학'이라든가 해외 유학생 유치 정책 등은 그 성공 가능성을 떠나서 일종의 '기획' 정책으로 볼 수 있음
- 본 연구가 관심을 두는 '새로운 농어촌 학교 모델 개발'도 일종의 '기획' 정책 마련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음
- '기획' 전략은 미래를 변화시키려는 접근이면서, 인구 문제를 넘어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한층 더 적극적인' 전략임(상계서: 142) 이를 위해서는 인구 감소 혹은 학생 수 감소라는 현상의 심층을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함. 이를 통해 현상의 이면에 숨어 있는 기회적 요소를 찾을 필요가 있음
- 한편, 종래 농어촌 교육의 대안을 제시하려는 큰 노력은 학교에 대한 고정된 기능을 전제로 한 정책 방안들이 다수였음. 본 연구는 현상의 심층을 분석하는 동시에 '재배치'라는 개념에 착안하여 학교의 기능과 농어촌 학교의 제 요소를 새롭게 재구성·제안해 보고자 함

Ⅲ. 미래교육과 농어촌 학교

1. 미래사회와 미래교육
2. OECD와 UNESCO의 미래교육
3. 국내의 미래교육 동향
4. 시사점

Ⅲ. 미래교육과 농어촌 학교

1. 미래사회와 미래교육

1) 미래교육 배경

- 미래교육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교육혁신 담론이 아니라, 급격한 사회 및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요구에서 출발함
- 사회·기술적 변화 즉,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으로 대변되는 4차산업혁명명은 지식의 생성과 접근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으며(남창우 외, 2019), 이에 따라 단순 지식습득 중심의 기존 교육체제는 한계에 봉착했으며, 에듀테크를 활용한 개별화 맞춤형 학습으로의 전환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음(김미경 외, 2022)
- 저출산 및 학령인구의 급감 등 사회·인구학적 요인도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고령화,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은 교육인프라의 재구조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30년 뒤 한국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학령인구 급감’이 1순위로 꼽히고 있음(채재은 외, 2024)
- 기후 위기와 전 지구적 재난의 일상화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추구하는 생태 전환교육은 미래교육의 필수 과제가 되었음(조상식 외, 2021; 김정겸 외, 2021)
- 이러한 사회와 기술, 환경의 변화는 교육의 목표가 단순한 인적 자원 양성이나 학업성취를 넘어, 개인과 공동체의 웰빙(Well-being)과 학생의 행위 주체성(Student Agency)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김미경 외, 2022)
- 농어촌 및 소규모 학교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수도권 집중 및 지방 소멸의 위기’를 교육의 존립을 위협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채재은 외, 2024)

2) 미래교육의 정의

- 미래교육은 고정된 하나의 개념이라기보다, 변화하는 세계에 대응하여 교육의 목적과 방식, 장소를 다시 규정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음. OECD와 UNESCO의 미래교육은 과거의 비교육적 관행과 소외를 극복하고, 학습자가 자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스스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교육체제를 지향함
- OECD는 미래교육을 복잡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학생 스스로 향해갈 수 있도록 학습나침반을 제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긴장과 딜레마를 조정하는 변혁적 역량을 기르는 교육으로 보았음

- UNESCO는 미래교육을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정의하며, 모든 사람이 평생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을 공공의 노력이자 공동체로 강화하는 것을 의미함(UNESCO, 2021)
- 두 국제기구 미래교육의 정의를 종합하면 미래교육이란 '학생을 학습과 삶의 주체로 인식'하고, 디지털 기술과 생태적 가치를 결합하여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며, 불확실한 미래 사회를 스스로 개척하고 사회의 성장에 기여하는 세계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을 의미함
- 교육부(2021)가 발표한 미래교육과정은 '학습자들이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및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소양과 역량을 함양하여,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 혁신'을 목표로 하였음(조상식 외, 2021: 86)
-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시한 미래교육의 개념은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선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성과 주체성을 기르고, 장차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공감 능력과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책임감과 연대 의식을 갖춘 시민성을 함양하는 교육, 이를 실현하기 위해 책임행정과 교육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반을 둔 동행 행정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정의함(조상식 외, 2021)
- 경기도교육청의 미래교육은 '미래세대 주역인 학생이 인성과 역량을 갖춘 사회인·생활인·전문인으로 성장하여 주도적으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교육'을 의미함(조운정 외, 2023)
- 전라남도교육청은 미래교육을 '전남의 학생들이 연결되고 확장된 생태계 속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을 통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더불어 공생의 태도를 갖춘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정의함(전라남도교육청, 2023)
- 충청남도교육청은 미래교육을 '학생의 주도성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주체적인 삶, 협력과 연대를 통해 동반 성장하는 함께하는 삶, 자연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리기 위한 지속 가능한 삶'으로 정의함(김정겸 외, 2021)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미래교육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 <표 3-1>과 같음

〈표 3-1〉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미래교육 개념 비교

기관	미래교육의 개념
교육부(2021)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소양과 역량을 함양하여,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교육체제 혁신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상식 외, 2021)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선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성과 주체성을 기르고, 장치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공감 능력과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책임감과 연대 의식을 갖춘 시민성을 함양하는 교육
경기도교육청 (조윤정 외, 2023)	미래세대 주역인 학생이 인성과 역량을 갖춘 사회인·생활인·전문인으로 성장하여 주도적으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 교육
전라남도교육청 (2023)	전남의 학생들이 연결되고 확장된 생태계 속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을 통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더불어 공생의 태도를 갖춘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충청남도교육청 (김정겸 외, 2023)	학생의 주도성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주체적인 삶과, 협력과 연대를 통해 동반 성장하는 함께하는 삶, 자연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리기 위한 지속 가능한 삶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정의하는 미래교육은 학생의 주도성과 시민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과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을 기르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교육체제 전환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 OECD와 UNESCO의 미래교육

1) OECD

□ OECD의 미래교육

- OECD는 기후 위기와 자원 고갈로 인한 ‘환경적’ 변화, 생명공학과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적 상호 의존성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경제적’ 변화, 인구 증가와 이민 증가로 인한 사회문화적 다양성과 불평등 확대가 가져온 ‘사회적’ 변화로 인한 전환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교육의 변혁을 주장하였음(정윤경, 2023)
- OECD(2018)는 *Education 2030: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보고서에서 OECD가 강조하는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학습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데 있음. 즉,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

해 교육의 목적을 단순한 학업적 성취가 아닌 개인과 사회 모두의 '웰빙'으로 봄. 그리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비전으로 '학생의 행위 주체성'을 강조함(정윤경, 2023). 학생의 행위 주체성은 교육의 가장 핵심 개념으로 학생이 자신의 삶과 주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함. 또한, 교사, 또래, 학부모,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공동 행위 주체성(Co-agency)'도 중요하게 다룸

- OECD 교육 2030에서 제안한 '학습 개념틀'에 따르면 학교에서 역량 교육을 위해 지식(knowledge), 능력 또는 기능(skill), 태도 및 가치(attitudes and values)를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역량 교육을 통한 메타 학습력의 함양을 강조함(OECD, 2019). 그리고 '웰빙'이라는 교육 목적과 '행위 주체성'이라는 미래교육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역량 중심 교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의 교육과정을 강조하였음
- '변혁적 역량'은 학교 안의 교육과정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에게 평생에 걸쳐 요구되는 역량으로 학교 안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에서 길러 나가는 것이라 볼 수 있음. 또한 변혁적 역량은 고차원적 역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습자가 예견치 못한 문제를 마주했을 때 각 상황에 맞게 전이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함(김아미, 2019; OECD, 2019)
- 변혁적 역량의 하위 요소는 학습자 스스로 보다 좋은 삶을 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 서로 충돌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합리적으로 찾아내는 '긴장과 딜레마를 다루는 능력', 자신이 선택한 행동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책임감 갖기' 등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음(김미경 외, 2022)
- 또한 변혁적 역량은 성찰(Reflection)로부터 시작하여 예견(Anticipation), 그리고 행동(Action)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이때 성찰은 비판적 입장을 바탕으로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예견은 현재 취한 행동이나 결정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분석·예측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기반으로 행동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김아미, 2019; OECD, 2018: 6)

□ OECD의 미래교육 시나리오

- OECD(2020)는 *Back to the Future of Education: FOUR OECD SCENARIOS FOR SCHOOLING*를 통해 교육의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 잠재적 기회와 도전을 식별하기 위한 4가지 독특한 학교교육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음. 미래교육 시나리오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행동하며,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 속에서 교육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적 사고를 지원하고자 하였음
- OECD(2020)가 제시한 4가지 미래교육 시나리오는 '학교교육 확장 시나리오(Schooling Extended)', '교육의 아웃소싱(Education Outsourced) 시나리오', '학습

허브로서의 학교(Schools as Learning Hubs) 시나리오’, ‘삶의 일부로서의 학습(Learn-as-you-go) 시나리오’임

- 학교교육의 확장 시나리오(Schooling Extended Scenario): 기존의 학교 체제를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개선·강화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교실, 교사 중심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디지털 기술과 맞춤형 학습, 핵심역량 교육 등을 도입한다는 시나리오(OECD, 2020). 이는 전통적인 학교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학교 시나리오라 할 수 있음
 - 교육 아웃소싱 시나리오(Education Outsourced Scenario): 전통적인 학교 시스템이 해체되고 지역사회가 주체하는 이니셔티브가 학교 교육의 대안으로 등장하며 공공 교육체제의 역할이 줄어듦. 홈스쿨링, 온라인 학습, 지역사회 기반 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 형태가 활성화되는 시나리오임(OECD, 2020; 김미경 외, 2022: 51)
 - 학습 허브로서의 학교 시나리오(Schools as Learning Hubs Scenario): 기존의 학교 기능은 유지되지만 학교가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연결되는 개방형 허브로 변모하여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미래교육 시나리오임. 학교는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되지 않고 지역사회 내 이해 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해 평가됨(OECD, 2020: 49; 김미경 외, 2022). 학교에서는 포괄성, 실험정신, 다양성에 기반하여 협동학습, 자기평가 등 개별화된 학습이 시도됨. 학년 분류체계가 사라지며 학교 교육의 구조(물리적 인프라, 수업 일정), 교수 학습 방법이 유연해짐. 또한 다양한 학습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교사의 전문성 개발 활동이 중요시됨
 - 삶의 일부로서의 학습 시나리오(Learn-as-you-go Scenario):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교육이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지며, 전통적인 학교 기반의 학습이 사라진다는 시나리오(OECD, 2020: 52). 형식적 학습과 비형식학습의 구별이 무의미하며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음. 첨단기술이 교육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며, 학습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확장함(OECD, 2020: 52). 이러한 기술은 학습자가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디지털화는 지식, 기술, 태도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학교 시스템을 해체함(OECD, 2020: 53). 전문성을 지닌 교사의 역할은 사라지고, 개인이 스스로 학습의 프로슈머(전문적 소비자, professional consumer)로서의 역할을 함(OECD, 2020: 52; 김미경 외, 2022)
- 2030 학교 교육을 위한 4가지 OECD 시나리오의 핵심 개념, 목표 및 기능, 조직 및 구조, 교사의 역할, 거버넌스, 국가적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 <표3-2>와 같음(OECD, 2020)

〈표 3-2〉 2030 학교 교육을 위한 4가지 OECD 시나리오

구분	시나리오 1: 학교 교육의 확장	시나리오 2: 교육의 아웃소싱	시나리오 3: 학습 허브로서의 학교	시나리오 4: 삶의 일부로서의 학습
핵심 개념	• 기존 학교 시스템의 강화 및 확대	• 전통적 학교의 붕괴와 교육 시장화	• 학교의 지역사회 허브 화	• 학교 시스템의 해체와 AI/ 디지털 기술 기 반의 상시 학습 사회
목표 및 기능	• 학력 및 자격증 부여 라는 전통적 기능 유 지 • 지식 전달과 학업성취 강조 • 경제적, 사회적 성공 의 핵심 통로	• 유연성과 다양성이 목 표 • 학습자 개인의 선택과 시장의 요구에 맞춘 학습 • '고객'으로서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구매	• 사회적 혁신과 시민참 여 • 지역사회가 중요시하 는 가치 실현 및 공 동체 연대 강화	• 공식/ 비공식의 학습 경계 사라짐 • 시를 활용한 실생활 문제 해결 및 개인 맞춤형 역량 개발과 집단지성 활용 • 교육이 삶, 일, 여가 와 통합
조직 및 구조	• 기존의 관료주의적 학 교 시스템 유지 • 국제 협력과 기술	• 전통적 행정 시스템 축소 • 다양한 민간 및 지역 사회 기반의 학습 이 니셔티브가 등장	• 학교가 지역 교육 생 태계의 중심축 역할 공식·비공식 학습의 경계가 모호해짐. • 학교 안과 밖의 자원 이 유연하게 교류	• 학교 시스템 자체의 해체 • 물리적 학교 대신 디 지탈 인프라와 AI가 학습을 매개함 • 기존 학교 시설은 다 른 용도로 전환 또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 용
교사의 역할	• 전문 지식의 전달자 • 교사의 역할 분화 (콘 텐츠 설계, 멘토링, 평가 등) • 새로운 전문성을 갖춘 교원 필요	• 교사의 역할이 다양화 됨 • 다양한 배경(민간 전 문가 등)의 교육자 등 장 • 개인의 평판과 전문성 이 중요해짐	• 다양한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는 네트워크 조 정자이자 학습활동 설 계자로서의 교사 •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 모, 지역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교 육에 참여하며 협력	• 전통적 교사 직업 소 멸 • AI와 디지털 도구가 교사를 대체 • 개인이 학습의 생산자 이자 소비자인 '프로 슈머'가 되어 서로 가 르치고 배움
거버 넌스	• 중앙 정부 주도의 강 력한 행정 체계 유지 • 국가가 표준화된 커리 클과 평가를 관리	• 규제 완화와 시장 원 리 강조 • 정부의 역할은 축소, 민간 부문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거버넌스를 주도	• 지역(Local) 중심의 거버넌스 • 지역사회, 학교, 이해 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의사결정 • 자율성 강조로 자기조 직화된 파트너십이 중 요해짐	• 교육의 탈제도화. • 글로벌 디지털 기업과 데이터가 거버넌스의 핵심이 됨 • 알고리즘과 데이터 소 유권이 교육을 통제하 는 새로운 권력이 될 수 있음
국가 차원의 과제	• 획일화된 시스템 내에 서의 혁신 부족 문제 • 변화하는 사회 요구와 학교 교육의 괴리 문 제 해결	• 교육 접근성에 따른 교육 격차 심화, 사회 적 분절로 인한 불평 등 • 민간 교육 서비스의 질 관리 및 공공성 확보의 문제	•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의 권력 갈등 조정 및 권한 배분문제 • 지역 목표와 국가 전 체 목표 간의 갈등	•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 • 극심한 사회적 파편화 위험 • 디지털 격차 해소 • 알고리즘에 대한 민주 적 통제권 확보 문제 • 사회적 고립 문제

2) UNESCO

□ UNESCO의 미래교육

- UNESCO에서 2021년 발간된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 계약」*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 보고서를 통해 미래교육의 비전을 제시함
- UNESCO는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민주주의의 퇴보, 사회 양극화, 노동의 불확실한 미래 등 급변하는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류와 지구의 위협받는 미래 경로를 바꾸고, 모두를 위한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건설할 수 있도록 교육 그 자체를 변혁하여야 한다고 강조함(UNESCO, 2021)
- UNESCO는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민주주의의 퇴보, 사회 양극화, 노동의 불확실한 미래 등 급변하는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의 핵심적 역할은 인류와 지구의 위협받는 미래 경로를 바꾸고, 모두를 위한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건설할 수 있도록 교육 그 자체를 변혁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 교육은 현재 교육 시스템이 안고 있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교육을 통해 긍정적 변화를 일으킬 변혁적 잠재력을 실현하는 핵심적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이를 위해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수립하고 교육을 혁신하여야 함
-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기본 원칙은 인권, 차별 금지, 사회정의, 생명 존중 및 돌봄의 윤리 등을 근간으로 하며 다음 두 가지 원칙을 따라야 함
 - 첫째, 평생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함. 교육받을 권리는 아동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교육을 보장하도록 확대되어야 함. 이 권리는 인류의 집단 지식 자원인 공유 지식(knowledge commons)에 접근하고 기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어야 함
 - 둘째, ‘공공의 노력(public endeavor)이자 공동재(common good)로서의 교육의 강화’를 강조하였음. 교육은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노력이어야 함. 이는 공공 재정 투입의 보장뿐만 아니라 교육에 관한 공적 토론에 사회 전체의 참여를 보장하여 교육을 함께 선택하고 성취하며 공유하는 웰빙의 방식으로 강화하는 것을 의미함

□ UNESCO의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혁신의 방향

- UNESCO는 교육의 변혁을 위해 교육방법, 교육과정, 교사, 학교, 그리고 교육의 시공간이라는 5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음(UNESCO, 2021) 각 방향의 주요 개념과 내용은 다음 <표 3-3>과 같음

〈표 3-3〉 UNESCO의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혁신의 방향과 주요 내용

혁신 영역 (차원)	핵심 방향	주요 내용
교육방법 (Pedagogy)	협력, 협동, 연대의 원칙을 기반으로 조직되어야 함	- 학생들은 서로의 차이 존중함 - 공감과 연민을 바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역량 함양 - 또한 편향성과 편견에 대한 폐기학습(unlearning)이 필요
교육과정 (Curriculum)	- 생태적, 상호 문화적, 학제적 학습에 중점을 두어야 함 - 공유 지식에 접근 및 기여 - 지배적인 지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할 수 있어야 함	- 생태교육: 인간과 지구의 상호 의존성을 이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이 필요 - 문해교육: 언어적 문해력뿐만 아니라 허위 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 문해력, 디지털 문해력,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교육
교사 활동 (Teaching)	교직은 협력적 직업(collaborative profession)으로 재정립되어야 함	- 교사는 지식생산자이자 교육 및 성찰적 실천가로서 사회 변혁의 핵심 주체로 인식되어야 함 - 협동 작업과 팀워크가 교사 역할의 특징이 되며, 교사의 자율성과 자유를 보장하고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지원해야 함
학교 (Schools)	- 보호와 변혁의 공간 - 사회적 관계를 증진하고 도전과 가능성을 경험하는 필수적인 공간으로서 보호되어야 함	- 획일적인 교실 수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습 형태를 지원하는 '학습자 커뮤니티'로 변화 - 디지털 기술은 학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학습	- 평생학습으로의 확장 - 교육 기회는 평생에 걸쳐서,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사회적 공간에서 펼쳐지도록 향유하고 확대해야 함	- 성인 학습과 교육의 중요성 인정 - 건강한 교육 생태계는 자연적 건물로 된, 그리고 가상의 학습 현장을 연결해야 함

○ UNESCO는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실천 과제를 제시함

- 연구와 혁신의 활성화를 위해 평생 교육권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적인 공동 협력 연구의 의제를 수립해야 함. 이때 교사, 학생, 학교가 지식 생산의 주체로 참여해야 함. 또한 서구 중심의 지식뿐만 아니라 선주민 지식 등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연구와 혁신에 포함하여야 함
-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여야 함. 하향식 원조에서 벗어나 공동의 목표를 가진 파트너십으로 나아가야 하며, 특히 개발도상국 간 협력과 삼자 협력을 강화해야 함. 또한 교육권을 가장 위협받는 저소득 국가와 소외계층에 대한 국제적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함
- 사회적 대화와 참여를 확대해야 함. 교육의 미래를 그리는 과정에 교사, 학생(특히 청소년), 정부,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임
- 이처럼 UNESCO의 미래교육은 개인의 성공을 위한 경쟁교육에서 벗어나, 인류와 지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3) OECD와 UNESCO의 미래교육 비교

- OECD와 UNESCO가 제시하는 미래교육 역량 개념은 복잡하고 불확실한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의 변혁적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공유하지만, 그 철학적 지향점과 세부 강조점에는 차이가 있음
- 주요 공통점으로는 미래 사회의 능동적 대응, 사회적·정서적 역량의 강조, 다차원적 접근, 디지털 문해력 필수로 정리할 수 있음(김미경 외, 2022)
- 미래 사회에 대한 능동적 대응은 두 기구 모두 기후 위기, AI 등 디지털 기술 혁신, 사회적 불평등 등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 단계를 넘어서야 함을 강조
- 기술이 발전하지만, 기술로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 고유의 영역인 공감, 협력, 연대, 상호 의존 등 사회적 역량이 교육 현장에서 더욱 중시되어야 함을 강조함
- 또한, 역량을 단순히 ‘기술(skill)’로 보지 않고, 지식, 기능, 태도, 가치가 결합한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접근함
-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을 학생과 교사가 갖추어야 할 핵심 기초 능력으로 간주함
- 두 국제기구에는 미래교육의 핵심 지향, 역량 개념, 목표, 지식에 대한 관점, 학습 과정에서 차이점을 보임.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3-4>와 같음

<표 3-4> OECD와 UNESCO의 미래교육 역량에 대한 주요 차이점

구분	OECD	UNESCO
핵심 지향	학습 나침반 2030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주요 역량	변혁적 역량 • 새로운 가치 창출, 긴장과 딜레마 조정, 책임감 갖기	사회적 역량 • 협동, 연대, 상호 의존, 포용
목표	행위 주체성(Agency): • 학생들이 스스로 방향을 찾고 결정하는 학생 행위 주체성을 핵심에 둠 • 개인과 공동체의 웰빙이 궁극적 목표임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 교육을 전 사회적 노력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재(Common good)로 정의하며, 타인과의 연대와 협업을 통한 사회적 변혁 강조
지식에 대한 관점	지식의 유형화 • 학문적 지식, 간 학문적 지식, 인식론적 지식, 절차적 지식 등 지식을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함	비판적 지식 학습(탈학습) • 특정 계층이나 문화가 배제해 온 지식을 재검토하고, 지배적인 지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비판적 탈학습을 강조
학습 과정	AAR순환 • 역량 함양을 위해 ‘예측(Anticipation), 실천(Action), 성찰(Reflection)의 순환과정을 반복할 것을 제안함	공유 지식에의 참여 • 인류의 공동 유산인 지식 자원에 접근하고 기여하는 과정을 중시함

*출처: 김미경 외(2022)의 ‘IV장 UNESCO 교육의 미래와 OECD 교육 2030’의 내용을 연구자가 정리함.

- 이와 같이 유네스코는 “어떻게 타인과 환경과 공존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것인가”라는 사회적 가치와 연대의 원칙을 역량의 근간으로 삼지만, OECD는 “어떻게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것인가”라는 개인의 주도적 실행력에 무게를 두고 있음. 결과적으로 두 기관의 논의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국내 교육 정책에서도 이 두 관점이 결합해 ‘행위 주체성’과 ‘공동체 역량’이 함께 강조되고 있음

3. 국내의 미래교육 동향

1) 국가 차원의 미래교육에 관한 논의

- 국내에서의 미래교육에 관한 논의는 2005년 대통령 자문 국가지속가능 발전위원회가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을 위한 국가 추진 전략 개발 연구」를 추진하면서 부터임. 이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심 영역을 설정하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환경교육기본법을 제정하였음. 이후 녹색 성장 교육의 형태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이루어져 왔으며 2011년 이후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추진함(권영락 외, 2021: 29; 김미경 외, 2022: 28)
-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였음. 사회적 측면에서는 갈등 해소, 통일, 사회 혁신, 연대, 매체 소양을, 환경적 측면에서는 자연 자원, 종 다양성, 교통, 주거 환경, 재해예방 및 완화,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소득격차 완화를 강조하였음(권영락 외 2021; 김미경 외, 2022: 28)
-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선정하여 준비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었으며, 이를 준비하는 단계로 2017년 이후 국가교육회의는 다음의 <표 3-5>와 같이 대한민국 미래교육 10대 의제를 선정하였음

〈표 3-5〉 국가교육위원회의 미래교육을 위한 주요 의제

유형	내용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이나 미해결 과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돌봄 지원 체제 확립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대학 입학전형 제도 한국 고등교육 체제 재구축 방향과 과제 지역 변동과 학교 교육체제 재구축
장기 미해결 상태로 미래를 위하여 해결을 도모할 과제	학습자 삶 중심의 학제 개편 유아교육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질 제고 지속 가능한 교육혁신을 담보하는 교원 양성 및 재교육 체제 개편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한 과제	디지털 전환과 한국교육 모든 시민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평생학습체제 구축 모든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교육복지 실현

*출처: 김정겸 외(2022: 42)와 김미경 외(2022: 29)를 연구자가 재구성

- 이후 국내의 미래교육 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의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음.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따르면(교육부, 2021) 미래교육과정은 ‘학습자들이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및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소양과 역량을 함양하여,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 혁신’을 목표로 하였음(조상식 외, 2021)
- 이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방향은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및 기초 소양 함양 강화’,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 ‘학생의 삶과 연계한 교육 강화’의 네 가지임(교육부, 2021; 조상식 외, 2021)
-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은 불확실성, 변동성, 복잡성을 미래 사회의 특징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역량과 변화 대응력 함양을 교육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특히 학습자의 개별성과 행위 주체성 등을 강조하고 있음.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비전과 주요 추진 과제의 내용은 다음 〈표 3-6〉과 같음

〈표 3-6〉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비전 및 주요 추진 과제

구분	내용	
비전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개정 중점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지역·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및 책임 교육 구현 디지털·AI 교육 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 체제 구축	
추진 과제	미래 대응을 위한 교육과정	인간상 등 교육 방향 제시 공동체 가치 및 역량 강화 디지털 기초 소양 강화 모두를 위한 교육 강화
	학교 현장 자율 혁신 지원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초·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 제고 창의적 체험활동 및 범교과 학습 주제 개선
	학습자 맞춤형 교육 강화	초·중등학교 학교급 간 진로 연계 교육 강화 고교학점제 정착 실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교육 환경변화 대응 지원	역량 함양 교과 교육과정 개발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혁신 교육과정 지원 체제 구축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선	

*출처: 김정겸 외(2022 : 44)에서 재인용함.

□ 국가 수준의 미래교육 방향성

- OECD와 UNESCO 미래교육의 방향성은 공통으로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미래 역량과 지식, 문해력 함양을 강조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학교 모습을 재구조화하는 것임. 또한,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 시민성과 학습의 측면에서 행위 주체성(agency)을 강조함. 미래 사회의 변화 중에서 사회와 환경의 변화에 주목하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강조됨
- 국내 주요 교육관련 연구기관의 미래교육을 메타분석한 이영희 외(2018)와 조운정 외(2023)의 연구에서는 미래교육에 관한 비전과 목표, 인재상, 핵심 가치, 교육체제 및 정책과 추진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음
 - 비전 및 목표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내용과 방법, 유연하고 탄력적인 교육체제로의 전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이영희 외, 2018; 조운정 외, 2023), 교원 역할의 재정립과 교육복지의 확대,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창의적 사고를 통한 주체적 역량 함양 교육(조운정 외, 2023)으로 정리하였음
 - 미래교육 혹은 미래 학교는 기존 교육체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음. 교육체제의 전환은

단순한 변화가 아닌 교육 인식과 실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함. 지나친 경쟁, 표준화 중심의 교육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학생 개별성, 주체성, 행복을 중심에 두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가치와 인재상은 ‘인간성과 창의성을 겸비하여 인류에 공헌하는 사람’,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갖춘 인간’, ‘문화적 감성과 건강을 누리는 인간’, ‘소통하고 협력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빠른 적응력을 갖춘 리더 및 창의적 전문 직업인’ 등 전인적, 자율적, 창의적, 협력적 인간으로 그려짐(조운정 외, 2023)
- 이러한 인재상을 바탕으로 한 미래교육의 핵심 가치는 다양성, 수월성, 혁신성, 도전 등을 강조하는 ‘창의적 인재와 학습자 중심 교육’, 공공성, 공정성 등의 ‘사회적 가치 추구’, 참여성, 통합성, 공동체성, 형평성, 지속가능성, 공감, 신뢰와 같은 ‘타인과 사회와의 관계 추구’를 강조함
- 즉,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미래교육은 인공지능과 첨단 과학기술정보 사회에서 창의성, 문화적 감수성, 건강한 자아, 협력적 태도를 갖춘 균형 잡힌 인간상을 지향하며, 개인적 행복과 공동체적 연대와 조화 속에서 자율적이고 참여적인 시민으로 양성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미래교육을 위해 국내 주요 교육연구기관의 보고서에서는 주요 정책 및 전략을 교육체제,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평가, 교원 관련 정책,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행·재정적 지원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있음
-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체제 관련 정책은 ‘학습생태계’로서의 체제를 강조하며 ‘유연하고 개방적인 학교체제’, ‘현장중심의 자율적·협력적 거버넌스 체제’, ‘공공성과 형평성을 위한 안전망 체제’를 강조함(조운정 외, 2023)
-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은 디지털 환경의 발달로 21세기에 요구되는 역량중심의 교육과정, 학습자 자신의 흥미, 적성, 진로 및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자신의 시간표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별맞춤형 교육과정, 여러 종류의 지식을 다원화된 통로로 실생활과 연결하고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융·복합교육과정, 학생들의 책임감있는 사회적 참여를 위한 시민성·인성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음(이영희 외, 2018; 조운정 외, 2023). 이 외에도 다문화교육,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강조함(이영희 외, 2018)
- 교수학습 및 평가를 위한 정책은 스마트 환경이 구축된 학교에서의 학생의 개별화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IC 기반 교수학습, 학생의 흥미와 선택을 존중하고 삶과 밀접한 교육을 위한 개인 맞춤형 교수학습과 이를 위한 학습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확장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조운정 외 2023), 프로젝트 학습이나 문제중심 학습을 통한 디퍼러닝과 크로스 오버러닝 교수학습, 교실, 학교, 국가를 넘어서는 협력학습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함(이영희 외, 2018)

- 미래교육의 핵심 실행 주체는 교사로 인식하였으며, 교원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함. 교원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사 양성, 연수, 전문적 학습 공동체 등 교사 지원 정책을 강화할 것, 그리고 AI 활용, 학생 행위 주체성 지원 등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며,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함
-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위해 학교 구성원 대상의 회복탄력성을 포함한 신체·마음건강 관리 지원하는 안전교육의 내실화,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관계, 학업성취 등 학교 안팎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교육환경 정비의 필요, 교육복지 전달체계 정립을 통한 공적 책임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음. 즉, 교육의 사사화와 상품화를 비판하며, 국가의 공적 책임 회복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학교-지역사회-교육청 간 협력적 네트워크 속에서 학교는 '지역 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음. 학교 교육의 형평성과 복지를 함께 고려한 정책적 지원을 강조하였음
- 이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 관련 정책에서는 교육 공공성과 질 보장을 위한 교육 거버넌스 재구성, 학교 교육 주체의 참여 보장, 단위 학교 예산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표 3-7〉 미래교육 관련 연구보고서에서 나타난 미래교육의 방향성

구분	내용	시사점
미래교육비전 및 목표	• 학습자 중심 교육, 유연하고 탄력적인 교육체계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 • 교원 역할의 재정립과 교육복지의 확대 •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강화 • 창의적 사고를 통한 주체적 역량 함양교육 • 미래사회 공동체의 주인이 되는 교육 •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한 행정적 지원체계 구축	기존 교육과의 본질적 구별을 강조 • 전환(transition)은 단순한 변화가 아닌 교육인식과 실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 • 지나친 경쟁, 표준화 중심의 교육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학생 개별성, 행위 주체성, 행복을 중심에 두는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요구함.
인재상	• 인간성과 창의성을 겸비하여 인류에 공헌하는 사람 •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갖춘 인간 • 문화적 감성과 건강을 향유하는 인간 • 남다른 관점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간 • 소통하고 협력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 빠른 적응력을 갖춘 리더 및 창의적 전문 직업인	전인적, 자율적, 창의적, 협력적 인간 • 미래의 인공지능과 첨단 과학기술정보 사회에서 창의성, 문화적 감수성, 건강한 자아, 협력적 태도를 갖춘 균형잡힌 인간상 지향 • 개인적 행복과 공동체적 연대의 조화 속에서 자율적이고 참여적인 시민으로 양성해야 함을 강조
핵심가치	• 창의적 인재 및 학습자 중심교육을 위한 다양성, 수월성, 혁신성, 도전 • 사회적 가치추구를 위한 공공성, 공정성의 강조 • 참여성, 사회통합성, 공동체, 형성평, 지속가능성, 공감, 신뢰를 통한 타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위한 가치 강조	
교육체제	• 유연하고 개방적인 학교체제	학습생태계로서의 체제

구분	내용	시사점
	- 현장중심의 자율적·협력적 거버넌스 체제 - 공공성과 형평성을 위한 안전망 체제	- 학교가 학생의 삶이 분리되지 않고 가정, 지역사회 등과 함께 연결되어 존재하는 곳 - 학교 조직이 학생을 둘러싼 여러 교육환경의 하나로서 다른 환경에 대해 개방적이고 유연한 형태로 평생학습의 구심적 역할을 해야함을 강조
미래교육의 교육과정	- 역량중심교육 - 다문화·인성·감성교육 -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 - 개별 맞춤형직업진로교육 - 융·복합교육과정 - 인성·세계 시민성 교육과정 - 디지털·소프트웨어교육	에듀테크의 가치지향적 활용. - 단순한 기술도입이 아닌 교육의 본질회복을 위한 도구로 에듀테크를 활용 -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마인드 셋을 갖춘 교사, 학생 육성이 핵심 - 기술이 교육격차해소의 수단이 되도록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교수·학습 및 평가	- ICT 기반 개인별 맞춤형 수업 - 배움 중심의 교수·학습 - 학문적 학습과 세계 적용의 연계를 통한 학습(프로젝트 기반 학습, 문제 기반 학습, 탐구 기반 학습) - 교실·학교·국가를 넘어서는 협력 학습 - 형식적 학습과 비형식적 학습연계 및 통합 학습 - 학습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강화	교육내용과 방법의 재구성 - 학생의 흥미와 선택을 존중하고, 삶과 밀접한 교육을 강조 - 혁신학교, 대안교육의 연장선에서 다양한 교육실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해야 함. - 디지털 기술을 통한 맞춤형 학습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확장할 수 있는 교육방법과 내용의 재구성을 요구
교원관련 정책	- 미래교육의 교과교사와 학습컨설턴트의 다른 트랙의 필요성 - 교원역할 및 정체성 재정립 - 교원양성 및 임용체제 혁신 - 교사전문성 지원	교원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 - 미래교육의 핵심 실행 주체는 교사 - 교사양성, 연수, 전문적 학습공동체 등 교사 지원정책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 - 시 활용, 학생 행위주체성 지원 등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교사의 역할을 강조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위한 정책	- 학교 구성원 대상 안전교육 내실화 -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교육환경 정비 - 교육복지 전달체계 정립 - 학교 교육의 유연화 및 신뢰회복 - 공교육 운영의 체제개편 -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계 필요성	공적 책임과 협력적 거버넌스 강조 - 교육의 사사화와 상품화를 비판하며, 국가의 공적 책임회복을 요구 - 학교-지역사회-교육청 간 협력적 네트워크 속에서 학교는 지역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함.
행·재정지원 관련 정책	- 교육의 공공성과 질보장을 위한 교육거버넌스의 재구성 - 학교교육주체의 참여보장 - 단위학교 예산의 자율성 확대	교육의 형평성과 복지를 함께 고려한 정책적 지원을 강조

*출처: 이영희 외 (2018), 조운정 외(2023)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하였음.

2) 시도교육청 별 미래교육의 개념과 주요 정책 방향

□ 국내의 시도교육청의 미래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대체로 OECD와 UNESCO

에서 제안한 개념을 따르고 있음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미래교육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기존의 '혁신 교육'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4차산업혁명, 기후 위기 등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2030 서울혁신미래교육'을 통해 미래교육의 비전과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하였음. 서울혁신미래교육의 개념은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선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성과 주체성을 기르고, 장차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공감 능력과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책임감과 연대 의식을 갖춘 시민성을 함양하는 교육, 이를 실현하기 위해 책임행정과 교육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반을 둔 동행 행정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래 사회 공동체의 주인공이 되는 교육, 모두가 함께하는 책임·동행 행정'을 비전으로 제시함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미래교육의 개념과 비전은 단순한 기술 대응이 아니라, 미래·창의 교육, 공감·연대 교육, 책임과 동행 행정이라는 세 가지 축을 핵심 목표로 학생의 삶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키우는 규범적·철학적 교육 전환으로 정의됨. '혁신'은 수단이며, 민주적 시민성과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함. 주요 방향은 다음과 <표 3-8>과 같음(조상식 외, 2021)

<표 3-8> 2030 서울혁신미래교육 개념의 핵심 내용 요소(목표)

구분	미래·창의	공감·연대	책임·동행
개념 도출 근거	- 미래 사회 대응 - 미래교육의 인재상	- 교육개혁의 진보성 - 혁신 교육의 연속성 - 서울의 지역적 특수성	- 교육개혁의 진보성 - 혁신 교육의 연속성 - 서울의 지역적 특수성
실현의 주체	학생/ 교사	학생/ 교사	- 교육청 - 지역 공동체
목표	- 준비 및 대비 - 위기관리 - 교육적 적응	- 문제 해결 - 교육개혁	- 행정 지원 - 정책의 실효성 - 교육개혁
성격	기술적·처방적	가치 지향적	실천적 포괄성
보완 정책 과제	- 미래 위험사회, 안전, 기후 위기 대비 - 조기 진로 교육체제 - AI 기반 교수학습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 크리에이터 교육 - 코딩 및 알고리즘 교육 - AI 윤리 교육 - 디지털금융 교육	- 노동인권 교육 - 서울 지역사회·지역구 이해 - 세계시민 형 민주시민교육 - 국제 공동 수업 활성화 - 미래형 의사소통 능력 함양 교육 - 행위자 관계성(agential relationship) 교육 - 동물권 교육	- 스마트기기 '디벗' 도입 및 서울형 BYOD 가방 싹 정책 - 교육 후견인제도 - 입학 준비금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제도 - 디지털 과몰입 예방 - 먹거리 생태 전환교육 - 유아 무상교육 -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 - 서울 지역구 간 적극적 (affirmative) 정책

*출처: 조상식 외(2021: 200, 203)의 내용을 연구자가 재구성함

- 미래·창의교육은 학생이 미래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고 위기를 관리시키는 교육으로 AI,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공감·연대 교육은 교육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는 교육으로 사회적 약자, 지역 격차, 공동체성 회복을 강조함
- 책임·동행 행정은 교육청이 행정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분산적 거버넌스를 통해 학교를 지원하는 행정으로 교육청의 제도적 책임과 돌봄·지원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이를 통해 학교 교육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계된 학습 생태계를 지향함

□ 경기도교육청의 미래교육

- 경기도교육청은 ‘자율, 균형, 미래’라는 3대 기조를 바탕으로 학생의 자기 주도성과 교육 주체 간의 조화를 강조하였음. 경기 미래교육의 3대 기조는 다음 <표 3-9>와 같음

<표 3-9> 경기 미래교육의 3대 기조

기조	의미	정책의 방향
자율	•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위의 방향을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 • 교육 주체의 자율과 학교의 자율로 구분됨	• 교육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 자율성의 방향 설정과 실천의 과정을 포함하는 책무성 체제 구축 • 학습자 주도성 함양과 학교의 자율적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체제 구축
균형	•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고 고른 상태를 의미함 • 자율이 보장되려면 행위 주체가 상호 신뢰에 기반한 관계의 균형을 갖추어야 함. • 관계의 균형을 통해 조화와 공존에 기반한 교육 실천 가능	• 교육 주체 간 관계의 균형 • 교육의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의 균형 • 교수학습에서의 균형
미래	• 교육 주체의 선택과 결단으로 결정되는 열려 있는 가능성을 의미함. • 미래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구축되는 희망적인 가치를 의미함 • 디지털 소양, 공동체 및 생태 전환의 가치로 수렴됨	• 현재의 경기교육을 성찰의 관점으로 인식 • 열린 공론의 장을 통해 만들어 가는 미래

*출처: 조윤정 외(2023: 218)에서 재인용

- 경기도교육청은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비전으로 ‘경기교육의 새로운 변화’, ‘교육 생태계의 미래지향적인 변화’, ‘새로운 미래교육 시스템 적용’을 제시하였음 (조윤정 외, 2023)
- 새로운 경기교육의 변화는 미래세대 주역인 학생이 인성과 역량을 갖춘 사회인·생활인·전문인으로 성장하여 주도적으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교육을 의미함

- 미래지향적 교육 생태계의 변화는 학교-교육청-지자체 간의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시스템을 통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미래지향적 교육 생태계로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함
- 새로운 미래교육 시스템 적용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대변혁의 시기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삶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주도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설계해 나가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더 나은 곳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어야 함.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이 스스로 그리는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공정하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야 함을 의미함

□ 충청남도교육청의 미래교육⁴⁾

- 충청남도교육청은 미래교육 2030의 추진 전략으로 ‘학습과 삶의 균형성장(Balance), 실천 중심 교육(Action)’, ‘학습자 주도성 강화(Student agency)’, ‘첨단기술 활용 교육(ICT)’, ‘학습자 역량 강화(Competency)’인 “BASIC”을 제시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의 미래교육의 비전과 핵심 과제를 다음 <표 3-10>과 같이 제시하였음

<표 3-10> 충청남도교육청 미래교육의 비전과 추진 전략

학생의 삶	충남 미래교육상	핵심역량	교육 공간	핵심 과제
주체적인 삶	자기 주도성을 함양하는 개별화 맞춤형 교육	자기관리 역량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	학교 안	모두를 위한 교육체제 구축
			학교 밖	지역 연계 학생 성장 체제 구축
함께하는 삶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창의·융합 교육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학교 안	학생 삶과 연계한 창의·융합 교육 강화
			학교 밖	지역 연계 창의·융합 교육 강화
지속 가능한 삶	지속 가능한 미래 시대를 만들어 가는 세계 시민교육	심미적 감성역량 생태 전환 역량	학교 안	충남형 세계시민 교육 실천
			학교 밖	모두에 의한 사회적 실천

*출처: 김정겸 외(2023: p172, p175)의 내용을 연구자가 재구성

- 충청남도교육청의 미래교육은 학생 중심의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며 학생의 행복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함을 강조함. 이를 위해 삶의 주체로 함께 성장하는 세계 시민 육성을 ‘충남 미래교육 2030’의 주요 지표로 하였음. 그리고 학생의 핵심 역량을 ‘주체적인

4) 충청남도교육청의 미래교육에 관한 연구는 충남대학교의 김정겸 외(2023)의 연구를 인용함

삶', '함께하는 삶', '지속가능한 삶'으로 설정함

- 이를 위해 교육과정, 학교 공간, 생태, 디지털, 교육협력에 혁신을 꾀하고자 하였음
 - 교육과정의 혁신은 교사의 자율성과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생 개별화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함
 - 공간의 혁신을 위해 학교 공간은 학생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 및 가변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학생의 삶과 놀이, 학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되어야 함을 강조함
 - 생태 혁신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생태전환교육을 추진과제로 삼았음. 그리고 디지털 혁신을 위해 개별화 맞춤형 학습의 지원을 위해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고 교육협력의 혁신을 위해 지역 내 기관 및 학교 간 교육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 전라남도교육청의 미래교육

- 전라남도교육청은 예측 불가능성과 복잡성의 증가,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 기후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전남교육 대전환”을 추진함. 전남교육 대전환은 “전남의 학생들이 연결되고 확장된 생태계 속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을 통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더불어 공생의 태도를 갖춘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함(전라남도교육청, 2023: 2). 이를 위해 전라남도교육청은 창의, 변혁, 공생의 핵심 가치를 제시하였음
 - 창의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고,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함. 이를 위해 전라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상상하고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며, 학교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 주도성을 기르는 역량 중심 맞춤형 교육을 하고자 함
 - 변혁이란 ‘변화’와 ‘혁신’을 총칭하며 기존의 체계나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큰 변화를 의미함. 이를 위해 디지털 기반의 미래형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한 교육행정 실현, 학교 차원에서의 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육, 창의 융합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이 주도적이면서 변혁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함
 - 공생이란 기후 위기, 지역 소멸 등의 문제가 가속화되는 미래 사회에서 인간과 자연, 학교와 지역, 국가 간의 상생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함. 이를 위해 전라남도교육청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교육공동체가 각자의 공존을 넘어 상생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 학교는 배움과 삶을 연결하고 다양한 문화와 교류할 수 있도록 하며, 탄소 중립 등 공생 교육을 실천하도록 함. ‘2023-2026 전남교육 미래교육’의 핵심 가치와 추진 전략은 다음 <표 3-11>과 같이 제시하였음

〈표 3-11〉 전남교육 대전환의 핵심 가치와 추진 전략

핵심 가치	전략	추진 방향
창의	역량 중심 교육으로 전환	• 학생 주도성을 기르는 미래 역량 교육 •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독서 인문교육 • 앎을 실천하는 전남형 시민교육
변혁	디지털 기반교육으로 전환	• 디지털 기반 미래형 교육 환경 • 디지털 기반 학생 중심 교육 • 디지털 기반 스마트한 교육행정
공생	공생하는 교육 생태계로 전환	• 함께 공감하고 성장하는 교육복지 • 연결하고 확장하는 배움터 •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 거버넌스

*출처: 전라남도교육청(2023). '2023-2026 전남교육중장기발전계획'의 내용을 연구자가 정리함.

4. 시사점

□ '교육체제'의 근본적인 전환을 바탕으로 한 농어촌 학교 모델의 필요성

○ 미래교육에 대한 논의는 '급격한 사회 및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요구'에서 출발하며, 기존의 지식습득, 학업성취 중심 교육체제의 한계와 '에듀테크를 활용한 개별화 맞춤형 학습으로의 전환'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 또한, 미래교육은 고정된 정답이 아니라 '교육의 목적과 방식, 장소를 다시 규정하려는 시도'가 필요함을 강조함. 이러한 관점에서 농어촌 학교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공간인 동시에, 미래교육의 핵심 원리(학습자 주도성, 삶과의 연계, 지역 기반 학습)를 실험·구현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으로 재정의될 필요가 있음. 즉, 농어촌 학교의 정책은 '소규모 학교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접근을 넘어, '지역의 삶과 학습을 어떻게 재연결할 것인가'라는 전환적 질문을 중심에 두고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학교 기능의 확장: 지역 학습 허브형 학교 모델로의 전환

○ OECD의 '학습 허브로서의 학교(Schools as Learning Hubs)' 시나리오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정책 분석 결과는 공통으로 학교가 더 이상 단일한 수업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결된 교육·돌봄·문화·평생학습의 중점 공간으로 기능해야 함을 시사함.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방향성이 특히 중요하며, 새로운 학교 모델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해야 함

- 학생을 위한 정규교육 과정의 운영 공간
-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및 문화공간
- 마을 자원과 연계한 체험·프로젝트 학습의 거점

- 돌봄·복지 기능을 포함한 지역 공공 인프라
 - 이는 농어촌 학교의 존립 논리를 ‘학생 수’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교육적 필요와 공공성으로 전환하는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음
- 웰빙과 학습자 행위 주체성(Student Agency)을 농어촌 교육의 핵심 가치로 설정
- 사회·기술·환경의 변화는 교육목표를, 학업성취를 넘어 “개인과 공동체의 웰빙(Well-Being)”과 “학생의 행위 주체성(Student Agency)” 강화로 삼아야 함을 요구하고 있음. OECD는 학생이 주변 세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의지·능력으로서 ‘행위 주체성’을 핵심 개념으로 제시하고, 교사·또래·학부모·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공동행위 주체성(Co-agency)”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 이러한 개념은 농어촌 학교 모델에서도 중심 가치로 채택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학생들은 선택 가능한 교육 자원과 경험의 폭이 상대적으로 제한됐으나, 미래교육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자기 주도적 학습, 프로젝트 기반 학습, 지역문제 해결형 학습을 통해 주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할 수 있음
 - 따라서 새로운 농어촌 학교 모델은 학년·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생의 관심과 삶의 맥락을 반영한 유연한 교육과정 구조를 도입하고, 지역의 실제 문제를 학습 과제로 전환하는 실천 중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전환은 대체가 아니라 ‘맞춤형 격차 해소와 연결’의 도구로 설계
- 디지털 전환이 미래 사회의 가장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을 염두 하여 선행 연구들은 미래교육의 필요성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학습’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OECD의 ‘삶의 일부로서의 학습(Learning-as You-go)’ 시나리오에서는 AI·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학교 기반 학습이 약화하고, 디지털화가 평가·인증을 가능하게 하여 ‘학교 시스템이 해체’될 수 있으며, 교사의 역할이 축소되고 개인이 ‘프로슈머’가 될 수 있음을 예측함. UNESCO는 기술이 학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지원하는 수단이어야 함을 강조함. 이는 농어촌 학교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이에 농어촌 새로운 학교 모델에서 디지털 기술은 다음의 역할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함
 - 학생 수 및 교원 수급의 한계를 보완하는 공동 교육과정 및 원격 협력 수업
 - 도시 및 다른 지역과 연결되는 학습 네트워크 구축
 - 개별 학습자의 수준과 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학습 지원
 - 특히 농어촌에서는 OECD의 ‘삶의 일부로서의 학습(Learning-as You-go)’이 시사하는 디지털 격차·사회적 고립·공공성 약화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공공 책임 아래에 디지털 학습 지원 체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

□ 교사의 역할 재정립과 농어촌 맞춤형 교원 지원 체계 구축

- UNESCO는 교직을 “협력적 직업(collaborative profession)”으로 재정립하고, 교사를 “지식생산자이자 성찰적 실천가”로 보며 자율성과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개발하고 지원할 것을 요구하였음. OECD는 ‘학습 허브로서의 학교’ 시나리오에서 학교 구조가 유연해지고 다양한 학습 요구가 증가할수록 “교사의 전문성 개발 활동이 중요”해진다고 하였음. 국내 연구보고서에서도 “미래교육의 핵심 실행 주체는 교사”이며 교원 양성·연수·전문적 학습 공동체 등 교사 지원 정책의 구체화를 요구하였음. 또한, 교사의 역할은 지식 전달자가 아닌 학습설계자·학습 촉진자·지역/외부 네트워크 조정자로 재정의하였음
- 농어촌 새로운 학교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교원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소규모 학교 특성을 고려한 교원 정원·업무 기준의 재설계
 - 다교과·다역할을 수행하는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성 강화 체계
 - 지역 자원과 외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코디네이터형 교사 역할 인정
- 이는 농어촌 학교를 ‘교사가 기피하는 학교’가 아니라 ‘미래교육 실천의 전문성이 축적되는 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조건이라 할 수 있음

□ 지방분권형 교육 거버넌스와 농어촌 학교 모델의 결합

- OECD 학습 허브 시나리오는 학교가 ‘지역사회 이해 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해 평가되고 지역 중심 거버넌스가 중요해진다’고 하였음. 또한, 국내 시도교육청 및 선행 연구에서는 공통으로 미래학교는 ‘학교-지역사회- 교육청 간 협력적 네트워크 속에서 지역 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이는 미래교육의 실현을 위해 중앙집중적 행정에서 벗어나 지역 중심·협력적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강조하는 것임
- 이에 농어촌 새로운 학교 모델은 교육청 단독 설계가 아니라 교육청-지자체-학교-지역 주민- 민간 주체가 함께 공동의 비전과 역할 분담을 통해 운영되는 지역 기반 교육 거버넌스 모델로 구축되어야 함을 시사함. 이를 통해 학교는 단일기관이 아니라, 지역 교육 생태계의 구심점으로 기능할 수 있음
- 지역 교육 거버넌스 모델을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의 방향도 재설계 되어야 함. 국내 선행 연구에서 미래학교의 행·재정적 지원은 ‘교육 공공성과 질 보장을 위한 교육 거버넌스 재구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 교육 주체의 참여 보장’, ‘단위 학교 예산 자율성 확대’를 제안하였음. 특히 단위 예산 자율성은 농어촌에서 ‘지역맞춤형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조건이므로, ‘예산·인사·교육과정 자율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음

○

IV. ‘농어촌 참 좋은 학교’의 의미 연결망

1. ‘농어촌 참 좋은 학교’ 선정 현황
2. 미래교육 키워드 : 의미연결망 분석
3. 시사점

IV. '농어촌 참 좋은 학교'의 의미 연결망

1. '농어촌 참 좋은 학교' 선정 현황

- 한국 사회의 농어촌 지역은 복합적 위기를 맞고 있음. 이는 농어촌 교육의 위기로 학령인구의 감소, 농어촌 학교의 소규모화, 농어촌 지역 붕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짐(정진곤, 2005)
- 교육부는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을 통해 학교, 지자체, 마을공동체가 함께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실정을 반영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교육부, 2025.06.16.)하는 사례를 발굴, 확산하려고 함
-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속 가능한 학교 모델을 구현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20년 처음 시작됨. 해당 공모전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농어촌 학교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공모전이 개시된 2020년부터 가장 최근인 2025년까지 매년 15개교 내외의 학교가 선정되었으며, 6년간 총 91개교의 우수 사례가 축적됨. 구체적인 연도별 선정 현황은 다음 <표 4-1>과 같음
- 본 절의 분석 대상은 사업이 시작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선정된 총 75개 학교(초등학교 50개교, 중학교 21개교, 고등학교 4개교)들의 사례보고서로 한정함. 2025년의 경우, 본 절의 데이터 분석 수행 시점과 해당 연도 학교 선정 심사 기간이 중첩되어 최종 사례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물리적 한계가 있었으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표 4-1>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 연도별 선정현황

연도	선정 학교수	선정 학교 구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20	15	10	5	0
2021	16	11	5	0
2022	15	11	4	0
2023	14	10	2	2
2024	15	8	5	2
2025	16	8	5	2
계	91	58	26	6

- 공모전의 심사는 1차 심사, 2차 심사로 나뉘며, 최종 1, 2차 심사의 합산 점수가 높은 학교를 선발, 시상함
- 심사는 매년 같은 기준으로 평가되며 아래 <표 4-2>와 같음. 주제 적합성, 다수 교원

의 참여, 지역사회와의 관계,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둠

〈표 4-2〉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 심사 기준(교육부, 2025)

기준	세부 기준
공모 주제의 적합성	농어촌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주제인가?
사례의 우수성	농어촌 학교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는 우수한 사례인가?
	정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다수의 교원이 참여하고, 지역사회 인사가 협력하는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례인가?
사례 확산 및 일반화 가능성	농어촌 학교의 교육력 제고에 효과적인 사례인가?
	여러 농어촌 학교에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례인가?

- 공모전 심사 기준을 기반으로 각 학교는 10페이지 이내 사례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함. 이는 각 학교가 농어촌에 위치한 ‘좋은 학교’에 대한 의미를 찾고 표현함으로 공모전 대상이 되는 학교가 생각하는 농어촌 학교의 긍정적 키워드를 분석하기 용이함

2. 미래교육 키워드 : 의미연결망 분석

1) 분석 방법

- 본 절의 목적은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농어촌 참 좋은 학교 우수 사례집』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데 있음. 구체적으로는 우수 사례의 핵심어(Keyword)와 의미연결망(Semantic Network)을 분석하여, 해당 학교들이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와 중점 운영 요소를 파악하였음
- 분석에는 텍스트 마이닝을 위한 사용자 사전 구축이 용이한 Python의 Mecab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으며, 네트워크 계산과 시각화를 위하여 NetworkX와 Matplotlib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음
- 분석 자료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간된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 사례집을 활용
- 사례집은 사업의 주관·주최인 교육부와 국립공주대학교 중앙농어촌 교육지원센터가 매년 발행함
- 면 단위 및 도서벽지 지역에 위치한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함
- 자료는 정제·형태소 분석을 위해 단어를 구성하는 단어들의 어절 패턴을 확인하여 용언의 활용과 불용어 처리 과정을 수행

- 형태소 분석에 앞서 단어를 추출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분석 품사로는 단순 품사인 명사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명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형용사, 동사, 숫자 등)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 선정된 사례 모음집 자료는 5개의 문서 군을 결합하여 총 972페이지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키워드 분석을 시행한 결과 943개의 단어가 도출되었음
- 도출된 단어에서 분석에 사용 가능한 상위(100개)의 단어를 선정하여 단어 빈도(frequency), 단어의 중요도(TF-IDF),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키워드 네트워크(Keyword Network), 에고 네트워크(Ego Network)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음

2) 분석 결과

- 빈도 분석(word frequency), 역빈도(TF-IDF) 분석 결과
 - 빈도 분석 결과 수집된 자료 내에서 상위 100개의 키워드를 살펴보면 <표 3-2>와 같음. 보고서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키워드는 '학교'(3,999), '공동체'(638), '예술'(557), '행복'(514), '사회'(506), '교사'(455), '생태'(417), '공간'(416), '아이'(415), '성장'(392) 등으로 나타남
 - 상위 50개의 단어는 사례 모음집 자료 전체 단어 중에 약 30.81%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사용되었으며, 단어들의 구성이 보고서에서 높게 언급된 만큼 관련된 단어의 문제 인식과 요구에 해당하는 키워드의 관계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가장 높은 빈도로 도출된 '학교'(3,999)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고유 명사(○○초등학교, ○○중학교 등)와 사업 명칭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일반어(General term)임. 텍스트 마이닝 분석에서 전체 문서를 관통하는 보편적 키워드는 정보의 변별력을 낮추고 다른 키워드 간의 관계 구조를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되므로(Noise), 본 분석에서는 실질적인 운영 특성을 탐색하기 위해 워드 클라우드 및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시 '학교'를 불용어(Stopword)로 지정하여 제외함

<표 4-3> 농어촌 참 좋은 학교 사례모음집 텍스트 분석 상위 100개 단어빈도 및 TF-IDF 분석 결과

순위	키워드	단어빈도	TF-IDF	순위	키워드	단어빈도	TF-IDF
1	학교	3,999	0.1606	51	대회	164	0.1841
2	공동체	638	0.2218	52	본교	164	0.2073
3	예술	557	0.1777	53	캠프	163	0.1925
4	행복	514	0.1599	54	주제	161	0.1821
5	사회	506	0.2216	55	스포츠	157	0.2229
6	교사	455	0.1830	56	제작	150	0.1594
7	생태	417	0.1661	57	공연	150	0.1995

순위	키워드	단어빈도	TF-IDF	순위	키워드	단어빈도	TF-IDF
8	공간	416	0.1760	58	혁신	149	0.2123
9	아이	415	0.2145	59	유학	149	0.3099
10	성장	392	0.2414	60	안전	148	0.2202
11	역량	391	0.2284	61	문제	147	0.2126
12	진로	380	0.1731	62	과학	146	0.2065
13	방과	366	0.1923	63	개선	146	0.1444
14	생활	339	0.2214	64	시설	146	0.1692
15	소통	326	0.1813	65	형성	146	0.1651
16	미래	320	0.1608	66	2020	146	0.2038
17	협력	304	0.1632	67	축제	145	0.1902
18	놀이	296	0.1924	68	통합	144	0.2421
19	자연	296	0.1549	69	관심	144	0.1977
20	독서	286	0.1930	70	존중	143	0.1901
21	중학교	245	0.1882	71	민주	142	0.1823
22	교과	238	0.2148	72	선정	141	0.142
23	마음	237	0.2098	73	방법	140	0.1817
24	주민	232	0.1663	74	계획	138	0.1647
25	학급	228	0.1825	75	시민	135	0.2024
26	영어	227	0.1707	76	자원	134	0.1613
27	경험	227	0.2093	77	배려	134	0.1817
28	농촌	223	0.2831	78	자치	133	0.1889
29	지속	222	0.1919	79	이야기	131	0.2191
30	인성	220	0.1850	80	친구	131	0.2339
31	초등	212	0.1773	81	생각	131	0.2222
32	주도	210	0.1616	82	관계	129	0.1828
33	사업	207	0.2064	83	위기	129	0.2076
34	이해	206	0.1868	84	적극	128	0.1941
35	선생	206	0.1578	85	융합	128	0.1682
36	공동	198	0.1560	86	의식	128	0.1473
37	사랑	197	0.2469	87	초중	128	0.2584
38	능력	196	0.2071	88	활성	127	0.1364
39	필요	188	0.1775	89	부족	127	0.1821
40	창의	184	0.1583	90	탐구	126	0.2019
41	건강	180	0.1884	91	농어촌	126	0.211
42	음악	180	0.1723	92	신장	125	0.1451
43	감성	179	0.1805	93	실현	125	0.1964
44	자율	177	0.2417	94	공감	125	0.1549
45	체육	176	0.1882	95	세계	124	0.2035
46	노력	176	0.1804	96	도전	123	0.2385
47	가족	174	0.1925	97	홍보	122	0.2053

순위	키워드	단어빈도	TF-IDF	순위	키워드	단어빈도	TF-IDF
48	교직원	174	0.2050	98	결과	122	0.1734
49	텃밭	167	0.1859	99	코로나	121	0.1741
50	학력	165	0.2036	100	기관	120	0.1662

- 단어빈도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결과는 아래 [그림 4-1]과 같음.
- <표 4-3>에서 분석한 키워드 중 상위 50개의 단어를 기준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이미지화함. 워드 클라우드의 구성 환경은 특정 단어의 빈도나 중요성을 글자의 크기로 표현하며 단어빈도가 높을수록 글자의 크기가 커지며, 반면에 단어 빈도수가 적으면 글자의 크기가 작게 나타남



[그림 4-1] 키워드 워드 클라우드(상위 50개)

- 역빈도는 특정 단어가 의미를 전달하는 데 문서에서 어떤 중요도를 가지는지를 반영하여 나타내며, TF(문서 내 단어빈도)와 IDF(여러 문서 내의 문서빈도의 역수)를 곱한 값으로 단어가 특정 문서 내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 문서의 중요도를 찾는 데 활용됨
- 역빈도 분석 결과는 빈도는 높지 않으나 특정 문서에서 간헐적으로 반복하여 나타난 경우, 결과값이 높아지므로 특정 문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음
- 역빈도 분석 결과, 총 943개의 단어의 중요도 결과값을 추출하였으며, 분석에 사용할 상위 100개의 중요 단어는 <표 4-3>과 같음. 단어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가 상위권을

차지하는 경우도 발견되었으나, 단순히 특정 단어빈도가 높은 키워드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중요한 특정 키워드도 나타남

- '학교', '공동체', '예술', '행복', '사회' 순으로 단어빈도가 높은 것과 달리, 단어의 중요도(TF-IDF)에서는 '유학'(0.3099), '농촌'(0.2831), '초중'(0.2584), '사랑'(0.2469), '자율'(0.2417) 순으로 나타나, 단순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와는 확연히 다른 결과를 확인함
- 이 밖에도 '성장'(0.2414), '도전'(0.2385), '친구'(0.2339), '역량'(0.2284), '통합'(0.2421) 등이 단어의 중요도에서 상위권에 위치함. 이는 빈도수는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농촌 유학이나 초중통합운영과 같은 농어촌 학교만의 특수한 운영 형태나, 성장과 자율 같은 핵심적인 교육 가치가 특정 문서(사례) 내에서는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시사

□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 농어촌 참 좋은 학교 사례에 나타난 교육적 담론의 구조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Keyword Network Analysis)을 수행함.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텍스트 내에서 동시 출현(Co-occurrence)하는 단어 간의 관계를 연결망 형태로 구축하여 분석하는 기법임
- 이 분석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한 단어 빈도(Frequency) 분석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단어 간의 맥락(Context)과 의미 구조(Semantic Structure)를 규명하기 위함임. 빈도 분석이 '무엇이 많이 언급되었는가'를 보여준다면, 네트워크 분석은 '어떤 단어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전체 담론 구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어(Hub)는 무엇인가'를 시각적·수치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특히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과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등의 지표를 통해 각 키워드가 전체 의미망 속에서 갖는 위상과 정보 매개 역할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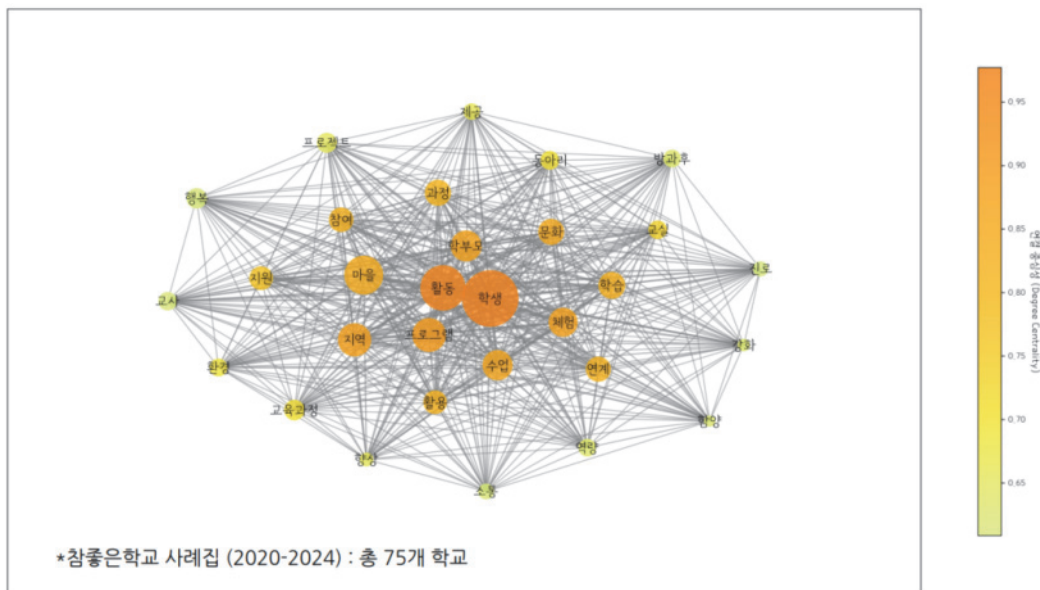
〈표 4-4〉 농어촌 참 좋은 학교 사례모음집 텍스트 분석 상위 30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순위	키워드	빈도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위세중심성	근접중심성
1	학교	3,999	935	0.9926	0.2109	0.1056
2	마을	1,430	802	0.8514	0.0926	0.1027
3	프로그램	1,038	838	0.8896	0.0916	0.1049
4	공동체	638	731	0.7760	0.0471	0.1027
5	예술	557	603	0.6401	0.0305	0.0960
6	행복	514	599	0.6359	0.0223	0.0960
7	사회	506	621	0.6592	0.0248	0.0983
8	교사	455	619	0.6571	0.0237	0.0985
9	생태	417	573	0.6083	0.0196	0.0951
10	공간	416	456	0.4841	0.0096	0.0859
11	아이	415	186	0.1975	0.0011	0.0470
12	성장	392	461	0.4894	0.0072	0.0886
13	역량	391	597	0.6338	0.0215	0.0963
14	진로	380	641	0.6805	0.0283	0.0993
15	방과	366	579	0.6146	0.0184	0.0963
16	생활	339	513	0.5446	0.0097	0.0941
17	소통	326	564	0.5987	0.0148	0.0964
18	미래	320	417	0.4427	0.0053	0.0844
19	협력	304	446	0.4735	0.0058	0.0890
20	놀이	296	460	0.4883	0.0088	0.0868
21	자연	296	399	0.4236	0.0048	0.0831
22	독서	286	537	0.5701	0.0189	0.0905
23	중학교	245	165	0.1752	0.0035	0.0412
24	교과	238	489	0.5191	0.0089	0.0911
25	마음	237	301	0.3195	0.0021	0.0716
26	주민	232	228	0.2420	0.0012	0.0571
27	학급	228	412	0.4374	0.0054	0.0845
28	영어	227	379	0.4023	0.0048	0.0801
29	경험	227	291	0.3089	0.0014	0.0706
30	농촌	223	248	0.2633	0.0016	0.0608

- 〈표 4-4〉의 중심성 분석 결과와 [그림 3-2]의 네트워크 시각화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도출됨
- 첫째, '학교(935)', '프로그램(838)', '마을(802)'이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최상위권을 형성하며 네트워크의 핵심 허브로 기능하고 있음. 특히 '프로그램'은 단어빈도 순위(3위)에 비해 연결 중심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농어촌 학교의 교육 활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매개로 하여 학교 내외의 여러 요소와 광범위하게 결합하고 있

음을 시사함. 또한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역시 '학교(0.9926)', '프로그램(0.8896)', '마을(0.8514)' 순으로 높게 나타나, 이 세 키워드가 전체 교육 담론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둘째, 빈도와 중심성 간의 차이를 통해 키워드의 실질적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아이'는 빈도(415, 11위)는 높게 나타났으나, 연결 중심성(186)과 매개 중심성(0.1975)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측정됨. 이는 '아이'라는 단어가 다양한 맥락에서 폭넓게 논의되기보다는 특정 주제나 제한적인 관계 속에서만 언급되고 있음을 의미함. 반면 '진로'는 빈도(380, 14위)와 비교하면 연결 중심성(641)이 높게 나타나, 진로 교육이 다양한 교육 활동 및 주체들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논의되는 확장성 높은 주제임을 나타냄
- 셋째, [그림 4-2]의 네트워크 시각화 결과, '학교'와 '마을'을 양대 축으로 하여 '공동체', '사회', '교사', '역량' 등의 주요 키워드들이 촘촘하게 연결된 응집력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음. 이는 농어촌 참 좋은 학교의 사례들이 개별적인 교육 활동의 나열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거시적인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음을 구조적으로 입증함



[그림 4-2]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 [그림 4-2]는 도출된 키워드 간의 의미 연결망을 시각화(Visualization)한 결과임.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드의 크기, 색상, 연결선의 두께를 지표에 따라 차별화하여 표현함
- 첫째, 노드(Node)의 크기는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에 비례함. 시각화 결과,

중앙에 위치한 '학생', '마을', '프로그램' 등의 노드가 가장 큰 크기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해당 키워드들이 다른 단어들과 가장 많은 관계를 맺으며 담론의 중심축(Hub)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냄

- 둘째, 노드의 색상은 중심성 위계(Hierarchy)를 나타냄. 네트워크의 핵심 코어(Core)를 형성하는 상위 중심성 단어들은 주황색(Orange)으로, 그 주변부에서 의미를 보충하거나 파생되는 하위 중심성 단어들은 노란색(Yellow) 및 연두색(Green) 계열로 구분하여 표현함. 이는 농어촌 학교의 교육 담론이 소수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강한 응집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줌
- 셋째, 연결선(Link)의 두께는 두 단어 간의 동시 출현 빈도(Co-occurrence)에 기반한 연결 강도(Weight)를 의미함. '학부모-마을', '활동-프로그램', '학생-성장' 간의 연결선이 매우 굵고 진하게 나타난 것은, 이들 관계가 단순한 우연적 등장이지 아니라 구조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결합된 '강한 연결(Strong Tie)' 관계임을 실증함. 반면, 주변부로 갈수록 선이 얇아지는 것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천 사례들로 주제가 분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 종합적으로 [그림 4-2]의 네트워크 형상은 '학생'과 '활동'이라는 거대한 두 개의 허브를 중심으로, 교육 주체(교사, 학부모)와 교육 내용(프로그램, 예술, 생태)이 촘촘한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고밀도 응집형 구조'를 띠고 있음. 이는 농어촌 참 좋은 학교의 사례들이 개별 요소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통합된 생태계적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입증함

□ 에고 네트워크 분석 결과

- 에고 네트워크 분석(Ego Network Analysis)은 전체 네트워크 내에서 특정 노드(Ego, 에고)를 중심으로 형성된 국지적 연결망의 구조와 특성을 규명하는 분석 기법임. 이는 분석 대상이 되는 중심 노드인 '에고'와 그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웃 노드(알터, Alter)', 그리고 이웃 노드 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탐색함. 전체 네트워크가 방대한 정보의 총체를 보여준다면, 에고 네트워크 분석은 특정 핵심어가 어떤 맥락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주변 키워드들과 어떤 강도로 결합하여 의미망을 확장해 나가는지를 미시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
- 이 분석에서는 농어촌 학교 담론의 핵심축인 '학교', '마을', '학생', '학부모', '프로그램'을 에고로 설정하여 이들을 둘러싼 의미 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함.
- **'학교' 중심 에고 네트워크 분석**은 농어촌 교육 담론에서 '학교'는 단순한 교육 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와 다양한 교육 활동을 매개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함. 이에 '학교'를 에고(Ego)로 설정하여 그와 연결된 지식 구조와 정보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함. '학교'를 중심으로 추출한 에고 네트워크의 구체적인 구조적 지표는 아래 <표 4-5>와 같음

〈표 4-5〉 키워드 '학교' 중심 에고네트워크 구조지표

중심키워드	이웃 수	전체노드 수	전체 개성 수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밀도
학교	935	936	38,623	0.0516	0.0139	0.08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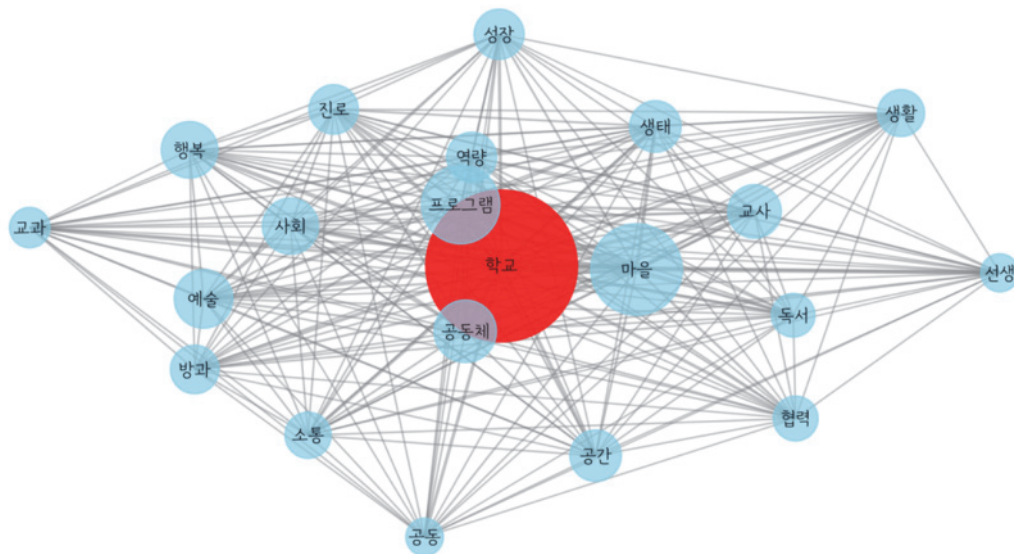
- '학교' 에고 네트워크 구조 분석 결과, 방대한 규모의 연결망과 유의미한 밀도를 보이며 담론의 확장을 주도하는 '핵심 정보 허브(Hub)'로서의 위상이 확인됨
- 네트워크 확장성: '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에고 네트워크는 총 936개의 노드(Node)와 38,623개의 연결선(Edge)으로 구성된 거대한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음. 이웃 수(Neighbors)가 935개에 달한다는 것은 분석 대상이 된 거의 모든 주요 키워드가 '학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농어촌 교육 논의의 출발점이자 귀결점이 '학교'임을 구조적으로 입증함
- 네트워크 응집력: 네트워크의 밀도(Density)는 0.083으로 나타남. 통상적으로 네트워크의 규모가 커질수록 밀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밀도 수치를 보임. 이는 '학교'와 연결된 하위 주제(이웃 노드) 간에도 상호 연관성이 깊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단순한 나열이 아닌 유기적인 교육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음을 보여줌

〈표 4-6〉 키워드 '학교' 중심 에고네트워크 분석 결과

순위	키워드	동시출현빈도	키워드빈도	에고내연결수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1	마을	11,641	1,430	802	0.858	0.057	0.019
2	프로그램	8,335	1,038	836	0.894	0.030	0.018
3	공동체	5,056	638	731	0.782	0.039	0.021
4	행복	3,392	514	599	0.641	0.028	0.021
5	사회	3,380	506	621	0.664	0.024	0.021
6	예술	3,353	557	600	0.642	0.020	0.021
7	교사	3,280	455	619	0.662	0.020	0.020
8	역량	3,110	391	596	0.637	0.017	0.020
9	진로	3,053	380	641	0.686	0.018	0.020
10	생태	2,959	417	573	0.613	0.019	0.020
11	소통	2,771	326	564	0.603	0.018	0.021
12	방과	2,592	366	579	0.619	0.019	0.021
13	공간	2,546	416	456	0.488	0.016	0.020
14	공동	2,262	198	439	0.470	0.013	0.020
15	성장	2,247	392	461	0.493	0.010	0.021
16	선생	2,226	206	330	0.353	0.004	0.020
17	협력	2,206	304	446	0.477	0.008	0.021
18	독서	2,136	286	537	0.574	0.03	0.021

순위	키워드	동시출현빈도	키워드빈도	에고내연결수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19	교과	2,088	238	489	0.523	0.008	0.020
20	생활	2,071	339	513	0.549	0.016	0.021

- 에고 네트워크 분석 결과, '마을'과 '학교'가 농어촌 새로운 학교 모델 담론의 핵심축을 형성하며, 이들을 '프로그램'이 강력하게 매개하는 구조로 나타남
- 분석 결과, '마을'은 동시출현빈도 11,641, 키워드 빈도 1,430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전체 네트워크 내에서 정보의 흐름을 주도하는 핵심 허브(Hub)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농어촌 학교 모델의 논의가 단순히 학교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마을이라는 지역사회 맥락 속에서 확장되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함
- '학교' 중심의 에고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프로그램'과의 동시출현빈도가 3,884로 매우 높게 나타나며, '마을' 중심 네트워크에서도 '프로그램'은 6,472의 높은 빈도로 연결되어 있음. 이는 농어촌 학교와 마을을 실질적으로 연결하고 교육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핵심 기제가 다양한 교육 및 연계 '프로그램'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줌
- 이 외에도 '공동체', '진로', '소통', '안전' 등의 키워드가 주요 노드로 등장하여, 농어촌 교육 환경에서 지역 공동체성 회복과 학생들의 진로 설계, 그리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이 중요한 가치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4-3] 키워드 '학교' 중심 에고네트워크 분석 시각화

- 공간(Space): 기존 학교 담론에서 '시설'로 불리던 물리적 환경이 '공간'이라는 키워드로 연결되고 있음. 이는 학교가 단순한 교수-학습의 장소를 넘어, 지역민과 공유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나 학생들의 쉼과 놀이가 있는 혁신적 공간으로 재구조화되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줌

- 협력(Cooperation) : 행정을 넘어서는 실질적 거버넌스 학교 운영의 주체를 보여주는 키워드로 관청이나 행정 용어 대신 '협력'이 동시출현빈도 2,206(17위)으로 유의미하게 등장함. 이는 학교가 교육청의 지시를 따르는 수직적 구조가 아니라, 지역사회 및 다양한 주체들과의 수평적 '협력'을 통해 운영되는 거버넌스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함
- '마을' 중심 에고 네트워크 분석에서 '마을'은 단순한 행정 구역이나 물리적 거주지를 넘어, 학생들의 삶이 이루어지고 배움이 확장되는 실질적인 교육의 장(Field)으로 인식됨. 학교와 더불어 농어촌 교육 모델의 또 다른 핵심축을 담당하는 '마을'을 에고(Ego)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그 구조적 위상은 아래 <표 4-7>과 같이 나타남

<표 4-7> 키워드 '마을' 중심 에고네트워크 구조지표

중심키워드	이웃수	전체노드수	전체엣지수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밀도
마을	801	802	36,260	0.0726	0.0201	0.1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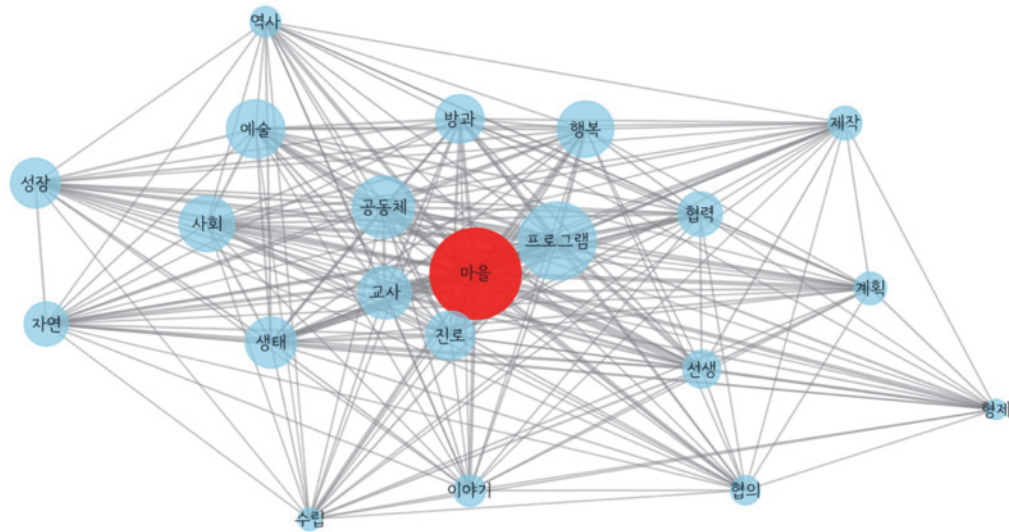
- '마을' 에고 네트워크 구조 분석 결과, 학교 중심 네트워크에 버금가는 방대한 연결망과 더욱 높은 응집력을 보이며, 농어촌 교육의 필수적인 기반임을 실증함
- 네트워크 확장성: '마을'을 중심으로 형성된 에고 네트워크는 총 802개의 노드(Node)와 36,260개의 연결선(Edge)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웃 수(Neighbors)가 801개에 달한다는 것은 농어촌 교육과 관련된 담론 대다수가 '마을'이라는 키워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줌. 이는 마을이 보조적인 자원이 아니라, 농어촌 교육 담론을 지탱하는 거대한 한 축임을 구조적으로 증명
- 네트워크 응집력: 네트워크의 밀도(Density)는 0.110으로 산출됨. 이는 앞서 살펴본 '학교' 네트워크의 밀도(0.086)보다 높은 수치로, '마을'을 둘러싼 하위 주제 간의 결합 강도가 매우 강력함을 의미함. 즉, 마을 교육과 관련된 요소들은 서로 느슨하게 연결된 것이 아니라, 매우 촘촘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탄탄한 담론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함.

<표 4-8> 키워드 '마을' 중심 에고네트워크 분석 결과

순위	키워드	동시출현빈도	키워드빈도	에고내연결수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1	프로그램	3,884	1,038	751	0.938	0.020	0.018
2	선생	2,974	206	320	0.400	0.005	0.021
3	생태	2,632	417	555	0.693	0.019	0.021
4	교사	2,453	455	585	0.730	0.019	0.021
5	공동체	2,273	638	672	0.839	0.027	0.021
6	계획	1,365	138	286	0.357	0.006	0.022
7	역사	1,307	116	235	0.293	0.004	0.022

순위	키워드	동시출현빈도	키워드빈도	예고내연결수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8	협력	1,299	304	440	0.549	0.010	0.022
9	형제	1,248	22	170	0.212	0.002	0.021
10	행복	1,174	514	573	0.715	0.030	0.022
11	사회	1,118	506	587	0.733	0.022	0.022
12	이야기	1,055	131	185	0.231	0.002	0.021
13	진로	1,013	380	597	0.745	0.014	0.021
14	수립	1,012	41	162	0.202	0.002	0.022
15	방과	1,005	366	551	0.688	0.018	0.022
16	협약	974	102	135	0.169	0.001	0.021
17	제작	898	150	290	0.362	0.004	0.022
18	예술	880	557	560	0.699	0.015	0.022
19	자연	860	296	391	0.488	0.009	0.021
20	성장	860	392	447	0.558	0.011	0.022

- 실천적 기제로서의 '프로그램': 분석 결과, '프로그램'은 동시출현빈도 3,884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며 마을 교육의 핵심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 이는 마을이 단순한 공간적 배경을 넘어,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실행되는 실질적인 학습의 터전임을 시사함
- 특성화된 교육 콘텐츠 '생태'와 '공동체': '마을'은 '생태'(2,632) 및 '공동체'(2,273)와 매우 높은 빈도로 연결되어 있음. 이는 농어촌 마을 교육의 콘텐츠가 생태 환경의 가치를 학습하고 지역 공동체성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특성화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줌
- 교육 주체의 중요성: '선생(님)'(2,974)과 '교사'(2,453)가 상위권에 있는 것은 마을 교육 활동에서도 교사의 전문적인 지도와 참여가 필수적임을 나타냄. 아울러 '행복'(1,174) 키워드의 등장은 이러한 마을 교육 활동이 궁극적으로 학생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4-4] 키워드 '마을' 중심 에고네트워크 분석 시각화

- 주목할 만한 연결로 '역사'와 '생태'를 볼 수 있음. 역사(History): 마을이 곧 살아있는 교과서 네트워크의 주요 노드로 등장한 '역사'는 동시출현빈도 1,307(7위)이라는 높은 수치를 보임. 이는 마을이 품고 있는 고유한 이야기와 전통이 학교 교육과정과 결합하여, 학생들이 지역의 뿌리를 배우는 '살아있는 교과서'로서 마을이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임
- 생태(Ecology): 도시 학교와 차별화되는 가장 강력한 연결 고리는 '생태'임. 마을의 자연환경이 환경 교육이나 생태 감수성 함양을 위한 핵심 텍스트로 기능하며, 마을 자체가 거대한 생태 학습장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학생' 중심 에고 네트워크 분석 교육 활동의 주체이자 최종 수혜자인 '학생'을 에고(Ego)로 설정하여 그를 둘러싼 의미망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프로그램과 마을을 매개로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9>와 같음

<표 4-9> 키워드 '학생' 중심 에고네트워크 구조지표

중심키워드	이웃수	전체노드수	전체엣지수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밀도
학생	917	918	38,582	0.0475	0.0156	0.0897

- '학생' 에고 네트워크 분석 결과, '프로그램'이 학생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핵심 기제이며, '진로'와 '역량'이 교육의 주요 지향점으로 나타남
- 네트워크 확장성: '학생' 에고 네트워크는 918개의 노드와 38,582개의 연결선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는 분석 전체 노드(936개)의 약 98%에 해당하는 수치로, 농어촌 교육 모델의 거의 모든 담론이 학생을 중심에 두고 있거나 학생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줌. 학생은 답론의 주변부가 아닌 가장 확실한 중심축(Centerpiece)에 위치함

- 네트워크 응집력: 주목할 점은 네트워크 밀도(Density)가 0.0897로 나타났다는 것임. 이는 '학교'(0.086)보다 높고 '마을'(0.110)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나, 네트워크의 크기(Size)를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응집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음. 이는 학생을 둘러싼 교육적 요소들(교사, 프로그램, 마을, 학부모 등)이 파편화되지 않고 상호 촘촘하게 연결되어, 학생에게 통합적인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전인적(Holistic)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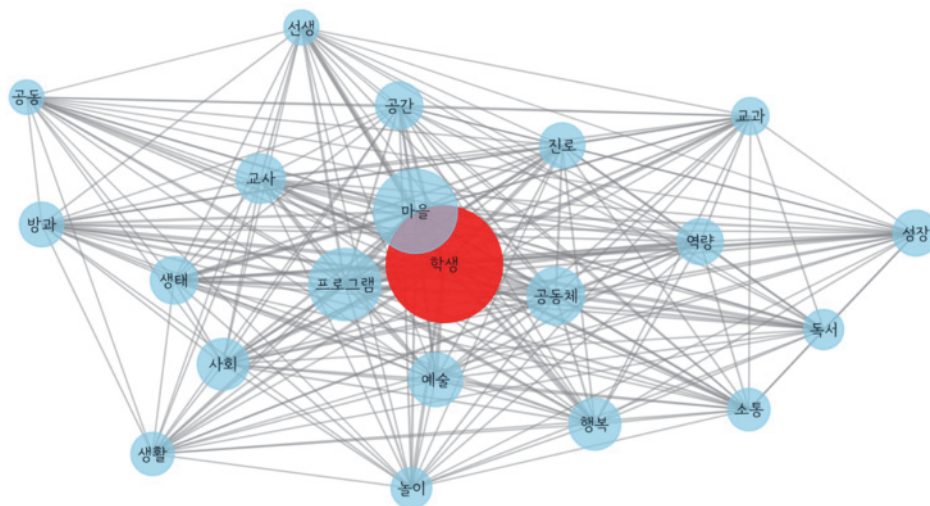
〈표 4-10〉 키워드 '학생' 중심 에고네트워크 분석 결과

순위	키워드	동시출현빈도	키워드빈도	에고내연결수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1	프로그램	6,472	1,038	833	0.908	0.026	0.019
2	마을	5,756	1,430	789	0.860	0.042	0.019
3	공동체	3,183	638	730	0.796	0.033	0.021
4	교사	2,465	455	619	0.675	0.022	0.021
5	진로	2,428	380	641	0.699	0.018	0.021
6	역량	2,301	391	597	0.651	0.018	0.021
7	예술	2,221	557	601	0.655	0.021	0.021
8	사회	2,154	506	621	0.677	0.028	0.022
9	행복	2,111	514	599	0.653	0.028	0.022
10	방과	2,000	366	578	0.630	0.018	0.021
11	독서	1,975	286	537	0.586	0.031	0.022
12	소통	1,938	326	564	0.615	0.018	0.021
13	공간	1,798	416	456	0.497	0.017	0.021
14	생태	1,699	417	572	0.624	0.020	0.021
15	교과	1,656	238	489	0.533	0.007	0.020
16	선생	1,640	206	330	0.360	0.004	0.021
17	놀이	1,599	296	460	0.502	0.013	0.021
18	성장	1,559	392	461	0.503	0.010	0.021
19	생활	1,554	339	513	0.559	0.015	0.021
20	공동	1,425	198	439	0.479	0.014	0.021

- '프로그램'과 '마을'을 통한 경험, 그리고 '행복'의 지향 키워드 동시출현 빈도와 중심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교육 경험을 분석한 결과,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이 도출됨
- 첫째, '프로그램'과 '마을'이 주도하는 배움의 경로: 학생과 가장 강력하게 연결된 키워드는 물리적 학교가 아닌 '프로그램'(6,472)과 '마을'(5,756)임. 이는 학생들의 배움이 교과서나 교실 수업에 갇히지 않고, 마을이라는 광범위한 터전 위에서 역동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함. 즉, 학생들에게 교육이란 '학교에 가는 것'을 넘

어 '마을 속에서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으로 재정의되고 있음

- 둘째, '성적'을 넘어선 '행복'과 '진로'의 가치 부상: 분석된 상위 키워드 목록에서 '성적'이나 '학력'과 같은 전통적인 학업 성취 지표는 후순위로 밀려난 반면, '진로'(2,428, 5위), '역량'(2,301, 6위), '행복'(2,111, 9위)이 최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음. 이는 농어촌 학교 모델이 지향하는 학생의 성장이 단순한 지식 축적이나 상급 학교 진학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탐색하고 미래 역량을 기르며 궁극적으로 삶의 행복을 누리는 '질적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줌
- 셋째, '예술·생태·놀이'를 통한 감성적·생태적 시민으로의 성장: '예술'(2,221), '생태'(1,699), '놀이'(1,599) 키워드의 높은 연결성은 농어촌 교육의 콘텐츠가 지식 전달 위주에서 벗어나 문화적 감수성과 생태적 소양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나타냄. 특히 '생태' 키워드의 등장은 농어촌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이 교육과정과 결합하여 학생들을 기후 위기 시대의 생태 시민으로 길러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함



[그림 4-5] 키워드 '학생' 중심 에고네트워크 분석 시각화

- 놀이와 역량이 주목할 키워드로 보임. 놀이(Play): '학업'이나 '성적'보다 '놀이'가 학생 노드와 가깝게 연결되어 있음. 이는 농어촌 학교 학생들에게 배움은 책상 위에서의 암기가 아니라, 마을과 자연 속에서 뛰어노는 역동적인 활동과 결합하여 있음을 보여줌
- 역량(Competence): 구체적 성장 목표로서 학생을 둘러싼 키워드 중 '역량'은 동시출현빈도 2,301(6위)로 매우 중심부에 위치함. 이는 학생들의 활동이 단순한 체험이나 추상적인 '도전(빈도 123, 96위)'에 머물지 않고, 협력·소통·문제해결력 등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실천 역량을 함양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음을 정량적으로 뒷받침함
- '학부모' 중심 에고 네트워크 분석. 학부모는 더 이상 학교 교육의 단순한 수요자나 참관자가 아님. 학부모는 학교 운영의 파트너이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교육 생태계의

-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함. 이에 학부모를 에고(Ego)로 설정하여, 그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머물러 있으며 학교 및 지역사회와 어떤 관계 맺음을 하고 있는지 구조적으로 파악함
- '학부모' 에고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학부모'를 중심으로 형성된 에고 네트워크의 거시적인 연결 구조와 밀도 지표는 아래 <표 4-11>과 같음

<표 4-11> 키워드 '학부모' 중심 에고네트워크 구조지표

중심키워드	이웃수	전체노드수	전체엣지수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밀도
학부모	811	812	37,855	0.0338	0.0193	0.1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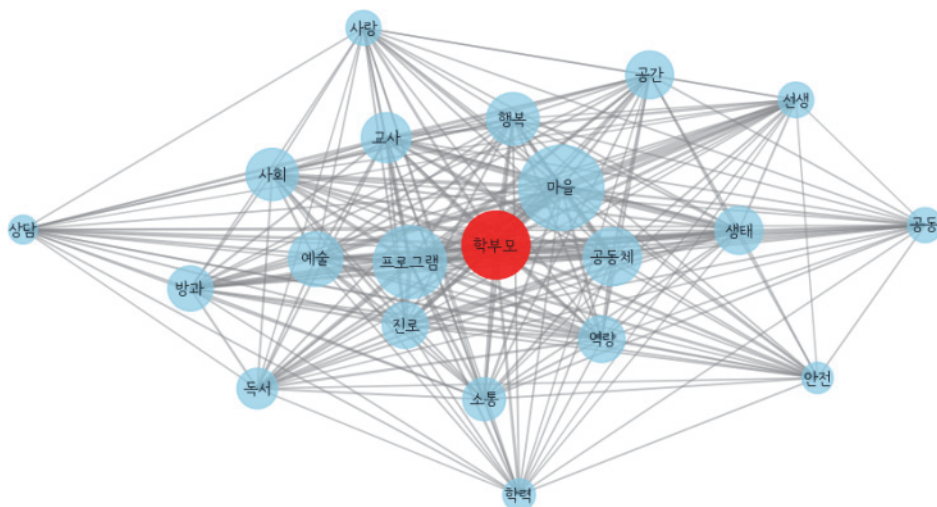
- 높은 응집력을 가진 교육 협력의 주체인 '학부모'
- 네트워크 확장성: '학부모' 에고 네트워크는 총 812개의 노드와 37,855개의 연결선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웃 수(Neighbors)가 811개에 달한다는 것은 농어촌 교육 담론에 등장하는 대다수 이슈가 학부모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함. 이는 학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자녀의 교실 내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학교 운영 전반과 지역사회 문제로까지 폭넓게 확장되어 있음을 보여줌
- 네트워크 응집력: 네트워크 밀도(Density)는 0.1128로 산출됨. 이는 '마을'(0.111)보다 소폭 높으며, '학교'(0.086)나 '학생'(0.090)보다 높은 수치로, 분석된 에고 네트워크 중 가장 높은 응집력을 보임. 이는 학부모 집단이 개개인의 집합이 아니라, 공통된 교육적 관심사를 바탕으로 매우 촘촘하고 강한 유대 관계(Strong Tie)를 형성하고 있는 '결속된 교육 주체'임을 시사함

<표 4-12> 키워드 '학부모' 중심 에고네트워크 분석 결과

순위	키워드	동시출현빈도	키워드빈도	에고내연결수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1	마을	3,229	1,430	738	0.910	0.008	0.019
2	프로그램	2,959	1,038	784	0.967	0.013	0.018
3	공동체	1,549	638	710	0.875	0.028	0.022
4	진로	1,186	380	619	0.763	0.017	0.022
5	교사	1,170	455	603	0.744	0.020	0.022
6	소통	1,132	326	561	0.692	0.020	0.023
7	공동	1,030	198	436	0.538	0.016	0.022
8	사회	997	506	605	0.746	0.019	0.022
9	예술	963	557	581	0.716	0.014	0.022
10	행복	955	514	590	0.727	0.027	0.023
11	선생	893	206	327	0.403	0.004	0.022
12	역량	882	391	580	0.715	0.015	0.022
13	방과	858	366	567	0.699	0.017	0.022
14	안전	832	148	402	0.496	0.012	0.022
15	생태	800	417	554	0.683	0.014	0.021
16	사랑	747	197	410	0.506	0.009	0.022
17	독서	742	286	518	0.639	0.016	0.022

순위	키워드	동시출현빈도	키워드빈도	에고내연결수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18	공간	721	416	448	0.552	0.016	0.022
19	학력	704	165	327	0.403	0.006	0.022
20	상답	686	119	342	0.422	0.005	0.022

- ‘마을·프로그램’ 참여와 ‘진로·행복’ 지향의 파트너십 학부모를 둘러싼 키워드들의 연결 구조를 심층 분석한 결과, 다음의 세 가지 특징적인 교육적 지향이 발견됨
- 첫째, ‘마을’과 ‘프로그램’을 통한 참여의 확장: 학부모와 가장 강력하게 연결된 키워드는 ‘마을’(3,229)과 ‘프로그램’(2,959)임. 이는 학부모들이 학교 담장 안을 넘어 마을 차원의 교육 활동과 프로그램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줌. 또한 ‘공동체’(1,549)와 ‘소통’(1,132)이 상위권에 있는 것은, 학부모가 단순 민원 제기자가 아닌 마을교육공동체의 능동적 소통가이자 참여자로 활동하고 있음을 방증함
- 둘째, ‘학력’보다 우선하는 ‘진로’와 ‘행복’의 가치: 자녀 교육의 핵심 관심사를 보여주는 키워드 순위에서 ‘진로’(1,186, 4위)와 ‘행복’(955, 10위)은 최상위권에 위치한 반면, 전통적인 관심사인 ‘학력’(704, 19위)은 상대적으로 하위에 머물. 이는 농어촌 학부모들이 학교에 기대하는 바가 단순한 교과 성적 향상보다는, 자녀가 자신의 적성을 찾아 진로를 개척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질적 성장’에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줌
- 셋째, ‘교사’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교사’(1,170, 5위) 키워드의 높은 연결 빈도는 학부모와 교사 간의 관계가 매우 밀접함을 나타냄. 이는 갈등이나 견제의 대상이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적 동반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함. 이 외에도 ‘안전’(832, 14위) 키워드의 등장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또한 학부모의 주요 관심사임을 확인시켜 줌



[그림 4-6] 키워드 ‘학부모’ 중심 에고네트워크 분석 시각화

- 역량(Competence) 지향 : 성적보다 중요한 자녀의 성장 학부모 네트워크의 연결 구조는 자녀 교육의 가치관 변화를 보여줌. '역량'은 동시출현빈도 882(12위)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위치한 반면, 전통적 관심사인 '학력'은 704(19위)에 그침. 이는 학부모들이 학교에 기대하는 바가 단순한 점수 따기가 아니라, 자녀의 실질적인 미래 역량 성장으로 이동했음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음
- '프로그램' 중심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을 에고(Ego)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은 단순한 행사나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학교와 마을, 그리고 교육 주체들을 매개하는 핵심적인 연결 고리임이 확인됨. 어떤 프로그램이 누구와 연결되어 실행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농어촌 교육의 내용적 실체와 운영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함
- '프로그램' 에고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형성된 에고 네트워크의 거시적인 연결 구조와 밀도 지표는 아래 <표 4-13>과 같음

<표 4-13> 키워드 '프로그램' 중심 에고네트워크 구조지표

중심키워드	이웃수	전체노드수	전체엣지수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밀도
프로그램	837	838	37,425	0.035797	0.019273	0.1045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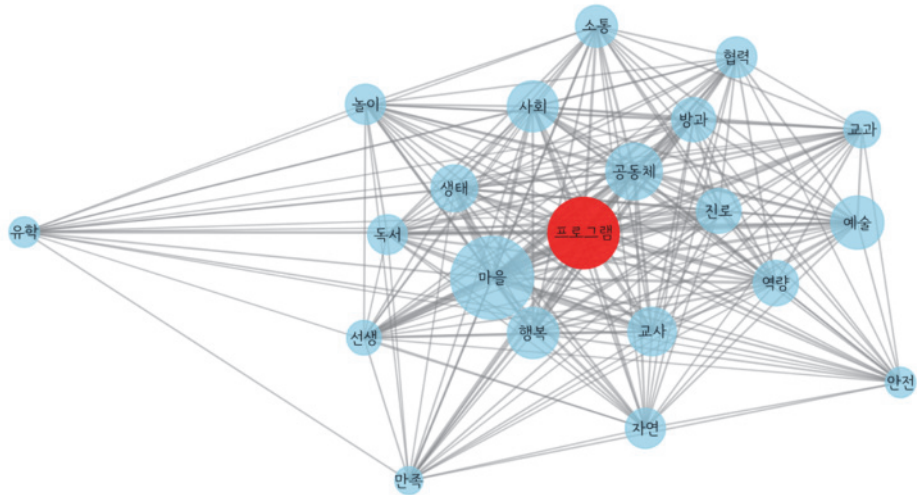
- 교육 활동이 구체화되는 고밀도 실천 네트워크
- 네트워크 확장성: '프로그램' 에고 네트워크는 총 838개의 노드와 37,425개의 연결선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는 전체 담론의 핵심 키워드 대부분이 특정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논의되고 있음을 의미함. 즉, 농어촌 교육의 지향점과 가치는 추상적인 구호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형태로 구현되고 있음을 구조적으로 보여줌
- 네트워크 응집력: 네트워크 밀도(Density)는 0.105로 나타남. 이는 '마을'(0.110) 및 '학부모'(0.113)와 유사한 수준의 높은 응집력임. 프로그램이 학교, 마을, 교사, 학생 등 다양한 교육 요소들을 서로 단단하게 결속시키는 '접착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함. 프로그램이 없는 학교와 마을의 연계는 느슨할 수밖에 없으나, 프로그램을 매개로 할 때 비로소 긴밀한 협력 관계가 형성됨을 알 수 있음

<표 4-14> 키워드 '프로그램' 중심 에고네트워크 분석 결과

순위	키워드	동시출현빈도	키워드빈도	에고내연결수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1	마을	3,884	1,430	751	0.897	0.014	0.019
2	공동체	1,625	638	715	0.854	0.027	0.022
3	진로	1,547	380	633	0.756	0.016	0.022
4	교사	1,444	455	612	0.731	0.020	0.022
5	방과	1,255	366	577	0.689	0.021	0.022

순위	키워드	동시출현빈도	키워드빈도	예고내연결수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6	예술	1,255	557	593	0.708	0.021	0.022
7	사회	1,234	506	609	0.728	0.023	0.022
8	선생	1,211	206	328	0.392	0.005	0.022
9	역량	1,157	391	590	0.705	0.017	0.022
10	만족	1,116	118	261	0.312	0.004	0.022
11	생태	1,015	417	563	0.673	0.015	0.021
12	행복	975	514	591	0.706	0.030	0.023
13	독서	885	286	531	0.634	0.023	0.022
14	교과	778	238	486	0.581	0.007	0.021
15	소통	766	326	559	0.668	0.019	0.023
16	안전	756	148	401	0.479	0.012	0.022
17	유학	747	149	112	0.134	0.003	0.021
18	놀이	724	296	455	0.544	0.013	0.022
19	협력	714	304	442	0.528	0.008	0.022
20	자연	703	296	398	0.476	0.010	0.022

- ‘마을’을 기반으로 한 ‘진로·예술·생태’ 교육의 실현 데이터 분석 결과, 농어촌 학교의 프로그램은 학교 내부에 고립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뚜렷한 지향성을 띠고 작동하고 있음
- 첫째, ‘마을’과 ‘공동체’를 교육의 장으로 확장: ‘프로그램’과 가장 강력하게 연결된 키워드는 ‘마을’(3,884, 1위)과 ‘공동체’(1,625, 2위)임. 이는 농어촌 학교의 프로그램이 학교 울타리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지역 공동체라는 더 넓은 기반 위에서 기획되고 실행됨을 보여줌. 즉, 프로그램은 학교와 마을을 물리적·정서적으로 연결하는 가장 실질적인 통로임
- 둘째, 구체적인 교육 콘텐츠로서의 ‘진로·예술·생태’: 연결 중심성이 높은 하위 키워드로 ‘진로’(1,547, 3위), ‘예술’(1,255, 6위), ‘생태’(1,015, 11위)가 도출됨. 이는 농어촌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진로 탐색, 문화예술 향유, 생태 감수성 함양 등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콘텐츠로 채워지고 있음을 시사함
- 셋째, 프로그램의 핵심 운영 주체인 ‘교사’: ‘교사’(1,444, 4위)와의 높은 연결성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교사의 전문성과 노력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뒷받침함.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마을 자원과 학생을 연결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교육과정 디자이너’로서 기능하고 있음



[그림 4-7] 키워드 '프로그램' 중심 에고네트워크 분석 시각화

- 협력(Cooperation) : 프로그램 작동의 전제 조건 프로그램 네트워크에서 '협력'은 동시출현빈도 714(19위)로 연결되어 있음. 이는 농어촌 학교의 프로그램이 교사 개인이나 학교 단독으로 운영되기보다는, 마을-학교-학생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전제로 기획되고 실행될 때 비로소 작동함을 보여줌

3. 시사점

- '학생-프로그램-마을'이 주도하는 새로운 교육 핵심축(Primary Core)의 형성
 - 기존의 학교 교육이 '교사-교과서-교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농어촌 학교의 답론 구조는 '학생-프로그램-마을'이 가장 강력한 연결 강도를 보이며 새로운 핵심축(Primary Core)을 형성하고 있음이 확인됨
 - 농어촌 교육이 학교라는 물리적 경계를 넘어 마을 전체로 학습 공간을 확장하고 있으며, 고정된 교과 과정이 아닌 역동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이 실현되고 있음을 시사함. 즉, 농어촌 학교 모델에서 '배움'은 교실 안에 갇히지 않고 지역사회의 맥락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경험으로 재정의됨
- 높은 응집력을 가진 '다주체 협력 거버넌스'의 실증
 -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 간의 연결망은 파편화되지 않고 매우 높은 밀도의 응집력을 보임. 특히 학부모 집단의 네트워크 특성은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선 '교육적 동반자'로서의 위상을 보여줌
 - 농어촌 학교가 소규모라는 특성을 강점으로 승화시켜, 도시 대규모 학교에서는 구현하기 힘든 '실질적인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고 있음을 의미함. 학부모와 지역 주민이 교육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다주체 협력 구조는 농어촌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동력임

□ 추상적 담론을 현실화하는 실천 기제로서의 '프로그램'

- '프로그램'은 학교와 마을, 이상과 현실을 매개하는 가장 중요한 연결 고리(Linkage)이자 접착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농어촌 학교의 혁신은 선언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방과후 활동', '마을 연계 프로젝트', '생태 체험' 등 구체적인 '실천(Practice)'을 통해 증명되고 있음. 이는 미래 학교 모델 개발 시,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시사함

□ '성적'을 넘어 '행복'과 '성장'을 지향하는 가치 지향의 전환

- 데이터는 농어촌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의 목적이 전통적인 학력 신장에서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행복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줌
- 분석한 대부분의 예고 네트워크(학생, 학부모, 학교)에서 '성적'이나 '학력' 키워드는 하위권에 머무른 반면, '행복', '진로', '역량', '성장'은 최상위권의 연결 중심성을 기록함. 특히 학부모조차 자녀의 학력보다 '진로'와 '행복'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데이터로 확인됨
- 농어촌 학교가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 대안으로서, 학생 개개인의 삶을 돌보고 미래 역량을 함양하는 '질적 교육(Quality Education)'의 산실로 기능하고 있음을 입증함

□ '생태'와 '공간': 농어촌의 특수성을 미래 교육의 보편적 가치로 확장

- '생태(Ecology)' 키워드는 학교, 마을, 학생 네트워크 모두에서 핵심 노드로 등장하며, 기후 위기 시대의 생태 시민성을 기르는 교육적 토대가 되고 있음. 또한 '공간' 키워드는 단순한 시설(Facility)을 넘어, 지역민과 공유하고 학생이 주도하는 혁신적 장소로 연결되고 있음
- 마을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 교육과, 학교 공간을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활용하는 공간 혁신은 농어촌 학교만이 가질 수 있는 독보적인 경쟁력임. 이는 '지역 소멸' 위기를 '관계 인구' 형성으로 극복하는 교육적 해법이 될 수 있음

□ 종합 : 텍스트 데이터로 본 농어촌 우수 학교의 구조적 경향성

- 이 분석은 『농어촌 참 좋은 학교 우수 사례집』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수행함. 분석 대상이 '우수 사례'로 선정된 학교들의 보고서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도출된 키워드와 네트워크 구조는 "현재 농어촌 학교 현장이 '성과'로 인식하고 보고하고 싶어 하는 핵심 요소가 무엇인가"를 정량적으로 보여줌. 데이터가 가리키는 구조적 특징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됨

- 첫째, '학교'와 대등한 수준의 '마을' 네트워크 형성
 - 데이터 분석 결과, '마을' 에고 네트워크의 밀도(0.110)가 '학교' 네트워크(0.086)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높은 응집력을 보임. 이는 우수 사례 보고서 내에서 학교 활동이 학교 단독으로 기술되기보다, 마을 자원이나 주민과의 연계 속에서 서술될 때 더 촘촘한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줌. 즉, 분석된 사례들에서 '마을'은 교육 활동을 설명하는 필수적인 배경이자 토대로 작동하고 있음
- 둘째, 정량적 '학력'보다 정성적 '성장' 가치의 빈번한 출현 : 단어 빈도와 연결 중심성 분석에서 '진로'(14위), '역량'(13위), '행복'(6위) 등의 키워드가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학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학부모 네트워크 19위)에 머무름. 이는 우수 사례로 선정된 학교들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학생의 성적 향상보다는 진로 탐색이나 행복감과 같은 정성적인 성장을 주요 성과로 강조하여 기술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함
- 셋째, 매개 중심성(Betweenness)이 높은 실행 도구로서의 '프로그램' : '프로그램'은 전체 네트워크에서 높은 매개 중심성(0.8896)을 보이며, 추상적인 교육 목표를 구체적인 활동으로 연결하는 핵심 고리로 확인됨. 텍스트 내에서 예술, 생태, 진로 등의 교육적 가치들은 대부분 '프로그램'이라는 단어와 결합하여 등장함. 이는 농어촌 학교의 교육 활동이 교과 수업 외에도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음을 데이터 상으로 보여줌
- 넷째, '협력'과 '지원'으로 연결된 학부모의 역할 : 학부모 네트워크는 가장 높은 밀도(0.113)를 기록하였으며, '민원' 등의 갈등적 어휘 대신 '마을', '프로그램', '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결됨. 이는 사례집 텍스트 내에서 학부모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학교 및 마을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협력적 주체로 묘사되고 있음을 나타냄
- 결론적으로, 해당 텍스트 마이닝 분석은 농어촌 참 좋은 학교의 우수 사례들이 '마을(토대)-프로그램(매개)-진로·행복(가치)-공동체(협력)'라는 4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음을 정량적으로 확인함. 이는 현재 농어촌 학교 현장에서 '성과'라고 인식하는 요소들이 특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향후 농어촌 학교 모델 개발 시 고려해야 할 현장의 실질적인 기초 자료로서 의미를 가짐

V. 농어촌 학교의 미래 : 면담 조사 분석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3. 시사점

V. 농어촌 학교의 미래 : 면담 조사 분석

1.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 농어촌 지역은 유례없는 학령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지역 소멸의 실존적 위기에 직면해 있음. 과거의 농어촌 교육 정책은 경제적 효율성에 기반한 ‘통폐합’과 하드웨어 중심의 ‘시설 현대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현재는 학교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생존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 새로운 학교 모델 개발을 위해 기존의 결핍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농어촌 학교가 가진 고유한 자원과 강점에 주목하고자 하였음. 농어촌의 생태 환경, 소규모 학급이 갖는 개별화 교육의 가능성, 지역 공동체와의 긴밀한 연계성 등은 도시 학교가 모방할 수 없는 미래교육의 핵심 자산이라 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농어촌 학교의 자원을 바탕으로 단순한 ‘학교 살리기’를 넘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새로운 농어촌 학교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음. 이는 농어촌 학교를 ‘떠나야 할 곳’에서 ‘찾아오는 곳’으로, ‘소멸의 상징’에서 ‘희생의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천적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함임

2) 조사 방법

- 본 연구는 문헌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실질적인 운영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개별 면담 조사와 초점 집단 면담(Focus Group Interview)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음
- 연구 참여자는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 정책 전문가, 연구자 등 농어촌 학교에 관심을 두고 현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연구한 전문가를 섭외하고자 하였음
- 농어촌 참 좋은 학교 중 다양한 유형의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마을교육공동체형, 지역사회학교형, 농촌 유학형, 통합 교육과정 운영형 등으로 유형화하여 2024년과 2025년에 선정된 학교 중 5개의 학교를 선정하여, 각 학교를 직접 현장 방문하여 지역과 학교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와 개별 면담 또는 초점 집단 면담을 실시하였음
- 또한 전문가 그룹은 온라인 줌(ZOOM)으로 면담하였음. 주요 면담 대상은 농어촌

지역에서 실천적 교육 활동을 지속해 온 교사, 교육 전문직, 지역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 전문가 그룹'과 교육 정책 및 학술 연구자로 구성된 '정책, 학술 전문가 그룹'으로 이원화하여 농어촌 지역이 가진 강점과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요구를 듣고자 하였음

- 면담은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면담 시간은 회당 1시간 30분~2시간가량 소요하였으며, 참 좋은 학교 면담 과정에는 상황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각각 면담하기도 하였음
- 면담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총 43명이며 교사 11명, 학부모 및 지역 주민 18명, 학생 8명, 현장 전문가 3명, 정책 및 학술 전문가 3명임

〈표 5-1〉 면담 조사 참여자 명단

구분	면담 조사 참여자			
	가명	직위	소속	조사 방법
학교 현장 방문 면담	A	교사	가 중학교	FGI
	B	교사		
	C	교사		
	D	학부모		FGI
	E	학생		
	F	학생		
	A	교사	나 초등학교	FGI
	B	교사		
	C	학부모		
	D	교사		FGI
	E	지역 주민		
	F	학생		
	G	학생		FGI
	H	학생		
	I	학생		
	A	교사	다 중학교	FGI
	B	교사		
	C	학생		
	D	학생		
	E	학부모		
	A	교사	라 초등학교	FGI
	B	교사		
	C	학부모		
	A	교사	마 초등학교	개별 면담 조사
	B	학부모		FGI
	C	학부모		
	D	학부모		
	E	학부모		
	F	학부모		
	G	학부모		
	H	학부모		
	I	학부모		

구분	면담 조사 참여자			
	가명	직위	소속	조사 방법
	J	학부모		
	K	학부모		
	L	학부모		
	M	학부모		
	N	학부모		
전문가	A	현장 전문가	A 공립형 대안 고등학교 교사	FGI (온라인)
	B	현장 및 정책 전문가	B 초등학교 교감	
	C	현장 전문가	C 마을 교사 협동조합 대표	
	D	현장 전문가	D 초등학교 교사	
	E	정책 전문가	E 광역시교육청 시민협치진흥원	FGI (온라인)
	F	학술 전문가	국가교육 정책 관련 연구 기관	

3) 자료 분석

- 면담을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배경 및 연구 질문을 사전 제공하였음. 주요 면담 질문은 농어촌 학교의 현황 및 농어촌 학교의 강점과 가능성, 연구 참여자들이 상상하는 농어촌 미래 학교의 모습, 그리고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요구 등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하였음
- 면담 내용과 일부 연구 참여자들이 사전 작성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였음. 면담 과정에서의 모든 대화는 녹취하였으며, 녹취된 내용은 네*버 클로버를 활용하여 텍스트로 전사하였음
- 전사본은 녹취파일과 대조하여 수정함으로써 면담 내용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전사된 텍스트의 주제 분석을 통해 핵심 주제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제군을 범주화하였음

2. 조사 결과

가. 농어촌 학교의 어려움

- 농어촌 학교가 직면한 위기는 단일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 교육 환경의 제약, 교원 및 행정 운영의 비효율, 그리고 정책·제도적 갈등이 중층적으로 얹힌 구조적인 위기로 나타남. 특히 학교를 유지하고 혁신하려는 현장의 노력이 기존 제도와 충돌하면서 오히려 제약받는 사례는 농어촌 학교 문제가 단순한 지원 부족이 아니라 제도 설계 자체의 한계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러한 진단은 농어

촌 새로운 학교 모델이 제도 개혁과 함께 논의되어야 함을 설명함. 농어촌 학교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표 5-2>와 같음

<표 5-2> 농어촌 학교의 어려움

위기	소주제	세부 내용	핵심문제
인 구 구 조 및 사회경 제적 위기	인구감소·고령화·다문화 비중 확대	70~80대 고령인구 중심, - 학생 수 급감, 다문화 학생 비중 증가로 전통적 공동체 의식/협동 약화	학생기반 붕괴, 공동체 결속 약화로 학교, 지역 소멸 위기
	취약가정·다문화가정의 학교 참여 취약	조손, 저소득, 다문화 가정 비율이 높으나 생계로 학교 참여가 낮음	가정과 학교 협력 취약, 교육·돌봄·지원체계 공백이 확대
	생활 인프라 부족 및 학업성취우려	- 사교육, 특기교육, 체육문화시설 부족 - 전문병원 부재, 의료기관 부족 - 또래경쟁, 사교육 부재로 뒤처짐 우려	교육기회 격차, 생활인프라 취약, 학부모 불안으로 도시로 이탈
교육 환경 및 질적 문제	교원·강사 수급 곤란 및 교원 거주여건 부족	- 기간제·방과후 강사 지원자 부족, 이통 교통비 인센티브 부족 - 거주지 확보 어려움으로 발령회피, 휴직 발생, 관사 의존	프로그램 다양성 및 질 저하, 교사의 근무 지속성 약화
	작은 학교에 불리한 내신제도	소수 학생 구조에서 등급 변동의 영향이 커 입시 불리 우려	현행 입시구조가 학교철학과 교육의 가치를 위협
	통학지원 미비	- 스쿨버스·통학지원제도 불안정, 장거리 통학 - 학교 예산 전용, 학부모 부담	- 접근성 장벽으로 전입을 막고 유출이 촉진됨. - 학교 및 학부모의 부담 증가
	공동 교육과정 및 복식학급 운영의 한계	- 핵심교과 분리운영으로 수업 질과 집중도 저하 - 학령초과자와 아동 혼합수업의 경우 학습수준 격차 커 교사의 수업준비 부담 가중	- 교육과정 운영 부담증가로 학습 질 저하 - 교수학습설계의 어려움으로 교사 소진, 학습효과 저하
교원 및 행정 운영의 비효율성	학교 규모대비 행정업무 과중	학생감소에도 공문·행정업무는 유지, 소수교사가 다중업무 수행	교수활동 시간 부재로 학생 지원 및 수업 질 저하
	학생수에 따른 급격한 교원 감축	학생 1명 감소에 교원 수 대폭 감축하여 교육과정 운영 불안	인력 변동성이 높아 학교 운영의 예측가능성 불가
	교원배치의 질문제	원거리 학교일수록 신규·은퇴전 교사 편중, 10년~20년 중견경력교사 기피	교원역량 저하로 교육 질·혁신역량 약화
	잡은 교원 이동	3~5년 주기 교제로 학교 문화, 철학, 지역 관계 축적 어려움 - 혁신적 실천 교사 개인에게 의존	학교 문화의 지속가능성이 취약하고 들쭉날쭉함
	학교 내 직군 간 갈등	정규·비정규, 교사·행정·급식담당 등	학교 내 관계문화 취약

위기	소주제	세부 내용	핵심문제
		교내 직군 간 갈등으로 공동체 문화형성의 어려움	하여 학생에게 배움의 환경 자체가 악화
정책적, 제도적 갈등	정치변화에 따른 정책 단절	• 교육감 교체 후 혁신 사업 종료 등으로 지속모델 악화 우려	• 중장기 계획 불가 및 현장 동력 상실
	지자체-교육청 협력 부재	• 교육지원청, 교육감 등 협력 파트너 불명확, 교육장 임기 짧아 지자체와의 논의 대상 상시 변경	• 협치의 실패로 지역과 학교의 상생전략의 실행력이 부족함
	지자체의 소극적 재정 지원 및 예산의 불안정성	• 지자체의 교육투자 소극적이며 회피 경향이 있음 • 소멸대응기금 중 교육투자 비중 낮음 • 공약 사업도 의회에서 삭감/ 중단가능, 예산 확정 후에도 예산 중단 사례	• 재정기반 취약으로 지속성의 어려움 • 사업 지속성 붕괴로 학교 중장기 설계 불가능
	학교복합시설의 분절 운영	• 시설은 개선되었으나 학교-지역 사용 주체간 소통 부족, 시너지 없음	• 하드웨어만 구축·운영·프로그램 부제로 효율성 저하
	농어촌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	• 학급당 학생 수 기준 도시와 동일하기 상향하는 등 작은 학교 강점 상실 •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인한 갈등	• 작은 학교 선택 유인 감소 및 만족도 하락 • 현장 혁신 및 대안이 제도적 장벽에 막혀 지속 불가

□ 인구구조 및 사회경제적 위기

- 농어촌 학교가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현황은 학생 수 감소와 지역 공동체의 해체 위기임. 극심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감이 매우 심각하며, 인구구조가 70~80대 이상의 노령인구가 대부분인 상황임. 또한, 다문화 학생의 비중이 높은 현실 속에서 전통적인 지역 공동체 의식이나 협동 정신이 약화하고 있다고 봄

지금 농산어촌의 인구 구조상으로 보면 거의 70~80대 노령인구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학생들이 거의 없고 그리고 있는 학생들의 많은 부분은 다문화 학생으로 채워지고 있는 현실이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지역 공동체의 자원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 의식이나 협동 이런 것들이 지금도 살아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학술 전문가, F).

- 학교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건 즉, 일정 규모의 학생 수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임. 그러나 인구 감소로 인해 점차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일부 학교는 통폐합 또는 분교의 수순을 밟고 있음

농어촌이 겪고 있는 제일 큰 문제는 학생 수가 이제 보장이 안 된다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어떻게 학생 수를 유지할 수 있는가가 핵심인 것 같아요(정책 전문가, E).

저희도 22년도에 이 학교에 전근을 왔는데 그때 당시는 초등학생만 해도 40명이 넘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원 시설도 없고 또 그 친구들도 많이 없고 하니 그 시내로 나가겠다 하는 아이들이 한 그 10명 가까이 빠져나가서 지금은 우리 학교 학생이 17명입니다. (중략) 몇 년 후면 혹시 사라지는 건 아닐지 이렇게 걱정이 되죠(라 초등학교, 교사A).

- 농어촌 학교가 분교로 전환될 경우, 교장과 행정실이 없어지고, 교사 수와 학교 운영예산이 크게 줄며, 교육의 질이 하락하여 결국 폐교의 수순을 밟게 됨. 지역 주민들은 지역에 학교가 사라지면 젊은 인구의 유입이 어려워져 지역이 소멸된다는 염려에 학교 유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분교장만 해도 5억 원이 나와요. 분교장 근데 5억 나오는 게 왜냐하면 10년 단위로 5억을 쓴다면 9억이 더 감소가 돼요. 그 학교 자체에 기본 운영비가 9억이 사라져요. 그리고 교사들도 좀 줄고 또 행정실 이런 것도 없었고 이러니까 조금 그런 예산이 없어지겠죠(나 초등학교, 교사D).

아이가 수가 작아지면 붕괴됐다가 폐교되고 통합된다고 생각하는데 분교는 완전히 반토막 난 학교라고 보면 돼요. 학교 자율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은 본교에 대부분 계시잖아요. 분교에 잘 오지도 않아요(나 초등학교, 교사D).

저희 어느 지역이든지 농어촌 지역을 떠나서 농어촌이 아니고 특히 오지 이런 오지 같은 데는 웬만하면 유지를 할 수 있는 게 방법을 찾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이 지역민도 사는 입장이고... 그렇게 돼야지 좀 젊은 사람이 들어올 희망이라도 생기는데 그것마저 없다, 학교마저 없다 그러면은 이 지역 자체는 그냥 젊은 사람이라고는 찾아보지 힘들지 않겠느냐(나 초등학교, 학부모C).

- 한편, 농어촌 지역은 조손가정, 경제적 취약계층, 결혼 이주 배경 가정의 비율이 높지만, 생계 활동 등으로 인해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학교 참여 비율이 낮음

부모님들은 조손가정이 많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고 다문화 가정도 한 3~40% 정도 돼요(라 초등학교, 교사A).

(다문화 가정의 부모) 참여율이 보통은 많을 수가 없는 게 다 일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부담스러워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가 중학교, 학부모D).

- 결혼 이주 배경의 가정에서는 모의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으로 부가 학교와 소통하는 경우가 많고, 대체로 엄마들의 모임으로 구성된 학부모회에 아버지들은 참여를 꺼림

아무래도 이게 소통이 잘 안되시니까 저희 평소에도 이제 어머니가 이게 언어적 소통이 안 되니 아버님이 주로 아이와 관련된 소통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또 이제 학부모회 나가시면 어머

님들이 많은데 아빠가 끼기에는...(라 초등학교, 교사A)

- 농어촌 학교 주변에는 사교육 시설이 거의 없어 아이들이 농구 등 스포츠 활동을 하거나 특기를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서는 왕복 1시간가량을 도시나 읍내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이제 여기 와서 좋아하는 걸 찾았어요. 근데 깊이감 있게 배우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아쉬움...(중략)... 재능을 발견하더라도 이게 도시일 경우에는 바로 달려가서 어디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없어...(마 초등학교, 학부모C)

(학원 인프라) 많이 안 좋죠, 제일 퀄리티가... 그게 아쉬운 점이 있어, 제일 많이 아쉬운 점이 멀리 나가야 되고, 체육시설이나 이런 영어 마을이라든지 거의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왔다 갔다 1 시간 정도 거리가 거리 멀다 보니까 그게 조금 불편하죠(라 초등학교, 학부모C).

- 또한, 의료서비스 부족으로 멀리까지 이동해야 하며, 병원에 가더라도 접수마감 시간이 빠르거나 대기시간이 길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음

작기 때문에 병원도 없고 병원이 있어도 전화 대기시간이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아예 예방 접종부터 시작해서 정말 아주 작은 감기 하나로 이렇게 병원에 가서 항생제 처방을 받거나 해도 정말 1시간 2시간은 기본으로 가야 되고 아이 이제 학교 끝나고 부랴부랴...(마 초등학교, 학부모B)

- 농어촌 학교의 유지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학부모의 학업성취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 학원 시설이 없고 또래 친구가 적다 보니 학부모들은 자녀가 도시 학생들에 비해 뒤처지거나 ‘우물 안 개구리’로 살지 않을까 우려함

저학년엔 여기서 이제 뭐 자연에서 마음껏 뛰놀아라 그러다가...(라 초등학교, 교사A)

여기 학교생활은 너무 좋지만, 우물 안 개구리로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자주 이제 시내로 내보내 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라 초등학교, 교사B).

- 이러한 우려로 농어촌 학교의 학부모들은 자녀가 고학년이 되면 도시로 전학을 가거나 이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학교 소멸의 가속화 요인이 되고 있음

중학교에는 중고등학교 학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애들이 적고 학원 시설이 없고 하니까 더 현실 생각이... 오히려 고학년이 되면 더 나가시는 거예요(라 초등학교, 교사A).

- 이처럼 농어촌 학교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다문화 학생 비중 증가 속에서 지역공동체 약화와 학교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 학생 수 감소는 통폐합·분교 전환으로

이어져 교육 여건과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이는 다시 지역 인구 유출을 가속시킴. 사교육·의료 인프라 부족과 학업 성취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은 고학년 전학·이주를 낳아 학교 유지의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임

□ 교육 환경 및 질적 문제

- 지리적으로 도시와 멀리 떨어진 학교는 기간제 교사나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 자체를 구할 수 없거나 채용 시에도 지원자가 적어 양질의 교사를 확보하기가 어려움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정교사보다는 강사나 이런 기간제 교사나 일시 그런 것들의 협력을 받고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교통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수당이나 이런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어...(가 중학교, 교사A)

강사가 안 들어오죠. 네 강사를 못 구해서 솔직히 방과후 프로그램은 인근 10분 거리에 있는 00 초라고 있는데 그 학교는 읍이랑 가까우니까 강사들이 여기 여기 뛰고 저기 뛰고가 돼요. 와요. 근데 우리는 안 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이거는 애를 써도 강사 자체를 구할 수가 없는 프로그램은 해드릴 수가 없어요(마 초등학교, 교사A).

- 주거 여건의 부족으로 교사들이 농어촌 학교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다고 함. 그리고 공립학교 교사들은 주거 여건의 부족으로 농어촌 학교로 발령을 받으면 휴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작은 학교에 아이를 보내든 아니면 선생님이 조금 오래 있고 싶어도 1순위 걸리는 게 집인데 집을 못 구해서 결국은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읍에 빌라 어디서 살다가 도저히 안 돼서 다시 광주로 나가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처럼...(현장 전문가, C)

공립학교인데 선생님들이 관사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살 수 있는 집도 없고 대부분 춘천 이런 데 계신 분들이 발령 나면은 휴직이 된다니까요. 그 도시에서 사시던 분이 발령 나면은 그냥 어떤 이유를 대서 병원에 가서 진단서 받아서 1년 휴직하고...(가 중학교, 교사B)

- 또한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스쿨버스나 통학 지원이 법적·제도적으로 안정화 되어있지 않아 농어촌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싶어도 1~2시간 걸리는 통학 시간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가 운영예산을 끌어 쓰거나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기도 함

과밀학급 지역에서 다니는 게 힘들어서 이쪽으로 오고 싶는데 그쪽에서 오려면 버스를 두 번 갈아 타고 와야 된다거나...시간은 둘째 치고 오기 위해서 1시간 이상 2시간 가까이 써야 한다거나 이런 면 부모 입장에서 사실은 보내는 게 망설여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올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다 중학교, 학부모E).

버스가 2회 일부 자부담을 하고 저희가 각종 사업 예산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운영비로 대체하는 운영비로 대체 학교 운영비로 여러 가지로 대체하고...(중략)...면 단위 학교는 중학교도 통학을 지원해 주는 이런 자유 학부제인데 통학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가 중학교, 교사A).

- 이 외에도 대도시와 달리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학생 수가 적어 다양한 교우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움. 무엇보다 교우 간 갈등이 발생할 때 또 다른 관계를 맺을 기회가 없음. 더욱이 남녀학생의 비율을 맞추기 어려움

서울이나 큰 대都市는 친구가 많아서 이 친구랑 안 맞으면 이 친구랑 놀 수 있고 여자친구들도 많고 그런데 여자가 없어. 7명 중 여자아이가 하나예요(마 초등학교, 학부모H).

- 농어촌 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적어 복식학급이 구성될 경우,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 핵심 교과에서는 교육과정을 따로 운영해야 하므로 교육의 질이 떨어짐

복식학급이 두 세트가 생겨서 네 지금 이제 4학급이 된 거예요. 그거는 저희 의지와는 의사와는 관계없이 정해진 그 인원수로 그냥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이들한테도 불편함이 있고 저희에게도 있는데....누가 우리 애가 1, 2학년 같이 수업받는데 보내고 싶겠어요(라 초등학교, 교사A).

- 학령 초과 학생을 학생으로 인정한 경우에도 성인 학습자와 어린 아이들이 한 반에서 동시에 지도하는 것은 학습 수준과 이해 능력에 차이가 커 교사들이 수업 준비와 교수 활동 과정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기도 함

일단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힘들었고 교육과정을 이제 학생 학령기 아동만 있을 때, 재구성해서 가르치는 것도 힘든데 그걸 또 이제 이분한테 맞춰서 또 재구성을 이제 뭔가 그렇게 해서 맞춰서 이렇게 수업을 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나 초등학교, 교사B).

- 농어촌 중·고등학교의 경우 작은 학교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등급이나 석차가 크게 하락하여 입시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이는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이나 폭넓은 경험을 중시하는 농어촌 학교의 교육철학을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저는 시골 학교라서 어려운 점은 (학생 수가 적으니까) 한 등수만 내려가도 퍼센트가 엄청 깎이잖아요. 그러니까 60명만 됐어도 100이니까 한 1%, 3%, 5% 근데 지금은 뭔가 너무 편차가 커지는 것 같아요(다 중학교, 학생D).

- 농어촌 학교는 교통·주거 여건 부족으로 교원과 강사 확보의 어려움, 통학 지원의 제도적 미비로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에 제한이 있음. 그리고 학생 수 감소는 또래 관계 형성과 복식학급 운영의 한계를 낳아 교육과정의 질을 저하시킴. 또한, 소규모 중·고등학교

교에서는 성적 변동이 입시 불리로 직결돼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학교 교육철학을 위협하고 있음

□ 교원 및 행정 운영의 비효율성

- 학생 수가 줄어들면 교사의 수도 줄어들지만, 교사들이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는 그대로 남아, 작은 학교에서는 소수의 교사가 여러 개의 업무를 동시에 나눠 맡아야 하므로 남아 있는 교사들에게 부담이 집중됨

작은 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업무거든요. 교사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량이 너무나 많으니까...(중략)... 왜냐하면 애들이 준다고 업무가 주는 게 아니고 그 업무량은 똑같은데 시내 40명이 나눠서 하는 걸 저희는 7명이 나눠 해야 되는...(라 초등학교, 교사A)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교사 수가 너무 적어버리면 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불필요한 공문이 너무 많아요. 이걸 너무 해결이 안 되나 왜? 이런 공문까지 다 이렇게 보내면서 그런 불필요한 업무를 하는 시간도 좀 많거든요(현장 전문가, D).

교사 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 1인당 책임져야 되는 업무의 양 문제가 결국은 학생한테 관심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다 중학교, 학부모E).

- 학생 수가 1명만 줄어도 교사의 수가 대규모로 감축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학교 운영에 큰 불안정성을 야기함. 또한, 학교의 교장과 교사는 짧게는 3~4년, 길게는 5년 단위로 교체되는 교원 인사 발령 정책으로 인해 학교 문화나 교육철학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움

구성원이 바뀔 때마다 학교 분위기는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또 지역사회랑 학교랑 또 다른 또 관계 설정을... 계속 이 단위가 거의 짧게는 3년~4년, 아니면 길게 5년 단위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중략)... 오랜 시간 축적이 되면 문화로 되는 거니까 그 학교에 가치와 철학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이 관리자가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2년에 한 번꼴로 바뀐다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마 마을교육공동체 자체를 시도하는 것 어려울 겁니다(현장 전문가, C).

- 학교의 혁신적인 활동은 학교장의 교육철학과 리더십 그리고 교사의 노력 등에 크게 의존하는데, 교장과 교사가 바뀌면 그 모델이나 문화가 지속되기 어려움

한때는 교장과 교감 선생님 특히 교장 선생님이 어떤 분이 오느냐가 지역사회 초미의 관심사 그래서 누가 온대, 잘 협조할 것 같아 이런 게 거의 마을에서나 학부모들 사이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정도로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해에는 교장 선생님이 오셨는데 대단히 그전 교장 선생님에 비해서 미온적이어가지고 협조가 잘 안됐던 어떤 시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들쭉날쭉하더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 같아요(현장 전문가, C).

-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일수록 “신규 교사나 은퇴를 앞둔 일 하지 않는 교사만 발령이 나”는 경향이 있으며, “10~20년 차의 역량 있는 교사”들의 경우 농어촌 학교의 근무를 기피하여 농어촌 학교의 교원 역량이 저하되는 문제도 있음

농촌 학교가 지금 전반적으로 어려운 거는 특히 중고등학교로 가면은 도시에서 멀수록 신규 교사만 발령이 나가거나 또는 은퇴를 앞둔, 일하지 않는 교사가 발령이 나요.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역량 있는 교사가 가지도 않고 시도교육청이 신경 써서 배치도 하지 않습니다(현장 및 정책 전문가, B).

- 같은 학교 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사와 행정실 등 직군 간의 갈등으로 서로 존중하고 친밀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님을 지적하였음. 이러한 문제는 비단 농어촌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가 없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울 것이 없다고 지적함

지금 우리 학교는 그런 모습이 아닌 이유는 직군 간의 갈등도 너무 심하고요. 교사와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급식실, 조리 종사원들 간의 갈등과 대립, 반목하는...(중략)...이런 따뜻한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지 않는 학교에서 과연 아이들이 뭐를 배울 수 있을까?(현장 전문가, C)

- 이와같이 농어촌 학교는 학생 수가 감소로 인한 교사 수 감축으로 소수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집중됨. 잦은 인사 이동과 순회교사, 역량 있는 중견 교사의 기피 등으로 학교 문화의 지속성이 약화되고 있음. 학교 내 직군 간 갈등은 공동체성을 훼손하고 있음

□ 정책적, 제도적 갈등

- 전문가들은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할 제도적 시스템의 미비를 지적함. 학교의 중장기적인 교육 계획이 정치적 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감이 바뀐 후 혁신학교 사업 등이 종료되어 학교가 기존의 상생 모델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함

진보 교육감이었을 때 이제 교육청 문화와 지금 문화가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도 좀 있고 혁신학교가 이제 사업이 끝나면서 학교는 이제 혁신학교 이후의 모습들을 다시 이제 버티고 지켜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제 혁신학교 끝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이제 2~3년 길어지게 되면 그동안 잘 자리 잡혀서 지역과 상생하고 소통하는 학교들도 언제 어디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지금 고민인 거죠(현장 전문가, D).

- 농어촌 학교와 지역의 상생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현실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교육청 및 교육장 간의 협력이 매우 어려워 거버넌스 구축이 미흡함. 특히 선출직 교육감이 바뀌면 교육 정책이 단절되어 현장에서 지속해 온 교

육 활동의 동력을 잃거나, 교육장의 임기가 짧고 잦은 교체로 지자체에서는 논의의 대상이 자주 바뀌어 어려움을 호소함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같이 협력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교육 발전 특구가 우리 기관에서 성과 평가를 하면서 저도 들어가서 좀 보고 있는데 그 협력의 주체 문제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교육지원청하고 지자체는 기초자치단체고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과 관련해서 특구를 만들었지만, 누구랑 협력해야 되느냐 협력의 카운터 파트너가 누구냐 교육지원청이냐 아니면 교육감이냐 라는 문제가 좀 부각이 됩니다(학술 전문가, F).

군수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는 투표를 통해서 되고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이 임명해서 내려보내는 구조고 기초자치단체장은 그 4년 동안의 임기라는 것이 보장이 되고, 재선이나 3선까지 가능하지만, 교육장은 대부분 2년이 안 되고 1년 반 정도가 아마 평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의의 대상이 없다는 것을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정책 전문가, E).

- 지자체는 교육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권한 갈등 및 예산 문제로 교육청과의 협력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임. 실제로 인구 소멸 대응 기금 중 교육 분야에 투자되는 비중이 2년간 6% 내외로 현저히 낮은 현황임

인구 감소 지역에서 매년 1조씩 지원해 주는 인구 감소 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기금의 사업 내용을 분석했었는데 학교 교육 분야에 투자되는 것이 한 2년 정도 분석했는데 6% 내외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교육에 대한 관심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게 의도적이기도 하고 아니면 권한 간의 갈등 때문에 피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같이 협력해서 뭘 한다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학술 전문가, F).

- 학생 수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의 유휴시설을 지역 기반 시설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학교 복합 시설의 경우 시설 차원에서는 개선이 되었으나, 학교와 지역 주민 등 사용 주체들과 활용 방안에 대한 소통 없이 분절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학교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함

학교 복합 시설들을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유명한 지역들은 건물을 굉장히 잘 지었는데 여전히 굉장히 분절되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학교를 사용해서 이제 시설은 했으나 그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나야 하는데 학기 중에는 그 건물을 학교가 같이 사용하고 학교가 끝난 이후에는 지역이 사용하면서 소통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이 형성돼야 하는데 아주 정말 칼로 자른 것처럼 딱 잘라져 있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중략)... 학교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없어요.(현장 및 정책 전문가, B)

- 또한, 지자체 중심으로 문화시설이 별도로 생기면서 군 단위에서는 학교 복합 시설의 필요성이 낮아지는 경향도 있음. 특히 인구 소멸 지역인 농어촌 지역보다 도시지역의

서비스 신청이 더 많은 상황임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문화센터 이런 것들이 별도로 생겼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학교 복합 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자체에서 굳이 이것을 같이 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학교 복합 시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신청 건수만 봐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중략)... 2025년 같은 경우에 군 단위 지역의 학교 복합 시설 신청이 증가했지만 기존에는 대부분 도시 지역이었습니다.(학술 전문가, F)

-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예산 지원이 불안정하여 학교에서는 중장기적인 교육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음. 한 지역에서는 교육감의 공약 사업이지만 도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예산이 확정된 이후 사업 추진 중에도 예산 중단으로 학교추진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함

농어촌을 하면 예산이 꾸준히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작년하고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미래학교 사업이 교육감님 사업이 있었고요. 사실은 이제 예술진흥원에서 하는 예술 문화 씨앗학교 이것도 갑자기 돈이 사라진 거예요. 7천만 원 예산을 4년간 확정을 지어놨다가 첫해만 하고 그다음 해에 바로 사라진 거예요. 국회에서 그냥 자른 거예요.(가 중학교, 교사A)

- A 광역 교육청의 경우, 작은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도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늘리면서 농어촌 학교가 가진 작은 학교의 강점이 오히려 사라지기도 함. 이에 따라 작은 학교를 선호해서 먼 거리에서도 찾는 학부모들은 실익을 느끼지 못함

우리 **중학교의 강점이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흐려지게 지속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학구제에서도 많이 오는 거를 저희는 반대하고 4학급만 최저 유지하고 한 23명 정도 한 반에 이 정도 유지되는 게 저희는 제일 좋거든요. 20명, 23명 근데 제도적으로 29명 딱 잘라버리니까 그게 안 되는 거. 학급당 인원수가 좀 늘어났거든요.(가 중학교, 교사B)

올해 지금 안 그래도 작년에 이제 신입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작년에 많아 버렸잖아요. 그래서 생각과 너무 다르다. 이제 '전원 학교라고 작은 학교라서 보내고 싶었는데 (이렇게 큰) 학교까지 되면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가 중학교, 교사B)

-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학령 초과자 입학 등 학생 수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기관은 예산 및 행정적 문제와 안전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학교 통폐합이나 분교 전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 어르신들도 의지도 있고, 저희 학교도(그전 교장선생님도) 그걸 (인정해 주셨고), 그렇다고 학부형들이 안 돼 그러면 끝인데 학부형들도 같이 의견을 다 내 가지고 동의를 다 해 주셨고 그래서 어 그 당시에는 이 지역에서 서로서로 해서 의견이 맞아 들어갔습니다(나 초등학교, 학부모C).

벌써 지금 초중이 통폐합했는데 다른 방법의 통폐합을 학교도 할 수 있어서...(라 초등학교, 교사A)

현재 지역하고 이제 청, 기관하고 다툼이 문제거든요. (학령 초과자들이) 학생으로 입학했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 있으나 행정적으로는 이분들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중략)... 나라에서 이 예산이 몇십 배가 늘어날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들 어른들은 항상 안전에 좀 위기 처해 있죠. 어떤 사고가 벌어질지 몰라요.”(나 초등학교, 교사A)

- 이와같이 정책·제도는 정치 변화에 따라 단절되고, 교육청-지자체 간 거버넌스와 재정 협력이 미흡해 중장기 계획이 어려움. 학교복합시설 등 사업도 주체 간 소통 부족으로 효과가 제한되며, 작은 학교의 강점은 획일적 기준과 통폐합 정책으로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 소결

- 농어촌 학교는 심각한 인구 감소와 지역 공동체의 해체 위기 속에서 학생 수 확보와 학교 유지라는 근본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분교 전환, 학교 통폐합 등으로 이어져 지역 소멸을 가속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음
- 도시와의 거리, 주거·의료·교육인프라의 부족으로 교사 확보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우며, 학부모들은 학업 격차와 진로 기회의 부족을 우려해 고학년이 되면 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높아 교육의 질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또한 소수 교사에게 가중되는 행정업무, 잦은 교원 순환 배치로 인한 교육철학의 단절, 신규, 임기 말 교사 위주의 발령은 학교 운영의 안정성과 공동체적 문화 형성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이 됨
- 더불어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 부족, 선출직 교육감과 교육장 교체에 따른 정책의 단절, 학교 복합 시설의 비효율적 운영 등 제도 및 거버넌스의 불안정은 농어촌 학교가 지역과 상생하는 모델로 발전하는 데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 결국 농어촌 학교의 어려움은 단순한 교육 문제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존속, 교육 기회의 형평성, 지속 가능한 농어촌의 미래와 직결된 구조적인 문제임이 확인됨

나. 농어촌 학교의 가능성과 희망

- 농어촌 학교의 가능성과 희망은 농어촌이 속한 자연환경과 작은 규모이기에 가능한 학교 운영 방식과 이 과정을 통해 관계의 밀도가 높아지고 공동체 기반의 교육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연구 참여 자들은 농어촌 학교의 강점과 가능성을 자연환경과 생태, 마을 중심의 학습 생태계 등 주어진 환경으로 인한 강점

과 관계 중심의 교육적 본질 실현, 환대와 포용을 통한 유입 인구의 정착, 갈등 해결을 통한 공동체, 민주시민 육성, 학교 운영의 유연성과 특성화 교육 등 소규모 학교이기에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함.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5-3>과 같음

〈표 5-3〉 농어촌 학교의 강점과 가능성

범주	소주제	세부 내용	시사점
생태 기반 학습 자원	경험적 생태교육	- 자연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환경 - 기후 위기 시대 핵심 가치인 공생과 지속가능성의 체험학습	생태 감수성을 지식이 아닌 경험으로 내면화할 수 있음
	교실 밖 교육 공간	- 근거리 자연환경을 활용한 즉각적 체험 가능 - 교실 안팎 활동의 유기적 연결	학습 공간 개념의 확장 가능
	삶과 연결된 교육과정	생태 수업 후 모내기·벼 베기 등 실제 농촌활동 연계	교육과 노동, 삶의 통합 교육
	감수성회복·치유 기능	- 자연을 통한 정서 안정·힐링 효과 - 생태적 소재에 대한 높은 감수성	정서·돌봄과 학습의 결합
지역(마을) 중심 학습 생태계	로컬 교육 실현	학교를 넘어 마을·지역 전체가 배움의 공간	교육의 장소성 확장 및 로컬 교육 모델 가능
	평생학습 허브	- 학교 시설의 평생학습 시설화 - 학습 소외계층의 포용 및 세대 통합 학습	학교의 기능 확장 가능
	지역 자원 활용	- 마을 직업군 기반 진로 탐색 교육 - 문화·예술·체육·체험학습 지원 - 방과후 마을 학교	교육 격차 완화로 포용적 지역 기반 학교로 존재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연대와 소통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연대와 소통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운영의 가능성
관계 중심의 교육적 본질 실현	관계를 기반으로 한 배움	- 배움은 관계의 산물이라는 교육의 본질이 작은 학교에서 실현 - 도시 과밀 학교보다 주변 세계와의 상호작용이 풍부	학습을 성취가 아닌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가는 과정으로 재정의할 수 있음
	따뜻한 학교 문화	- 학교를 '삶의 공간'으로 인식 - 친밀한 소통	친밀한 소통으로 긍정적 관계 문화 형성
	신뢰기반의 학교문화	- 학교 운영의 공개성과 솔직한 소통이 가능 - 불이익 없이 공정하게 운영될 것이라는 신뢰 형성	신뢰를 기반으로 한 학교 거버넌스 구축
	교사와 학부모의 상호협력적 관계	교사의 헌신, 학부모의 신뢰와 감사 표현, 교사의 사명감 중심 실천- 학부모의 신뢰 강화의 순환	교사의 윤리성과 전문성 회복의 가능성

범주	소주제	세부 내용	시사점
현대와 포용을 통한 유입 학생·가족의 정착 가능성	현대의 문화	• 낯선 이에게 경계 없이 다가오는 따뜻함 • 아이들의 정서 안정과 활력 증진	• 포용적 학교 문화
	상호우호적 노력을 통한 정착	• 유학 가족의 적극적 마을 참여 • 선주민-유입민 간 신뢰 형성을 통한 마을 정착과정	• 정착 과정의 상호성
	부모의 성장	• 유학 부모에게 '나에 대한 마음' 회복 • 학교와 마을 기여를 통한 심리적 보상 (존재의 의미 발견)	• 학교 참여 경험을 통해 삶의 전환 경험 가능
	공동육아·사회적 지지	• 유학 가족 간 커뮤니티 형성 • 도시 경쟁환경과 다른 관계 경험	• 사회적 지지망 형성
	고급 인력 유입의 가능성	• 농촌 유학 학부모 중 전문직 인력 참여	• 외부 인적 자원의 학교 유입으로 개방형 협력 학교 가능
	장기 정주 가능성	• 귀촌·정주로 이어질 잠재력	• 학교-정주-지역 지속성 연결 가능
갈등 해결을 통한 공동체적 성장	공동체적 갈등 해결	• 학폭위 이전 단계에서 대화·타협 중심 해결 • 학부모 공동체의 적극적 개입	• 회복적 정의 실천
	예방 중심 교육 문화	• 문제 징후를 조기에 공유·논의 가능 • 아이들의 갈등 경험을 학습 기회로 전환	• 공동체적 자정 능력
주체적인 민주 시민으로 성장	학습자 주체성 강화	• 자율성 보장으로 자기 삶을 주인답게 결정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 함양 • 학생들이 학교 운영 및 학교행사 준비에 직접 참여함	• 학생 자치를 통한 민주적 시민성 함양
	민주적 의사결정 훈련	• 전교 회의를 통해 안건에 대한 이견조율 및 문제 해결 경험 • 민주적 리더십이 상급 학교 진학 후 발현되기도 함	
		• 학생들이 스스로 정한 규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하여 교사들의 생활지도 에너지를 절약	
학교 운영의 유연성과 특성화 교육의 가능성	교육과정 자율성	• 교사 전문성을 기반한 탄력적 운영	•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가능
	특성화·진로 책임	• 생태·자연을 활용한 특성화 교육과정 • 개인 맞춤형 진로 지원 가능	• 진로를 책임질 수 있는 학교
	공동 교육과정	• 인근 학교 연계 또는 지역 간 교류 • 국제 교류, 도시-농촌 교류, 다양한 제도적 실험	• 규모 한계를 극복하고 네트워크형 학교 운영 가능성

□ 생태 환경 기반의 학습 자원 풍부

- 연구 참여 자들은 농촌을 자연과 늘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며, 이러한 환경 자체가 기후 위기 시대에 요구되는 공생(共生), 지속가능성, 생태적 책임성과 같은 미래지향적 가치를 경험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인식함. 즉, 농촌의 자연은 단순한 학습 소재를 넘어, 학생들이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들을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음

자연과 늘 밀접하게 맞닿아 있으면서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금 특히나 기후 위기 시대에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새로운 미래적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도 훨씬 더 경험적이고 체험적으로 그런 자연과 상호작용 공생 이런 가치를 학습하고 배울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장소가 농촌이라고 한다면 농촌 안에 존재하는 학교는 당연히 그런 배움을 엮어낼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되겠죠(현장 전문가, C)

도시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여기서 할 수 있는 체험이 다르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막 학습적 공부를 하는 친구는 아닌데 경험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좋아하고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아봤어요. 이 경험 이... (마 초등학교, 학부모H)

- 농어촌 학교에서 이러한 경험적 생태교육이 가능한 중요한 요건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교실 밖으로 교육 공간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을 지목함. 즉, 학교 내 교육 활동이 교실에 한정되지 않고, 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근거리의 자연환경으로 직접 나가서 체험하고 다시 교실로 돌아와 학습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음. 이러한 여건은 교실 안에서의 이론 학습과 교실 밖에서의 체험활동이 단절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도시 학교와 가장 차별화된 농어촌 학교의 강점이라 할 수 있음

학습 공간이 교실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말씀...농어촌 학교는 학교마다 스쿨버스가 다 있어요. 그래서 잠깐 근거리에 나가서 체험해보고 활동해 보고 올 수 있는 여건들이 열려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론 체험학습 형태이긴 하지만 쉽게 나가서 아이들하고 이제 활동을 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고 교실 안에서의 교육 활동과 교실 밖에서의 교육 활동이 잘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현장 전문가, D)

- 더 나아가 연구 참여자들은 농어촌 학교의 생태교육이 단발적인 체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과 연계된 교육과정으로 구조화할 가능성을 지닌다고 보았음. 예를 들어 친환경 생태교육을 받은 후 실제로 논에 나가 모내기를 하고, 벼 생육 과정을 관찰하며, 수확기에는 벼를 베는 활동까지 하나의 연속적인 교육과정으로 구성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연과 인간의 관계, 노동의 의미, 생태 순환의 원리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됨

학생들이 친환경 생태나 친환경 쪽으로 공부한 다음에 이제 나가서 이제 나가서 이제 우리 학교는 이제 얼마 전에 또 벼베기를 하고 왔는데 실제로 생태 논에 가서 모내기를 하고 관찰을 하고 벼를 베고 일련의 과정들이 일련의 교육과정으로 지금 짜여져 있거든요.(현장 전문가, D)

얼마 전에도 저희가 (수확)한 쌀로 가래떡 먹었거든요. 그거 보니까 좀 뿌듯한 것 같기도 하고(다중학교, 학생D)

- 농어촌 학교의 생태 환경은 단순한 교육 자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감수성과 정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학습환경으로 인식하고 있음. 연구 참여자들은 농어촌의 일상적 환경 자체가 생태적 소재와 주제로 채워져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도 자연스럽게 생태적 감수성을 형성해 나간다고 보고함. 이는 농어촌 학교에서 생태교육은 추상적인 개념학습을 넘어 삶의 맥락 속에서 의미화되는 교육과정으로 구현할 수 있음을 보여줌

학생들이 생태적인 감수성은 더 뛰어난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아이들마다 편차나 개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접하는 것들이 훨씬 더 소재나 주제들이 생태적으로 좀 많이 접근해 있다 보니까 아이들도 훨씬 더 생태적 감수성은 좀 뛰어나다는 생각이 좀 들고 물론 개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현장 전문가, D)

도시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농촌에서는 생태교육이 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거든요. 여러 가지 민물고기 이름도 알고 잡아볼 수도 있고 그 환경 자체도 여러 가지로 달라서 생태적인 수업을 하고 그런 마인드를 키우기에는 굉장히 좋다.(현장 전문가, A)

- 한 학부모의 피드백을 통해 이러한 생태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서뿐만 아니라 농어촌에 주어진 자연환경을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음을 확인함

저희 아이도 꿈이 생물학자여가지고 저는 바다도 가깝고 천도 가깝고 산도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와서 해양 생물이랑 민물고기 온갖 것을 진짜 많이 그래서 배웠거든요.(마 초등학교, 학부모 E)

- 또한, 농어촌의 자연환경은 경쟁과 속도 중심의 도시적 생활양식과는 대비되는 '느림'과 '여유'의 시간 경험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정서적 안정과 치유의 효과를 제공하는 요소로 인식됨. 연구 참여자들은 농어촌의 자연과 생활 리듬이 학생들에게 긴장을 완화하고, 비교와 경쟁보다는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 학습 태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함

빨리빨리와 경쟁 이게 이제 우리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볼 수도 있는데 농촌에서는 좀 그게 조금 덜하다고 보여져요. 여기도 물론 빨리빨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좀 여유가 좀 더 있고 그러니까 여유가 있고 조금 더 이렇게, 천천히 느린 슬로우 라이프라고 그럴까 그런 게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현장 전문가, A)

-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정서적 안정에도 기여함

자연환경도 그렇지만 저는 그냥 이 시골 자체에서 좀 느리게 흘러가는 삶을 좀 살아보고 싶었어.

복잡하지 않게(마 초등학교, 학부모F)

- 이와같이 농어촌 학교는 자연환경과의 일상적 접촉, 교실 밖으로 확장된 학습 공간 그리고 삶과 연계된 교육과정 구성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과 공생의 가치, 여유로운 삶을 통한 정서적 안정을 경험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농어촌 학교가 지닌 고유한 교육적 강점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지역(마을) 중심의 학습 생태계

- 마을 전체가 학교가 되는 학습환경으로 로컬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음. 연구 참여자들은 농어촌 학교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로 배움의 공간이 학교 울타리를 넘어 마을과 자연 전체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농어촌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또래와 형·동생 관계 속에서 산과 들을 자유롭게 오가며 놀이와 배움을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경험이 가능함. 이는 안전의 우려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도시환경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학습 경험으로 인식됨.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에게 신체적 자유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학습 기회를 제공함

그냥 형이랑 동생들과 함께 산으로 들로 막 뛰어나가서 형들한테 배우는 거 저희 아이는 진짜 여기 오기 전까지 곤충 뭐 이런 거 절대 못 잡았거든요. 자전거 타러 나갈 때도 도시에서 나가면은 찻길 위험하고 뭐 하고 빼고 못 빼고 하면은 잘 못 가잖아. 근데 여기서 실컷 자전거를 타면서 제가 있었으면 위험해, 안 돼, 위험해! 안 돼! 이렇게 막았던 것들을 다 여기서는 자유롭게 하는 거 그게 최고의 체험으로는 최고일 것 같아요.(마 초등학교, 학부모H)

- 전문가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농어촌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과 지역 전체를 학습 공간으로 인식하는 로컬 교육의 실현 가능성을 제시함. 학교는 더이상 물리적 건물에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마을과 자연을 포괄하는 학습의 허브로 기능할 수 있음을 의미함

저는 학교가 학교의 배움의 공간이 학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학교 공간이 확대되는 이게 농어촌 학교에서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를 중심으로 한 마을이나 지역 전체가 학교 모든 게 다 학교라는 생각을 좀 해요.(현장 전문가, D)

- 더 나아가 농어촌 학교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학습 및 교육 허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연구 참여자들은 농어촌 학교가 학령기 아동만을 위한 기관을 넘어, 지역 성인과 노년층을 포함한 평생학습 허브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특히 농어촌 지역은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인프라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학교가 거의 유일한 공공교육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건은 학교의 역할 확장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었음

농어촌 지역은 학교 시설을 평생학습 시설로 좀 만들어서 농촌 지역에 있는 성인들의 교육과

학교 교육이 어우러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건 중요하다고 봅니다.(정책 전문가, E)

- OO초에서는 학교 안에 학습 의지가 있는 지역 주민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을 배움터'를 조성하려고 계획 중임. 이는 학교가 다른 방식으로 존립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를 형성하는 동시에 지역 교육 수요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함

이분들의 열정은 이미 다 알려져 있고 우리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가면서 학교를 다시 바꿔야 된다. 그 틀이 뭐냐 하면 학교 안 마을 배움터를 함께 조성해서 약간 이제 지금 마을 학교라는 개념도 많이 나오고 있죠. (중략) 배움의 열정이 있는 분들은 학년을 계속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여기 평생학습실을 만들고 있습니다.(나 초등학교, 교사A)

- 또한 전문가들은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등 제도적으로 허용된 장치들을 적극 활용할 경우,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배우는 세대 통합형 학습 구조도 가능하다고 봄

옛날 학교면 학교가 큰 학교들도 있잖아요. 그럼, 학교의 공간 일부를 평생학습 시설로 쓰는 거고 또 제도적으로는 학교 부설에 방송통신고등학교가 되든 뭐가 되든 평생 시설도 운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마을 주민들이 학교에 와서 배움을 이어가는데 그것이 학교와 같이 가는 방식인 거죠. 그러면 그 마을 주민들 하고 학생들이 함께 배우는 과정도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까(정책 전문가, E)

- 한편, 농어촌 학교는 지역의 유일한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공교육 역할을 충실히 하는 동시에, 그에 부과되는 기능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고 봄

지역에서 학교는 유일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교육 수요나 이런 것들을 받기가 더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전히 요구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고 그거 이외에 부과되는 기능들은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학술 전문가, F)

- 지역 자원 활용과 소외계층 지원이 가능한 공유 공간이 될 수 있음. 농어촌 학교는 각종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지역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경험하지 못했던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제공하는 공유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음. 특히 또래 관계가 제한적인 농촌 환경에서 학교는 아이들에 '학교이자 집이자 놀이터'로 작동하며,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인프라가 너무 완전 다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만들고 놀이터를 만들려면 또 놀봄실

을 만들려면 그 사업거리가 부족해 어쨌든 그래도 그때 초기라서 예산이 막 줄 때라서 받았어요. 그러가지고 그러한 아이들이 하루를 거기서 이렇게 왜냐하면 토래가 마을에 가면 없으니까 그 안에 와야지만 토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집처럼 지낼 수 있고 학교이자 집이자 놀이터이자 또 서로 정보 교류하는 그런 곳이죠.(나 초등학교, 교사D)

- 또한 학교 교육과정과 놀봄,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체육 체험활동을 집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험 격차를 완화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

문화 체험이나 각종 우리 요즘 체험학습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도시 체험들이 있을 것이고 백화점 서점 그다음에 놀이 랜드 이런 곳 그다음에 또 도자기 체험 아무튼 각종 체험들이 엄청 아빠가 데리고 다니기가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화 체험 문화예술 체육 등 예술 다방면에 그런 체험을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또는 놀봄 방과후 과정을 통해서 엄청나게 프로그램을 많이 돌렸거든요(나 초등학교, 교사D).

- 학습 소외계층에게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배움터가 되기도 함. 농어촌 학교는 학령기 동안 충분한 교육 기회를 누리지 못했던 성인 학습자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배움터의 역할을 하기도 함. 학교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성인 학습자들은 학교교육을 통해 예술, 음악, 독서, 체험학습, 급식 경험 등은 ‘신세계’로 받아들여졌으며, 이는 배움을 통한 삶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음

일단 접하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 피아노 반주에 가자 동료 한 번도 불러본 적 없고 그다음에 뭐 그림 그리 그다음에 또 급식도 당연히 이루어지니까 더 좋고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젊은 선생님들이 예술하는 선생님 그다음에 또 책 읽어주는 선생님 또 이렇게 악기 가르쳐주는 선생님 이러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게 완전한 신세계인 거죠. 새로운 경험을 열어주는 그런 장의 문화를 뭔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장이에요.(나 초등학교, 교사D)

- 학교 교육의 기회를 얻게 된 성인학습자들은 단순한 기능 습득을 넘어 학습자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삶의 만족감, 행복감을 강하게 경험하고 있었음

성인 학습자 1: 폰 만지는 것도 가르쳐 주지, 폰에 글자 누르는 것도 이제 알지, 얼굴이 똑똑해졌어. 특히 뿌듯해. 그런 거 할 수 있다카는 거는.(나 초등학교, 학생F)

성인 학습자 2: 자기 얼굴도 그려보지, 글씨도 그려보지, 생전에 안 해본 꽃도 해보고, 미술도 그려보고 오만 거 다해봅니다.(나 초등학교, 학생G)

성인 학습자 3: 스쿨버스도 태워다 주지. 진짜 그런 학생들이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것도 되게 행복이다.(나 초등학교, 학생H)

- 이러한 긍정적 학습 경험은 기존에 문해교육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비호의적이었던 다른 잠재적 문해교육 대상자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의지를 확산시키는 파급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거든 지금. 처음에는 뭐 '배워가 뭐 할라카노' 하면서 빈정거리고, '이제 학교 가면 남들 욕하는데 뭐 하러 가노'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리되니까 이제 부러워해 가지고 지금은 들어오고 싶어갖고 막...(나 초등학교, 학생H)

- 연구 참여자들은 농어촌 마을에 존재하는 다양한 직업과 재능이 미래형 진로 교육의 핵심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보았음

그 미래형 진로와 진로 연계 활동이랑 좀 관련을 좀 짓는다면 친환경 농업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작은 마을 속에도 작은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시골 산골 지역도 귀농을 하셔가지고 간단한 카페를 차리신다든가 뭔가 다양한 자그마한 사업체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현장 전문가, D)

- 귀촌·귀농 인구 증가로 인해 농촌 지역에도 소규모 카페, 협동조합, 의료기관 등 다양한 직업 세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들을 직접 만나는 진로 연계 활동은 학생들의 인식 전환을 이끌어내기도 함

진로 수업을 근데 우리 마을에 진로 인프라 농촌이라고 농사만 짓지 않고 다양한 직업이 있는데 만나러 나가볼까 하면서 그 아이들이 1학기 때 마을의 다양한 직업들을 만나러 나가서, 아이들이 석 달 정도 밖으로 나가서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만 빵 만드시는 분도 만나고 협동조합 활동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동네 의원 의사 선생님도 만나면서 농사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있네. 농사를 기반으로 내가 어떻게 유통을 해야 되는지까지 아이들이 같이 만나고 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나면서 애들이 하는 말이 '우리 동네에 이런 것들 00 계속 살았는데 몰랐어요. 시골이라고 무시할게. 아니에요.' 이런 말들을 하는(다 중학교, 교사A)

- 농어촌 학교는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폭넓은 여건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도심지 학교에 비해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이 용이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음

학부모와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여건들이 많이 열려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도심지에 있을 때는 이런 것들 그냥 예를 들면 행복교육지구 사업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한다면 그냥 되게 참여가 그 학교 단위의 참여가 좀 뭔가 어색하거나 아니면은 제한적

이었다면 여기 작은 학교에서의 이제 이런 지역사회 연대 활동 같은 경우는 되게 폭넓게 열려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현장 전문가, D)

- 00마을의 ‘△△배움터’ 사례는 이러한 연대가 실제로 구현된 대표적 사례로, 방과후 활동을 마을 단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축제와 일상 속 배움의 장으로 확장한 경험을 보여줌

격주로 토요일을 하루씩 쉬면서 마을에서 그러면 애들이 토요일 날 학교를 안 가. 그럼 어떡하지 이러면서 마을에서 같이 아이들을 좀 돌봐보자 그런 것들을 같이 시작한 2006년이네요. 그래서 마을의 학교들이 초중고가 다 있으니까 00 고등학교까지 초중고 학교 선생님들 하고 마을에 있는 양육자님들이 모여서 △△배움터라는 이름으로 방과후를 운영...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은 △△배움터에서 좀 소화가 되기도 하고. 저녁에 아이들이 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편의점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방과후에 갈 공간이 너무 없다. 학교는 문이 닫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배움터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무엇일까? 만화방 어때 그러면서 마을 주민들이 수렴해서 만화방을 만들었어요.(다 중학교, 교사A)

- 이러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도 자신을 아는 어른을 만나 인사와 보호받는 경험을 가능하게 하며 마을 전체가 안전망이 되는 교육 환경을 형성하는 데 기여함

동네에 나가면 애들 버스 기다리면서도 인사하고 만화방에 가서 만나는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그런 것들이 생활화되면서 아이들이 방과후에도 나를 지켜보는 시선. 옛날에는 골목 나가면 동네 어른이었잖아요. 그렇게 안전한 곳에서 아이들이 클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다 중학교, 교사A)

- 이처럼 지역(마을) 중심의 학습 생태계는 농어촌 학교를 아동·성인·지역 주민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지역 기반 학습 공동체의 핵심 거점으로 재구성할 가능성을 보여줌. 이는 농어촌 학교가 단순한 소규모 학교가 아니라, 교육·돌봄·정주·지역 활성화를 연결하는 전략적 공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관계 중심의 교육적 본질 실현 및 신뢰 형성

- 연구 참여자들은 농어촌 학교가 배움이 “관계의 산물”이라는 교육의 근본적인 명제를 실현하는 데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고 봄. 여기서 관계란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나와 자연, 나와 사회, 나와 주변 사람과의 상호작용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됨

배움의 본질이 관계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이 관계의 핵심적인 배움 나를 둘러싼 나와 자연과의 관계, 나와 사회의 관계 아니면 나와 주변 사람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 속에 관계 안에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움이 형성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농촌의 작은 학교는 굉장히 큰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현장 전문가, C)

- 이러한 다층적 관계망 속에서 형성되는 학습은 과밀화된 도시 학교보다 농어촌의 작은 학교에서 더 풍부하게 작동할 수 있는 강점으로 제시됨

도시의 과밀화된 큰 학교보다는 그런 주변 세계화의 관계 속에서 활발한 상호작용이 도시의 과밀화된 학교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현장 전문가, C)

- 이러한 인식은 농어촌 학교를 단순히 학생 수가 적은 학교가 아니라 관계 중심 학습이 구조적으로 가능하도록 설계된 교육 공간으로 재해석 할 수 있음. 이를 위해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수업뿐 아니라, 복도, 운동장, 급식실, 돌봄교실 등 학교의 모든 공간과 시간 속에서 아이들은 더 많은 경험과 배움을 축적한다고 봄. 이 과정에서 교사뿐만 아니라 급식 종사원, 행정 직원 등 학교 구성원 전체가 아이들의 '어른'이 되어주는 문화가 중요하게 작동함

학교는 그냥 지식을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삶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한다면 교실 학교라는 공간 전체가 다 아이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거죠. 교실뿐만 아니고 복도, 운동장, 급식실, 돌봄교실 등등의 모든 근데 그 교실 안에서 생활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교과 수업하는 시간 이외의 시간에 아이들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배움을 얻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 따뜻한 학교라는 거는 학교 안에 봉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사실은 아이들의 수준이 되고 아이들의 어른이 되어주는 학교예요.(현장 전문가, C)

- 이와 함께 학교 운영의 투명성은 학부모와 학교 간 신뢰 형성의 핵심 요소로 작용함. 학교의 모든 활동을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고, 의사결정의 취지와 과정을 명확히 설명하는 방식은 학부모의 오해를 줄이고 학교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기반이 됨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되게, 저는 항상 교장 선생님께 같이 얘기하면 '투명해야 됩니다.' 뭐든 할 때 궁금하면 안 된다. 사전에 다 알려주고 우리 공동방 같은 게 있거든요. 학교에서 이런 안내장이 하나 나가더라도 이 취지를 미리 알려주고 정 안 되면 전화를 다 돌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이런 취지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거예요 하면 다 이해를 하시잖아요.(마 초등학교, 교사A)

- 특히 공정성에 대한 민감한 대응은 신뢰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프로그램 신청 과정에 선착순 선발 방식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은 학교가 특정 집단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게 운영된다는 인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함

왜 선착순으로 주는 거 있잖아요. 안내장이 와요. 어떤 프로그램 신청서를 받아야 하는데 연간

그러면 거기 막 서핑도 있고 막 되게 좋은 거 많거든요. 신청서가 먼저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불공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종이는 도달의 상황에 따라 아이가 안 전할 수도 있고 안 되니까 센터를 설득해서 제가 그 폼을 만들어서 온라인 동시에 할 테니 온라인 선착순으로(마 초등학교, 교사A)

- 농어촌 학교에서 관계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원은 상호 신뢰라 할 수 있음. 신뢰 형성의 과정은 투명성과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교직원의 헌신과 열정이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신뢰를 낳고, 그 신뢰가 다시 학부모 적극 참여와 교사 사명감 고취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됨. 특히 개인적 보상이나 승진과 무관하게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사들의 모습은 학부모에게 깊은 감동과 신뢰를 주는 요인으로 작용함

그전에는 우리 반에 학생만 있었고 네 업무는 다른 선생님이 하셨고 근데 업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어찌 보면 학교에 안 계셔도 될 선생님들이 정말 정성으로 다 함께 하시거든요. 전 이걸 보면서 본인한테 혜택도 없어요. 뭐 승진하실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데(마 초등학교, 교사A)

- 이러한 교사의 태도는 학부모의 참여를 촉진하고, 학부모의 협력과 지지는 다시 교사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 학교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함

이 학교가 좋아요 하고 우리 반에 온 친구니까 내가 선생님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 친구들을 도와야 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 보고 아직까지 80% 좀 많다 그러면 한 6~70%의 선생님들은 특히 작은 학교 선생님들은 준비가 조금 되어있다. 어느 정도는 그런 위안을 받아요. 그걸 아세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학교가 뭔가를 한다 그러면 발 벗고 나서서 함께해 주시고...(중략) ... 저는 부모님들한테 감동받은 게 저를 또 움직여요.(마 초등학교, 교사A)

- 농어촌 학교의 관계 중심 교육력은 개인 간 친밀함을 넘어, 신뢰·공정성·헌신이 맞물린 공동체적 학습 구조로 작동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는 학교의 지속 가능한 교육력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자, 농어촌 '새로운 학교 모델'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교육적 가치로 해석할 수 있음

□ 환대와 포용을 통한 유입 학생의 정착 가능성

- 연구 참여자들은 농어촌 학교가 외부에서 유입된 학생과 가족을 정착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낮선 이를 경계하지 않는 따뜻함'을 강조함. 학교와 마을 구성원들이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서로에 관해 묻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관계 맺는 문화는, 유입 가족에게 그곳이 외부인으로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인식을 형성하게 함. 이러한 환대의 경험은 부모에게는 심리적 안정감을,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모두가 와서 이름이 뭐야 너 어디서 왔어,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좀 낯설고 이렇게 뭐랄까 이런 경계 없이 바로 다가와 주는 그 따스함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이면 우리가 낯설지 않고 그다음에 좀 거리감 있게 이렇게 있지 않아도 생활하기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 따뜻함 때문에 온 것 같아요.(마 초등학교, 학부모H)

유학생 끼리의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도 또 서로 위로가 되고 또 이제 현지에 계신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저희 이제 잘 지내라고 저희한테 또 이렇게 배려도 해주시고 챙겨주시고 하는 그런 따뜻함이 제가 원하던 이곳의 삶이랑 딱 맞아떨어지고 있고 그 아이도 그거에 맞춰서 점점 변화해 가고 있는 모습이 되게 예민했었거든요. 그 예민함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걸 보니까 잘 왔다 느껴지더라고요.(마 초등학교, 학부모K)

- 이러한 정서적 안정감 속에서 유입 학생들은 또래들과 형·동생 관계를 맺으며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임. 특히 예민함이나 위축된 태도가 완화되고, 또래 관계 속에서 '형' 또는 '동생'으로서 역할을 경험하는 과정은 아이들이 사회적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됨

형들한테 배우는 거가 정말 많아요. 형들한테 배우는 거 뭐 그다음에 동생들한테도 자기가 좀 이렇게 이렇게 형이야 하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걸로도 한번 느끼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게 제일 많이 1년 동안 많이 자랐다(마 초등학교, 학부모H)

우리 딸아이가 딸이 혼자고 남자애가 6명이거든요. (중략) 약간 좀 좋은 게 원래는 새침한 아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되게 남자 애들하고 잘 어울리는 느낌이고...장점이자 아쉬운... 털털 해졌구나.(마 초등학교, 학부모B)

- 학생들도 스스로 소규모 공동체에서 형성되는 '서로 아는' 관계가 정착을 결정하는 이 유가 됨. 이는 단순한 친구 수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밀도와 친밀감이 아이의 학교 선택과 생활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줌

아이가 했던 말은 다양한 게 많지만 자기는 1학기 때 2학기 넘으면서까지도 사실은 반반이었거든요. 돌아가자 했는데 지금은 여기 남아야만 한 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친구들이 여기 다 있고, 그리고 친구가 7명인데 6명이죠. 이 모든 친구가 다 나를 안다는 거죠. 서로 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친한 친구가 다라는 거죠. 서울에 있을 때는 20명이지만 다 친구는 아니잖아요.(마 초등학교, 학부모G)

- 연구 참여자들은 농어촌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공동체적 양육 감각을 강하게 체감하고 있었음. 이는 갈등이나 불편함이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차이를

조정하며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아이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장소, 즉 ‘고향’에 대한 감각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저는 이런 소규모 공동체 그리고 학교 마을 그리고 가정이 다 같이 아이를 키운다는 느낌이 특히 00초에서는 많이 들어요. 물론 이제 트러블은 있겠죠. 왜냐하면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아들한테 고향 하면 떠오르는 데를 만들어줄 수 있어. 거기에 부족한 건 자연과 건강(마 초등학교, 학부모G)

- 유입 학생과 가족의 정착은 일방적인 수용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입 가족 간의 상호 우호적 노력을 통해 형성되고 있었음. 초기에는 유학생에 대한 경계가 존재했으나, 마을 내 일부 주민들의 주도적인 환대를 통해 공동체적 참여문화가 확산했음. 환영식, 마을 제사, 행사 초대 등은 유입 가족을 ‘외부인’이 아닌 ‘함께 사는 사람’으로 위치 짓는 중요한 장치로 작동함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처음에는 유학생이 오면 뭐가 어찌는데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깬 게 지역에서도 두세 분 정도의 활동할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따뜻한 마을을 가진 분들이 이분들을 거꾸로 설득하면서 유학생 가족이 오면 밥 그거를 만들어 갖고 불러서 환영식을 같이 하고 그러니까 계속 동참시키고 뭐 무슨 산신제 이런 걸 한다고 그러면 우리 이런 거 하는데 오세요.(마 초등학교, 교사A)

- 특히 학부모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주도적으로 참여한 반찬 봉사, 독거노인 방문 등은 아이들에게 공동체 속에서 배우는 삶의 방식을 경험하게 하는 동시에, 마을 주민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저는 그 효사랑 반찬 봉사라고 학부모님들 이렇게 모여서 같이 반찬 만들고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마을에 배달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기대했던 건 아니에요...(중략)...이 공동체를 의식하면서 주도성도 좀 생길 수 있고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배우는 것들 우리가 문자로 배우는 것보다 직접 이제 어른들 뵙고 인사하고 예를 들어 마을에서 서로 돕고 마을에서도 도움을 주시고 이런 것들이 아이가 저는 사실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봤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게 많구나 얻을 게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마 초등학교, 학부모H)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 노인회에 집집마다 독거노인 집에 반찬을 잔뜩 해서 학부모 동아리로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인사를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자꾸 교류하니까 이게 소문이 또 들리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게 확 또 풀리면서 이제 인식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진심을 다해서 마을에 뭔가를 해야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마 초등학교, 교사A)

- 이 과정에서 유입 학생 역시 ‘우리 마을 아이’로 인정받는 경험을 하며, 소속감과 정주

의지를 강화하게 됨

마을에서 마을 장학회에서 그러니까 유학생이지만 '우리 마을 애잖아.' 그러니까 '앤 갈아야'가 아니라 함께 있는 이 상태 자체를 굉장히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이걸 보고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다 해도 또 그런 걸 품어주고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마 초등학교, 교사A)

- 농촌 유학을 통해 유입된 학부모 중에는 전문직 등 고급 인적 자원을 보유한 인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자녀 교육을 넘어 학교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존재로 인식됨.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인적 자원을 학교가 독점하기보다,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함

부모님들의 진영에서 고급 인력이 많으니까 학교만 다 할 게 아니라 좀 떼어줘도 돼요. 일부의 어떤 영역을 여긴 됩니다.(중략) 지역사회에서 큰 그 분야에 이제 그 회사에 막 막 그 높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 엄마들도 이제 경험한 거예요. 아 우리가 조용히 살았는데 이제 새로운 그런 능력들을 또 가진 분들을 오면서 우리 애도 혜택받고 나도 혜택 받고(마 초등학교, 교사A)

- 더 나아가 일부 유입 학부모들은 농촌 유학을 통해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고 자아를 회복하는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는 장기적인 귀촌·정주를 고려하게 만드는 심리적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어제 만나 뵈던 이 어머니도 실은 아이도 있지만 '내가 복잡한 일들이 있었노라, 작년에 그걸 조금 잊고도 싶고 그래서 온 게 OO인데 현재 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내가 여기서 뭔가를 조금은 기여도 할 수 있구나'라는 이게 이제 만족감을 주시나 봐요. 아까 솔방울 도서관에 마스크 쓰는 어머니도 여기 와서 자아를 찾으셨다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마 초등학교, 교사A)

- 농어촌 학교의 환대와 포용의 문화는 유입 학생의 정착을 넘어, 가족 단위의 삶의 전환과 지역 공동체의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음. 이는 농어촌 학교가 교육기관을 넘어 사람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나아가 지역 지속가능성을 견인하는 전략적 거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갈등 해결을 통한 공동체 성장

- 농어촌의 작은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법적·행정적 절차에 즉각적으로 의존하기보다 학부모-학생-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적 논의 과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함. 이는 갈등을 처벌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학습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문화에 기반하고 있음
- 한 학부모는 갈등 상황에서 학급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어려움을 직접 이야기하고, 담

임교사가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며 경청하는 경험을 통해 갈등을 ‘없어야 할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공동체의 힘을 길러내는 계기가 된다는 믿음을 얻게 된다고 말함

무슨 문제가 있어도 근데 이번에 진짜 많이 들어오셨어요. 우리 반이 근데 정말 서로 그런 얘기를 다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고, 자기의 어려움이 뭔지도 얘기하고, 이런 자리가 가능한 이유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끝까지 같이 그 자리에 계시고 아무튼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이런저런 문제는 생길 수 있고 언제든 어떻게 완전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결국은 이제 그 조직의 힘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다 중학교, 학부모E)

- 농어촌 작은 학교에서는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 해결 과정 자체가 공동체의 자정 능력을 학습하는 경험으로 기능하고 있었음. 학부모회가 활발하고, 학부모 간 소통이 일상화된 학교일수록 갈등을 외부 제도에 위임하기보다 공동체 내부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짐. 이 과정에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역시 관계를 조정하고 책임을 나누는 성장을 경험하게 됨

교육 주체들 간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 문화라고 해야 되는데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00 초등학교는 학부모들 학부모회가 굉장히 활발하고 학부모들 사이에 소통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물론 작은 학교라고 해서 학교폭력 문제나 여러 가지 갈등이 없지는 않는데 그런 갈등들을 법에 의존하거나 학폭위 책에 바로 넘기거나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공동 학부모 공동체 안에서 충분한 소통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자정 능력을 가지고 그걸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아이도 성장하고 어른도 성장하는 이런 경험을 저희가 여러 차례 했거든요.(현장 전문가, C)

- 이러한 공동체적 갈등 해결 방식은 실제 성과로도 확인됨. OO중학교의 경우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으며, 이는 관계를 지향하는 교육 철학이 학생 간 관계뿐 아니라 교육공동체 전반의 관계관리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줌

최근 3년 동안 학폭위에 가는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에도 썼는데 관계를 지향하는 학생과 학생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교육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다양한 관계들을 좀 지향하는 그걸 좀 지원하고 애쓰는 학교라고(다 중학교, 교사A)

- 연구 참여자들은 갈등이 심화되기 이전에 문제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즉각 소통하는 문화가 농어촌 학교의 중요한 강점이라고 함. 학생들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작은 불편이나 감정의 균열을 교사가 세심하게 관찰하고, 학부모와 즉시 소통하는 문화가 농어촌 학교의 중요한 강점이라고 인식함. 교육공동체가 잘 형성된 학교에서는 공통으로 학생들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작은 불편이나 감정의 균열을 교사가 세심하게 관찰하고, 학부모

모와 즉시 공유하여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구조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음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느끼고 또 아이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대개 그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세심하게 봐주는 선생님과 선생님이 노력을... 힘든 건 아닌데 더 힘든 건 뭐냐 하면 문제 소지가 있을 때 빨리 말해줬으면 이게 해결이 빠르는데 참고, 참고 참고... 그래서 혹시 애매함이 있거나 좀 속상하신 게 있다고 하면 즉시 연락을 달라. 그래서 함께 협의해서 바꿔 가든가 설득하든가 뭔가를 해야지 내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해서 힘들게 하면 우리 모두가 힘들어지고 이런 마음 자체를 버려야 모두가 잘 된다. 이걸 제일 먼저 교육시켜요.(마 초등학교, 교사A)

-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지닌 주체들이 함께 생활하는 농어촌 학교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행 학교폭력 관련 법과 제도가 이러한 공동체적 해결 방식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고 보았음. 사안 발생 즉시 보고와 개입을 요구하는 현행 체계는 오히려 관계 회복과 공동체적 학습의 시간을 박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학교폭력 법도 조금은 달리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여기는 더 생겨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의 학교폭력법은 사안 발생 즉시 또 보고하고 막 끼어들어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한 건도 없었지만, 그렇게 가지도 않았지만 그런 일이 똑같이 생겼을 때 부모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이 부분은 이렇게 조금 더 프로그램하면서 바꾸고 순화하고 가야 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유학 학교는 좀 약간의 유예가 진짜 법적으로 필요하다. 여태까지 4년간 봐왔고 여태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다 잘 됐어요. 정말 심각한 정도까지 가더라도 다 해결이 돼서 그래서 참 감사한데 그걸 이분들이 다 기다려줬다는 거(마 초등학교, 교사A)

- 연구참여자들은 수년간 공동체 내부의 노력만으로 심각한 갈등까지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농어촌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제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이는 학교폭력 문제를 축소하거나 은폐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관계 회복과 공동체 성장을 중심에 두는 대안적 갈등 해결 모델을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될 수 있음

□ 주체적이고 민주적인 시민 육성

- 연구참여자들은 농어촌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결정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있다고 인식함. 학생 수가 적고 관계 밀도가 높은 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학교의 규칙과 운영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직접 개입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경험하고 있었음
- 특히 학교 운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건의하고, 그 결과가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자기효능감과 주체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인식함. 학부

모와 학생 모두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교생활 전반에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었음

아이가 성장한 게 자기 주도성 그 모든 체험들이 다양하게 열려 있다 보니까 그런 걸 하면서 아이가 뭔가 주도적으로 더 많이 학교에서 예를 들어 고학년 이상이면 학교 학생 자치 활동들을 하거든요. 자기효능감도 높아졌고 그런 활동들을 더 주도성 있게 자기가 스스로 참여하는 게 제가 봤을 때 많이 훨씬 높아졌다는(마 초등학교, 학부모E)

- 학생들 또한 학교가 자신들의 다양성과 선택을 존중하며, 교사뿐 아니라 마을 어른들까지 함께 참여해 주는 환경이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제일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약간 전체적인 학교 행동의 분위기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뭔가 굉장히 되게 다양함을 약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아이들이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중략) 선생님들이 아니면 마을 어른들도 도와주셔서 같이 해 줘니다(다 중학교, 학생C)

- 농어촌 학교에서는 학생 참여가 형식적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으로 연계되는 등 학생 참여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학교 운영이 가능함. 일부 연구 참여 학생들은 불만이나 개선 요구가 있으면, 복잡한 대표 체계를 거치지 않고 교장이나 교사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실제로 제도가 개선되는 경험을 이야기함

그 학생이 학교에 직접적으로 건의해서 뭔가 바뀐다는 게 되게 좋은 점 같아요. 뭔가 다른 학교에서는 돌고 돌고 돌고 돌아서 일반 학생이 학생회를 거쳐서 학생회가 학생회장한테 가서 회장이 선생님한테 (전달하는) 이런 구조면 저희는 학생이 '나 이게 불만이야' 하면 바로 교장실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도 많이 봤고...(다 중학교, 학생C)

- 수행평가 기준표 공개 요구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생의 문제 제기가 교사의 성찰과 학교 차원의 운영 개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학생을 학교 운영의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는 학교 문화를 보여줌

수행평가를 하시는데 나눠주신 아니 그러니까 평가 기준표를 안 주신다고 건의를 저희가 해서 이제 평가 기준표를 붙여주십니다.(다 중학교, 학생D)

(평가 기준표를) 학기 초에 근데 분실하고 안 줬다고 말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에도 다 올라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는 그 소리를 그렇게 들은 거죠. 좀 더 친절하게 안내해 달라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계속 이제 다시 한번 안내하고 협의하고(다 중학교, 교사A)

- 연구참여자들은 농어촌 학교가 민주주의를 교과서 속 개념이 아니라 일상적 실천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음. 전교생이 참여하는 회의 구조를 통해 학

생들은 다양한 학년이 섞인 모둠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과 조율을 거쳐 공동의 결정을 만들어 가는 경험을 하고 있음

제 전교생이 다 모여서 3학년에서 한 10명 10 모둠으로 나누고 2학년에서 1 모둠 나누고 1학년 10 모둠 해서 1, 2, 3학년 합쳐서 총 10 모둠이 나와요. 그래서 다 같이 뭐 정기적으로 해마로 강당에 모여서 이제 이런 번에 이런 안건이 나왔다 이거에 대해서 회의를 해보자 하면은 각 조마다 포스트잇으로 의견을 쓰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해서 전체로 조율해 가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합니다.(다 중학교, 학생C)

-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회의 기술 습득을 넘어, 타인의 의견을 듣고 조정하며, 합의에 이르는 민주적 시민 역량의 핵심 요소를 체화하는 과정으로 작동함. 한 교육 전문가는 이러한 학교 공동체의 경험이 오늘날 사회가 직면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학교 차원에서 재생성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고 평가함

학교 안에서의 교과 자율 시간의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건 농촌 학교에서 많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제가 좀 있고요. 또 최근에 지금 교육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특히 초등에서 학부모와 교사의 긴장과 갈등 대립이 엄청난데 농촌 학교는 이것에 대한 완화에 대한 대안을 저희가 내놓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멀리 있거나 앞으로가 아니고 여기 오늘 지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실재하는 학교 공동체를 통해서 재생성될 수 있는 게 저는 농촌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현장 및 정책 전문가, B)

- 실제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정해진 규칙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모습을 보임. 학생들이 스스로 핸드폰 사용 규칙을 정하고 관리하여, 교사들의 생활지도 에너지 절약을 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함

여기는 진짜 학생의 힘이 그냥, 이 학생들을 움직이는 정말 큰 힘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OO군에서 학생들 핸드폰을 안 걷는 학교로 아마 저희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학교 아이들은 핸드폰을 그냥 자체 자기들이 관리를 해요. 다른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이 생활지도가 너무 골치가 아프거든요. 핸드폰 관리하는 거...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냥 공폰 내고 우리 이렇게 몰래 쓰기도 하고, 아이들이 치밀해요. 그래서 그거 생활지도에만도 너무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는데 애네는 다 모임에서 그 규칙을 정한 거예요. 우리 핸드폰 사용 어떻게 하자,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종 치기 전에 사물함에 넣기 첫해는 사물함에 넣더라고요.(다 중학교, 교사B)

- 또한 학교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 훈련은 학교 시기에만 유효한 경험에 그치지 않고, 이후 새로운 환경에서도 발현되는 전이 가능한 리더십 역량으로 이어짐. 이는 리더십이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민주적 참여와 공동체 경험을 반복적으로 학습한 결과임을 시사함

OO중 졸업한 너무 훌륭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중학교 때는 되게 조용하고 그러니까 앞서서 리

더를 못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다 보고 배우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환경에 갔을 때 애는 리더가 되는거예요.(다 중학교, 교사A)

- 농어촌 학교는 학생들에게 단순한 참여 경험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주체적 선택, 민주적 의사결정, 책임 있는 실천이 일상화된 시민 성장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러한 경험은 농어촌 학교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교육적 자산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함

□ 학교 운영의 유연성과 특성화 가능성

- 연구참여자들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가장 중요한 강점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이야기함. 학생 수가 적고 담임교사가 교육과정을 폭넓게 설계·운영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교사의 전문성과 철학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이 유연하게 구성될 수 있다고 함. 특히 농어촌 특색과 마을 자원을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여지가 도심지 학교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함

저도 이제 지금 작은 학교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제 교사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 일단 교육과정을 선생님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강점은 좀 도심지 학교보다 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학생 규모가 작고 교사 담임 한 명이 아이들을 이제 수업하는 입장이다 보니까(현장 전문가, D)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또 00 초등학교도 굉장히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많이 운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마을이나 저희 마을 학교하고도 많이 의존하고 이러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교육과정 짜는데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면 그만큼 다양성은 확보되는 것 같아요.(현장 전문가, C)

- 연구참여자들은 농어촌 학교가 기존의 학교 제도를 유연하게 재해석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운 특성화 교육 모델을 실험할 수 있다고 보았음. 특히 학생 수가 적다는 조건은 한 명의 학생에 대해 학교가 진로를 책임지는 ‘진로 책임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보았음

그 아이를 완전 특화되게 키우는 프로그램들을 할 것 같아요. 저 예를 들어 내 아이가 음악적 소질이 있고 그러니까 받을 때부터 하는 거죠. 내 아이가 음악에 특히 피아노에 뭐가 있다 그럼 아예 특별반을 아니 피아노 강사부터 다 붙여주고 뭐 콩쿨이든 뭐든 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완전 진로를 완전 책임지는 거예요. 몇 안 된다면 그렇게 해서 여기 학교를 가면 내 아이는 이거는 진짜 어느 학교도 할 수 없는 걸 해. 차라리 이렇게 특화를 가던지 (마 초등학교, 교사A)

- 또한 초중 통합, 도시-농촌 교류, 국제 교류 등 기존 학교 틀을 넘어서는 다양한 제도적 실험이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오히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이제 각종 학교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뭔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기존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하면서 그런 형태로 개편해서 가도 되고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는데... 마을공동체라든지 아니면 조금 도시와 농촌의 교류라고 할까, 국제적인 교류라고 할까 뭔가 조금 더 틀을 더 깨는 형태의 그런 것들을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충분히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현장 전문가, A)

- 소규모 학교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공동 교육과정의 필요성과 효과가 언급되기도 함. 인근 학교와 요일별로 연계하여 수업이나 체육, 동아리 활동을 운영할 경우, 단일 학교에서는 불가능했던 토론, 합주, 팀 스포츠 등 다양한 교육 경험이 가능해진다고 함. 특히 공동 교육과정은 또래 관계 형성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사회적 관계 확장과 정서적 안정이라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인식함

근데 이제 두 학교가 같이 하면 흥도 훨씬 나고 애들도 막 못 해봤던 경기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생기니까 의미가 있고 수업 활동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꼭 성취해야 되는 그런 것들 토의 토론을 해본다거나 합주를 해본다거나, 근데 저희 반 지금 3명이고, 여기 2학년 2명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학급 회의를 한다 그러면 구성원 자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교사가 꺼도 불가능한데 옆에 학교 친구들이 와서 일단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 되고. 또 아이들을 저희 반에 남자아이 한 명은 지금 3학년인데 3년째 남자 혼자거든요. 친구가 없어요. 친구 동성애 친구가 없어요. 근데 여자친구들도 좋지만, 동성애 친구는 또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동성애 친구를 만들어 준다는 의미에서도 좀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라 초등학교, 교사A)

-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바탕으로 교사의 전문성과 지역 자원을 결합한 유연한 학교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 강점임. 학생 수가 적다는 조건은 학생 개별 진로를 학교가 책임지는 특성화·진로책임교육과 초·중 통합, 도시-농촌·국제 교류 등 제도적 실험을 가능하게 함. 또한 인근 학교와의 공동 교육과정은 학습 경험의 다양화와 또래 관계 확장을 통해 소규모 학교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음

□ 소결

- 분석의 내용을 정리하면, 농어촌 학교가 단순히 '규모가 작은 학교'가 아니라 '천혜의 자연환경과 긴밀한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의 새로운 모델과 지속 가능한 삶의 양식을 제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연구 참여자들이 제시한 농어촌 학교의 가능성과 희망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면 7가지의 핵심 잠재력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생태 기반의 살아 있는 교육과 치유가 가능함. 농어촌의 자연은 기후 위기 시대에

- 필요한 공생과 지속가능성을 알아내는 최적의 학습장 소임. 교실과 자연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노동과 생명의 가치를 가르치며, ‘느림의 미학’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정서적 치유와 안정을 제공할 수 있음
- 둘째, 마을 전체가 학교인 ‘로컬 학습 생태계’로 학교의 경계가 마을로 확장됨.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이 교육 자원이 되며, 반대로 학교는 지역의 평생학습 허브이자 문화·예술 거점으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음. 이는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실현되는 구조임
 - 셋째, 관계의 밀도가 만드는 교육적 본질 회복이 가능함. 작은 규모 덕분에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깊이 있는 상호작용이 가능함. 이러한 ‘관계의 밀도’는 배움을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닌 관계 속에서의 성장으로 재정의하게 함. 투명한 소통과 교사의 헌신은 학부모의 신뢰를 낳고, 이는 다시 교육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선순환을 만듦
 - 넷째, 농어촌 학교 특유의 따뜻한 환대 문화는 농촌 유학 등으로 유입된 학생과 가족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정착을 돕고 있음. 유입된 학부모들이 마을 활동에 기여하고 자아를 회복하는 과정은 단순한 ‘전입’을 넘어 실질적인 ‘지역 주민화’로 이어지는 가능성을 보여줌
 - 다섯째, 회복적 생활교육과 공동체적 갈등 해결이 가능함. 학교폭력 등의 갈등 발생 시 법적 처벌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공동체적 해결을 지향함.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아이를 살피는 문화는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며, 이는 학교 폭력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등의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남. 다만 현행의 경직된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에 대한 유연화가 필요함이 시사됨
 - 여섯째, 학생들은 학교 운영의 주체로서 직접 규칙을 정하고 건의하며, 이것이 실제로 이어지는 효능감을 경험함. 전교생이 참여하는 회의와 자치활동은 민주주의를 교과서가 아닌 삶으로 체득하게 하며, 이러한 경험은 졸업 후에도 리더십으로 발현됨. 즉, 농어촌 학교에서는 삶의 주인이 되는 민주시민교육을 직접 경험하고 실천하는 장이 될 수 있음.
 - 일곱째, 농어촌 학교에서는 유연한 학교 운영과 맞춤형 특성화 교육이 가능함.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교사에게 부여된 자율성과 학생 맞춤형 진로 교육 및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함. 또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인근 학교와의 공동 교육과정이나 도농 교류 등 기존 학교 체제의 틀을 깨는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혁신의 공간이 될 수 있음
- 농어촌 학교는 소멸 위기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미래 사회의 대안을 제시하는 공간으로서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음. 즉, 정책적, 사회적 지지가 뒷받침된다면 농어촌 학교는 작지만 ‘관계, 생태, 자치’가 살아 숨 쉬는 미래형 공교육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함

다. 농어촌을 위한 새로운 학교 모델 상상

□ 연구참여자들은 농어촌 학교가 처한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시 학교와 차별화되는 고유의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각적인 새로운 학교 모델을 제안하고 있음. 연구 참여자들은 단순히 학생 수를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미래교육의 본질을 결합한 통합적 모델들을 제안하였음. 연구 참여자들이 상상한 새로운 학교 모델은 생태 및 지역 밀착형 로컬 교육 모델, 지역사회 평생학습 허브 모델, 지역사회학교 모델, 관계 중심의 민주적 교육공동체 모델, 유연한 교육체계 모델로 유목화할 수 있음. 연구 참여자들이 제안한 농어촌 새로운 학교 모델의 세부 내용은 <표 5-4>로 정리할 수 있음

<표 5-4> 연구 참여자들이 제안한 농어촌 새로운 학교 모델

상상 모델	지향점	주요 내용	기대효과
생태 및 지역 밀착형 로컬 교육 모델	자연을 교실로 확장한 생태 학습	- 교실을 넘어 마을, 지역 전체를 배움의 공간으로 확장 - 숲, 바다, 논 등 근거리 자연과 교실 수업의 유기적 연계 - 모내기-벼 베기 등 실제 농촌활동을 교육과정에 통합 - 자연 친화적 힐링·예술 감수성 교육 강화	- 기후 위기 시대에 요구되는 공생 가치 체득 - 정서적 안정과 감수성 향상 - 농어촌 학교만의 차별적 교육 정체성 강화
지역사회 평생학습 허브 모델	학교의 지역 학습 거점화	'학교 안 마을 배움터' 조성을 통한 평생학습 공간 전환 - 학령기 초과 학습자(성인 학습자), 다문화 가정 등 학습자 다양한 학습자 포용 - 디지털·문화 인프라 공유를 통한 지역 교육 수준 제고 - 학생-성인 간 세대 통합 학습 경험	- 지역 내 학습 소외 해소 - 세대공감과 공동체 결속 강화 - 학교 존립 기반 및 지역 지속가능성 확보
지역사회학교 모델	지역사회 안에서 형성·유지·발전되는 공적 공동체	- 지자체-교육청-주민 3주체 협약형 학교 운영 - 시도교육청은 '운영'이 아닌 '지원'의 역할 - 교사·유학 가족 대상 정주 여건 마련	- 학교 혁신의 지속가능성 확보 - 유입 인구의 안정적 정착 - 지역 소멸 대응 및 마을 재생
관계 중심의 민주적 교육공동체 모델	관계-대화-참여-신뢰의 일상적 순환	- 학교를 '삶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인식 - 교사·학생·학부모·마을의 현대와 신뢰 문화 형성 - 학생 자치 활성화 - 갈등을 법적·제도적 절차보다 공동체 대화로 해결	- 학생 주체성·민주 시민성 함양 - 공동체적 문제 해결 역량 강화 - 회복적 정의 실현
유연한 교육과정 및 특성화 교육 모델	학생 한 명을 책임지는 교육	- 소규모 학교 특성을 활용한 진로 책임 교육 - 특정 소질(음악, 예술 등) 등에 대한 전문 강사 연계 - IB 등 토론, 글쓰기 중심 미래형 교육과정 도입 - 초·중·고 통합 운영 또는 공동 교육과정 운영	- 학생의 잠재력 심층적 발굴 - 학습 동기와 진로 만족도 향상

	- 인사·예산의 유연한 행정 체계 구축	
--	-----------------------	--

□ 생태 및 지역 밀착형 로컬 교육 모델 (Local & Ecological Education Model)

- 생태 및 지역 밀착형 로컬 교육 모델은 농어촌의 자연환경을 학교 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선 확장된 학습의 장으로 재규정하고 있음
- 농어촌 학교의 강점은 배움이 교실 내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마을과 지역 전체를 배움의 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간적·환경적 조건에 있다고 인식함. 이에 연구참여자들은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과 자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로컬 교육' 모델을 제안함. 이는 '배움의 공간이 학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지역 전체가 학교가 되는 구조'를 의미함. 이를 통해 교실 수업과 마을 배움터, 자연 체험이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연계될 수 있음을 강조함

저는 학교가 학교의 배움의 공간이 학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학교 공간이 확대되는 이게 농어촌 학교에서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를 중심으로 한 마을이나 지역 전체가 학교 모든 게 다 학교라는 생각을 좀 해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GTP에서 한 번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로컬 교육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을 배움터가 좀 같이 연계되고 있는...(현장 전문가, D)

- 이러한 로컬 교육 모델은 단순한 현장 체험학습을 넘어, 실천적 생태 경험을 교육과정 안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나타남. 연구 참여자들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친환경 생태 교육을 이론으로 학습한 후 실제 생태 논에서 모내기-관찰-벼 베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활동이 교육과정으로 구조화되어 운영되고 있었음

학생들이 친환경 생태나 친환경 쪽으로 공부한 다음에 이제 나가서 이제 나가서 이제 우리 학교는 이제 얼마 전에 또 벼베기하고 왔는데 실제로 생태 논에 가서 모내기하고 관찰을 하고 벼를 베고 일련의 과정들이 일련의 교육과정으로 지금 짜여 있거든요. 이런 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거고(현장 전문가, D)

- 이는 기후 위기 시대에 공생, 지속가능성, 생태적 책임과 같은 미래지향적 가치를 학생들이 경험을 통해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반식임. 자연과의 일상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농촌이라는 공간적 특성은 이러한 경험적 생태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최적의 조건으로 인식됨

자연과 늘 밀접하게 맞닿아 있으면서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금 특히나 기후 위기 시대에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새로운 미래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도 훨씬 더 경험적이고 체험적으로 그런 자연과 상호작용 공생 이런 가치를 학습하고 배울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장소가 농촌이라고 한다면 그 농촌 안에 존재하는 학교는 당연히 그런 배움을 엮어낼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되

겠죠.(현장 전문가, C)

- 또한, 지역 간 교류 사업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시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교육실험을 시도하는 상상도 제안함. 예를 들어, 산간 지역 학교와 해안 지역 학교 간의 '한 달 살기' 형 교류나 학교 간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 다른 자연환경과 생활양식을 경험하는 교육을 상상하였음. 이러한 교육은 농어촌 학교가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오히려 더 다양한 환경을 학습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음

바다 지역으로 한번 가서 아이들이랑 한 달 살기 한번 해보고 온다던가 뭔가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을 지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했고요. 그 학교와 학교 간의 연계도 되게 의미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해요.(현장 전문가, D)

- 더 나아가 연구참여자들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특성을 살려, 도시 학교와 차별화되는 자연 친화적 힐링과 예술 감수성 중심을 교육 모델을 구상하기도 함. 숲, 바다 등 자연 환경을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농어촌 학교는 단순한 생태교육을 넘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감수성 회복을 지원하는 '치유의 학교'로 기능할 수도 있다고 봄

작은 학교에 그러니까 숲이 있고 이제 해안가는 바다. 지역이 있고 그런 지역이잖아요. 약간 뭔가 자연 친화적인 힐링이 되는 학교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단순히 생태적으로만 자연 친화적인 게 아니라 문화예술이나 예술 감수성 이런 교육들을 좀 보면 도심지의 학교와 작은 학교 농어촌의 작은 학교의 감수성이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을 좀 해요. 이런 것들은 약간 좀 미래형 학교에서도 이 학교의 공간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잖아요.(현장 전문가, D)

- 요약하면, 연구참여자들은 농어촌 학교가 자연환경과 마을을 학습 자원으로 통합할 수 있는 공간적·환경적 조건을 갖춘 교육 현장임을 강조함. 농어촌 학교는 교실을 넘어 마을과 자연 전체를 배움의 장으로 확장함으로써, 기후 위기 시대에 요구되는 공생과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경험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님. 이러한 생태 기반 로컬 교육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감수성 회복을 동시에 도모하는 치유적 교육 모델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줌

□ 지역(마을) 연계 평생학습 허브 모델

- 연구참여자들은 농어촌 학교가 학령기 아동만을 위한 교육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배움과 성장을 견인하는 평생학습 허브로 기능해야 한다고 인식함.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학교가 사실상 유일한 공공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학교 공간과 인프라를 지역 주민과 공유하고 세대 간 배움을 연결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함. 이러한

인식 속에서 지역 연계 평생학습 허브 모델은 학교는 지역 공동체의 ‘심장’으로 정의하고, 모든 연령대의 학습자가 어우러지는 평생교육의 거점으로 전환하는 모델을 의미함

- 지역의 학교에 학령기 아동뿐만 아니라 학령기 초과 학습자(어르신), 다문화 가정 학부모 등을 포용하는 ‘학교 안 마을 배움터’를 구축하여 지역 전체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임무를 수행해야 함을 강조함

이분들 외에 지역에 아직도 좀 이런 배움의 욕구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다음에 여기 또 다문화 가정들도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이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제대로 이 교육을 하려면 이분들이 또 배워야 됩니다. 그런 기회들을 이렇게 좀 동떨어진 이런 마을 안에서는 이분들이 나가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문을 학교에서 열어주고자 열어줬을 때 이 학교가 마을과 함께 어우러지는 좋은 학교로 거듭나고 지속성을 가질 거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약간 전환...(나 초등학교, 교사A)

- 이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의 학습 욕구를 수용하고 배움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함. 이러한 전환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분리된 영역이 아닌 상호 의존적 학습 생태계로 재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함. 이러한 학습 생태계 마련이 지역을 활성화하고 마을의 자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인식함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교 공간을 활용하거나 바로 인근에, 바로 옆에 있는 어떤 지자체 면사무소나 연계를 해서 그 공간을 조성해서 그 교육들을 다양하게 하면서 지역 활성화로 가서 지속가능성을 살리는 그런 교육이 나아갈 때 모든 이제 그 지역의 밸런스가 맞아 이제 맞아지고 모든 이 수준들이 올라갈 수가 있고 그 자체가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나 초등학교, 교사A)

- 연구참여자들은 지역 연계 평생학습 허브 모델을 위해 학교와 지역 간 인프라 및 학습 자원의 상호작용 환류 구조를 제안하였음. 학교는 디지털 교육 환경과 교육 전문성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고, 지역 주민은 자신의 직업 경험과 전문성을 학생 교육에 환원함.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학교는 학생 진로 교육의 장이자, 지역 재교육과 역량 강화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봄

작은 마을 속에도 작은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시골 산골 지역도 귀농하셔서 간단한 카페를 차리신다든가 뭔가 다양한 자그마한 사업체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커뮤니티가 좀 있으면 학생들이 거기 가서 잠깐 직업 체험을 하고 오고 물론 고등학교는 약간 좀 더 좀 더 전문화돼서 할 수 있겠지만 초등 정도는 간단하게 ‘이런 직업도 있네, 이렇게 할 수도 있네’라는 다양한 로드맵이 좀 학생들이 그릴 수 있는 체험 형식의 일단 직업 진로 연계 활동들이 좀 될 수 있는 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현장 전문가, D)

직업적으로도 좀 재교육이나 그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갖춰야 될 여러 종 경제 상권들 이런 분들을 양성을 위한 교육들도 함께 이제 맡아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학교가 왜 지역사회 거점이 돼야 되냐 하면 그게 시내는 이미 다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외딴 데는 이런 시설이 없잖아요(나 초등학교, 교사A).

- 연구참여자들은 농어촌 학교가 지역 소멸을 막는 최후의 공공 거점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음. 학교는 단순히 학생 수를 유지하는 기관이 아니라, 농촌 유학·귀촌 정책과 연계하여 외부 인구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특히, 초·중통합 운영, 공동 교육과정 등 유연한 학제 운영은 인구 감소 지역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함

일차적 과제는 일정 정도 학생 수를 확보하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 뭐 교통수단을 마련해서라도 말씀처럼 좀 학생이 서로서로 수업이 가능한 정도는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마을교육 활동가들이 좀 얘기하는 건 초·중 통합 운영 같은 경우 있지 않아요.(정책 전문가, E)

- 연구참여자들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과 이주 배경 주민들이 농촌으로 유입되어 농어촌 학교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주 배경 주민들을 위한 교육도 학교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함. 특히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언어·제도 이해 부족 문제를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이는 농어촌 학교가 단순한 학생 교육기관을 넘어, 이주민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공공교육 플랫폼으로 확장될 필요성을 시사함

시골에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다문화 분들이 그나마 시골을 버티고 있는데, 이렇게 할머니들 세대만 있으면 미래는 없는데 그나마 다문화 가정 분들이 들어오셔서 거기서 낳은 아이들이 이제 거기 학교에 다니고 그런데 대부분 특징이 보면 그 어머님들이 한국어가 아직도 서투시고, 또 우리 학제 대한민국 학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를 잘 모르시니까 학교에 많은 부분을 좀 이렇게 맡기고 의지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일단 작은 학교에 그런 교사들이 또는 교육청 행정 지원이 그분들을 어떤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나 초등학교, 교사D)

- 이상에서 나타난 연구 참여자들이 의견은 농어촌 학교가 지역 연계 평생학습 허브로 전환될 때, 학령기 교육- 성인 학습- 지역 재생이 분절되지 않고 하나의 학습 생태계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줌. 이는 농촌 학교가 단순히 '유지되어야 할 공간'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설계하는 핵심 교육 거점으로 재구성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지역사회학교 모델

- 연구참여자들은 농어촌의 새로운 학교 모델을 논의하며, 학교를 개별 기관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형성·유지·발전되는 공적 공동체로 인식하였음. 즉, 학교는 특정 교장이나

교사의 의지에 의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해 온 가치와 교육철학이 응집된 결과물이며,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학교의 정체성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인식임. 이에 따라 새롭게 부임하는 교직원 역시 지역이 축적해 온 교육적 가치와 방향성을 존중하고 실현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음. 이에 지역사회학교 모델은 학교와 지역 그리고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학교 모델을 의미함

새로운 학교에 왔지마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가 지향하는 가치 지향하는 교육의 철학 지향하는 방향 이것이 그 학교가 속한 지역사회 안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형성되고 만들어오고 실제로 구현됐던 것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있다면 당연히 교장 선생님이나 새로 오시는 선생님들이 그 학교의 지향과 가치에 저는 그것을 실현하는 걸 우선에 두고 그 교육 활동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많이 강조합니다.(현장 전문가, C)

-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지역사회학교 모델의 핵심을 마을에서의 ‘효능감 있는 경험의 축적’으로 설명하였음.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 낸 교육 경험이 반복적으로 축적될 때, 마을교육공동체의 주체 역량이 강화되고, 학교는 외부 환경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지속성을 갖게 된다고 보았음. 즉, 지역사회학교는 단발성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집합이 아니라, 공동의 경험이 누적되며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음

그다음에 효능감 있는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그 경험을 통해서 마을교육공동체,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이런 주체 역량이 잘 형성되고 강화돼야 된다.(현장 전문가, C)

- 한편, 현장 및 정책 전문가는 지역사회학교 모델이 단위 학교 차원의 노력만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단위의 교육 비전과 정책적 정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인구감소지역은 지역마다 여건과 가능성이 상이하므로, 획일적인 학교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비전과 인재상을 설정하고, 이를 이동권, 돌봄, 여가, 진로, 고등교육 선택 비용 등 삶의 전반과 연결해 통합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임

(해당 지역의) 교육 비전으로 인재상을 좀 동일하게 하고 자신과 공동체의 가치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지역들, 그리고 저희가 이 인구 감소 지역에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가 꼭 학교만이 아니고 이동권이라든지 아이들이 주말이라든지 여가 돌봄 이런 것들 그리고 대학을 선택하는 것에서 비용 이것들을 기본 교육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슬로건 아래에 다 맞춰서 좀 넣어서 같이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현장 및 정책 전문가, B)

-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국가와 시·도 교육청은 ‘운영’이 아닌 ‘지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특히 1면 1교 체제나 초·중 통합 학교와 같은 농어촌 학교 구

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주체가 직접 운영에 개입하기보다 지역 교육 주체들이 결합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설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또한 이러한 논의와 경험을 공유하는 워크숍이나 포럼에 공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함

1면 1교, 초중 통합 학교 등을 잘 정비하고 국가나 시도교육청이 '운영'보다는 '지원' 방안을 찾아서 노력해야 함. 운영보다 지원이 훨씬 더 어려움. 정책적인 거버넌스의 설계와 지역 교육 주체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이를 모아 공유하는 워크숍, 포럼 등에 권위를 부여해야 함.(현장 및 정책 전문가, B)

- 이러한 지역사회 모델의 구체적 실행 방식으로 연구참여자들은 '3주체 협약형 학교'를 제안하였음. 이는 지자체, 교육청, 주민이 협약을 맺고 학교 운영에 공동책임을 지는 구조로, 학교 교육과정과 운영에 실질적인 자율성을 부여하되 공공성은 유지하는 방식을 의미함. 특히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정부의 과도한 간섭을 줄이고 지역 단위의 실험과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적 공립학교로서의 모델을 제안하였음

덴마크식으로 생각하자면 학부모들이 학교를 좀 새롭게 해보겠다고 하면은 교육과정이나 이런 데 매우 많은 자율권을 주고 정부에서는 간섭을 안 하는 형태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지자체와 교육청과 주민이 3주체가 이렇게 어떤 협약을 통해서 시도를 해보는 게 우리 농촌에서는 굉장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현장 전문가, A)

- 끝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지역사회학교 모델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 마련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음. 학교가 존재하더라도 교사와 학부모, 유학 가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외부 인구의 유입이 어려워 학교 혁신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보았음

사실 여기 이런 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귀촌 귀농 정책이 많이 하잖아요. 전국적으로 많이 여기에 뭔가 여건이 돌려면 살 수 있는 거주 공간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학교가 있어야 해. 교사들이 안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육청이 집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건 지자체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현장 전문가, C)

- 특히 역량 있는 교사들이 교육철학에 공감하여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더라도, 주거 문제로 인해 이를 포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함

이런 교육 활동을 하고 있어서 너무나 거기에 동의해서 여기로 아예 이사를 오고 싶어 하는 교사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근데 집을 못 구해서 못 갔어요. 그래서 정말로 지역 교육 살리고 싶으면 역량 있는 선생님들이 오시라 오시면 영광군은 집을 제공하겠다...(현장 전문가, C)

- 종합하면, 연구 참여자들이 상상하는 지역사회학교 모델은 학교-지역-정책이 분리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전제로 함. 이는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의 삶과 교육, 정주 정책이 함께 설계되는 모델이며, 교사 개인의 헌신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교육의 주체로 참여할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한 농어촌 새로운 학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음

□ 관계 중심의 민주적 교육공동체 모델

- 연구참여자들은 농어촌의 새로운 학교 모델을 상상할 때, 무엇보다도 ‘따뜻한 학교’를 가장 근본적인 전제로 제시하였음. 여기서 따뜻한 학교란 단순히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위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아이들의 삶에 책임 있는 어른으로 관계 맺는 공동체를 의미함. 즉, 교사뿐만 아니라 급식실 조리 종사원, 행정 직원, 돌봄 인력 등 학교를 구성하는 모든 직군이 동등한 존중을 받으면서 아이들의 일상과 성장에 의미 있는 관계 주체로 참여하는 학교문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관계 기반이 무너진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민주성이나 공동체적 가치를 실제로 학습하기 어렵다고 지적함

첫 번째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따뜻한 학교가 돼야 해요. 그러니까 따뜻한 학교라 하면 아이들이 사실 일과의 대부분을 학교 안에서 보내잖아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 따뜻한 학교라는 거는 학교 안에 봉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사실은 아이들의 수준이 되고 아이들의 어른이 되어주는 학교예요. 현재 우리 학교는 그런 모습이 아닌 이유는 직군 간의 갈등도 너무 심하고요. 교사와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급식실 조리 종사원들 간의 갈등, 행정직원, 학부모의 갈등 그래서 배려하고 나누고 따뜻하고 친밀한 학교가 아니예요. 이런 학교에서 아이들이 뭐를 배울 수 있을까(현장 전문가, C)

- 이러한 관계 중심 학교 문화는 갈등 상황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남. 마을교육공동체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 학교에서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외부의 제도나 처벌 중심 체계에 즉각적으로 위임하기보다, 대화와 숙의의 과정 자체를 교육과정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이 실천되고 있었음. 실제로 교과 진도를 잠시 멈추고 학부모·학생·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과 퍼실리테이션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갈등 해결 과정 그 자체가 중요한 배움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었음

우리 학교는 갈등이 생겼을 때도 외부에서 선생님들 모셔서 토크 스틱 이렇게 하면서 다 같이 얘기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활동들을 하고 싶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수업 시간 3시간을 빼서 퍼실리테이터 붙여서 학부모 학생 교사 다 모여서 토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자주 수업 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도 진도에 대한 부담 근데 이걸 지금 필요하니까 또 해야 하는 활동 근데 그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배우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다 중학교, 교사A)

- 이러한 관계 중심 문화의 경험은 학생 자치와 민주적 참여의 일상화로 이어짐. 자율성과 자치권을 부여받은 학생들은 축제, 체육대회, 학교행사 등을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획·조율·운영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었음. 관계 중심의 문화가 형성된

학교의 학생 자치는 특정 시기에만 이루어지는 형식적 활동이 아니라, 학교의 일상적 운영 구조 안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음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활동 같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축제나 그리고 체육대회 같은 것도 다 학생들이 직접 열고. 그래서 더 '이런 거 좋은 것 같아, 이런 거 더 하자'도 더 많이 말할 수 있고 아니면 '이건 좀 별로야. 이건 다음부터는 하지 말자' 같은 것도 많이 의견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다 중학교, 학생C).

새 교육과정 준비 기간에 이제 선생님들은 3일 동안 계속 연수를 하고 새 학기를 준비하시거든요. 근데 옆에 학생회 애들도 자기 공간에서 계속 신학기 행사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애네가 거의 교사처럼 일을 해요. 애네들도 이제 새출발 교육과정 준비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프로그램 운영할 것 인가... 하여튼 제가 봤을 때 한 달에 한 번에 서 두 번의 학생회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애들이 준비를 하는데 심지어 이제 첫 그 첫째 회장단 아이들은 리허설을 하는데 그 시간까지 체크하면서 하더라고요.(다 중학교, 교사B)

- 이와 같은 민주적 의사결정 경험은 학생들의 일상적 언어와 태도에서도 드러남. 연구참여자들은 학생들이 토론 상황에서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며, 이러한 의사 소통방식이 마을과 초등학교에서부터 비폭력 대화와 평화교육을 통해 반복적 훈련하여 습관화되어 온 것이었음을 강조함. 이는 민주주의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생활 속 실천 역량으로 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저도 처음에 와서 되게 놀란 게 뭐냐면 애들의 말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둠 수업을 하면 '우리 이거 같이 해볼래?', '네 생각은 어때?' 이런 대화를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 어른들도 처음에 이렇게 모여서 뭐 하면은 쉽게 잘 안되는 말투거든요. 근데 애네들은 이게 연습이 되었고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거기서 되게 감동해요.(다 중학교, 교사B)

저는 그게 마을과 초등학교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안정적이예요. 요즘 중학생들 같지 않아요. 이제 마을에서 계속 대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법 그리고 마을에서 되게 많이 만나거든요. 사람들이 이것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게 공부 모임이 꾸준히 있고, 그런 모임에서 계속 부모님들이 만나고 있고 만나면 재미있게 놀기도 하지만 서로 존중의 기반이 됐기 때문에 만나지는 거잖아요. 그런 게 가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초등학교에서 계속 평화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관계 맺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들 수준으로 내려가서 수업을 해 주시거든요. 그게 기반이 되고 모둠 활동이 기반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중학교...(다 중학교, 교사A)

- 이러한 관계와 민주적 문화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배경에는 학교 리더십의 역할 재정의가 있었음. 연구참여자들은 교장의 역할을 '결정자'가 아니라 '의견을 모으고 지지하는 조정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교장·교감의 공식 상황에서도 학교 운영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학교 안에 민주적 협의 구조가 내재화되

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음

교장 선생님의 역할은 의견을 모으는 역할이죠. 의견을 모으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렇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아주고 진짜 서포트를 잘 해 주시는... 그게 민주주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안 계셔도 굴러가는 게 저희도 기획 협의, 담임 협의, 전체 협의가 계속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장 선생님만 안 계신 게 아니라 교감 선생님도 공석이 시거든요.(다 중학교, 교사A)

-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투명성과 개방성을 관계 중심 민주주의 교육공동체의 핵심 원리로 강조하였음. 학교 운영과 정과 결정 사항을 모든 학부모에게 공개하고,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식은 학교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었음. 특히 ‘소비자’로서의 학부모가 아니라,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동료 양육자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인식되었음

우리가 유학생 가족이든 재학생 가족이든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게 있을 때는 정말 투명하게 하고 오늘 같은 것도 다 오셔라 안 되면 온라인 연결해서 다 들으셔라. 그래서 하나도 누구도 빼놓지 않는다 그걸 해 왔어요. 그거는 철칙처럼 지켜왔어요.(마 초등학교, 교사A)

서로가 공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를 알리고 양육자들도 많이 들어와서 듣고 그래서 지금 마을 교육위원회 이번에 크게 한 번 모였는데 마을에서 그래서 OO면에 있는 초중고 교장들 다 오고 △△배움터에서도 오고, 지역아동센터도 오고 이렇게 해서 만나는 자리를 가졌는데 그때 합의했던 게 중간에 들어왔다가 이게 뭐야 하고 참여하지 않고 소비만 하고 가는 그게 아니라 들어와서 같이 철학을 공유하고 같이 아이를 키우는 동료 양육자가 되려면 양육자들이 가지는 철학을 좀 공유해야 한다.(다 중학교, 교사A)

- 종합하면, 연구 참여자들이 상상하는 관계 중심의 민주적 교육공동체 모델은, 관계-대화-참여-신뢰가 일상적으로 순환되는 학교의 모습으로 나타남. 이는 교사의 헌신만으로 유지되는 학교가 아니라 학생·학부모·마을·학교가 함께 책임을 나누며 만들어 가는 공동체이며, 민주주의가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지는 것’으로 경험되는 교육 공간이라 할 수 있음

□ 유연한 교육과정 및 특성화 교육 모델

- 유연한 교육과정 및 특성화 교육 모델은 농어촌 작은 학교의 조건을 ‘한계’가 아닌 교육적 가능성의 전환으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함.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가장 큰 교육적 가능성은 학생 수가 적다는 조건을 활용한 ‘개별 맞춤형 진로 책임 교육’을 제시하였음. 학생 한 명, 한 명의 흥미와 재능을 학교가 충분히 관찰하고, 특정 영역에서 잠재력이 발견될 때 학교 차원에서 집중적인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도시의

큰 학교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농어촌 학교만의 강점으로 인식됨. 이러한 '진로 책임 교육'은 단순한 체험 수준을 넘어, 전문 강사 연계, 장기적인 성장 로드맵 설계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상상되었으며, 학부모로서도 농어촌 학교 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보았음

내 아이가 음악에 특히 피아노에 뭐가 있다 그럼 아예 특별반을 아니 피아노 강사부터 다 붙여줘 붙여주고 뭐 콩쿠르라든 뭐든 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완전 진로를 완전히 책임지는 거예요. 몇 안 된다면 그렇게 해서 여기 학교를 가면 내 아이는 이거는 진짜 어느 학교도 할 수 없는 걸 해. 그런 식으로 이 아이만의 그걸 하면 저가 부모면 전 같 것 같아요. 기본은 하고 약간의 더 특화된 라인으로 가면(마 초등학교, 교사A)

- 연구참여자들은 농어촌 학교가 '노는 학교', '대안학교'라는 사회적 편견에 대응하기 위해, 학습의 깊이와 수준을 드러낼 수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음. 특히 '가' 중학교 사례에서처럼 IB 교육과정 도입은 단순한 프로그램 추가가 아니라, 토론, 글쓰기, 탐구 중심 수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과 학습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이해됨. 이를 통해 사교육 의존을 줄이고, 학생 스스로 학습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고 평가함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그러다가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이 중학교는 공부 안 해 못해 덜 시켜 '노는 학교'야 '대안학교'야 이런 인식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IB를 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그거거든요. 수준을 높이겠다는. 그래서 그러려면 수업 개선을 해야 하고 아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교육이나 이런 데 의존해서 이제 하는 그런 것보다 스스로 역량 토론하고 글 쓰고 말하고 이런 것들을 늘려야겠다 해서...(가 중학교, 교사B)

수월성 교육이고 지나치게 앞에 애들만 돈이 많이 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IB 중학교 과정이 적용되는 걸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5년 뒤에 10년 뒤에 이제 진짜 전체 학령인구가 줄어들었을 때 우리 학교에는 어떤 아이들이 올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개인의 성장을 신경 써주지 못할 때 그런 고민으로 IB가 도입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가 중학교, 교사A)

- 소규모 학교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는 공유·공동 교육과정의 필요성과 효과가 반복적으로 언급되었음. 연구참여자들은 인근 학교와 요일별로 연계하여 수업, 체육, 동아리 활동을 운영할 경우, 단일 학교에서는 불가능했던 토론수업, 합주, 팀 스포츠 등 다양한 교육 경험이 가능해진다고 하였음. 특히 포괄 관계 형성이 어려운 소규모 학급 학생들에게 공동 교육과정은 사회적 관계 확장 및 정서적인 안정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경남의 공유 교육과정이나 아니면 공동 교육과정처럼 요일을 정해서 일정 학교에 모여서 교육 활동을 하는 그 안에서 애들이 이제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팀 활동도 해서 기존의 소규모 학교가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어떻게 보면 클럽 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장치를 만들어 줘야 하는 거죠.(학술 전문가, F)

옆에 ㄷ초등학교라고 작은 학교인데 저희보다는 커요. 40명 조금 넘는 학교인데 일단 저희가 크게 두 갈래로 행사 활동 그리고 수업 활동 이렇게 같이하고 있는데요. 이제 두 학교가 같이 하면 흥도 훨씬 나고 애들도 막 못 해봤던 경기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생기니까 의미가 있고 수업 활동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꼭 성취해야 하는 그런 것들 토의 토론을 해본다거나 합주를 해본다거나. 근데 저희 반 지금 3명이고 여기 2학년 2명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학급 회의를 한다 그러면 구성원 자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교사가 꺼도 불가능한데, 옆에 학교 친구들이 와서 일단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것(라 초등학교, 교사A)

- 연구참여자들은 농어촌 지역에서 기존 학교급 구분을 넘어서는 통합형 교육과정 모델이 충분히 실험 가능하다고 보았음

현재 학교 모델에서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만 생각해서 될 것 같지 않고 초등 중등을 통합해서 하든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합해서 하든 이게 어떤 거의 대안학교 모델이죠.(현장 전문가, A)

- 마을교육공동체가 활성화된 지역에서는 학교급 간 수업 나눔과 상호이해는 교사의 교육 전문성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함. 이에 초-중, 중-고 통합은 물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생애주기별로 연계된 교육과정을 구성함으로써 학습과 돌봄, 진로지도가 단절되지 않는 구조를 기획함

초중 연계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수업 나눔도 굉장히 열심히 같이 하고 계세요. 저희가 초등학교 가서 초등학교 수업을 관찰하고 초등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고 어떤 돌봄을 받는지를 보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중학교에 오셔서 중학교 가니까 이렇게 배우네. 초등에서 뭘 준비해서 보내야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중학교 선생님은 초등 아이들이 그러니까 중학교에 오면 교과가 다 달라지고 초등의 돌봄까지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돌봄을 받고 아이들이 왔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안정되어 있구나 이런 부분들도 배우고 초등에서 여기까지 배웠으니까 중등 수업을 할 때 어느 부분을 보완해 줘야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하고 계시고요.(다 중학교, 교사A)

유치원 지금 어린이집부터 여기 병설 유치원도 있어서 그러니까 유·초·중·고에서 하고 있는 양육자 교육을 산발적으로 따로 하지 말고 하나의 학교로 엮어보자는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12월에 담당자들 모일 거예요. 내년부터는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생애 주기에 맞춘 그러니까 자녀 교육 주기에 맞춘 그러니까 뭐 영유아 이제 6~7세,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 그러니까 저학년,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해서 이 커리큘럼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얘기를 했고요.(다 중학교, 교사A)

-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유연한 교육과정과 특성화 모델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교원 인사 운영의 유연성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였음. 정규 교사 중심 구조를 넘어 산학협력 교

사, 마을교사 등 다양한 인적 자원이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하며, 법·제도적으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학교를 좀 기존의 교사들만이 아니라 산학협력 교사라든지 이게 좀 자격증이 없는 교사 자격증 없는 사람도 교사로 채용한다든지 좀 그런 식으로 하면 좀 학교를 이제 생태학교가 됐든 아니면 농촌만의 어떤 특징을 가진 교육과정을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바다 학교라든지 산간 지역이면 백두대간 학교라든지 자기 나름의 원가를 갖고 해볼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현장 전문가, A)

일주일 동안 학교공개를 했어요. 수업부터 모든 거를. 교장과 교감 선생님들이 방문하셔서 놀라셨던 부분이 마을 교사 예산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수업들을 마을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저희 교육과정 안에 녹여내 뒀거든요.(다 중학교, 교사A)

- 이처럼,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가 적다는 조건을 ‘개별 맞춤형 진로 책임 교육’과 ‘특성화 교육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도시학교가 하기 어려운 집중지원을 구현할 수 있음. 또한 ‘노는 학교’라는 편견을 넘어 학습의 깊이를 보여주기 위한 IB등 탐구, 토론, 글쓰기 중심의 미래교육과정 도입하고, 공유, 공동교육과정 수업 등을 통한 다양한 경험이 가능함. 더 나아가 초-중, 중-고 통합형 연계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돌봄, 진로의 단절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함. 이러한 모델의 지속을 위해서는 정규교사 중심을 넘어 산학협력교사-마을교사 등 다양한 인적자원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유연한 교원 운영이 필수라고 여김

□ 소결

- 연구참여자들은 농어촌 학교가 소멸의 위기를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미래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한 5가지 구체적인 새로운 학교 모델을 제안하였음. 연구 참여자들이 제안한 모델은 단순히 학생 수를 유지하는 전략이 아니라, 학교의 공간, 대상, 주체, 문화, 내용을 전방위적으로 혁신하여 ‘지역과 교육이 함께 사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음
- 생태 및 지역 밀착형 로컬 교육 모델은 학교의 담장을 넘어 마을과 자연 전체를 교실로 확장하는 공간의 확장 모델임. 농촌의 자연을 활용한 농사 활동, 한 달 살기 등의 활동을 정규교육 과정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이는 기후 위기 시대의 공생 가치를 체득하고, 학생들에게 정서적 치유와 예술적 감수성을 길러주는 차별화된 교육이 될 수 있음
- 지역사회 평생학습 허브 모델은 대상을 확장한 모델로, 학교를 학령기 아동만의 공간이 아닌,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의 거점으로 전환함. ‘학교 안 마을 배움터’를 통해 노인,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을 포용하고, 주민의 직업적 전문성을 학생 교육에 환원하는 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음. 이는 학교가 지역 소멸을 막고 이주민의 정책을 돕는 최후의 공공 거점 임무를 수행함을 의미함

- 지역사회학교 모델은 학교 운영 주체를 교장, 교사 개인에서 지자체, 교육청, 지역 주민 등이 함께하는 ‘공적 공동체’로 전환하는, 즉, 교육 주체의 확장 모델임. ‘3주체 협약형 학교’ 등을 통해 지역의 교육철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지자체가 교사와 유입 학생 가족을 위한 주거를 지원하는 등 인적 자원의 안정적인 정주를 도모할 수 있음. 교육청은 ‘관리’가 아닌 ‘지원’에 집중하여 역할을 분담할 수 있음
- 관계 중심의 민주적 교육공동체 모델은 처벌과 규율 대신 ‘관계, 대화, 참여, 신뢰’가 순환하는 따뜻한 학교 문화를 구축하여 학교 문화의 혁신을 도모하는 모델임. 갈등 발생 시 회복적 정의의 접근방식인 공동체적 대화로 해결하며, 학생 자치를 일상화하여 민주 시민 역량을 기를 수 있음. 이는 학부모를 소비자가 아닌 동료로 인식하는 투명한 소통 구조가 기반이 됨
- 유연한 교육과정 및 특성화 교육 모델은 교육 내용의 혁신을 꾀함. 소규모 학교의 특성을 살려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맞춤형 진로 교육’을 실현함. 미래형 교육과정 도입, 예체능 특화 등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인근 학교와의 ‘공동 교육과정’이나 ‘초-중-고 통합 운영’을 통해 소규모 학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이를 위해 교원 인사와 예산의 유연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이 상상한 농어촌의 새로운 학교 모델은 ‘고립된 섬으로서의 학교’에서 ‘지역사회의 심장이자 미래교육의 산실’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함. 즉, 농어촌 학교는 사라져가는 곳이 아니라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가장 미래지향적인 교육 모델이 탄생할 수 있는 혁신의 공간이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교육 당국의 통합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임

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요구

- 농어촌 새로운 학교 모델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과 운영 모델의 혁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연구 참여자들은 교원 확보와 인사 제도의 유연화, 지자체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그리고 농어촌 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안정적 재정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을 공통으로 지적함. 특히 학생 수 중심의 획일적 기준과 단기적 사업 위주의 재정구조는 농어촌 학교가 지닌 강점을 오히려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전환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결단이 요구됨. 연구 참여자들이 지속 가능한 농어촌 새로운 학교의 모델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요구는 다음 <표 5-5>와 같음

〈표 5-5〉 농어촌 새로운 학교 모델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요구

정책 영역	핵심 과제	세부 내용	제도·정책 개선 방향
교원 확보 및 전문성 강화	교원 정원 기준 개편	• 학생 수 기준 중심의 정원 산정 방식 탈피 • 농어촌 학교 특수성, 돌봄·통합 역할 고려	• 농어촌 학교 유형별 정원 기준 • 최소 운영 인력 보장제도 도입
	역량 있는 교사의 장기 근무	• 도시 근무 선호 완화 필요 • 4년 이상 장기 근무 가능 제도 마련	• 초빙교사·장기근무 인센티브 제도 확대 • 농어촌 근무 전문성 인정
	교원의 전문성 발휘를 위한 제도 마련	• 교사에게 자율성과 시민의 권한 부여 •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교사 • 학생에게도 자율성을 부여	• 교사의 정치 참여권 부여 • 교사의 자율성 보장
	교원 인사 시스템 혁신	• 교사의 전공·역량과 학교 필요의 불일치 문제 • 국가공무원 교사의 정원 감소	• 교원 역량 데이터베이스 • 학교-교사 매칭형 배치 • 지역 교사 선발제 및 교육장의 인사권과 예산 권한 부여
	행정업무 경감	• 과도한 공문, 정산 부담 • 교사의 학생 돌봄 및 수업 설계 시간 부족	• 불필요한 행정절차 정비 • 행정 전문 인력 배치 • 학교당 적정 교사 수
지자체 참여 및 거버넌스 제도화	지자체 교육 참여 법제화	• 농어촌 교육을 교육청 단독 책임으로 인식	• 기초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의 실질적 권한 분담 교육 거버넌스 체계 • 특별법 또는 교육(발전)특구 지정
	교육과정을 매개로 한 지역 참여 거버넌스	• 지자체와 지역사회 참여의 일회성 사업의 한계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논의 구조 필요	• 공모제 교육장, 군수-교육장 러닝메이트 선출 등 지방 교육자치제도 마련 • 농촌기본교육법 시행
	정주 여건 마련과 교육 거버넌스의 결합	• 학생과 교사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기반 부족	• 지자체 차원에서의 정주 여건 마련
	공동 교육재단 설립	• 지자체장 교체 시 정책 지속성 취약	• 교육청-지자체 공동출자 재단 설립 • 교육(발전)특구 제도 활용 • 지역 교육위원회 조직
	지자체 차원의 학생 이동권 보장	• 농어촌 학생의 이동 제약	• 지자체 주관 순환 스쿨버스 운영 • 교통비 지원 제도화
인식 개선 및 정책적 지원	농어촌 학교 인식 변화	• 농어촌 학교는 열악하다는 고정관념 • 학교는 지역이 함께 만드는 공간	• 농어촌 학교의 혁신 사례 확산 • 미래교육 모델로 브랜딩
	안정적 재정 지원	• 단기, 프로젝트성 예산의 한계	• 국가 차원의 장기적, 안정적 재정 지원 체계 구축
	과소 학교 규제 완화	• 도시 기준 동일 적용으로 강점 상실	• 학생 수 상한 완화 • 소규모 학급 유지 제도화

□ 교원 확보 및 전문성 강화

- 농어촌 학교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조건은 교원 확보와 전문성 강화임을 강조함. 특히 현행 교원 정원 산정 방식이 학생 수를 기준으로 획일화되어 있어, 돌봄·생활 지도·관계 형성 등 교사의 실제 업무 밀도가 높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함. 또한 작은 학교임에도 학교에 필요한 적정 교사의 수가 있다고 강조함. 이에 교원의 정원은 학생의 수에 따라 배치할 것이 아니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음

교사 수를 너무 이제 학생 전체 수에 따라서 교사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전체 학생 수를 따져서 교사의 수를 배치하는 게 아니라 학교의 특성이나 학교에 따라서 뭔가 교사가 좀 더 더 많이 뽑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면서 작은 학교라고 교사가 많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행정적인 접근인 것 같아요. 작은 학교라고 하지만 작은 학교도 교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현장 전문가, D)

- 교사로서 가장 높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교사들은 대체로 도시지역의 근무를 선호함. 이러한 역량 있는 교사가 농어촌 지역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가치관과 교육에 대한 성찰을 끌어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역량 있는 교사들이 지역에 계속 남을 수 있도록 4년 이상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

초빙교사 이런 거 해가 지고 4년 하고 또 여력이 돼서 또 4년 더 남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마는 어쨌건 오래 머무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현장 전문가, C)

교원의 도시 근무를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 그 가치관을 좀 교사의 성찰을 끌어내서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다...(현장 및 정책 전문가, B)

- 교사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사에게 자율성과 시민의 권한을 부여해야 함. 즉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는 교사란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고, 해결하기 위해 교육 방향과 교육과정에 녹여낼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정치 참여권을 부여해야 함

지역과 소통하는 교사, 소통이 그냥 학부모 민원을 잘 들어주는 게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체가 돼서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는 교사. 교사는 이등 시민이거나 노예이거나 그냥 돈 받고 지식을 파는 상인이거나 그런 식으로 돼서는 곤란하다(현장 전문가, A)

(교사들에게) 지금 이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학교에 요구하는바, 그다음에 이 시대가 학교 교육이 요구하는 바에 착목해서 본인들의 전문성을 살려서 역할을 잘해주시라. (중략) 이 학교의 철학과 가치

그다음에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교육과정의 방향과 내용에 어쨌건 교사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역량의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면 만나는 지점이 자체가 많다라는 거죠.(현장 전문가, C)

-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아우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사의 자율성을 전폭적으로 부여해야 함. 이를 통해 교사는 학생들에게 더욱 다양한 배움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함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다양한 교육의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기획해서 할 수 있겠다. 교사 차원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저는 전폭적으로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다양한 배움을 일으킬 수 있겠다(현장 전문가, C)

- 또한 학생에게도 “스스로 자기 삶을 주인답게 결정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함

다양한 마을이라고 하면 좀 더 넓은 공간에 나아가서 다양한 어떤 존재들 다양한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그 안에서 역량을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삶을 주인답게 결정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에요. 다른 역량이 아니라 근데 학교는 아이들한테 그런 자율성을 주고 있지 않으면서 민주시민을 양성한다는라면서 모순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현장 전문가, C)

- 교원 인사 시스템을 혁신해야 함. 교사 인사이동에서도 교사의 역량에 맞는 지역이나 분야에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사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예를 들면 인사이동 과정에서 학교가 필요로 하는 전문 영역과 교사의 역량이 체계적으로 매칭되는 시스템 마련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함

인사이동을 하려고 그럼 우리 학교 지금 여기 특화가 농어촌 지역이 필요한데 야 못 찾겠어 뭐 누가 있어? 이런 맨날 어따 전화 돌려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우선 순위로 뭔가 원하는 사람들이 딱 나타나서 이렇게 매칭할 수도 있고(마 초등학교, 교사A)

교사 개인에 대한 이 사람은 예를 들면 뭐 it 가 전공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학교로 가야 해요. 그러니까 승진 이런 게 아니고...(중략)...정보에 관계된 거는 너무 즐겁게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걸 원하는 학교는 그럼 당신네 올 수 있으면 자격이 된다면 우리 학교에서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붙어줘야(마 초등학교, 교사A)

- 승진제도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역 교사 선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연구참여자들은 국가공무원인 교사의 수를 더 늘리기 어려

운 실정이라면 지자체에서 학교를 설립하고 해당 지역에 필요한 교사는 지자체에서 채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언급함

승진제도에 유인책이 필요. 지역 교사 선발제도 검토 필요.(현장 및 정책 전문가, B)

시도교육청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이제 교사들을 채용하지만 사실상 이게 지자체의 학교는 지자체 사무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 교사를 채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하더라도요.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는 하더라도요.(정책 전문가, E)

- 교육자치의 관점에서 인구감소지역에는 교육장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기초자치단체의 실정은 교육감보다 교육장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기에 교육장의 임기를 늘리는 한편, 교육장에게 인사권과 예산의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의 교육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교육장이 지역의 주요 학교에 교사 교장을 초빙할 수 있게 하고 혁신학교에서 교장 초빙제 한 것처럼 팀제로 교사 근무하게 한 것처럼 인구 감소 지역에 교육장에게 교장 초빙권을 주고 인사와 예산과 임기를 좀 줘서 변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현장 및 정책 전문가, B)

-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과 학생 돌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확보를 강조하였음. 농어촌 학교에서 교육의 신뢰는 프로그램의 화려함이나 성과지표보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돌보고 관계를 맺는 일상적 실천에서 비롯됨을 강조함. 즉, 작은 학교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는 ‘아이를 잘 돌보는 것’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교사가 학생을 직접 만나는 시간의 확보라고 공통으로 이야기함

작은 학교에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 아이들 잘 돌보는 거죠. 내 새끼 잘 봐주면 신뢰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러려면 아이들을 볼 시간을 교사들한테 확보해 줘야 한다.(다 중학교, 교사A)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면서 선생님들이 업무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돼야 해 (현장 전문가, D)

-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현행 행정 구조 속에서 농어촌 소규모 학교 교사들이 오히려 더 많은 업무 부담을 지고 있음을 토로하며, 학생 수는 적지만 돌봄, 생활지도, 정서 지원 등 교사의 역할 범위가 넓고 밀도가 높으므로, 작은 학교일수록 적정 교사 수를 확보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음

작은 학교라고 하지만 작은 학교도 교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숫자는 작지만, 아이들을 케어하고 어떤 돌봄의 영역도 좀 있고 생각보다 좀 교사가 손이 많이 가는 지역도 농어촌 학교거든요. 그래서 교사 수를 좀 탄탄하게 확보가 되어야지 그 안에서 선생님들이 또 일을 또 나누고 업무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므로 교사 수가 너무 적어버리면 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현장 전문가, D)

- 또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행정업무가 교사의 에너지를 소진하고, 결국 학생을 위한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지적함. 이에 교육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보고와 정산 중심의 업무를 줄이고, 교사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저희가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교육 예산이 있거든요. 정산서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말 그 원인 행위 한 그 출력물까지도 다 제출을 하라고 해요. 그런 거가 너무 교사 진을 빼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그 예산을 받긴 했지만 그런 행정적인 거에 저희가 너무 힘을 빼니까(다 중학교, 교사B)

- 농어촌 학교의 지속가능성은 교원학보와 전문성 강화에 달려있음. 학생 수 기준의 획일적 정원배치는 돌봄·생활지도 등 업무밀도가 높은 작은 학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음. 역량있는 교사의 장기근무 유도, 전문성 기반 인사매칭, 교사·교육장의 자율성과 권한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함. 또한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여 교사가 학생을 직접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작은 학교 교육신뢰의 핵심조건으로 제시되었음

□ 지자체 참여 및 거버넌스 제도화

- 연구참여자들은 농어촌 학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중심의 일률적 교육행정 체제에서 벗어나, 기초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실질적 권한을 분담하는 교육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음. 특히 교원 정원, 근무연한, 학교 운영의 유연성과 같은 핵심 사안은 중앙 정부가 아닌 시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섬세하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혁신학교 당시에 초빙교사랑 학교 근무연한을 늘리는 것에 대한 규칙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정원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을 좀 섬세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국가가 하기보다는 시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보충성의 원칙에서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또는 기초 지자체에서 교사나 학교가 요구할 때 시도교육청이 그걸 보완하는 제도를 만드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대(현장 및 정책 전문가, B)

- 아울러 농어촌 학교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 즉 교사 정원, 지역 교육, 학교 존속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나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이는 개별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방안이라 할 수 있음

교사 정원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교육의 지자체와 협력해서 마을 교육 학교 교육을 살리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특구 지정으로 뒷받침될 방안 이런 것들이 좀 마련돼야 할 것 같고요.(정책 전문가, E)

- 연구참여자들은 교육(발전)특구를 단순한 사업 단위가 아니라, 지역 교육 거버넌스를 의무적으로 수반하는 제도적 틀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이는 지역 단위에서 중장기 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배분·운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미임

새로운 교육(발전)특구를 만들 때는 그런 지역 교육 거버넌스를 반드시 만들게 하고 그것을 중앙에서 관리 지원하고 한발 더 나아가면 지자체에서는 지역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지역 교육 보장 계획을 수립하게 한다. 그래서 4년 동안의 중기 계획을 통해서 초중고에 대한 재배치라든가 말씀하신 것들을 큰 틀에서 바라보고 연 단위의 시행 계획을 세워서 시와 교육청이 예산을 어떻게 공동 배분해서 쓴다. 이런 지역 교육 발전 계획이 지역사회 거버넌스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정책 전문가, E)

- 연구참여자들은 지자체와 지역사회 참여가 일회성 사업이나 외부 프로그램 연계에 그쳐서는 안 되며, 학교 교육과정 자체에 구조적으로 내재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이 학교 교육에 참여할 때, 초등-중등-고등 단계로 이어지는 장기적 학습경로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 정주와 취업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학교가 별도의 어떤 노력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지역이 참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자체에 지역 교육 과정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그 교육과정을 통해서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까지 넘어가는 (중략) 교육이 우리가 학교가 학교 교육 별로 끝난 후에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같이 올라가서 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고등학교 과정까지 연결돼서 그것이 지역의 취업까지 연계되는 방식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고민을 해야(학술 전문가, F)

패러다임이라고 하나 이것을 인구 감소 지역의 최근의 화두가 기본 소득이 7개 지역을 선정했는데 광역시를 빼고 인구 감소 광역의 지자체 중에서 그것과 비슷하게 기본 교육 이런 느낌으로 해서

출생부터 영유아부터 대학까지의 어떤 흐름을 기본 소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대정신이 있잖아요.
그것과 맞춰서 설계해서 제안을 해보면 어떨까(현장 및 정책 전문가, B)

- 또한 인구 감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육 의제는 보다 기초단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이를 위해 교육장에게 인사, 예산, 임기와 같은 실질적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음

기초단위에서 교육장으로 좀 인사 예산 임기의 권한을 옮겨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요즘에 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교육장으로 이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는 교육 의제의 중심을 좀 논의를 그쪽으로 활발하게 하는 것이 대안이 아닐까.(현장 및 정책 전문가, B)

- 이와 함께 군수- 교육장 러닝메이트, 공모 교육장의 권한 강화, 농촌 기본 교육과 같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도입이 요구됨. 이는 교육을 단순한 행정 서비스가 아닌, 지역 존속을 위한 기본 공공재로 재정의하여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됨

획기적인 제도의 변화(군수 교육장 러닝메이트, 공모 교육장에게 지역의 주요 초중고 교장 추천권, 예산 인사 임기 보장 등)와 패러다임의 전환(농촌 기본 소득 시범 사업처럼 농촌 기본 교육 시범 사업 등)이 필요(현장 및 정책 전문가, B)

- 농어촌 지역의 존속을 위해서는 외부 유입 인구의 정주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 특히 학교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가 모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기반이 필수적이며, 이는 교육청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의 역할로 인식됨

초등학교 살아야 우리도 사니까 거기에 정주 학교 개념으로 거기에 대한 이제 주택지 그걸 시에서 제공하는 지금 여기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주택을 지어서 들어오면 토지 분양을 시에서 해주고 싸게 해서 거기에 살 수 있도록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런 안을 지금(가 중 학교, 교사A)

이주해서 와서 작은 학교에 아이를 보내든 아니면 선생님이 조금 오래 있고 싶어도 1순위 걸리는 게 집인데 집을 못 구해서... 이거는 단순히 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교사가 오래 머물 수 있게 하는데 안정적으로 학교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제반 여건을 갖추는 데는 지자체도 역할이 있는 거죠... 정말로 지역 교육 살리고 싶으면 역량 있는 선생님들이 오시라 오시면 지자체는 집을 제공할 겁니다. (현장 전문가, C)

- 연구참여자들은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의 거버넌스를 위해 공동 교육재단 설립을 제안함. 즉, 교육지원청의 제한된 권한과 지자체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분지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자체-교육청-지역사회가 공동 출연하는 교육재단 설립을 제안함. 이를 통해 지역 교육 거버넌스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투자를 조정·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00시와 교육청이 공동출자 출연을 하고 이사회는 시에서 3명, 교육청에서 3명 그리고 민간 지역사회 3명 그래서 9명의 이사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 이런 거를 계획을 세운 적이 있어요. 그게 지금 법에 따르면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함께 출연하는 재단을 만들 수 없다 하더라고요. 다만 특구가 만들어져서 그런 게 가능한 경우가 생기면 그런 식으로라도 뭔가 이제 재단 형태로든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고(정책 전문가, E)

농촌 지역에서 이게 교육지원청은 워낙 인사권이나 재정권이 없으므로 실질적 권한이 없고 지자체가 훨씬 특히 군 단위는 예산이 많거든요. 일단 광역시의 어떤 자치구보다 인구 소멸 자금도 있고 그래서 군 단위의 지자체장이 좀 의지를 가진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지자체 예산이 그냥 좀 허투루 쓰이는 문제도 있다. 그러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재단의 형태로 뭔가 지자체가 되는 재단도 많이 있으니까, 문제를 좀 극복해 갈 수는 있겠고 그게 좀 제도화되려면 지역 교육 거버넌스 자체를 좀 제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술 전문가, F)

- 기초지자체의 교육자치를 위해 지역사회교육과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군구별 ‘지역 교육위원회’를 조직하자는 제안도 있었음. 이를 통해 풀뿌리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여김

시군구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들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어떤 국가교육위원회도 가능하다는 그림은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정책 전문가, E)

- 또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교육 선택권과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의 이동권을 지자체의 공적 책임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현재 농어촌 지역의 중학교 통학 지원의 공백은 가정과 학교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음. 이에 지자체 차원의 교통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됨

초등학교는 이게 스쿨버스 지원이 돼요. 아동이니까 중학교부터는 아니란 말이에요. 농어촌의 업은 그렇더라도 면 단위 학교는 중학교도 통학을 지원해 주는 이런 자유 학부제인데 통학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 어려움은 제가 거제에 있는 중학교도 한 번 갔었는데 거기 공립학교인데 자유학구제가 되면서 동문회가 이제 그 돈을 조금 모아서 택시비를 지원했는데 아이들이 드니까 감당이 안 돼서 그거조차도 안 되는 한두 명일 때는 가능하겠지만 늘어나면 감당이 안 됩니다.(가 중학교, 교사B)

- 학생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전이 가능한 지역민 또는 지역의 택시에 일정 교통비를 지원하거나, 지역별 순환버스 제도 운용 등의 아이디어를 제안하였음

지역에 예를 들어서 같은 마을에 사시는 뭐 차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한테 일정 비용을 주고 자차로 학생들을 이동하게끔 그렇게 맺어준다고 그 교통비 지원을 지역에서 책임진다고

한다면 지금 지역에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택시를 천 원만 내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이제 학생들도 그렇게 이동한다면 그 이동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거리상으로 따진다면 그게 그렇게 불가능할까(학술 전문가, F)

중학교 이렇게 00 중학교 이렇게 3개 묶어서 결국은 마중버스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따냈더라고요. 이 지역에도 안 될 이유는 없네요. 학생들이 요구하는데 들어줬으면 좋겠다.(다 중학교, 학부모E)

-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스쿨버스를 중등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 간의 안전과 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함

초등학교 그럼 비어서 오는 버스 우리 같이 씹시다. 이건 책임 문제 때문에 학교 간 학교 간의 협력이 될 수가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버스를 마련해라. 그럼 그 버스 타고 오고 싶은 애들 초등학교 애들도 타고 중학교 애들도 타게 해서 보내라. 지자체에서 운영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뭔가 조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그런 것들이 내려온다면 저는 지자체에서 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다 중학교, 교사A)

- 종합하면, 연구참여자들은 농어촌 학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앙 중심의 교육행정에서 벗어나 지자체-교육청이 권한을 분담하는 교육거버넌스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교원 정원, 근무연한, 인사, 예산 등 핵심 사안은 기초단위에서 조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발전)특구, 특별법, 지역교육거버넌스 의무화가 제안되었음. 또한, 지역 참여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내재화되어야 하고, 교육장 권한 강화, 공동 교육재단 및 지역교육위원회설립, 주거 통학 등 정주여건을 지자체 책임으로 보장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됨

□ 인식 개선 및 정책적 지원

- 연구참여자들은 농어촌 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농어촌 학교를 둘러싼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 전반에 고착된 농어촌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라 지적함. 농어촌 학교는 오랫동안 '규모가 작고', '열악하며', '사라질 수밖에 없는 학교'로 인식됐고, 이러한 인식은 정책 설계와 재정 지원, 학부모 선택, 교원 배치 등 전반에 영향을 미쳐왔음.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인식 구조 자체가 변화되어야 농어촌 학교를 살리기 위한 개별 정책이나 사업이 지속 가능하다고 보았음
- 특히 일부 참여자는 농어촌 학교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국가 차원의 캠페인과 서사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예를 들면, 지역 먹거리, 고향사랑기부제와 같이 국가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담론과 정책이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킨 사례를 참고하여 교육 영역에도 적용해 보는 방식을 제안하였음

학교에 대한 인식이 저는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캠페인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 예를 들면은 ‘고향 사랑 기부제, 곡성에 소아과 의사를 보내주세요.’ 이런 게 굉장히 반향이 있었어요 농촌 학교에 대한 어떤 그런 잘 설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국가 전반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것들을 계속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또 예를 들자면 지역 먹거리에 대한 인식이 저희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로컬에 대한 인식이 농식품부나 행안부가 해온 게 있어요. 그런데 교육에 대한 흐름을 계속 보면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작은 학교가 옛날에도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살렸고 지금도 막 그렇게 해서 살리고 아니면 떠나는 폐교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없어요. 농촌 학교에도 뭔가 새로운 것이 있고 그 교육이 존중받고 유행에 맞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인식의 변화가 농촌 학교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현장 및 정책 전문가, B)

- 또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는 곧 ‘학력 저하’나 ‘대안교육’으로 연결 짓는 사회적 시선 역시 농어촌 학교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지적됨. 이에 일부 학교는 학부모와 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수월성 교육, 미래형 교육과정’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함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하면 또 한편으로는 수준이 낮아진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공부만 안 지키는 거 대안 쪽으로 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게 사실은 수월성이 라든지 이런 게 저는 필요했다고 봤는데 그래서 사실은 IB를 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그거거든요. 수준을 높이겠다는(가 중학교, 교사B)

- 연구참여자들은 농어촌 학교에 대한 인식 전환이 단순히 ‘좋은 학교 이미지’를 만드는데 그쳐서는 안 되며, 학교의 성격 자체를 재정의하는 관점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즉 학교를 교사나 학교 조직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공공적 공간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였음

같이 만들어 가는 학교다. 학교는 교사가 만들 수 없다. 교사만 애쓴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역이 함께 만드는 게 학교고 그래야 학교가 잘 자리 잡고 아이들이 잘 자랄 수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의 수요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아이들의 주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목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자체에서도 학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이렇지만 지자체에서 아이들을 지자체의 주민으로 보고 지원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다 중학교, 교사A)

- 이는 농어촌 학교에 대한 인식 개선이 곧 교육 거버넌스의 민주화와 지역 책임성 강화로 이어져야 함을 시사함
- 연구참여자들은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을 요구하였음. 농어촌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재정구조가 취약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함. 현재의 재정 지원은 단기 사업 중심, 정치적 환경에 따라 지원이 변동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교의 중장기적 계획 수립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진짜 마을이 같이 교육을 책임지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돈을 투자를 해야 하는 건데 이제 이게 마을이 자치 단위로 실제 자치 조직으로서 예산권이나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군청이나 시청에서 공무원 책상에서 이게 이제 결정되는 건데 실제로는 그런 좀 더 풀뿌리 단위의 자치가 돼야지 좀 더 현재보다는 쉬워질 것 같고(현장 전문가, A)

이런 게 참 좋은 학교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런 게 꾸준히 농촌 학교에 예산이 어느 정도 와야 다음 사업을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정치권의 입맛에 맞게 그냥 방향이 두드리는 대로 휘두르니까 이게 학교는 백년대계로 가야 되는데요. (가 중학교, 교사B)

- 특히 학교 규모가 작아질수록 시설 개선과 유지·보수에 대한 재정 지원이 급격하게 축소되는 구조는 농어촌 학교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차원에서 교육재정을 결정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함을 강하게 요구함

지금 시설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학교가 소규모화되면 시설 개선에 대한 지원이 끊긴다는 거죠. 학교가 몇 년 지나도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지출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중략) 지역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이 기반할 수 있는 어떤 재정에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같이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학술 전문가, F)

- 연구참여자들은 과소 학교 규제 완화와 인원 기준의 재설계를 요구하였음. 현재의 학급 편성 기준과 교원 배치 규정이 농어촌 학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어촌 학교의 교육력을 더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았음. 예를 들면 학생 수 1~2명의 변화가 곧바로 학급 감축과 교원 감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제도는 학교 운영의 연속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하였음

지금 인근 중학교가 작년에 올해 입학하는 아이들이 26명이 아니라 25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급이 줄었어요. 학생 수 1명 줄었는데 교사 4명이 남아있어요.(다 중학교, 교사A)

저희가 이제 2학기에 내년 수요를 예상해서 학급 수나 교사 배정이나 이제 보고를 올리는데 내년 신입생 학급을 한 학급으로 올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올해 4학급이었고 내년에는 저희가 최소한 못해도 세 학급은 예산을 사실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조직 개편에서 그러면 조직 그러면 처음에 우리 학교 자체에 교사 TO나 배정이나 이런 게 3명 올 게 한 명 오는 거죠. 그러면 채용도 늦게 되고요. 그러면 채용이 늦다 보면 교사질이 떨어지죠.(가 중학교, 교사B)

- 또한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이 도시와 농어촌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농어촌 학교의 교육적 특성과 돌봄 관계 중심 교육의 강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됨. 참

여자들은 ‘적정 인원’의 기준을 단순 수치가 아니라 교사가 학생을 돌보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적 한계선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보았음

작은 학교는 원래 29명까지 아니었잖아. 바뀌었잖아.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지금 중 1위 중3 될 때까지는 29명 그런 교사가 줄어들기 때문에 학생 수를 그전에는 이제 시내 학급당 학생 수와 읍면 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가 달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동일하게 지금 29명까지 면도 시하고 동일하게(가 중학교, 교사B)

저희가 없는 학생을 어디서 만들어올 수는 없는데 일단 들어오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13명을 충분히 만들었는데 지금은 13명 못 만든다. 그래서 한 반이 된다. 14명이라 15명이라 이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들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들이 줄었다고 해서 선생님한테 이익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저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제일(다 중학교, 학부모E)

정규 선생님들이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게 해라. 선생님들이 정서 아이들을 가장 만나는 건 수업하는 선생님이니까 아이들 정서 돌볼 수 있게 선생님들에게 인원을 줘라...(중략)... 그냥 단순히 나누기로 해서 몇 대 몇으로 할 게 아니라 해서 우리 애들은 20명 선생님의 시선을 받고 크는 거예요. 애네가. 근데 1,200명 애들이 과연 몇 선생님들의 시선을 볼까 당장에 큰 학교 가면 애들 이름 외우는 거 포기하거든(다 중학교, 교사A)

- 이는 과소 학교 규제 완화가 단순한 행정적 조정이 아니라, 농어촌 학교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정책과제임을 시사함
- 농어촌 학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부정적 사회 인식의 전환과 안정적인 정책·재정 지원이 필수적임. 농어촌 학교를 ‘작고 열악한 학교’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공공적 교육 공간으로 재정의하고, 국가 차원의 캠페인과 서사를 통해 인식 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아울러 단기·정치적 사업 중심 재정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과소학교 규제 완화와 학급·교원 배치 기준 재설계를 통해 농어촌 학교의 교육 질과 운영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 과제로 제시됨

□ 소결

- 농어촌 학교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는 세 가지로 제안됨
- 첫째, 교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즉 교원 배치 기준 변경, 전문성 및 자율성 보장, 업무 경감 및 정주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함
- 농어촌 학교의 교육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원임. 현재의 양적 효율성 중심의 배치를 넘어 질적 지원이 필요함. 학생 수 중심의 획일적 교원 산정 방식에서 탈피하고, 돌봄과 생활지도의 밀도가 높은 작은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제도적 기

반을 마련하여야 함

- 교사가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함. 또한, 학교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교사를 매칭하거나 지자체가 직접 채용하는 등의 인사 시스템의 유연화가 필요함
- 교사가 학생과의 관계 맺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4년 이상의 근무제 도입 및 주거지원 등 실질적인 유인책이 필요함
- 둘째, 농어촌 학교는 학교 혼자서 생존할 수 없기에 교육청과 지자체의 실질적인 협력 체계가 필수적임. 이를 위해 지자체 협력 및 교육 거버넌스의 제도화가 필요함
- 교육감이 아닌 지역의 교육장에게 인사·예산·임기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야 함. 나아가 시도교육청과 기초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공동 재단을 설립하는 등 지역 교육 거버넌스를 제도화해야 함
- '교육(발전)특구' 등의 지정을 통해 지역 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정주 및 취업까지 이어지는 장기적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
- 학생 통학 지원과 교직원 주거 문제 해결은 지자체의 공적 책임 영역으로 명확히 하여 교육청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어야 함
- 셋째, 농어촌 학교를 '소멸 위기'의 관점이 아닌 '새로운 교육 모델'로 바라보는 시선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필요함
- 우선, 작은 학교는 학력 저하라는 편견을 깨고, 미래형 교육과정과 수월성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인식을 재정립해야 함
-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단기성 사업 예산이 아닌, 학교가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기본 예산 지원 구조가 확립되어야 함
- 과소 학교 기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함. 현재 학생 수 1~2명의 변동에 따라 교원이 감축되는 등의 경직된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적 돌봄이 가능한 '적정 인원'의 개념을 재설계 해야 함

3. 시사점

- 농어촌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학교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농어촌 학교를 더 이상 '떠나야 할 곳'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는 '찾아오는 곳'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음. 면담 결과를 종합하면, 농어촌 학교의 미래 모델 구축을 위해 다음 다섯 가지 영역에서의 혁신이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도출됨. 영역별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농어촌 학교를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계하여 지역 교육 생태계의 허브로 자리매김해야 함. 작은 시골 학교일수록 지역 주민과 자원을 교육에 활용할 기회가 많고, 학교 시설을 주민 모두의 평생학습 공간으로 개방함으로써 마을공동체의 배움터로 기능할 수 있음. FGI 참여자들은 농어촌 학교가 마을교육공동체의 거점이 되어 지역사회와 상생할 때 학생 교육의 질과 지역 활력이 높아진다고 보았음. 실제 충남교육청(2022)에서도 ‘학교가 마을의 구심점이 되어 학교를 통해 마을이 발전하고 지속되며 마을과 학교가 선순환’하는 마을 상생형 학교 모델을 강조하고 있음.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마을 간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시설과 인력 공유를 제도화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됨. 즉, 학교를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임
- 농어촌 학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교원 확보와 인사제도 혁신이 시급함. 현재 농어촌 학교는 숙련 교원의 부족과 순환보직으로 교육 연속성이 악화하는 문제가 있음. 실제 현장에서는 “농촌 학교에는 신규 교사나 곧 은퇴할 교사만 발령 나고, 역량 있는 교사는 오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우수 교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획일적인 학생 수 기준의 교원 배정으로 인해 작은 학교일수록 최소한의 교사 수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FGI 참여자들은 작은 학교에도 ‘적정 교사 수’가 필요하므로 학생 수에 연동한 교원 감축은 지나치게 행정 논리적이라고 비판하며, 학교의 특성과 실질적 업무량을 반영한 교원 정원 산정 방식의 개편을 요구하였음. 이를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교원 정원 기준 완화와 탄력적 재배치가 필요함. 아울러 지역 인재나 마을교사, 산학협력 전문가 등이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교원 자격 및 채용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교원 제도 개선을 통해 농어촌 학교의 교사 수급 불안정과 업무 과중 문제를 완화하고, 헌신적인 교원의 전문성이 장기적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교육과정의 지역화와 유연화가 필요함. 이는 농어촌 학교 모델의 핵심 요소임. 농어촌 학교는 풍부한 자연환경과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도시 학교와 차별화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면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의 생태 환경은 교실과 지역을 유기적으로 잇는 살아있는 학습의 장이 됨. 예를 들어 학교에서 친환경 생태교육을 배운 후 직접 논으로 나가 모내기과 벼 베기까지 해보는 체험 연계형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자연과 인간의 관계와 노동의 의미를 몸으로 익히게 함. 이러한 삶과 연결된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면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 문제해결력, 협동심 등을 종합적으로 함양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인식임. 따라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농어촌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자율권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

음. 실제 정책연구에서도 지역과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다양화·자율화하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학교가 지역 특색에 맞는 교과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함. 구체적으로는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학교 장의 재량권 확대, 마을 소재를 활용한 프로젝트 수업의 활성화, 인근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이 정책대안이 될 수 있음. 나아가 농어촌-도시 학교 간 교류를 통해 공동 수업이나 교사 교류 수업을 하면, 농어촌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소규모 학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짐

□ 농어촌 학교의 작은 규모와 공동체적 환경은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유리하게 작용 함. 학생 수가 적은 만큼 한 명 한 명에게 주어지는 역할과 책임이 크고, 또래 집단 내에서 자연스럽게 리더십과 협동심을 기를 기회가 많음. 예를 들면, 농어촌 학교에서는 전교생이 참여하는 학생 자치활동이나 학급 간 연합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경험을 할 수 있음. 이러한 참여 과정은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자율적 의사결정 능력을 키워주 며, 교사들은 생활지도의 부담을 더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음. 한편, 농촌에서는 세대 및 연령을 넘나드는 교류를 통해 사회적 역량을 기르는 모습도 두드러짐. 작은 시골에서는 형·누나(오빠·언니), 동생들이 함께 어울려 놀고 배우는 일이 일상 적이어서, 아이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 학습을 체험함. 이러한 환경은 도시 학교에서는 안전 등의 이유로 제한되지만, 농촌에서는 자연 속에서 뛰놀며 협력과 책임을 익히는 전인적 성장의 장이 펼쳐짐. 따라서 이러한 학생 주도 활동과 공동 체 경험을 적극 장려해야 함. 예를 들어 소규모 학교 연합 학생회, 지역 연계 봉사 학습, 다년제 멘토-멘티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농어촌 학생들이 다양한 역할을 경험하고 자기 주도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농어촌 학교의 강점인 친밀한 관계망과 전인교육 환경을 극대화하여,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인 협업, 리더십, 문제 해결을 배양하도록 돕는 것이 농어촌 교육혁신의 중요한 축이라 할 수 있음

□ 농어촌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한 학교 행정 및 교육제도의 유연화가 뒷받침되어야 함. 면담 조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농어촌 학교에서는 혁신적 시도가 기존 획일적 제도와 충돌하여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학생 수 감소로 작은 학교가 분교나 폐교의 위기에 처하면, 교원 수와 예산이 줄어들어 오히려 교육의 질이 하락하고 지역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됨. 이를 막기 위해서는 규모가 작은 학교에 대한 별도의 행정적 배려와 지원책이 필요함. 정부에서도 인구감 소지역을 위해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 완화, 학교 복합 시설 추진, 초·중 통합운영학교 등 다양한 유연화 정책을 시도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에 더해 FGI 참

여자들은 농어촌 학교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 몇 가지 제도 개선을 공통으로 제안하였음

- 첫째,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의 구축임. 농어촌 교육을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단발성 예산이 아닌 기본 예산 지원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임
- 둘째, 과소 학교 기준의 규제 완화임. 도시 기준을 농촌에 동일 적용하여 일정 학생 수 상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학급 유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작은 학교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함. 아울러 학생 수 1~2명 증감에 따라 교원 정원을 기계적으로 감축하는 현행 기준을 개선하여, 농촌 학교에 최소 운영 인력을 확보하는 유연한 인사정책이 요구됨
- 셋째, 지자체와의 협력 거버넌스 강화임. 교육청 단독으로는 농어촌 학교를 살리기엔 어려움이 있음. 기초지자체가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역 단위의 공동 교육 협의체를 통해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결정에 지역사회 의견의 목소리가 반영되게 해야 함
- 이처럼 행정과 제도의 유연화를 이루어낼 때, 농어촌 학교는 비로소 지역의 생존과 발전을 견인하는 미래교육의 전진기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짐

VI. 미래형 농어촌 학교 모델 구상

1. 개요
2. 주요 구성 요소
3. 정책 과제

VI. 미래형 농어촌 학교 모델 구상

1. 개요

1) 모델: 마을-권역 네트워크형 공공 학습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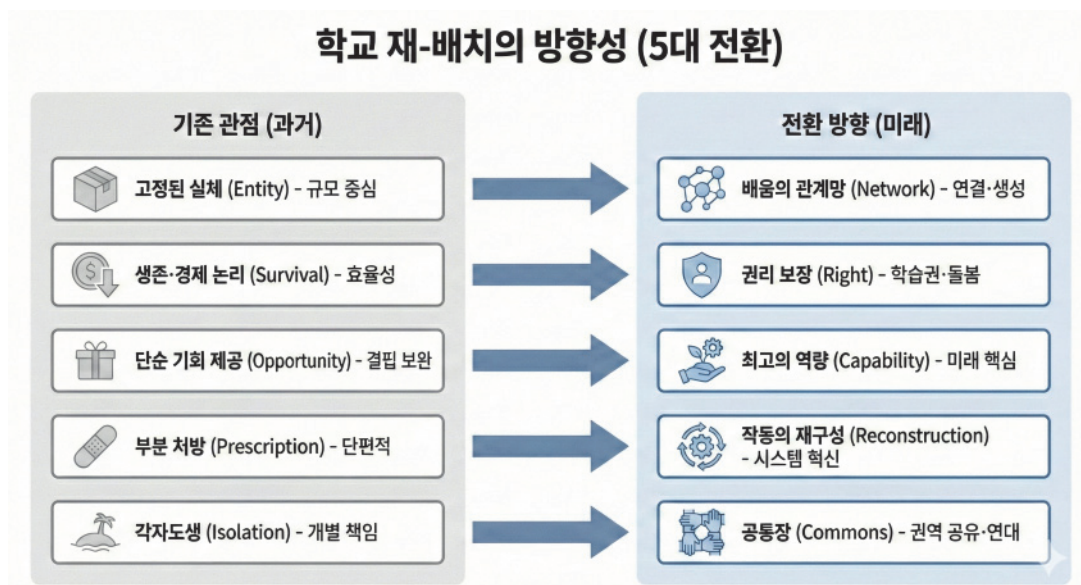
□ 전제: ‘희망의 학교’로서 농어촌 학교

- 참 좋은 학교 사례집(2020-2024, 75개교) : 농어촌 학교는 결핍의 공간이 아니라 미래교육을 실험하고 새로운 교육을 구현하는 공간이었음. 특히, 교사, 학부모, 학생, 마을의 다중 주체의 관계 속에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공동체적 교육 실천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음
- FGI에서 확인된 농어촌 학교 : 현장 FGI와 전문가 FGI를 통해 농어촌 학교의 강점은 삶과 학습의 연결된 학습의 장, 아이들이 모두 리더로서 성장하는 학교, 소통과 대화 타협을 통해 성장하는 학교,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결된 학교 등 다양한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었음
- 농어촌 학교는 미래 사회 교육을 실현하는 장으로 도시 학교에서는 불가능한 ‘관계의 밀도’와 ‘생활세계 기반의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미래 가치를 학습하고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학교

□ 방향 : 농어촌 학교의 ‘재배치’

- 배치(아장스망, agencement)와 재배치(레아장스망, réagencement)
 - 배치란 서로 다른 요소 (사람, 사물, 공간, 아이디어 등) 가 특정한 방식으로 연결·결합하여 하나의 기능적·역동적 구조를 형성함. 들뢰즈와 가타리 개념으로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형성 중인 관계적 구성물을 의미(최근정, 2024)
 - 재배치(레아장스망, réagencement) : 들뢰즈와 가타리의 배치 개념을 차용하고 변용한 것으로 기존 배치가 변화 조건을 만나 구성 요소 간의 연결을 다시 짜고, 기능을 재조정하는 과정 의미. 이미 형성된 배치가 위기, 변화, 요구에 직면할 때 이루어지는 대응적 변화. 기존의 농어촌 학교 배치를 전면 재조정하고 재구성한다는 의미에서 재배치라는 개념을 사용
- 학교의 재배치 : 방향성
 - ‘실체’에서 ‘관계’로 : 고정된 제도이자 실체로서의 학교가 아니라 배움의 관계망으로서 학교로 설정. 따라서 학교는 규모에 따라 유지하거나 폐지하는 대상이 아니라 배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결하고 조정하고 생성하는 학습의 관계망. 따라서 관계망으로 학교는 고립된 실체가 아니라 국민들의 교육 요구에 따라 생성되고 소멸하고 연결되는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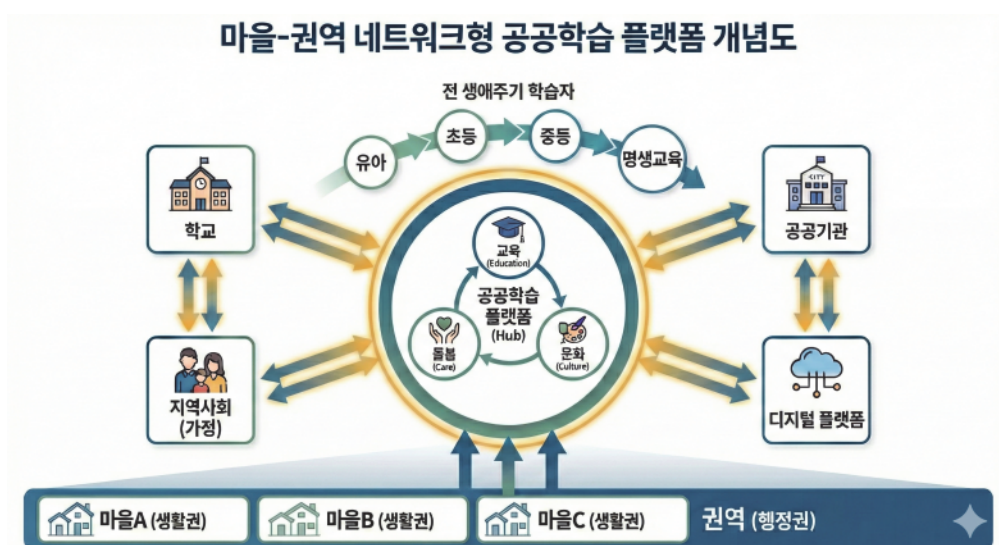
- '생존'에서 '권리'로 : 기존 담론에서는 농어촌 학교의 생존이 핵심 주제였음.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교를 유지할 것인가, 통합할 것인가, 없앨 것인가라는 행정적 선택지 가운데에는 비용, 효율, 관리 등 경제와 생존의 원리가 내재해 있음. 이런 생존의 원리를 '어디에 살든 최소한의 학습 기회, 지원, 돌봄을 보장'하는 권리의 원리로 전환
- 교육 '기회' 제공에서 최고의 '역량' 보장으로 : 학습 기회의 제공을 넘어 최고의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서 농어촌 학교. 교육의 결핍을 채우는 교육이나 도시 학교를 보완하는 교육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역량을 최고의 수준으로 키우는 학교. 농어촌 학교의 강점(관계의 밀도, 생활 밀착, 생태와 자연 등)을 바탕으로 미래형 교육을 선도하는 학교
- '부분 처방'에서 '작동'의 재구성으로 : 농어촌 학교 문제를 부분적으로 보완하기보다는 학교의 기능, 행정, 교육과정, 학생, 교육자 전반을 아우르는 학교 작동 원리의 재구성
- '각자도생'에서 '공통장'(commons)으로 : 학교 단위의 성과 경쟁보다는 공공재이자 공통장으로 학교 재정립할 필요 있음. 기존 체계에서는 작은 학교로서 농어촌 학교가 개별 기관의 책임을 과도하게 떠맡고 부족한 자원을 자체 조달하는 '각자도생'의 구조에 놓이기 쉬웠음. 개별 학교 단위를 넘어 권역이 자원을 공유하고 활용하는 공통장의 형성 필요



[그림 6-1] 학교 재배치의 방향성

□ 기본 개념 : ‘마을-권역 네트워크형 공공 학습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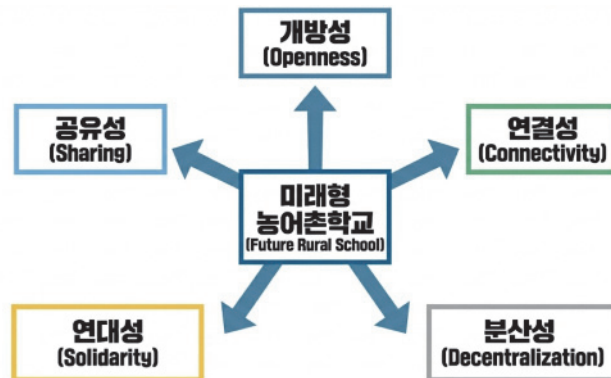
- **마을(생활권)**을 중심으로 학교, 지역사회, 디지털 플랫폼, 공공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열린 학습 생태계로서 미래형 농어촌 학교. 학교와 분리된 주변 환경으로서 마을이 아니라 학교의 배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아이들의 배움을 촉진하는 생활 기반 학습 공간으로서 마을
- 기초지자체 행정구역을 기본 **권역(행정권)**으로, 종적으로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평생교육이, 횡적으로 학교, 가정,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결합하는 미래형 지역 교육 생태계. 마을과 마을, 학교와 학교를 잇는 배움의 공유지로서 기초지자체 행정 단위
- **마을-권역 네트워크형**은 마을과 권역이 연결되고 교차하여 생성되는 네트워크형 학습 생태계. 마을(생활권)을 중심으로 학교, 지역사회, 디지털 플랫폼, 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권역 단위(행정권)에서 유아-초등-중등-평생교육과 학교-가정-지역을 상식적으로 연결하고 결합
- **공공 학습 플랫폼**은 유아-청소년-성인을 포괄하여 교육, 돌봄, 문화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서 ‘언제, 어디서, 누구든’ 학습하는 공공 학습의 허브로서 학교. 학생만을 위한 공간으로서 교육과정의 집합체를 넘어 돌봄, 문화, 진로, 평생학습이 연동되는 공공 인프라로서 학교
- 따라서 **마을-권역 네트워크형 공공 학습 플랫폼**으로서 마을(생활권)을 중심으로 학교, 지역사회, 디지털 플랫폼, 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권역 단위(행정권)에서 유아-초등-중등-평생교육과 학교-가정-지역을 상식적으로 연결하고 결합하여 마을과 권역의 교육, 돌봄, 문화 기능을 수행하며, 인적, 시설, 예산 자원을 공유, 분산, 연대하는 공공 학습 운영 플랫폼



[그림 6-2] 마을-권역 네트워크형 공공 학습 플랫폼 개념도

□ 기본 원리 : 개방성, 연결성, 공유성, 분산성, 연대성

- 개방성 : 학교를 학생만의 공간이 아니라 마을의 공공 학습 인프라로 개방하고 유아-청소년-성인까지 아우르고 교육, 돌봄, 문화 기능을 수행하는 열린 공간으로서 학교
- 연결성 : 학교-마을, 온라인-오프라인, 농촌-도시, 한국-외국을 상시 연결하여 학습 경험의 폭과 접근성을 극대화하는 학교. 교사-학생-학부모-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
- 공유성 : 학교의 인적 자원, 시설 자원, 예산 등이 학교 단위로 분절되어 있지 않고, 권역 단위(또는 마을 단위)로 공유하는 학교. 공통재로서 학교의 의미 강화
- 분산성 : 학습 공간을 교실이나 학교에 제한하지 않고 학교, 마을 기관, 자연, 산업 현장 등 다핵형 학습 거점으로 분산함. 또한 이러한 분산형 학습 거점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지속 가능한 학습 경로로 구축함
- 연대성 : 교사-학생-학부모-주민-지자체-산업체 등이 책임과 자원을 함께 나누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공동의 책임을 나누는 연대적 관계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학교. 작은 학교의 문제를 단위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과 권역이 연대의 원리에 따라 함께 책임지고 함께 해결하는 학교



[그림 6-3] 미래형 농어촌 학교 기본 원리

□ '마을-권역 네트워크형 공공 학습 플랫폼'의 구성 요소

- **학교 기능의 재배치** : 농어촌의 작은 학교 단위 기관 유지에서 벗어나, 교육, 돌봄, 문화, 공공성을 통합하는 '마을 배움 플랫폼' 전환
- **학교 행정의 재배치** : 단위 학교 중심의 고립된 행·재정 체제를 넘어 권역 단위의 인력, 예산, 자원을 공유하는 순회형, 네트워크형 운영체제로 전환
- **교육과정의 재배치** : 표준형 교과 운영을 넘어, 학교-마을-온라인-세계를 잇는 학습경로를 설계
- **학생의 재배치** : 도시로 떠나는 '학생' 중심의 관점을 넘어, 지역의 미래세대, 다문화

학습자, 성인 학습자까지 포용. '농어촌에 머무는 평생학습자' 중심 체제로 전환

- 교사의 재배치 : 교사 개인의 역량에 기대는 구조를 넘어,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 마을교사, 전문가가 함께하는 교육자 공동체 기반 체제

2. 주요 구성 요소

1) 학교 기능의 재배치 : '작은 학교' → '마을 배움 플랫폼'

□ 배경

- 농어촌 교육 여건 변화: '학교 단독 운영'의 구조적 한계 심화
 -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수 감소로 단위 학교 중심 운영(시설, 인력, 프로그램의 학교별 자급)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황임
 - 작은 학교로서 교육과정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전문 지원(상담, 특수, 진로, 다문화, 돌봄 등) 접근성이 낮아지고 있음
- '미래교육' 요구의 변화: 교과 제공 기관 → 학습 경험을 조직하는 플랫폼
 - 지식 전달 중심에서 탐구, 프로젝트, 협업, 시민성, 생태 전환, 디지털 전환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이동
 - 학교-마을-권역-온라인을 넘나드는 분산형 학습 공간과 자원 결합이 필수인 시대
 - 학교의 기능 전환 : 수업 제공에서 학습 경험과 자원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플랫폼으로서 학교
- 농어촌 학교 강점 : 결핍이 아니라 '관계-생활세계' 기반
 - 도시 학교에서 구현이 어려운 관계의 밀도(학생-가정-마을의 상시적 연결)를 보유한 농어촌 학교 : 개인 맞춤형 성장 지원을 촉진하는 조건
 - 풍부한 생태 자원, 생활세계 자원, 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 학교
- '지역 공공 학습 인프라'로 전환되는 학교 : 국내 주요 정책들
 - 학교복합시설(학교 시설 복합화) : 교육, 돌봄, 문화, 체육 등 학교 공간의 복합화 → 지역 주민과 학교 공유 모델
 - 교육 협력 지구(혁신교육지구, 미래교육협력지구, 교육(발전)특구 등) : 학교-지자체-지역 기관 협력으로 지역 자원을 교육과정과 프로그램과 연결하는 정책 경험 확산
 - 농어촌 유학(도농 순환형 학습 생태계) : 도시 학생, 가족의 체류와 순환을 통한 도시-농어촌 상생형 학습 생태계의 구축
 - 마을교육공동체 : 마을교사, 활동가, 주민 참여를 통해 마을과 학교를 연결하는 '교육자 공동체' 기반의 확대
- 교육의 공공성과 공동체성 기반의 '학습 허브'로서 미래학교 담론
 - 유네스코의 미래교육 - 공공재/공동재(common good)의 학교. 사회적 연대와 포용,

연결과 같은 가치를 구현하는 학교(UNESCO, 2021)

- OECD의 미래학교 - 지역사회와 연결한 학습, 사회적 기능의 중심이 되는 '학습 허브'로서 학교'(Schools as learning hubs). 학습, 시민참여, 사회 혁신의 장(OECD, 2020)

□ 핵심 과제

- 학교교육+평생교육+문화+복지 등의 통합 : 교육, 돌봄, 문화, 공공성의 공간
 - 학교를 중심으로 학습, 돌봄, 문화, 공공 서비스를 '하나의 배움 생태계'로 통합
 - 시설의 통합 : 도서관, 메이커, 예술, 체육, 상담 공간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
 - 프로그램의 통합 : 방과후, 돌봄, 문화, 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교육과정과 연동
 - 운영의 통합 : 마을과 함께 공동 기획하고 운영
 - 마을의 일상에서 작동하는 상시적 공공 학습 인프라로서 학교
- 유아-초등-청소년-성인까지 연결되는 전 생애 학습 체계
 - 인구 규모가 작은 농어촌 지역일수록 연령 집단을 분리하기보다는 전 생애를 아우르는 학습 체제 구축
 - 유아 : 놀이, 돌봄, 언어 발달, 정서 발달 지원, 부모 교육을 위한 배움터
 - 아동 : 기초학력, 탐구, 관계 중심의 배움터
 - 청소년 : 진로 개발, 직업 능력 개발, 지역 참여 등의 통로로서 배움터
 - 성인 : 직업 능력 개발, 직무 준비, 주민 역량 강화, 문화예술 참여 등 평생학습의 통로로서 배움터
 - 학령기 학생들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유아-초등-청소년-성인까지 연결되는 평생학습 체계
 - 학교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외부 자원이 아니라 마을 중심의 전 생애 학습 체계의 주체로서 지역 주민
- 배움 공간의 확장 : 교실, 운동장, 마을 곳곳
 - 농어촌 생활세계와 밀착한 작은 학교 : 교실 중심에서 생활권 전체로서 학습 공간 확장
 - 학교 공간의 재배치 : 수업을 위한 교실과 운동장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유지로서 학교
 - 마을의 재배치 : 학교와 괴리된 공간으로서 마을이 아니라 학교의 배움과 연결된 학습의 장으로서 마을. '생활공간'으로서 마을을 넘어 배움을 직조하는 공간으로서 마을
 - 권역의 재배치 : 마을과 마을을 잇고, 학교와 학교를 잇는 배움의 공유 거점으로서 권역(행정권: 읍면 또는 군)
- 언제, 어디서, 누구든 이용하는 보편적 학습 플랫폼으로서 학교
 - 시간, 대상, 방법, 콘텐츠 등의 '보편화'를 통해 특정한 누군가의 학교가 아니라 모두가

공유하고 향유하는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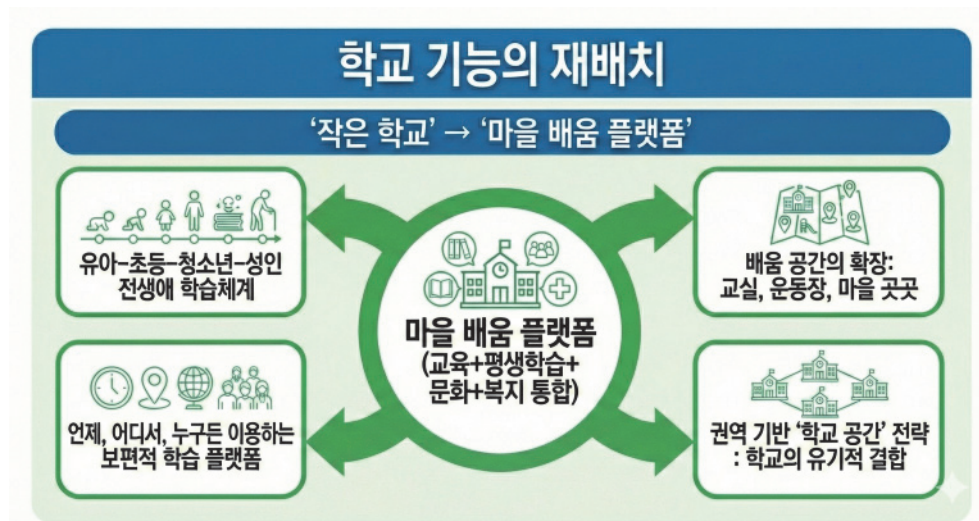
- 시간의 보편성 : 방과후, 주말, 방학 등 다양한 시간대를 활용한 탄력적인 학교
 - 대상의 보편성 : 학생, 주민, 귀농인, 귀촌인, 이주 배경 주민, 도시 가족 등 누구나 함께 하는 학교. 한 사람의 학습자도 책임지는 학교
 - 방법의 보편성 : 대면 수업, 원격 수업, 강의 수업, 프로젝트식 수업 등 교육 목적과 대상, 학생 규모에 따라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하는 학교
 - 콘텐츠의 보편성 : 기초 학습, 디지털 학습, 문화예술, 건강생활, 시민성 등 일상의 학습 요소를 담은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보유하고 활용하는 학교
- 권역 기반 '학교 공간' 전략 : 학교의 유기적 결합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캠퍼스형 결합 : 행정권으로서 권역 또는 소권역 내 학교를 하나의 캠퍼스 체계로 묶어 기능을 분담, 공유
 - 개별 학교별로 핵심 기능을 특화하여 분담함(A교=과학, B교=생태, C교=문화, 공연 등)
 - 권역의 교육 자원을 학생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공 학습 생태계의 조성
 - 개별 학교의 특성화 전략에 따라 학교 시설과 기자재 등 재구조화
 - 권역 기반 학생 '이동권' 설계 : 분산형 학교 공간 실행 조건으로서 마을-학교-권역 거점-현장 학습지 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통학 버스, 셔틀버스, 순환버스 등) 체계 구축

[유사 사례] 충청북도교육청 미래형 교육 공간 조성 사업 : 특화 거점학교

- 학교 발전 계획을 반영한 지역별 특화 거점학교 공간 사업 시행 (2024년 이후)
- 교육지원청별 2개 학교(총 20개 학교) 지정하여 1교당 3억 원 지원

* 출처: 충청북도교육청(2023.8). 제1차 작은 학교 활성화 종합계획, p.7

- 학습의 질, 관계의 밀도가 기준인 학교: “적정규모 학교” 접근의 폐기
- 학생 수와 학교 규모의 함수에서 관계의 밀도, 생활 밀착 정도, 네트워크와 다양성의 함수로 전환
 - ‘휴교’ 제도의 도입을 통해 학생 소멸 지역의 학교를 폐교하거나 통폐합하지 말고, 학생 유입 때까지 존치. 추후 학생 유입이 발생하면 다시 학교를 열 수 있도록 함



[그림 6-4] 학교 기능의 재배치

2) 학교 행정의 재배치 : 단위 학교 행정 → 순회형·네트워크형 행정

□ 배경

- 학령인구 급감과 학생 수 감소로 소규모 농어촌 학교의 단위 학교 독립 운영 지속가능성 위기
 - 인구감소지역의 학생 수는 390,402명으로 인구감소지역 전체 인구(4,774,103명)의 8.2%에 불과. 이는 인구감소지역의 전체 인구 대비 평균 7.7% 수준으로, 비인구감소지역 평균 11.1%보다 낮은 수준
 - 학생 수 감소가 가파른 농어촌 지역에서 단위 학교별 행정 운영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 효율화의 관점에서 단위 학교를 축소하기보다는 학교 기능을 유지하되, 학생 감소로 심화하고 있는 행정 과부하와 비효율성 등을 해결하기 위한 농어촌형 행정 운영체계 도입 필요
- 학교 통폐합 방식 대응의 한계와 악순환
 - 학교 통폐합 중심의 구조 개편은 농어촌 지역의 위축을 동반할 수 있어서 학생 수 감소를 가속화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학교 행정 체계를 단위 학교 중심의 관점에서 마을 또는 권역 단위 관점으로 전환함으로써 마을 학교 기능의 위축을 최소화하는 농어촌 학교 행정 체제 구축할 필요 있음
 - 농어촌 학교의 인프라, 재정,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필요
 - 농어촌 학교는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라 복식수업 증가, 교육 선택권의 위축 등의 교육의 질 문제와 우수 교원의 유입, 충분한 재정 확보, 교육 환경 고도화의 한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작은 학교의 취약점은 예산 규모보다 예산 집행을 위한 행정 역량 부족에 있기에, 권역

또는 소권역 단위 공동 회계, 공동 시설 관리, 공동 장비 운용 등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학교 교사들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 필요

- 면담 조사 결과, 농어촌 학교에서 교사의 행정 부담 경감의 요구가 있었음. 작은 학교에서 행정 부담, 돌봄 역할 가중, 정주 여건 문제 등의 어려움을 교사들이 겪고 있었음
- 단위 학교의 행정은 학생 수와 무관하게 고정 업무(회계, 공문, 시설, 안전, 민원 등)를 포함하고 있어서 작은 학교일수록 업무 대비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임

○ 협력적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한 학교 운영 모델 구축 필요

- 참 좋은 농어촌 학교 사례집의 의미 연결망 분석을 종합해 볼 때 농어촌 학교 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었음
- 의미 연결망 분석에서 ‘협력’이 유의미한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었으며, 학교 운영의 수직적인 지시 체계보다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함을 유추할 수 있었음
- 면담 조사에서도 교육지원청의 제한된 권한과 지자체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가 공동 출연하는 ‘공동 교육재단’과 같은 제도적 장치에 관한 제안이 있었음

○ 즉, 학교 행정은 더 이상 개별 학교가 모든 기능을 떠안는 고립형 구조로는 지속될 수 없으며, 권역 단위에서 공유, 조정, 순환하는 네트워크형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함

□ 핵심 과제

○ 인구·학교 수 감소에 대응해 관리 체계를 단위 학교 고립 구조 → 권역 또는 소권역 단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순회형, 협력형 행정 구조로 전환

○ 학교 행정의 재배치는 농어촌 학교의 위기를 ‘학교 운영의 효율화’로 축소하지 않고, 인구, 학교 수 감소로 인해 심화하는 행정의 과부하, 전문성 결핍, 서비스 단절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교 행정 운영 단위를 ‘단위 학교’에서 ‘권역(기초지자체)’ 또는 ‘소권역’(2~3개 마을 연계)으로 전환하는 체제 개편

[유사 사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업무지원센터’

‘학교 업무 경감’ 영역에서 에듀파인 업무 지원 창구(지역별 콜센터) 운영, 문서 발송 서비스, 시설 공사 컨설팅, 교육행정 컨설팅, 장비 점검/대여 등 학교 운영 전반을 지원

○ 순회형 행정, 공유 행정 지원팀(교무-행정-생활지원)제도 도입

- 권역이나 소권역별 고정 업무(회계, 계약, 공문, 시설, 안전, 민원, 행사, 지원사업 등)를 지원하는 순회형, 공유 행정 체제의 도입
- 교무 지원 : 공동 교육과정 편성 지원, 시간표 조정, 순회 교사 배치, 평가, 기록 체계

지원

- 행정 지원 : 예산 집행, 계약, 구매, 공문, 정산, 감사 대응, 정보공개/민원 절차 지원
 - 생활 지원 : 돌봄, 급식, 통학, 안전, 위기 대응 체계 운영, 관계 기관 협력(경찰, 소방, 복지 등)
 - 순회형의 의미 : 학교별로 동일 업무를 반복하는 비효율을 줄이고, 업무를 표준화하여 행정 품질을 높이며, 학교 현장은 교육과정과 학생 지원에 집중할 수 있게 함
- 공동 회계, 공동 시설 관리 등 행정 지원 확대
- 작은 학교의 취약점은 예산 규모가 작다는 점보다, 예산 집행을 위한 행정 역량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 있음. 권역 또는 소권역 내의 작은 학교의 행정을 엮어 '공동 회계', '공동 시설 관리', '공동 물품/장비 운용' 시스템 도입
 - 공동 회계 : 예산 편성, 집행, 정산의 표준 프로세스 구축, 공동구매/공동계약 확대
 - 공동 시설 관리 : 소규모 학교의 시설 관리 공백을 권역 단위로 보완(정기 점검, 안전 관리, 수리, 보수)
 - 공동 물품/장비 운용 : 과학, 예술, 체육, 디지털 장비를 권역 단위로 운영하여 비용 절감과 이용률 제고
 - 학교별 행정 리스크(감사, 정산 오류) 감소, 시설 안전 수준 평준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안정화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임

[유사 사례] 일본의 '공동학교사무실(共同学校事務室)' 제도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관 학교 중 지정하는 2개 이상 학교의 사무(다만, 사무직원이 관장하는 사무 및 공동처리가 효과적 처리에 기여하는 것으로 법령이 정하는 사무에 한함)를 사무직원이 공동 처리하기 위한 조직을 의미하며 지정된 2개 이상의 학교 중 어느 한 학교에 공동학교사무실을 둘 수 있음.

*출처: 文部科学省(2017.4.1.). 義務教育諸学校等の体制の充実及び運営の改善を図, p.4.

- 교육청-지자체-학교의 공동 예산 풀(pool) 도입과 운영
- 농어촌의 교육-돌봄-문화 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교육청 단독 예산 또는 지자체 단독 예산만으로도 한계가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권역 단위로 공동 예산 풀(pool)을 구성
 - 사업 단위 쪼개기에서 벗어나 권역 목표(학습권 보장) 중심으로 예산을 묶고 공동 기획을 통해 중복을 줄이며 권역 단위 성과지표로 평가, 환류하는 구조를 구축
 - 별도의 재단이나 중간 지원 조직 등을 설립하여 마을이나 권역 또는 소권역 단위의 예산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임

[유사 사례] 경상북도 의성의 ‘행복의성지원센터’

의성군은 2020년 미래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계기로 학교-마을-지역 자원을 연결하는 ‘의성미래교육지원센터’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중간 지원 허브를 구축하였으며, 이 센터는 교육 거버넌스 구축,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등의 사업을 담당함. 2022년 교육, 청년, 도시재생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플랫폼으로 ‘행복의성지원센터’로 통합됨

*출처: 매일신문(2022.9.21.). 민간, 행정 가교 역할 ‘행복지원센터’ 출범

○ 교육장의 권한 강화와 역할 구체화

- 교육장 중심의 권역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교육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구체화할 필요 있음
- 권역-마을 연계형 순회형, 공유 행정을 위해서는 교육장 중심의 교육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적. 그러나 현재의 교육장은 1~2년의 단기 순환 보직으로 운영되어 권한 행사와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에 제한적임
- 따라서,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예: 교육장 공모제, 교육장 임기보장, 권한 확대 - 교직원 우선 추천권, 교직원 전출입 동의권, 권역 내 학교 재배치 및 통합운영학교 설립 권한, 교육청 지자체 공동 예산 편성, 집행 참여권 등)



[그림 6-5] 학교 행정의 재배치

3) 교육과정 재배치 : 표준형 교육과정 → 지역·세계·온라인을 잇는 분산형 교육과정

□ 배경

○ 농어촌 교육의 구조 변화와 학교와 학생의 비대칭

- 농어촌 '학교 수 비중'과 '학생 수 비중'의 비대칭이 커짐
- 읍면 지역 학교는 학교의 31.3%를 차지하지만, 재학생은 전체의 15.6% 수준으로 학교 인프라 규모 대비 학습자 기반이 급격히 축소. 학교급별로 초등 16.0%, 중 15.5%, 고 15.1% 등 유사한 패턴을 보임
- 학생 수 급감으로 단위 학교의 자급형 교육과정 유지가 어려워, 복식수업, 최소 편제 수업 등으로 수렴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교육과정 경험의 격차 누적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 '소규모 학교 확산'과 교육과정 운영의 난점

- 89개 인구감소지역 기준으로 보았을 때 1교당 학급 수 6.53개(비인구감소지역 15.11개), 1교당 학생 수 94.44명(비인구감소지역 372.33명)으로, 농어촌 학교들이 학년 및 교과 단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5학급 이하 초등학교 비율이 25.7%로 높아, 복식학급 운영 증가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열린 학습 생태계의 허브로서 농어촌 학교의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요구

- OECD가 제시한 '학습 허브로서의 학교'(Schools as Learning Hubs) 시나리오는 지역사회, 디지털 플랫폼, 공공기관 등과 연결된 학습 생태계로의 전환을 요구(OECD, 2020)
- 학습 허브로서의 학교는 열린 학습 생태계의 다양한 영역과 결합하는 연결형 교육과정을 통해 구현될 수 있을 것임

○ 마을, 공동체, 생태 기반의 미래형 교육과정 요구

- 면담 조사 결과, 학교 통폐합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 자원 부족이 도시로 이주를 가속화하고 있어, 정주, 인구 유입, 농어촌 잔류를 견인하는 교육과정(교과+돌봄+진로+문화+디지털)의 설계가 필요한 상황임
- 참 좋은 농어촌 학교 사례집 분석에서 농어촌 학교의 성과는 단순한 교과 성취보다는 마을 연계 체험, 관계 중심의 교육, 공동체적 학습 경험 등을 기반으로 나타나고 있었음. 또한, 연결 중심성 최상위가 '학교', '프로그램', '마을'이며, 매개 중심성에서도 이 세 키워드가 담론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중추 역할을 함. 즉 농어촌 학교 담론에서 '마을'이 중심성을 가짐

□ 핵심 과제

- 농어촌 학교의 교육과정은 마을-권역 네트워크형 공공 학습의 모델에 따라 권역 공동 교육과정(학교-학교 연계), 지역 연계 교육과정(학교-마을 연계), 디지털 기반 공유 교육과정(학교-온라인 연계) 등으로 재배치될 수 있을 것임
- 교육과정 운영 목표를 ‘교과 편제 유지’가 아니라 보편적 조건으로서 핵심 학습 경험(탐구, 진로, 문화, 디지털 등)의 최소선으로 재정의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교육과정 구조 재설계
- 권역 단위 공동 교육과정 설계와 체계화
 - 권역 단위 공동 교육과정은 단위 학교가 독자적으로 개설하기 어려운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을 권역(읍면-군,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의 교육과정을 공동 편성, 공동 운영, 공동 지원하는 구조를 의미함. 그리고 이는 정규 편제(시간표, 수업시수, 평가 및 기록)까지 포함하는 상시적 체제로 행사성 공동 수업 형태는 지양
 - 단위 학교를 넘어 권역 또는 소권역 중심의 공동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체계화하여 작은 학교의 제한적인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과정 체제 구축
 - 권역 단위 교육과정 재설계는 현장 교사 개인 차원이 아니라 권역 또는 소권역 단위에서 교무 지원(공동 교육과정 편성, 시간표 조정, 순회 교사 배치, 평가·기록 체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임
 - 권역 공동 교육과정 평가의 공정성, 기록의 일관성, 관리의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 평가도구, 성취 기준 기반 루브릭, 공동 성찰 포트폴리오 기록 체제 등도 설계해야 할 것임
 - 디지털 인프라, 접근성, 교육과정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혼합하여 운영함
 - 공동 시간 블록(예: 주 1회 3~4교시)을 권역 공통으로 설정하여 학생 이동이나 온라인 수업 진행시 나타날 수 있는 병목 현상을 대비함
 - 수업 운영 방식의 표준화 : 거점학교 집합형(특정 거점학교에서 수업 운영), 학교-학교 연결형(2~4개 학교가 번갈아 가며 운영), 원격 공동 수업형(실시간 화상 + 공동 과제와 토론, 대면 수업과 혼용) 등 수업 방식을 표준화
 - 수업을 위해 이동하는 학생들의 안전, 돌봄, 간식 제공, 교통 지원 등을 권역 공동 교육과정 운영체계에 포함하고 관련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함

[유사 사례] 우리나라 농어촌 학교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 : 충북 산척초
충북 충주의 산척초등학교는 7km 떨어진 다른 초등학교와 학년 단위 공동 수업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음. 연중 일정 일수는 전교생 단위 공동 활동(체육대회, 수련 활동, 공연 관람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지역과 연계한 삶 기반 교육과정의 강화

- 농어촌의 생활세계(생태, 일, 돌봄, 공공 생활, 지역 문화 등)를 정규교육 과정의 핵심 내용으로 다룸
- 삶의 문제, 일상 기술, 공동체 활동을 학습의 출발점으로 삼는 교육 활동을 위해 교과와 비교과 학습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운영
- 지자체, 공공기관, 문화예술단체, 기업, 마을교육공동체 등과 연계
- 주요 내용 : 생태(생태 전환, 기후, 환경 등), 생활 기술(생활 안전, 건강, 식생활, 디지털 생활, 공공 서비스 이용, 생활 자립 기술 등), 노동교육(일의 이해, 직업 세계, 지역 산업 등), 마을 프로젝트(돌봄, 문화유산, 환경 등 마을 의제 중심), 미래형 콘텐츠(AI, 코딩, 빅데이터, 드론 등 신산업분야 콘텐츠 강화) 등
- 주요 방법 : 문제 기반 설계, 교과 통합, 학습 공간 분산(교실-학교-마을 거점-온라인), 다주체 교수설계(교사+마을교사+전문가+주민+학생 등), 안전과 돌봄 포함, 권역 단위 공유와 확장 전략(공동 발표회, 공동 온라인 전시, 권역 아카이브 등) 등을 활용

○ 디지털-원격 기반 '공유형 교육과정' 체계화와 활성화

- 단위 학교가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권역 또는 소권역 단위로 공동 편성하여 온라인/대면 수업의 혼합 방식으로 개설하는 '공유형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고 활성화함
- 공유형 교육과정은 온라인 공동 편성-공동 운영-공동 평가 및 기록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권역 단위(읍면/군/교육지원청)로 학사 일정, 시간표, 이수 기준을 관리하고 공동 플랫폼(LMS, 화상 수업 과제/토론, 포트폴리오) 기반의 상시 운영 체제로 운영
- 온라인 수업을 통해 '권역-세계'로 학습 공간 확장을 핵심 가치로 삼아, 권역 내 학교 간 공동 수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미네르바 스쿨형 네트워크 교육과정(온라인 + 국제 교류)을 결합하여 국제 파트너 학교와 공공 세미나, 토론형 수업, 프로젝트 협업 등을 추진함. 이를 통해 농어촌 학생의 학습 경험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되, 디지털 공간을 통해 다양한 글로벌 경험과 접속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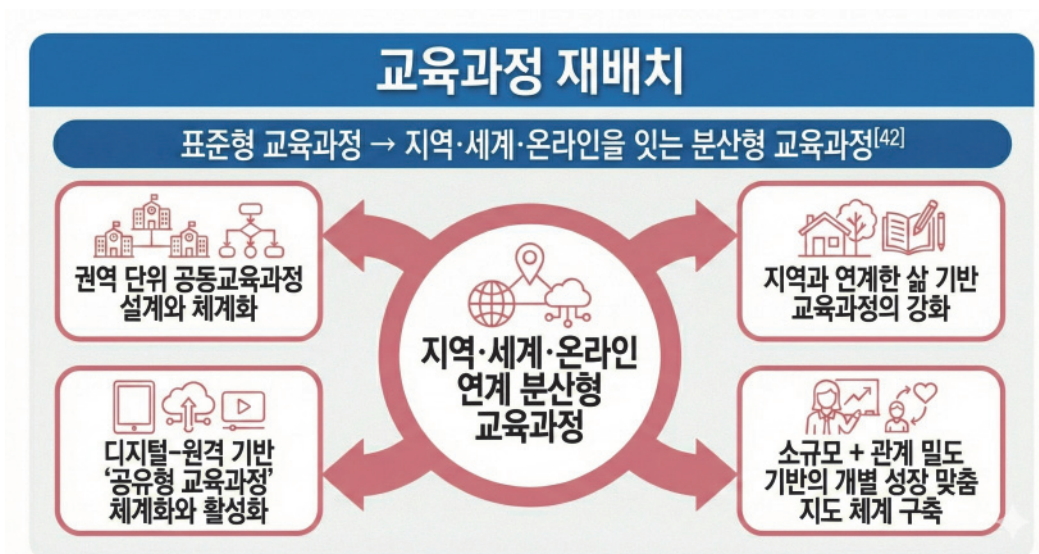
[유사 사례] 스코틀랜드의 i-Sgoil

스코틀랜드에서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지역의 학교가 제공하기 어려운 교육과정을 보완하려는 방법으로 i-Sgoil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i-Sgoil은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통해 이루어지며 초등 P2부터 고등 S6까지 포괄한다.

*출처: 스코틀랜드 e-sgoil[e-school] 홈페이지 <https://www.e-sgoil.com>

○ 소규모 + 관계 밀도 기반의 개별 성장 맞춤 지도 체계 구축

- 농어촌의 작은 학교가 갖는 ‘관계의 밀도’의 강점을 활용하여 촘촘한 상호작용 기반의 학습자 성장을 지원하는 개별 성장 맞춤 지도 체제를 구축함
- 이를 위하여 관계 기반 성장 진단을 위한 노력이 필요. 학업 수준과 함께, 정서, 사회성, 참여 경험(동아리, 프로젝트, 지역 활동 등)까지 포함하는 다차원적 진단 체계 구축 필요
- 맞춤형 학습 지원은 1:1 피드백, 수준별 과제, 맞춤형 학습 지원 프로그램, 심화 및 확장 과제 제공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음. AI를 활용한 교육과정 플랫폼과 AI 튜터 시스템(ITS)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강화
- 관계 기반 생활 및 정서 지원을 위해 밀착형 상담 지원 체제 운영 : 교사-학생 멘토링, 교사-학부모 상담 정례화, 위기 징후 조기 발견과 상담 및 돌봄 연계
- 진로와 생애 설계 지원 : 지역 자원 및 전문가 풀을 연계한 진로 체험과 생애 멘토링 지원
- 안전, 포용 중심의 성장 지원 : 다문화, 이주 배경, 취약계층 학생이 관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언어, 정서, 문화 지원을 포함하여 운영



[그림 6-6] 교육과정의 재배치

4) 학생의 재배치 : 도시로 떠나는 '학생' → 농어촌에 머무는 '평생학습자'

□ 배경

○ 농어촌 교육의 구조 변화 : 학생 수의 급감

- 인구감소지역 학생 감소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었음.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에서 2021→2024년 학생 수는 9.72%p~17.82%p까지 감소하여 비인구감소지역 감소율(3.01%p)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임
- 인구감소지역의 학교당 평균 학생 수 94.44명으로 비인구감소지역 학생 수(372.33명)보다 현저히 작음. 학교당 학급 수도 인구감소지역 6.53개이나 비인구감소지역은 15.11개로 큰 차이가 있음
- 이와 같은 학생 수와 학급 수 차이를 고려할 때 농어촌 지역의 단위 학교 체제를 기존의 학생 대상 설계로 농어촌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음

○ 학생 유출로 교육 경험, 기회 접근성의 문제 발생

- 농어촌 학교의 학생 수 감소는 또 다른 불리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런 환경은 도시로의 학생 유출의 악순환을 낳고 있음
- 소규모 학교에 불리한 내신제도, 전문, 심화 교육 연계의 어려움, 대중교통 부족으로 이동의 어려움은 도시 학교 전학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 또한 면담 조사 결과 지역사회의 학교 외 자원의 부족(예: 학원)과 제한적 친구 관계 때문에 도시 학교로 전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어촌 학생들의 취약 조건 개선 필요 : 다양한 배경의 학생 포용

- UNESCO는 미래교육의 핵심 가치로 공공재/공동재로서 학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농어촌 지역의 경우 조손가정, 경제적 취약계층, 다문화 가정 비율이 높아 학교와 지역 아동센터 등에 대한 돌봄 의존도가 높음. 따라서, 다양한 배경의 학생을 포용하는, 공공재/공동재로서 농어촌 학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학교 존속과 지역 존속을 위한 학생 범주 확대 필요: 평생학습으로의 확장

- OECD는 미래교육의 중요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학습 허브로서의 학교'(Schools as Learning Hubs)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학교는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에게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임(OECD, 2020)
- UNESCO도 공공재/공동재로서 미래 학교는 연대와 포용을 구현하는 학교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교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학습을 지원하고 평생학습으로 기능을 확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UNESCO, 2021)
- 농어촌 학교의 소멸은 지역 공동체 존속의 심각한 위기가 되고 있음. 지역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서도 학생 범주 확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학령기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 등 다양한 학습 요구를 갖고 있는 집단을 학생으로 포용할 필요가 있음

□ 핵심 과제

- 학생을 ‘도시로 떠나는 학령기 인구’로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에 머무르고 다시 유입되는 사람들(도시 이주 학생, 귀농·귀촌 가족, 이주 배경 학습자, 성인 학습자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학습자 범주를 확장
 - 농어촌 학교의 ‘학생’을 학령기 기준이 아니라 마을(생활권) 단위 학습자 집단(가족, 세대)으로 재설계
 - 학습자 유형(학령기/체류형/이주 배경/성인 등) 관한 요구 진단 체계를 권역 단위에서 구축하여 정기적인 수요 조사 실시
- 지역에서 성장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의 정주 기반 강화
 - 농어촌 교육 경험의 도시 유출의 동인이 되지 않도록 최소 학습 경험의 보편적인 보장을 권역 단위에서 확보
 - 학습-정서-진로-돌봄의 통합 지원 체제 구축을 통해서 지역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의 안정적 학교생활을 보장
 - 통학 지원이나 권역별 학생 기숙사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이동권과 교육 접근성 보장
- 도시 학생이 머무는 학교 : 도농 순환형 학습 생태계 구축
 - 도시 학생 체류형(단기, 학기, 연 단위 등) 학습 모델을 설계하여 도시 학생들의 농어촌 학교 체류의 용이성 확보 : 학적, 출석 및 평가, 기록 처리 등의 기준을 체류형 학생에 맞게 정비
 - 도시-농어촌 간 공동 교육과정, 프로젝트, 캠프 등을 상설화하여 일회적 교류가 아니라 교육과정 기반으로 상시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가족 동반 교류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예: 숙소 지원, 정주 컨설팅 등)
- 다문화 가정·중도 입국 청소년·난민 등 다양한 이주·문화 배경의 학습자 포용 등
 - 다양한 문화 배경 학생들의 언어, 문화, 학습 적응을 지원하는 지원 체제 구축
 - 다문화 감수성을 바탕으로 차별과 배제를 예방하고 상호 존중과 인정의 관계 형성을 위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또래 멘토링, 공동 프로젝트, 지역사회 참여 등)
 - 다문화, 상담, 특수교육, 복지, 평생교육 등 관련 전문가 풀을 권역 단위에서 구축하고 공동 배치와 운영

[유사 사례] 핀란드 이주 배경 학생 준비교육(Preparatory instr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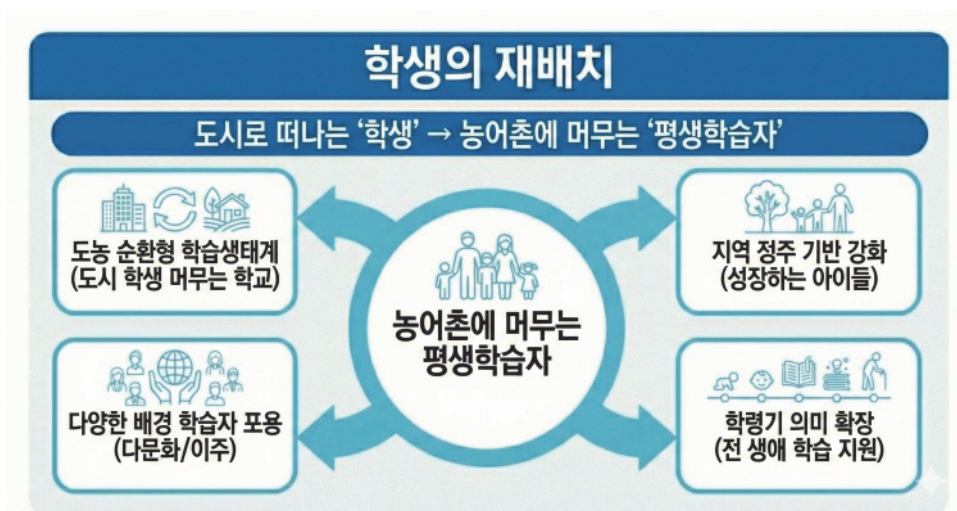
핀란드 이주 배경 학생 준비교육(Preparatory instruction)은 외국에서 이주한 아동, 청소년들이 핀란드어와 스웨덴어를 비롯하여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후에 유연하게 일반 학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공교육 프로그램이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며 보통 1년 내외의 언어 교육, 학습 적응 교육, 사회 적응 교육을 제공한다.

*출처: OECD(2020). *Education policy outlook in Finland*. p.4

- 학령기 의미의 확장 : 아동·청소년기 중심에서 전 생애(lifelong) 학습 지원으로
- 유아-아동-청소년을 넘어 청년-중년-고령층을 연결하는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농어촌 학교 재정의
- 성인 학습자(귀농귀촌인, 경력 전환, 저학력 성인 등)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체계 마련(야간, 주말, 방학 운영 포함)
- 평생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 대학 등과 연계하여 학교 기반 평생학습 경로(lifelong learning pathway)를 권역 단위로 설계
- 교육청-지자체-학교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평생학습 허브로서 다양한 세대와 배경의 학습자를 지원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

[유사 사례] 경북 증산초의 할머니 학습자

경상북도 김천의 증산초에는 2023년부터 마을의 저학력 성인들(주로 고령층 여성)이 정식 학생으로 입학하여 학령기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있음



[그림 6-7] 학생의 재배치

5) 교사의 재배치 : 개별 교사의 역량 중심 → 다주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자 공동체

□ 배경

○ 농어촌 학교 운영 여건 변화: 개별 교사 의존의 구조적 한계 심화

- 학교 규모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업무 총량 때문에 작은 학교 교사의 소수 교사에게 업무가 집중되어 소진 발생 가능성 높은 상황임
- 공립학교 교사의 순회형 근무와 중등 순회 교사의 '수업만 하고 떠나는 구조'는 교사의 교육 활동 경험이 학교 내부에 축적되지 못하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안정적이고 지속적 관계 구축이 어려움

○ 미래교육의 요구 변화 : 개인 교사의 수업 역량 → 협력적인 교사 공동체의 역량

- 협력적 직업(collaborative profession)으로서 교직. UNESCO는 미래교육에 관한 논의에서 협업과 팀워크를 교사의 일로 규정하고 (1) 협업과 팀워크 역량, (2) 성찰과 연구 기반 전문성, (3) 학습환경 설계와 조정 역량을 교사의 핵심역량으로 보고 있음 (UNESCO, 2021)
- OECD는 미래학교가 개방형 허브로 변모하는 만큼 다양해지는 학습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역-학부모-외부 자원을 엮는 네트워크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함 (OECD, 2020)
- 따라서, 교사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는 기존 패러다임을 넘어 교사 집단, 더 나아가 교육공동체의 집단 역량을 기반으로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농어촌 학교의 가능성: '마을-프로그램-공동체' 기반의 교육자 공동체 잠재력

- 참 좋은 농어촌 학교 사례집의 의미 연결망 분석 결과 학부모는 민원인이 아니라 '마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학교 교육 활동에 기여하는 주체로 등장
- 또한, '공동체', '소통' 키워드가 출현 빈도의 상위권에 위치하여 학부모, 마을교사, 지역사회 인사 등이 능동적인 소통자이자 참여자로 기능할 가능성을 보임
- 의미 연결망 분석에서 학부모는 '민원' 중심이 아니라 '마을'·'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학교 담장 밖 교육 활동에 깊게 관여하는 주체로 등장함
- 면담 조사 결과 농촌 유학 사업에서 학교나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자원 제공과 교육 지원이 사업 성공의 핵심 요인이었음

□ 핵심 과제

- 교사의 재배치는 '교사 개인 역량 기반'을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 마을교사, 전문가가 함께 학습 생태계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교육자 공동체 기반' 체제로 전환되어야 함. 여기에서 교육자 공동체는 학교-마을-권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거버넌스

의 주체이며, 이때 교사는 교수자를 넘어 생애 학습 설계자이자 네트워크 촉진자로 자리매김함

○ 학교 교육 활동 참여 주체 확장과 공동체 기반 구축

- 교육의 실행 주체를 교사 중심에서 학부모, 지역 주민, 마을교사 등 다주체로 구성된 '교육자 공동체'로 전환
- 교사의 역할을 분산하여 마을의 다양한 주체가 교육 활동의 기획, 실행, 평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체제 도입
- 다주체의 참여가 학교의 교육 활동에 대한 긍정적 기여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교육 활동 참여 범위와 권한 규정화, 학부모회, 학생회 등 활성화와 역할 규정 등
- 교육자 공동체로서 상호이해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교육자 역할에 충실할 방안 마련 (예: 교육 지원, 워크숍, 매뉴얼 개발 등)

○ 권역과 마을 단위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 교육자 공동체의 위치 부여 : 단순 참여 집단이 아니라 학교-마을-권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거버넌스 참여 주체
- 교육 거버넌스의 역할 범위 : 권역 차원에서 학교 간 교육과정과 인력 및 프로그램 연계, 마을 차원에서 학교, 지역 기관(도서관, 문화시설, 복지 기관, 청소년 시설 등)을 연결
- 권역과 마을 단위의 교육 거버넌스 형식을 공식화하여 '협약서'나 '회의체'를 넘어 공동 과업(공동 프로그램 설계, 일정 조정, 안전관리, 아카이브 구축 등)을 기획, 실행, 평가하는 실질적인 기능 부여

[유사 사례] 농촌 유학을 중심으로 한 협력적 거버넌스 : 강원도 인제군 용대초
농촌 유학 가족 지원과 학교 적응을 위해 학교-지방자치단체-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음. 인제군은 농촌 유학 가족을 위한 주거지원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적응과 구성원 간의 신뢰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 활동 지원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마을 활동을 하고 있음

○ 교사 역할 재정의와 관계 중심 전문성 고도화

- 새로운 농어촌 학교 모델에서 교사의 핵심 역할은 교수활동을 넘어 밀도 있는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생애학습 설계자, 네트워크 촉진자로 재정의할 수 있을 것임. 수업 제공을 넘어 농어촌 학교 학생들의 학습 경험과 자원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
- 농어촌 학교의 교사 전문성은 작은 학교의 강점인 친밀성과 관계의 밀도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정서적 지원과 함께, 개별 성장 맞춤 지원, 학습-정서-진로 통합 지원, 생활

지도와 돌봄 연계 등을 포괄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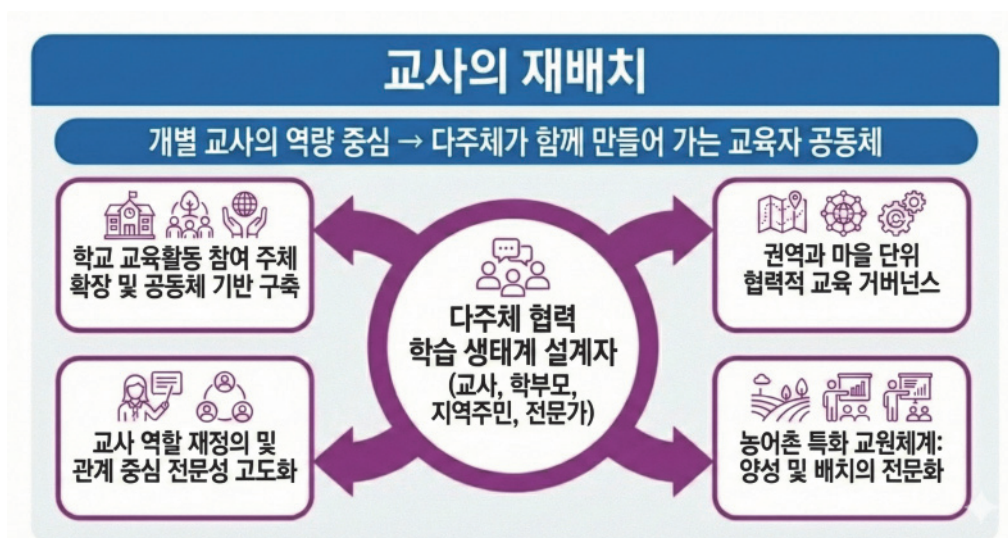
- 교사 개인의 헌신과 과로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관계 중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교직 문화 활성화 필요. 이를 위해서는 교육 활동이 교사 개인이 아니라 팀 기반으로 설계 운영될 수 있도록, 공동 계획, 공동 실행, 공동 평가의 협업 프로토콜 만들 필요 있음
- 교사의 역할 재정의와 함께 교원 양성 과정 및 교원 연수(직무 연수, 1정 연수, 자격 연수 등) 과정 재구조화 필요. 농어촌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교사 역량 요소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필요

○ 농어촌 특화 교원 체계: 양성과 배치의 전문화

- 농어촌 교육 전문성을 고려하여 농어촌 전담 전문 교사제 도입. 농어촌 학교 근무를 '기피'의 경험이 아니라 전문 경력 트랙으로 재설계할 필요 있음
- 농어촌 전담 전문 교사제를 위한 선발-연수-배치-평가-보상 체계를 갖추고 이들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소규모 수업 운영, 생활 기반 수업, 지역 연계, 다문화교육, 돌봄 연계 교육, 원격과 공유형 수업 운영 등) 강화를 위한 접근 필요
- 농어촌 학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순환근무제를 개선하고 안정 근무를 유도하는 장치(근무 여건 개선, 주거 안정 지원, 보상 제공 등)를 체계화할 필요 있음

[유사 사례] 광주교육대학 & 전남교육청의 교육감 추천 전형과 임용제도

학교장을 통해 교육감 추천을 얻어 광주교대에 지원하여 합격한 학생은 졸업 후 전남교육감이 시행하는 초등교사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임용고사)에 응시해야 하며, 합격 후 전라남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5년 이상 근무해야 함



[그림 6-8] 교육과정의 재배치

3. 정책 과제들

1) 정책 방향

- 미래형 농어촌 학교 구상은 '소규모 학교 유지 지원'이나 '프로그램 공모형 지원'을 넘어, 농어촌 지역에서 교육이 수행해야 하는 공공 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권역 단위의 공공 학습 인프라 재설계를 기본 방향으로 함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학교 구조와 성격의 전면적 전환, 즉 재배치를 통한 미래형 농어촌 학교 모델의 실현을 제안함. 따라서 기존의 행정 지침이나 공모 사업 등을 통한 개선 방안보다는 법 제도적 특례를 통해 제도 자체를 전환하는 방식을 제안함
- 특별법 + 교육(발전)특구 연계
 - 특별법은 농어촌 학교 재배치를 위한 상시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으로 '패키지형 정책 수단'임. 특별법은 정책 목적과 대상의 명확화, 특례 범주의 사전 협의, 중앙-지방 책무성 배분, 재정 투입과 성과 관리 구조의 일괄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화 수단이 될 수 있음
 - 교육(발전)특구 활용 전략은 초기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유용한 정책 도구가 될 것임. 농어촌 학교 모델 실현을 위한 시범 지역 설정을 통해 농어촌 학교 제도 전환의 가능성을 실증하고 향후 확산을 위한 표준 모델 확립에 기여할 것임

2) 우선 추진 과제

□ (가칭) '농어촌 교육혁신 지원 특별법' 제정

- 법의 목적과 정책 대상 : 특별법은 미래형 농어촌 학교의 개별 학교 단위 지원사업이 아닌, 권역(행정권)과 마을(생활권) 단위의 공공 학습 플랫폼 전환 정책임을 명시하고, 1) 농어촌 학습 경험 최소 보장선 확보와 교육 격차 완화 2) 학습, 돌봄, 문화, 평생학습 거점으로서 학교의 기능 3) 권역 공동 운영체제 고도화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 담음. 또한 정책 대상을 '농어촌'의 행정 구분보다는 인구, 생활권, 이동권, 교육 접근성을 고려한 권역 단위 또는 마을 단위로 명시
- 정책 단위의 법정화
 - 정책 단위를 개별 학교에서 권역 또는 마을 단위로 전환하기 위하여 통학, 생활권,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한 '교육 권역'을 명시하고, 권역의 운영 주체를 '지자체-교육청-학교-지역 기관' 등 교육 거버넌스 주체로 정하며, 권역 운영 내용을 학교 간 연계 교육과정, 공동 인력 운영, 공동 행정 지원, 공유 공간 활용, 지역 연계 프로그램 등으로 명시함
 - 농어촌 학교 활성화를 주도할 추진 전담 체제로서 '농어촌교육센터'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1) 농어촌 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책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2) AI 기반 교

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및 교사 연수 3) 농산어촌 유학 매칭 플랫폼 운영 및 참여 학교컨설팅 등의 기능을 부여하고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

- 주요 특례 내용 : 특별법에는 다음의 주요 특례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임
 - 교육과정, 학사 특례 : 권역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정규 체제 안에서 인정(혼합형 수업, 공동 편성, 공동 평가, 기록 등), 농촌 유학 등 농어촌-도시 교류 교육과정 체제, 온라인-오프라인 혼합 교육과정, 국제 교류 교육과정 운영 등
 - 인사와 인력 특례 : 교육장 선임, 권역 공동 인력(전문교과, 상담, 특수, 다문화, 돌봄 등), 농어촌 전문 전담 교사제 운용을 위한 기준, 농어촌 학교 교원 보수 우대 등
 - 재정과 회계 특례 : 권역 단위 통합재정, 공동투자, 성과 연동 지원의 원칙, 교육 재정 우대 등
 - 시설과 공간 특례: 학교 시설의 공공 학습 인프라화, 분산 학습 거점 연계 운영의 원칙 등
 - 협력과 위탁 특례 : 지역 기관(대학, 공공기관, 민간)과의 상시 협력 및 중간 지원 조직 위탁 운영 원칙 등

□ 교육(발전)특구 연계를 통한 확산 전략

- 농어촌 학교 모델의 검증과 확산 전략으로서 교육(발전)특구 연계
- 마을-권역 네트워크형 공공 학습 모델 운영 체제 검증을 위해 교육(발전)특구 내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적용 : 교육청과 지자체 공동으로 권역 운영 계획 수립, 권역 단위 공동 운영 구조 실증(교육과정, 인력, 행정, 공간 등), 성과 측정과 환류 체계 검증, 표준 모델 도출을 위한 데이터 축적(운영 지표, 사례, 비용 구조 등)
- 권역의 유형별 시범 사업 형태 다양화 (예: 읍면 중심 허브형, 학교-학교 연계형, 원격-대면 혼합형, 외부 자원 결합형 등)
- 교육(발전)특구의 시범 사업을 통해 마을-권역 네트워크형 공공 학습 모델의 운영 유형별 작동 원리 정리, 필수 요건 검증, 성과지표 타당화 검증 등 실시

□ 특별법-교육(발전)특구 연계를 통한 활성화 전략의 주요 쟁점

- 제도 정합성 : 마을-권역 네트워크형 공공 학습 플랫폼의 '정규 체제' 인정 여부, 타 법률과 충돌 가능성 문제 등
- 재정 거버넌스 문제 해결 : 교육청-지자체 재정 연계와 공동책임 구조 실현 가능성
- 농촌교육 '전문 경력' 트랙 구축 가능성 : 농어촌 교원과 전문 인력 확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의 실현 가능성
- 행정 전환 의지와 역량 과제 :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환경에서 권역 단위 행정 체제 실현 가능성. 특별법의 구조에서 공동 행정 시스템 구축의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
- 모델 표준화 과제 :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확산할 수 있는 농어촌 학교 모델 표준화 가

능성

3) 추진 로드맵 : 제도-실증-표준화-확산

□ (가칭) '농어촌 교육혁신 지원 특별법' 제정과 시범 운영 및 확산을 단계적 과정을 통해 추진함

○ 1단계 : 특별법 제정 - 제도적 기반 마련

- 마을-권역 네트워크형 공공 학습 모델을 통한 농어촌 교육 활성화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정책 목적과 대상, 정책 단위, 주요 주체별 책무, 정책 범위와 재정 프레임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
- 시범 사업 운영과 표준화, 그리고 확산 방안 등의 핵심 내용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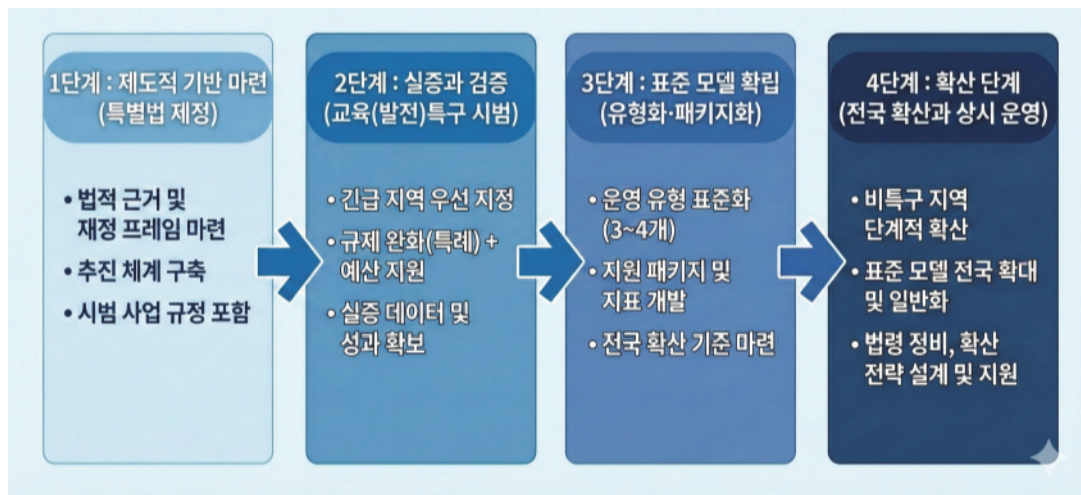
○ 2단계 : 교육(발전)특구 기반 시범 사업 단계 - 실증과 검증

- 특별법에서 규정한 농어촌 교육 활성화 전략의 현장 검증과 표준 모델 확정 단계
- 핵심 과업 : 사업 방향과 내용 기획, 시범 사업 적용 범위와 확산 계획 수립, 사업 성과 관리 계획, 특구 지정과 시범 사업 과정 관리, 사업 성과 평가와 관리 등
- 사업 방향 : 인구감소지역 등 농어촌 교육 활성화 긴급성이 높은 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지정하여 마을-권역 네트워크형 공공 학습 모델의 적용과 실험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 지원. 3년 이상 계속 사업으로 지원하되, 매년 대상 특구를 순차적 확대
- 사업 내용 : 5극 3특 지역 내 각 2개 군, 총 13개 군 지역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설정. 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 완화 및 재정 지원 확보(교육장 권한 강화, 학급, 교원 배치 기준 탄력적 운영, 교원 보수 우수 특례, 통합운영학교 등 학교 형태 특례 등)권역 단위 공동 교육과정 운영, 공동 행정 체제 구축, 공유 공간, 협치 구조 구축 등
- 주요 산출물 : 사업 운영 성과와 주요 실증 결과(유형별 성과, 실행 상의 문제와 한계 등)

○ 3단계 : 표준 모델 확립 (유형화, 패키지화, 지표화 등)

- 시범 사업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표준 모델 전환과 확산 기준 정립
- 핵심 과업 : 운영 유형화(권역 조건에 따라 3~4개 표준 유형 도출), 필수 요건(최소 요건) 정의, 지원 패키지(정부, 교육청, 지자체 등에서 제공해야 하는 지원 요소 구조화), 성과지표 정립(확산 판단을 위한 공동 지표와 권역 특수성을 반영한 특수 지표 등) 등
- 사업 방향 : 시범 지역의 운영 성과를 다각도로 평가하여 확산 모델 정교화
- 사업 내용 : 시범 사업 평가 다각화(학생 학업 성취도 평가, 교원 근무 만족도 및 장기 근무율 분석, 지역 주민 만족도와 정주 의향 평가, 행정 효율성 및 재정 집행 효과 평가), 현장 피드백을 반영한 모델 개선과 매뉴얼 정비, 우수 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한 홍보와 연계 체제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델 개발(도농복합, 순수 농촌 도서 벽지 등)

- 주요 산출물 : 성과지표, 우수사례, 확산 모델 등
- 4단계: 확산 단계 - 전국 확산과 상시 운영
 - 시범 지역 성과를 바탕으로 비특구 농어촌 지역으로 단계적 확산
 - 3단계에서 정립한 표준 모델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일반화
 - 관련 법령의 정비와 정교화
 - 핵심 과업 : 확산 전략 설계(단계적 확대, 유형 선택 방식, 성과 연동 보상 체계 등), 운영 역량 보강과 지원(재정 지원, 행정 지원, 전문성 지원 등), 지속적인 성과 관리 등



[그림 6-9] 추진 로드맵

Ⅶ. 요약 및 제언

1. 요약
2. 제언

Ⅶ. 요약 및 제언

1. 요약

- 농어촌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원, 급감하는 인구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지역 소멸과 같은 담론이 등장할 정도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음. 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학교를 중심으로 풍부한 교육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관계 등의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농어촌 환경에 적합한 학교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할 잠재력을 지님.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농어촌 지역의 상황과 농어촌 교육이 갖는 강점에 주목하여 ‘농어촌 새로운 학교’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농어촌 교육에 대한 결핍 모델 극복을 목적으로 실시됨
- 2장에서는 농어촌 교육의 현황과 주요 정책을 검토함. 분석 결과 농어촌 교육의 인구학적 현황, 교육 규모를,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인구의 감소 경향, 과소화된 교육 규모 현상은 뚜렷하게 관찰됨. 시도교육청 등 정책당국은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여 통합운영학교 확대, 공동 통학구역 등 학교의 설립 및 운영 관련 정책, 교원 초빙이나 지역구분임용제 등 교직원 관련 정책, 공동 교육과정이나 지역 연계 교육과정 등 교육과정 정책, 통학 편의 제공과 학생 유치, 포괄적인 재정 지원사업 등 행·재정적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었음
- 3장에서는 ‘농어촌 새로운 학교’ 모델 개발을 위하여 먼저 국내외 미래교육 담론을 분석함. 해외 미래교육 동향으로는 국제기구(OECD, UNESCO) 담론을 분석하였고, 국내 담론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중심의 미래교육 담론을 분석함. 분석 결과 미래교육에 대한 논의는 ‘급격한 사회 및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요구’에서 출발하며, 기존의 지식습득, 학업성취 중심 교육체제의 한계와 ‘에듀테크를 활용한 개별화 맞춤형 학습으로의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음. 이에 따라 학교 기능의 확장, 새로운 교육 가치의 설정, 맞춤형·격차 해소·연결’의 도구의 설계, 교사의 역할 재정립과 농어촌 맞춤형 교원 지원 체계 구축, 지방분권형 교육 거버넌스와 농어촌 학교 모델의 결합 등의 농어촌 교육 개선의 도전적 과제가 제시되고 있었음
- 4장에서는 최근 「농어촌 참 좋은 학교 우수 사례집」 텍스트를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빈도/TF-IDF), 의미 연결망(키워드 네트워크), 에고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함. 분석 대상이 ‘우수 사례’로 선정된 학교들의 보고서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도출된 키워드와 네트워크 구조는 현재 농어촌 학교 현장이 ‘성과’로 인식하고 보고하고 싶어 하는 핵심 요소가 무엇인가를 정량적으로 보여줌.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첫째, ‘학

교'와 대등한 수준의 '마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둘째, 정량적 '학력'보다 정성적 '성장' 가치의 빈번하게 출현하고 있었고, 셋째, 매개 중심성이 높은 실행 도구로서의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있었음. 또한, '협력'과 '지원'으로 연결된 학부모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결론적으로, 해당 텍스트 마이닝 분석은 농어촌 참 좋은 학교의 우수 사례들이 '마을(토대)-프로그램(매개)-진로·행복(가치)-공동체(협력)'라는 4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음을 정량적으로 확인함

- 5장에서는 농어촌 학교 관계자 43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 또는 초점 집단 면담 조사를 실시함. 분석 결과 농어촌 학교의 어려움, 농어촌 학교의 가능성과 희망, 농어촌을 위한 새로운 학교 모델 상상,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요구 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음. 이를 종합하여 다음의 정책 과제를 도출함. 첫째, 농어촌 학교를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계하여 지역 교육 생태계의 허브로 자리매김해야 함. 둘째, 농어촌 학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교원 확보와 인사제도 혁신이 시급함. 셋째, 교육과정의 지역화와 유연화가 필요함. 넷째, 농어촌 학교의 작은 규모와 공동체적 환경은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유리하게 작용함. 다섯째, 농어촌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한 학교 행정 및 교육제도의 유연화가 뒷받침되어야 함
- 6장에서는 2장~5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 새로운 학교 모델을 구상함.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 학교의 새로운 모델을 '마을-권역 네트워크형 공공 학습 플랫폼'으로 정의하고 그 구성 요소(재배치)와 정책 과제를 제시함. '마을-권역 네트워크형 공공 학습 플랫폼'은 마을(생활권)을 중심으로 학교, 지역사회, 디지털 플랫폼, 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권역 단위(행정권)에서 유아-초등-중등-평생교육과 학교-가정-지역을 상식적으로 연결하고 결합하여 마을과 권역의 교육, 돌봄, 문화 기능을 수행하며, 인적 시설, 예산 자원을 공유, 분산, 연대하는 공공 학습 운영 플랫폼으로 1) 학교 기능 재배치('작은 학교'에서 '마을 배움 플랫폼'으로 전환, 배움 공간을 학교-마을 전역으로 확장, 전 생애 학습 체계 연계), 2) 학교 행정 재배치(단위 학교 중심 행정에서 순회형, 네트워크형 행정으로 전환, 권역 단위 공동 지원), 3) 교육과정 재배치(표준형 교과 운영을 넘어 권역 공동 교육과정, 지역 연계 교육과정, 온라인-오프라인 혼합형을 결합), 4) 학생 재배치(학령기 중심에서 지역 미래세대, 다문화/이주 배경, 성인까지 확장, 도농 순환형 학습 경험 설계), 5) 교사 재배치(교사 개인 역량 의존을 줄이고 교육자 공동체 및 네트워크 촉진자로 역할 확장)를 구성 요소로 함. 이를 종합하여 다음의 정책과제를 도출함. 첫째, 미래형 농어촌 학교 전환은 권역 단위 공공 학습 인프라 재설계로 추진해야 하며, 둘째 '(가칭) 농어촌 교육혁신 지원 특별법'(가칭)을 통한 교육과정, 학사, 인사와 인력, 재정과 회계, 시설과 공간, 협력과 위탁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셋째, 모델의 실증과 검증, 그리고 확산을 위해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시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 시범 사업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모델의 표준화와 확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제언

- 농어촌 교육이 갖고 있는 ‘결핍’이 아니라 ‘희망’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농어촌 새로운 학교 모델을 제시함.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학교 모델은 기존의 농어촌 교육 패러다임을 권역과 마을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가정하에 제시하고 있어, 전통적인 단위 학교 중심 모델이 아니라는 점에서 ‘농어촌 학교 모델’이라기 보다는 ‘농어촌 교육’ 모델에 가까운 것임
- 또한, 본 연구가 제시한 모델은 인구구조 변화, 지역경제와 생활 인프라의 쇠퇴, 돌봄 체계의 재편, 디지털 전환, 다문화 배경 인구의 증가, 기후 위기 등 복합 환경 속에서 필요한 농어촌 교육의 방향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 성과 중심의 처방적 접근을 넘어 거시적 관점에서 농어촌 교육의 재구성과 재구조화를 지향하고 있음.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가 제시한 모델의 구현과 이를 바탕으로 한 농어촌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국가, 시도교육청, 개별 학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언함
- 첫째, 국가의 정책 및 제도 차원에서 농어촌 교육에 관한 국가적 정의의 재정립이 필요함. 특히, 농어촌 교육은 ‘보편적 권리’이자 ‘지역 생존권’의 문제로 재정립되어야 함
- 오늘날 농어촌 교육은 교육 서비스 차원을 넘어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생존의 필수적인 공공재임. 그간 정책은 학생 수에 비례한 효율성의 논리에 집중하여 학교 소멸과 지역 소멸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였음.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은 이 점에서 농어촌 교육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어느 지역에 살든 교육권의 보장을 기본 철학으로 하고 있음
- 국가는 이를 위한 법 제도적, 재정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임. 본 연구에서 제안하였던 것처럼 농어촌 학교의 기본 기능 유지를 위한 최소의 인적, 물적 자원의 법적 보장과 권역과 마을 단위의 공공 학습 플랫폼 구축의 내용을 명문화한 ‘농어촌 교육혁신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이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또한, 교부금 배정의 기준을 학생 수 비례 방식에서 ‘공동체 유지와 교육의 질 보장’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임. 농어촌 학교의 소멸을 방어한다는 관점에서 미래교육의

실험장으로서 농어촌 학교를 육성한다는 관점으로 전환하여 과감한 국가 투자를 통해 도시가 부러워하는 교육 인프라를 농어촌 지역에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임

□ 둘째,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유연한 행정 체계와 혁신적인 인사 거버넌스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시도교육청은 교육자치의 중심으로 농어촌 교육 활성화의 실질적 실행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획일적'이고 '표준적' 접근 보다는 '지역맞춤형'의 유연하고 개방적 접근을 통해 농어촌 교육의 혁신을 주도해야 할 것임

○ 시도교육청은 정책 설계와 운영의 기본 단위를 단위 학교에서 벗어나 권역 단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교육청은 권역 단위로 교육 수요(학령기 학생과 성인 포함, 돌봄, 문화 등 포함)와 자원을 진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시도교육청은 행정 지원 차원에서 행정의 광역화와 집중화를 기반으로 한 행정 혁신 노력을 주도해야 할 것임. 농어촌 학교의 큰 고통 중의 하나는 과도한 행정 부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권역 단위 행정 시스템 도입을 제안한 바 있음.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 업무를 과감히 재구조화하여 통합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전문 행정 서비스를 권역별 허브로 과감히 이관하는 노력이 동시에 필요함. 이를 위해 교육장의 지위 및 권한 강화는 필수적임

○ 농어촌 학교의 교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교육청은 농어촌 특화형 인사 및 전문직 체제도 도입할 수 있을 것임. 농어촌 학교 근무를 기피 대상이 아니라 교육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경로로 디자인함으로써 농어촌 교육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임. 예컨대, 본 연구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농어촌 교육 전문직 트랙을 신설하거나, 농어촌 학교 장기근속 교사에게 다양한 인센티브(교육과정 설계 자율권 부여, 연구 안식년, 학위 과정 지원 등) 등을 제공함으로써 우수 교원의 자발적 유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임. 또한 농어촌 학교 중심으로 순환형, 공유형 교원 배치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교원 운용과 관련한 행정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마을 배움터로서 학교 기능 재배치, 지역에 머무는 모든 주민으로 학생의 재배치를 구성 요소로 하는 농어촌 새로운 학교 모델은 시도교육청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요청하고 있음. 시도교육청은 평생교육을 행정의 핵심 가치로 포용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권역 단위와 개별 학교 단위에서 실행하는 평생교육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행 재정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평생학습의 허브로서 학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마을의 연계가 중요하므로 시도교육청은 광역 단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역 기업, 공공기관을 잇는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활

성화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디지털 행정 혁신과 데이터 기반 지원을 통해 농어촌 학교의 요구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장학과 컨설팅 제공이 가능한 디지털 행정 체제로 전환할 필요도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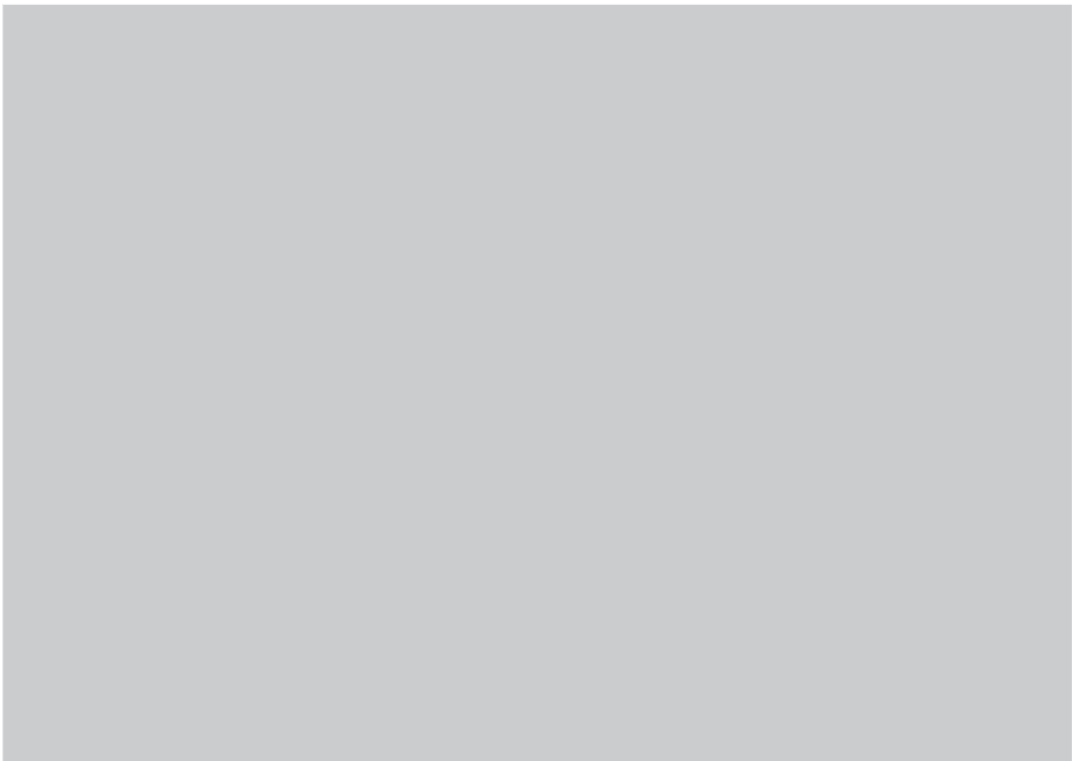
- 셋째, 개별 학교 차원에서 학교의 개방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형 공공 학습 플랫폼의 실질적 실행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농어촌 학교는 학교 시설의 사회적 복합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학교는 학생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를 위한 교육, 문화, 돌봄, 복지의 복합 공간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학교 내 유휴 공간을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장, 문화 카페, 공유 사무실, 주민 자치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이는 주민들의 학교 효용성을 체감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학교 폐쇄에 관한 사회적 방어막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농어촌 학교는 지역 기반 특성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농어촌 교육은 지역과 연결되고 삶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교육과정을 실험하는 장이 될 수 있음. 따라서 농어촌 학교는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역사, 생태, 문화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농어촌 학교만의 고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또한 농어촌 학교는 학교와 마을을 잇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마을-권역 네트워크형 공공 학습 플랫폼’으로서 학교는 개별 교사의 역량에 의존하는 학교가 아니라 다주체로서 교육자 공동체의 협업을 기반으로 함. 따라서 학교는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포용하는 교육공동체 형성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평생교육의 실행자이자 교육 거버넌스의 중요한 주체의 하나로서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지자체는 학교가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임을 인식하고 학교 대상의 단발성 지원(행사성 사업, 시설 지원 등) 뿐만 아니라, 지역의 생활 조건 개선을 위한 장기 투자(교통, 문화 접근성, 돌봄 생태계, 가족 정주 지원 등)를 통해 농어촌 교육 기반 강화에 기여해야 함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역의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 거버넌스의 중요한 축으로 마을-권역 네트워크형 공공 학습 플랫폼의 공동 기획자이자 공동 책임자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 지역의 평생교육 생태계와 학교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핵심 기획자이자 실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연계하여 평생교육의 물적, 인적, 교육 자원이 학교로 투입되는 한편, 학교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행·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함

- 농어촌 '새로운 학교' 개발 모델은 작은 학교 유지를 넘어 우리나라의 미래교육을 앞당겨 실험하고 실천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임.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가 제시한 '마을-권역 네트워크형 공공 학습 플랫폼' 모델은 농어촌 교육의 위기 대응을 넘어, 교육체제 전환을 통한 농어촌 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원도민일보(2024.1.9.). 양양에선 거주지 상관없이 초등학교 선택. 특색교육 가능한 공동학
구제 운영.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23043>.
2026.1.14. 인출.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n.d.). 교육정보.
<https://www.gwe.go.kr/main/content.do?key=bTlzMDcyMTA2MzI4MTc=#none>
2026.1.14. 인출.
- 경기도교육청(2025). 2025년도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 행정업무처리요령. 경기도 교육
청.
- 교육부(2022.12.6.) 보도자료. 교육부, 2023년 미래교육지구 33개 선정.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3
289&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
e=N](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3289&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2026.1.14. 인출.
- 교육부(2023.3.17.). 보도자료. 국가책임 교육·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활성
화 방안.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4
240&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
e=N](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4240&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2026.1.14. 인출.
- 교육부(n.d.). 교육발전특구.
<https://www.moe.go.kr/sub/infoRenew.do?m=0320&s=moe&page=72789>
2026. 1. 16. 인출.
- 교육언론창(2024.4.22.). 경북교육청, ‘공동교육과정’ 운영...작은학교살린다.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9>
2026.1.14.인출.
- 교육플러스(2022.12.4.) [김현섭 칼럼]이제는 지역 교육과정이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11> 2026.1.14. 인출.
- 국토교통부(2022). 지적통계. 국토교통부.
- 국회도서관(2023). 데이터로 보는 인구감소지역. Data&Law. 2023-5호(통권 제5호). 국회도
서관.
- 권순형, 정미경, 이강주, 허주, 민윤경, 정혜주, 박균열, 정규열, 이호준, 안병훈(2021).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기본연구.
- 권영락, 이미숙, 김혜숙, 유은정, 김찬국(2021).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국가·사회적 요구
조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도기, 이재덕, 김제현, 김세영, 반민수(2020). **농촌 학교 활성화를 위한 교육모델 개발 및 확산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서, 1-172.
- 김미경, 김경희, 김현미, 이수정(2022). **미래교육전망:UNESCO교육의 미래와 OECD 교육 2030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아미(2019). **OECD 학습 나침반 2030: 변혁적 역량과 민주시민교육의 접점**. 경기도교육연구원.
- 김용(2021). **농어촌 학교 우수교원 확보와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제 발전 방안**. **교육법학연구** 33(3). 1~20.
- 김정겸, 서민원, 김경원, 박선주(2022). **충남미래교육 2030 발전방안**. 충남대학교.
- 김정태, 박준오, 김혁, 오복주, 이상근(2008). **농어촌 유형별 지표 개발 보고서**. 통계개발원.
- 김지혜(2018). **미국의 초·중등교육 연계 현황**. 매일진 해외교육동향 332호 기획기사.
- 남신초등학교(2017). 2018학년도 남신초등학교 교사 초빙 공고.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s://school.cbe.go.kr/_cmm/fileDownload/namshin-e/M010301/9573bfb0a2b1898b4de0ee8f65217602 2026. 1.14. 인출.
- 남창우, 이동엽, 이영태, 권종실(2019). **부산 미래교육비전 및 실현 방안 탐색**. **교사교육연구**, 58(4), 609-620.
- 담양뉴스(2023.5.1.). 전남교육청 적정규모 학교 학생수 기준 하향. <http://www.d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59> 2026.1.14. 인출.
- 대한민국정책브리핑(2023.3.17.).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발표.<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557900>. 2026. 1.13. 인출.
- 류방란, 김경애, 이지미, 김근태, 김두환, 남기곤(2018). **인구절벽 시대 교육정책의 방향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현안보고.
- 머니투데이.(2025. 5. 21.). **인구감소에...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5년새 35%↑**. <https://www.mt.co.kr/policy/2025/05/21/2025052114152117955>. 2026. 1. 12. 인출.
- 문화일보(2024.7.18.) 부산·강원·전남·경북·경남교육청, 해외 유학생 유치 힘 모은다. <https://www.munhwa.com/article/11442214> 2026.1.15. 인출.
- 박근영, 남궁지영, 양희준(2025). **학생 이동 및 특성에 관한 연구 : 초등학교 학령기 인구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박정호(2015).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click”경제교육(2025.January). KDI경제정보센터.
- 서울시교육청(2024.11.26.). **보도자료**. 서울시교육청 2025년 1학기 농촌유학 신규 참여 학생 모집. <https://enews.sen.go.kr/news/view.do?bbsSn=187833&step1=3&step2=1>.

2026. 1. 16. 인출.
- 성열관, 강에스터, 이형빈(2019). **저출산시대 도래에 따른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효율적 편성·운영 방안 연구**. 교육부.
- 세종소리(2024.7.30.). “122억 3년간 신규지원”... 세종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에. <https://www.sj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70335> 2026.1.16. 인출.
- 순천복성고등학교(2024). 2025학년도 광주교대 전라남도교육감추천 전형 대상자 선발 안내. <https://school.iamservice.net/articles/view/147899071> 2026. 1.14. 인출.
- 스코틀랜드 e-sgoil[e-school] 홈페이지 <https://www.e-sgoil.com>. 2026. 1.20. 인출.
- 신다영, 이경림(2025). 농어촌 학교의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의 유형과 특징에 관한 연구:2020-2024년 ‘농어촌 참 좋은 학교’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2025 한국평생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89-300.
- 양희준, 최원석, 김진희, 박근영, 박상옥, 허준, 이재준(2018).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농촌교육 실태 및 대응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양희준(2022). **지방 소멸 시대의 농촌 교육, 우리가 몰랐던 진실들**. 학이시습.
- 양희준, 권순형, 임중현, 정해철, 황지원(2024). **인구감소지역 초·중등교육 규제 개선 방향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이슈페이퍼3.
- 이광현(2015). **학생수 감소에 따른 초·중등 교육정책 현안과 과제**. 교육정책네트워크 이슈페이퍼4.
- 이상호, 서룡, 박선미, 황규성, 김필(2021).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사례와 모델**. 한국고용정보원.
- 이영희, 윤지현, 홍성근, 임재일, 백병부(2018). 미래교육관련 연구 메타분석을 통한 미래교육의 방향. **교육문화연구**, 24(5), 127-153.
- 전남교육통(2024.3.26.). 전남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으로 소멸 위기 극복. <https://www.jnedu.kr/news/articleView.html?idxno=79678> 2026.1.14. 인출.
- 전남교육통(2025.11.14.). 지역연계교육과정, 학교 울타리를 넘어 성장의 장을 넓히다. <https://www.jnedu.kr/news/articleView.html?idxno=106150> 2026.1.4. 인출.
- 전라남도교육청(2023). **전남 교육정책과 지속가능한 발전교육(ESD)**. 전남도교육청.
- 전라남도교육청(2025). **2025 전남교육 주요업무계획**. 전라남도교육청.
- 전라남도교육청(2025). **2026학년도 초빙교사 임용업무 처리 기준**. 전라남도교육청.
- 정미경, 허주, 권순형, 민윤경, 박상완, 이상은, 이슬아(2020). **공교육 혁신을 위한 탄력적 교육 체제 운영 방안: 통합운영학교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정윤경(2023). 전환시대, 미래교육의 방향 탐색:OECD 2030와 유네스코 2050 보고서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21(4), 1-22.
- 정진곤(2005). **학교와 사회와의 연계:‘경기도 교육지원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한 일반행정과**

- 교육행정의 연계방안 탐색. *열린교육연구*, 13(2), 139-156.
- 조상식, 이수정, 박환보(2021). 2030 서울혁신미래교육 개념 및 비전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 조영태(2021). 인구 미래 공존. 북스톤.
- 조윤정, 배정현, 권순정, 박대식, 윤선인, 임고운(2023). 경기미래교육 정책의 방향과 중장기 과제. 경기도 교육연구원.
- 중앙농어촌 교육지원센터(2020). 2020 농어촌 참 좋은 작은학교 사례집. 중앙농어촌 교육지원센터.
- 중앙농어촌 교육지원센터(2021). 2021 농어촌 참 좋은 작은학교 사례집. 중앙농어촌 교육지원센터.
- 중앙농어촌 교육지원센터(2022). 2022년 농어촌 참 좋은 학교 사례집. 중앙농어촌 교육지원센터.
- 중앙농어촌 교육지원센터(2023). 2023 농어촌 참 좋은 학교 우수사례 모음집. 중앙농어촌 교육지원센터.
- 중앙농어촌 교육지원센터(2024). 2024 농어촌 참 좋은 학교 우수사례 모음집. 중앙농어촌 교육지원센터.
-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2025). 2025 농어촌 참 좋은 학교 우수사례 모음집. 공주: 국립공주대학교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
- 진숙경, 박진아, 장재규, 조민지(2024). 경기도교육청 교사 배치 방안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정책연구.
- 채재은, 박환보, 박범순, 한준, 김은미(2024). 2024 유네스코 미래담론연구. 교육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최근정(2024). '대학 밖 대학'과 들뢰즈의 '학습배치'. *평생교육학연구*, 30(2), 54-99.
- 충청북도교육청(2023.8). 제1차 작은학교 활성화 종합계획. 충청북도교육청.
- 하혜영, 류영아(2025). 인구위기와 축소사회대응 III. 인구감소지역 지방행정·재정체제 개편방안. 대한민국 국회.
- 한국고용정보원(2024). 지방소멸위험지수 원자료(2024.3.).
<https://www.keis.or.kr/keis/ko/bbs/145/detail.do?pstSn=63579&pageIndex=1&pageItm=10&searchOrderSort=0&searchGbn=0>. 2026.1.14.인출.
- 행정안전부(2021).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 제2021-66호(2021.10.19.)
- 행정안전부(2024.6.).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 호남교육신문(2024.11.26.). 제한적 공동학구제 작은학교 살리기 효과 톡톡.
<https://www.ihop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798>. 2025.3.3.인출.
- OECD(2018).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OECD

Publishing.

OECD(2019).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OECD Learning Compass 2030 (A Series of Concept Note)* . OECD Publishing.

OECD(2020). *Back to the Future of Education: Four OECD Scenarios for Schooling.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 OECD Publishing.

OECD(2020). *Education policy outlook in Finland*. OECD Publishing.

UNESCO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2).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유네스코한국위원회.

UNESCO(2021). *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 UNESCO.

文部科学省(2017.4.1.). 義務教育諸学校等の体制の充実及び運営の改善を図.

연구책임자 허 준 (영 남 대 학 교)
공동연구자 양희준 (한국교육개발원)
조현주 (영 남 대 학 교)
연구조원 곽관경 (영 남 대 학 교)

농어촌교육 위탁연구-202502

농어촌 ‘새로운 학교’ 모델 개발 연구

- 발 행 2026년 1월
- 발 행 인 박상옥
- 발 행 처 충청남도 공주시 우금티로 753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 유아교육관 303호
홈페이지 : <http://prhome.kongju.ac.kr/sites/korec>
전 화 : 041-850-6087
- 인 쇄 처 대구프린팅(053-811-2580)